

---

# 마가복음 강해

##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Mark

by  
**Donald S Fortner**

번역  
박영호

---

# 마가복음 강해

##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Mark”

by

**Don Fortner**

© Don Fortner 2016.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

## 목차

- 1 장. 마가복음—종이신 그리스도
- 2 장. “복음의 시작” — 마가복음 1:1-8
- 3 장. 우리 구원자의 침례, 유혹, 그리고 첫 제자들—마가복음 1:9-20
- 4 장. 기적의 날로부터의 공과—마가복음 1:21-34
- 5 장. 구원자와 함께하는 일요일—마가복음 1:35-39
- 6 장. 어떻게 죄인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가?—마가복음 1:40-45
- 7 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마가복음 2:1-12
- 8 장.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마가복음 2:13-22
- 9 장. 안식일의 주—마가복음 2:23-28
- 10 장. 그분을 엿보거늘—마가복음 3:1-35
- 11 장. “그들이 그분을 엿보거늘”—마가복음 3:1-12
- 12 장. 첫 열두 명의 전도자들—마가복음 3:13-21
- 13 장. 복음의 영광과 불신자의 위험—마가복음 3:22-30
- 14 장. 주님의 가족—마가복음 3:31-35
- 15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가복음 4:1-20
- 16 장. 개인적인 책무의 몇 가지 문제들—마가복음 4:21-25
- 17 장. 영적 성장—마가복음 4:26-29
- 18 장. 겨자 씨의 비유—마가복음 4:30-34
- 19 장.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비유—마가복음 4:35-41
- 20 장. 죽은 자 가운데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마가복음 5:1-20
- 21 장.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마가복음 5:21-34
- 22 장. 달리다굽—마가복음 5:21-43
- 23 장.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마가복음 6:1-6
- 24 장. 열 두 제자를 부르심—마가복음 6:7-13
- 25 장. 목 베인 침례자 요한—마가복음 6:14-29
- 26 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마가복음 6:30-46

- 
- 27 장. 선한 격려를 위한 다섯 가지 이유—마가복음 6:45-56
- 28 장. 바리새인들의 종교—마가복음 7:1-13
- 29 장. 완전한 타락—마가복음 7:14-23
- 30 장. 필요한 공휴, 구한 공휴, 주어진 공휴—마가복음 7:24-30
- 31 장. “에바다!”—마가복음 7:31-37
- 32 장. “그가 다 잘 하였도다”—마가복음 7:37
- 33 장. 광야에서 찾은 만족—마가복음 8:1-9
- 34 장. 누룩을 경계하라!—마가복음 8:10-21
- 35 장. “저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마가복음 8:22-26
- 36 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마가복음 8:27-33
- 37 장. 가장 깊이 중요한 진리들—마가복음 8:34-38
- 38 장. 주의 변화로부터의 공과들—마가복음 9:1-13
- 39 장. 환영 받은 개입—마가복음 9:14-29
- 40 장.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마가복음 9:30-37
- 41 장. 지옥의 소금과 은혜의 소금—마가복음 9:38-50
- 42 장. 혼인과 자녀에 대한 주의 가르침—마가복음 10:1-16
- 43 장.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마가복음 10:17-27
- 44 장. 우리 구원자의 놀라운 가르침—마가복음 10:28-34
- 45 장. 다섯 가지 큰 것들—마가복음 10:35-45
- 46 장. “예수께서 여전히 서 계셨다”—마가복음 10:46-52
- 47 장.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마가복음 11:1-11
- 48 장. “앞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마가복음 11:11-19
- 49 장. “하나님을 믿으라”—마가복음 11:20-26
- 50 장. 세 가지 영적 사악함—마가복음 11:27-33
- 51 장.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마가복음 12:1-12
- 52 장. “그 외식함을 아시고”—마가복음 12:13-17
- 53 장. “산 자의 하나님”—마가복음 12:18-27
- 54 장. “집은 가까우나, 길을 잃었다!”—마가복음 12:28-34
-

- 
- 55 장. 성전 가르침—마가복음 12:35-44  
56 장. 어떤 가난한 과부의 공과—마가복음 12:41-44  
57 장. “재난의 시작”—마가복음 13:1-8  
58 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마가복음 13:9-13  
59 장. “멸망의 가증한 것”—마가복음 13:14-23  
60 장. 주께서 오신다!—마가복음 13:24-31  
61 장. 아무도 모르나니—마가복음 13:31-37  
62 장. 신뢰의 하나님과 따를 본—마가복음 14:1-9  
63 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좋은 일—마가복음 14:3-9  
64 장. “마련되고 예비된”—마가복음 14:10-16  
65 장.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공과—마가복음 14:17-25  
66 장. 큰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자—마가복음 14:26-31  
67 장. 겻세마네—마가복음 14:32-42  
68 장. 배신—마가복음 14:43-52  
69 장.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가니”—마가복음 14:53-65  
70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마가복음 14:66-72  
71 장. 바라바:대속의 그림—마가복음 15:1-15  
72 장.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가복음 15:15-39  
73 장. 무엇이 그를 확신시켰는가?—마가복음 15:33-39  
74 장. 그가 왜 버려지셨나?—마가복음 15:34  
75 장. 구원자의 장례—마가복음 15:39-47  
76 장. “안식일이 지나매”—마가복음 16:1-8  
77 장.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마가복음 16:9-14  
78 장. 위대한 위임—마가복음 16:15-18  
79 장. “그 후에”—마가복음 16:19-20
-

---

## 1 장. 마가복음—종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45 에 있는 우리 구원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분명한 결론을 제시한다. 기억하라, 마가의 목적은 그분의 특징 안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신 우리 구원자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다.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전혀 다른 계획

사복음서 이야기 각각은 전혀 다르다. 각각은 특정한 특징 안에 있는 우리 구원자를 제시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주 예수의 네 가지 전기로서 읽는 것은 잘못이다. 그 네 권은 전혀 전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전기식의 인물 스케치들이다. 각각은 다른 것과는 다른 것이 의도되어 있다. 각각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 구원자를 제시한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역사에 대한 네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을 준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특징을 제시한다.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분을 제시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제시한다.

### 계보가 없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왜 우리 주의 승천의 기록이 없는지, 마가복음에는 왜 그분의 계보 기록이 없는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

---

긴 적이 없었는가? 누가는 사람이신 우리 주의 계보에 대한 그 자신의 기록을 준다. 그러나 요한은 그분의 계보나 그분의 승천에 대한 아무 기록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왜? 그 답은 각각에 대한 전혀 다른 계획을 기억할 때 분명하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제시하며, 누가는 그분을 구약에서 약속된 사람으로 제시한다.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계보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경우에서 그분의 승천 기록은 충분하다. 요한은 구원자를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위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축복 받으실 그 한 분으로 제시한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의 계보나 그분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그분의 계획에 모순될 것이다. 마가는 오직 승천만 언급했는데, 그의 의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성공했으며, 아버지께 의해 열납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므로,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왕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1-3; 10:10-14).

### 종이신 그리스도

마가의 복음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사들과 행사들과 고난의 기쁜 이야기”이다 (John Gill).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복종에 관한 모든 것이다. 마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 주의 설교에 대하여 거의 자세히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그분의 기사들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들을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

---

로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간결함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마가가 단지 마태복음으로부터 어떤 사실들을 복사하였다거나, 혹은 그는 베드로가 그에게 기록하도록 얘기하여 준 것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마가의 기록의 계획을 놓치고 성령의 감화와 권위를 음해하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얻었으나, 그러나 그는 신성한 감화로 기록하였다.

J.C. Ryle 은 마가복음이 “독립적인 증인의 독립적인 이야기, 그의 말을 쓰기 보다는 우리 주의 일의 기록을 쓰기 위하여 감화를 받은 자로…성경의 나머지 모두처럼, 성 마가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것’이며 모든 말이 ‘유익하다.’”라고 매우 정확히 보았다.

## 마가 자신

우리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행하셨던 한 분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순종에 대한 이 계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며, 언제나 신뢰할만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곳에서 그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불린다. 그는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여행에 동행했고 그 때 충직하지 않은 종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였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 사역의 압박: 지속적인 반대, 생색나지 않는 수고, 그리고 가혹하게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견딜



---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엄마께 향하여 집으로 도망갔다. 이것은 그토록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가를 우리가 본 유일한 것이 아니다.

만약 마가 형제를 만나고 싶다면 14 장을 펼쳐 보라. 여기 이름도 없는 젊은 이가 있으며, 그는 아마도 마가 자신이다. 마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이는 성경에서 이 사건에서 단 한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다. 겐세마네에서 우리 주께서 체포되신 후, 우리는 제자들이 그분을 보기하였다고 듣는다. 그러나 마가는 51 절과 52 절에서 보게 되는 것을 첨가한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흠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흠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던 그 사람이다. 믿음직한 종보다 조금 덜한, 때로 매우 약하였던 사람이 “그는 쏘하지 않으리라.”고 기록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완전한 신실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려 선택 받았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주께서 실패한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도 사용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26-29).

## 베드로의 영향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 안의 아들이었다 (베드로전서 5:13). 그는 베드로의 사역의 영향 아래 회심 하였으며, 베드로에 의해 가르침 받았다. 그는 그가 그랬을 것처럼, 그의 목자, 베드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의 복음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았던 가르침과 관점들을 반영한다.

---

사실, 사도행전 10:38 을 보게 된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의 매우 간략한 결론을 주는 것을 볼 것이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이 열여섯 장 안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였음을 본다.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태와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마가나 누가는 아무도 사도가 아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것은,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그들은 배웠다 (로마서 10:17).

## 유익한 마가

이 복음 이야기의 인간 저자는 마가라는 요한이었으며, 바나바의 누이인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사도행전 12:12; 골로새서 4:12).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마가를 두 번째 사역 여행에 데려가기를 거절 하였음으로 결국은 갈라졌다 (사도행전 15:36-41). 그러나 그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어떤 지점에서, 바울과 마가는 약간의 울타리 수리를 하였고, 그의 훗날에 나이든 바울은 마가가 복음에 충직하였던 몇 안되는 자들 중 하나임을 발견하였다. 그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11).

---

## 마가의 전갈

우리 주의 성육신과 탄생의 기록으로 시작하는 대신, 그분의 유년 시절과 초년 시절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대신, 마가는 즉시 그의 사역과 함께 시작한다. 1 장 1 절을 보라.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말하는 이야기에 끝이 없으므로,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구속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그 이야기는 영원히, 영원 가운데에서 조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워서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는 “영원”이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날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우리들) 수종하리라.” (누가복음 12:37). — 우리는 결코 그 이야기의 끝에 오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영원하다.

## 충만한 때

침례자 요한과 그에 의한 우리 주의 침례의 사역을 기술한 후에 (1:2-13), 마가는 광야 유혹에 대한 아주 짧은 기술을 제시한다 (12-13 절). 하지만, 그의 간결함 가운데에서 조차도, 마가는 여호와와의 종의 신실함이 입증되었던 그 큰 시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일들을 더한다.

마태와 누가는 우리 주께서 광야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가의 말은 더 강하다. —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12). 40 일 간 지속된 유혹

---

을 말한 사람과, 주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한 사람이 마가이다.

그리고, 그는 1 장의 14 절과 15 절에서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을 기술하기 시작한다. —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왔고, 하나님 마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역사적 장면 속으로 걸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하셨던 때가 충만하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사람들 한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만약 우리가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때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여기 오셨다 (로마서 5:6; 갈라디아서 4:4-5).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4-5). 그분은 여기에 여호와와의 종으로서 오셨다 (빌립보서 2:5-8).

### 첫 번째 제자들

우리 주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심을 공표한 후 즉시,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하면서, 마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16-18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음을 듣는다. 회개하고 믿은 자들, 그리스도께 나오고 따르는 자들, 그분의 왕국

---

안으로 난 자들이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른다.

## 풍성한 활동

마가복음은 풍성한 활동의 책이다. 그분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리고 하나의 기적에서 다른 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신다. “즉시 (immediately),” “지체 없이 (forthwith),” “당장에 (anon),” 그리고 “즉시 (straightway)”라는 말이 이 열여섯 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마주친다. 많은 장들이 “그리고 (And: 역주 -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생략 되었음.)”라는 말로 시작한다. 만약 마가가 우리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구두로 말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천천히 하세요. 숨을 쉬세요. 너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책 안에서 주고자 의도하신 의미이다. 마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으며,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심지어 그분의 시간까지도 갖고 계시지 않았다. — 아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그와 같은 종이 되심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 주의 갈릴리에서 사역들,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들을 선포하면서, 번개처럼 움직인다 (1:21-3:12; 5:25-34; 6:53-56; 7:24-37).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 손에 가진 종으로서 우리 주의 능력과 권위의 연속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4 장에서 네 가지 왕국 우화를 주시고 난 후, 그분은 성난 바다와 그분의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분의 간단한 말

---

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다 (4:35-41). — 그분은 가련한 거라사인에  
게서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5:1-20). — 한 여인은 12년 된 혈루  
병을 그분의 옷깃을 만짐으로 치유되었다 (5:25-34). — 그분은  
야이로의 열두 살 된 딸을 사망에서 일으키셨다 (5:35-43). — 그  
분은 적은 것을 기적적으로 많게하여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다  
(6:34-44; 8:1-9). — 우리는 두 번이나 소경에게 시력을 주신 것  
에 대하여 일게 된다. — 반복해서, 우리는 우리 온유한 구원자께  
서 궁핍한 혼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신 것을 본다.

### 은혜의 그림들

이 기적들이 의도하는 것은 여호와와 종인 그 사람, 하나님인 그  
사람인 우리 구원자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고, 그가 그분 자신의  
덕으로 인하여 그리고 죄들을 용서하식 위하여 그가 영원 가운데  
이루셨고 갈보리에서 이루시려 하는 희생의 덕으로 인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2:9-10).

따라서 이 기사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의 경이로운 역사의 그림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은 분명하  
다. — 문둥병자처럼,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  
리를 어루만지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더럽히신  
분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속한 전능  
한 접촉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 12년 된 혈루병을 가진 여인, 그  
녀가 가진 모든 것을 무가치한 의사에게 허비해 버린 여인처럼, 그  
분을 만짐으로 얻은 덕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처럼, 자녀의 떡에 대하여 주장할 것이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공활을 얻었다. — 거라사인 처럼, 우리는 주님의

---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졌고 자유하게 되었다. — 눈먼 자처럼, 우리 주는 우리에게 그분을 볼 눈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볼 눈을 주셨다. — 야이로의 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셨다.

## 죽기로 한 결정

8 장의 시작에서 (31 절), 우리는 여호와와 종이신 우리 구원자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본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견디시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을 부시들처럼 만드셨다 (이사야 50:5-7). —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가 그들의 왕이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적 보좌 위에 앉도록 허락하기를 바라고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세째날 다시 사시고, 그분의 피의 속량의 덕과 효험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 그분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한 왕으로서 여기 오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음의 고통을 견디시므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여기 오셨으며, 아무것도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단념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 베드로의 반응

주님의 선포된 계획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라 (8:32). —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말에 대한 더 충분한 인용을 한다. —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

---

다.” (마태복음 16:22). 베드로는, “당신의 이 몸을 지키소서, 주여.”라고 말했다. 그것은 언제나 곤란을 일으키는 육체의 반응이다. “몸을 지키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며 엄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33 절).

Gill 이 제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생각하건데, “주님은 그를, 비록 아주 독특한 방법이지만,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면서, 그의 마음이 확고해지고, 그가 여기 오신 이유를 단념시키려는 마음을 만지면서 꾸짖으셨는데, 그 날카로운 분노가 마귀에게만 하였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사용하심으로 보인다.” 주님은 베드로의 언급에 대한 원천과 이유를 아셨다. 사탄처럼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육체는 언제나 육체에 가장 쉽고 가장 매력적인 그것을 선택한다.

34-38 절에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잘못된 제자 사이의 이 대화의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면 (그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의지를 그분의 뜻에 포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삶의 법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는 예에서 하셨던 것이다 (베드로전서 2:21).

## 변화

9 장에서 우리는 마가의 변화산 이야기를 본다.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 절). 그리고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 가셨고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왕을 볼 때까지 사망을 맛보지 않았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16-18 에서 이것을 인용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이 충고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에 대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계획은 우리가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의 끔찍한 맛으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다.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는 우리가 그것을 결코 맛보지 않도록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사망을 맛보셨으며 (히브리서 2:9),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고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7:22-26).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가족, 그의 영원한 영광, 그의 자녀들, 그의 왕국의 시민과 상속자들을 보고 누리게 될 자들을 확인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린 자들이고 (9:17-24), 그분의 전능한 품으로 안기는 작은 아이들 같이 될 것이며, 주와 구원자로서 그를 신뢰하며 (36-37 절), 그분 안에서 그분

---

에 의해 축복받을 것이다. 마가만 그분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그분의 팔에 그 작은 아이들을 안으셨음을 말한다 (10:13-16).

## 돈 바꾸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땅 위에서 우리 주의 마지막 주가 11장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다시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할 감화를 받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교.” (15-16 절).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2:13-16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그 사건은 우리 주의 사역의 시작에 일어났다. 마가가 기록한 그 사건은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에 일어났다. 두 번째로, 주 예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엮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마가는, 그분은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셨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성소 외뜰에 있는 놋제단에 제물의 피를 받는 것과 그것을 제단 앞에 있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매년 대체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좌 위에 그 피를 뿌렸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역사에 대한 큰 상징이었다.

제사장들과 제물들이 예표였던 그 분이 이 모든 것을 끝내시려 오셨다. 그분은 누구든 성전 안으로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제물을 끝내셨다.

---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로마서 10:4). 이런 행동 안에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 더 많은 질문들

마가복음 10-13 장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자에게 물었던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0 장에서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젊은 부자 통치자의 질문과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한다. 그분은 혼인은 영원하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한다. 젊은 부자 통치자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믿음 뿐이고, 그 믿음은 주이시고 하나님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 한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통치자 사이의 대화를 듣고, 물질적 재산과 종교적 도덕성에 있어서 그토록 부자인 사람이 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주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주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11 장에서 그분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분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거절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하셨다.

12 장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한 율법사가 그들의 질문으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셨

---

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은 시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분을 고소하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이 말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그분이 부활을 부인하도록 비틀어진 것을 말하도록 그분에게 속임수를 쓰려 하였다. 그리고 율법사는 그분을 속여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13 장에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주 예수께 성전을 허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질문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절)라고 물었다. 그 장의 나머지는 우리 구원자의 대답, 그들과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들을 따라가게 되는 큰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선한 행위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에 대하여 말한다. 대개 그들의 의도는 자기 의의 거짓된 선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14 장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선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준다. —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 절).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날카롭게 그녀를 비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나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6-9).

주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죄로 충만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이 분명하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 주에 의해 불려진 것이 유일하다. 그 사실은 매우 교훈적이다. 선한 행위들은 대부분 상상되는 것들이 아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다. 이 귀한 여인은 주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선한 행위는 개인적인 희생을 포함한다. 그것은 언제나 대가가 있다.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자연 발생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선한 행위는 구원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행위이다.

## 십자가 처형

15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 마가는 이것을 정의와 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하게 잔인한 행동이라고 묘사한다. 주 예수는 패배한 사람으로, 비극적 실패로, 그 뜻을 소망 없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몰아세워 졌고, 무자비하게 맞았으며, 경멸 당했다. 마침내, 두 강도 사이에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못 박혔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가?

대제사장들이, 그분이 벌거벗은 채, 나무 위에, 자신의 피와 사람들의 배설물로 덮이고, 비웃음 당한채 매달린 것을 보면서, “저가

---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1 절)고 말한 것은 놀랄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상한 말이다.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지금까지 나온 복음의 가장 주목할만한 말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적들조차도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세 가지 일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주께서 하도록 만들 수 없었던 세 가지 일들이 있음을 본다. 첫째, 그들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만들 수 없었다. —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4 절). 그분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열두 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빌라도는 기이히 여겼다.

둘째, 그들은 그분이 마시게 만들 수 없었다. —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3 절). 왜 안 받으셨나? 그분께 드러진 혼합물은 그가 견뎠던 고통에서 약간은 우리 주로부터 덜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그들이 주는 것을 마셨더라면, 십자가의 고통의 영향과 모든 지옥의 짐의 무게와 그분 위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자신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그분을 죽게 만들지 못했다. —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7 절). “그분은 스스로 영을 놓으셨다.” 그분은 그의 영을 떠나게 하셨다. 그분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손에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그분 자신

---

의 자원한 뜻으로,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0:17-1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8-11).

## 부활

마지막 장과 우리 주의 부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유를 본다. 그분은 침묵하였고 빌라도나 군중에게 호소하기를 거절했는데, 앞으로 올 날, 부활 능력과 영광 안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심을 고백하게 될 때를 위한 기초를 놓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 주변에서 있던 자들조차도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초를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하려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고 믿는 모든 자의 공의로운 분이 되시도록 기초를 놓고 계셨다. 그가 죽을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로써 그가 모든 자의 주로 찬양 받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망을 극복하도록 하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사망의 권세와 끔찍한 찌름에서 영원히

---

구원하시려 자원하여 자신을 내려 놓았다. 그것이 복음이다. — 그가 다른 자들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을 구워하실 수 없었다. 그것이 마가의 이야기다.

## 내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마가의 복음서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드리고자 한다. 자신이 여기서 한 일을 말한 사람은 마가이고 마가 뿐임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6:7). 이 구절에서, 자신이 신실하지 못했던 제자였던 그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고 믿음의 아버지이며, 그의 목자, 베드로에 대하여 한 마디 한다. 부활하신 주의 무덤 가에서 있었던 청년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가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 같은 우리 모두 (약하고,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죄로 충만한 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를 일깨우고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충만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사이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했다. 16 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는 진행을 본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와 같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교회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 “주 예수께



---

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

## 2 장. “복음의 시작” — 마가복음 1:1-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1-8)

전도자 마가와 그의 복음에 대한 많은 고찰이 있다. 나는 토끼를 뒤 쫓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찰을 남겨 둘 것이다. 우리는 계시된 것에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그 책은 “성 마가에 따른 복음”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적과 활동과 고난들에 대한 기쁜 이야기이다.” (John Gill).

이 복음 이야기의 인간 저자는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 누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사도행전 12:12, 25; 골로새서 4:12). 그는 아마

---

도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동일한 마가 일 것이다 (베드로전서 5:13).

마가의 복음서는 다른 셋과는 다소 다르다. 그는 우리 주의 출생과 초기 삶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는 우리 주의 설교에 대하여 거의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분의 기적들에 대하여 다른 것들보다 더 아주 자세히 제시한다. 우리 구원자에 대한 네 가지 감화 받은 이야기들 중에서, 마가의 이야기가 가장 짧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덜 중요하지 않다. 마가는 다른 기록자보다 훨씬 간결한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베드로가 그에게 기록하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마가의 일에 대한 목적을 놓치는 것이고 성경의 감동과 권위를 음해하는 것이다. J.C. Ryle 은 마가의 복음이, “우리 주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도록 감동 받은 자인 독립적인 증인의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매우 합당하게 언급한다.

이 열 여섯 장을 숙고할 때, 우리는 존경심으로 모든 말씀을 읽을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을 소망한다. Ryle 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것처럼, 성 마가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며, 모든 말씀은 ‘유익’하다.”

성육신과 탄생과 우리 구원자의 초기 삶을 지나면서, 마가는 그의 복음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시작점이 침례자

---

요한의 사역임과, 주 예수께서 삼십 세쯤 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시작된다.

##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 절). — 분명히, 마가는 이 때가 복음의 시작이라거나,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도록 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 주변에는 몇몇의 종교 사기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명령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8)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산에서 우리 타락한 부모에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전해졌다 (창세기 3:15). 그것은 구약 시대를 통하여 욥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에 의해 믿어졌으며, 그리고 그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마가복음의 이 여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 시대, 이 은혜 시대가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서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깨닫기를 의도한다. 요한의 사역은 율법 시대의 종말과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의 성취와 마침과 이 은혜 시대의 여명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성경이 천명한 것이다 (마태복음 11:13; 누가복음 16:16).

성경 안에 계시된 복음,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전파되고 자세히 설명된 복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것은 침례교 복음, 개신교 복음, 가톨릭 복음, 아르미니우

---

스 복음, 혹은 심지어 칼빈주의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은 신학 체계나 교파적인 신조나 종교적 실행이 아니다. 복음은 한 인격이다. 마가가 그렇게 부른다. 아 니, 성령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것을 보는가? 거의 대다수 사람이 보지 못한다. 그는 복음의 저자이며, 위대한 전도자이고, 본질이며, 그 말씀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며,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 에 대한 계시와 선포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타락한 죄인들의 구속자이고 구원자, —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 그 백성의 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자신을 드렸으며, 평강을 이루고, 용서를 받았으며, 영원한 의를 가져왔고, 영원한 구속을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기 위하여 사시고, — 그의 구속 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공급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광의 왕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선포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계시와 지식으로 시작했고 그 시작으로 한다.

## 기독교의 주장

1 절을 다시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그것은 유일하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기

---

독교의 주장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혹은 그들의 가르침의 추론으로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신성과 신격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할 때, 그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는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의 문제로 그것을 단지 선포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고,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와 그 영과 하나이고 동등하며, 동일한 본성과 본질에 속하였고, 동일한 온전함과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영원히 축복받을” 분이다.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복음 전체가 여기에 서든지 멸망한다. 기독교는 여기에 서든지 멸망한다. 그리스도의 만족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중보와 효험에 속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무한한 효험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의 죽음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자들은 구원 받아야 하고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험을 부인한 자들은 사실상 그분의 위격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인데, 만약 그분의 피가 효험이 없다면, 그분의 희생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John Gill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

“마태는 그의 복음을 인성으로 시작하였고, 마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모두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본성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이며,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증거는 한 사람 안에 연합된 그분의 본성 모두에 관한 진리에 포함된다.”

### 성경의 단일성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2-3 절).

Matthew Henry 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과 동일하게 시작하고 계속된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정 26:22).”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꾸준히 늘어나는 선명함으로 반복하여 예언되었던 사건을 본다. 약속은 아담에게 하였으며, 열조들에게 새롭게 되었고, 구속자가 오실 것이 선지자들에게 반복되었다. 그의 탄생, 그의 성품, 그의 순종의 삶, 그의 죄 속량의 죽음, 그의 부활, 심지어 그의 선주자가 예언되었고 그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표 되었다. 우리 구원자의 구속에 대한 위대한 역사는 구약 성경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선포되었던 것처럼 모든 세부적인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울이 안디

---

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다. —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도행전 13:29).

이 단락에서 마가는 말라기 (3:1)와 이사야 (40:3) 모두에서 인용하며, 두 구약의 선지자들은 삼백 년 이상 이전에 살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에 의한 구속에 대하여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마가는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참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1. 요한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였으므로, 모든 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게 될 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이다.
2.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3. 요한의 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공허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이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순수한 회개 가운데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지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 도덕적 율법, 초자연적 사건들, 그리고 성취된 예언들만 보았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

절대적으로 영적 유익이 없이,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이 읽었던 것이다. 구약에 의도된 말씀은 그리스도이다. 우리 주는 그분이, “이들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그것이라” (요한복음 5:39)고 말씀하실 때 구약을 가리키고 있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한 계시이다. 우리는 두 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

## 믿는 자의 침례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5 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침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 이하로 침례를 말해서는 안된다. 침례는 구원의 공로나 효험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적이고, 사소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침례는 그것으로 은혜가 수여되거나 심지어 받게 되는 성례가 아니지만, 신성한 경배의 의식이며, 그로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과 그분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며,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는다. 침례자 요한을 우리의 예로 취하는 것으로, 세 가지 사항이 침례에 대한 복음적인 의식에 대하여 이 구절들에서 분명하게 계시된다.

### 1.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

우리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행하였다.”는 것을 읽는다. 우리는 그가 물을 뿌렸다던가, 아니면 부었다든지가 아니라, 그에게 나온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담궜다, 밀어넣었다, 가라앉혔다)라고 읽는다. 신약 성경 안에서 “침례를 베푼다”로 번역된 말은 솔직히 “뿌리다” 혹은 “붓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담궜다, 밀어넣다, 가라앉히다” 이다. 잠김은 침례의 한 방식이 아니다. 잠김이 침례이다.

## 2. 침례는 구속과 관련이 있다.

요한은 “죄들에 대한 사함을 위하여 (이르게 하거나 그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그는 침례가 우리 죄들을 씻어내거나 용서한다고가 아니라, 침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한 우리 죄들을 씻음과 사함을 상징하고 묘사한다고 전했다 (요한 복음 1:29). 침례가 거듭남이나, 회심이나, 성화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례가 할례를 대신하지 않는다! 침례는 우리 위대한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으심으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왜 침례가 언제나 장례로 묘사되는 이유이다. 믿는 자들은 우리 대속자로서 대표되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사망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의 물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 (로마서 6:3-6; 골로새서 2:10-12).

## 3. 침례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요한에 의해 침례 받은 자들이 그에게 왔다. 그들은 그에게 데려다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강에서 침례를 받았지, 찻잔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물침례의 상징적 행위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그것은 말하

---

자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구원자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고백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들이 없어지게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곧 그분의 실제적인 피뿌림에 의해서 였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였으며, 자신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들을 없애셨던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고백하였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침례를 위한 한 가지 필요 조건은 그리스도 안의 개인적인 믿음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유아 침례의 실행을 거절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사도행전 8:35-39).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침례를 대신한 유아 침례나 물뿌림에 대한 선례는 절대 없다. 그런 것들은 개신교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아 침례에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 물 뿌림을 실행할 이유가 없으며, 유아 침례를 함으로써 어떤 영적이며 구원의 효험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유아 침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유아 침례는 탐닉의 로마 가톨릭 교리만큼 은혜로만의 구원의 복음의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의 사역 가운데 보여지는 또다른 사실은 외적 성공과 인기병합은 결코 전도자의 유용함의 척도로써 의존적이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5 절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것을 본다. 큰 군중이 언제나 보기를 즐거워하였고 격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 의해 침례를 받은 자들 중 극히 소수가 진실로 회심하였던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침례자 요한은 일들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두려워 하였고, 감정적으로 흥분되었으며, 그의 전도로 매우 감동받았다. 그러나 극소수

---

가 그의 말을 들었다. 유명한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군중이 옳다고 할 때에라도, 군중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를 결코 판단해서는 안된다. 물 속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아야 한다. —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 참 선지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굶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6-8 절).

요한은 사치 속에서 우아하게 살지 않았다. 그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상표나 그가 먹으러 가는 음식점의 등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하지 않았다.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영원히 매인 죄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요한은 선지자였다.

---

요한이 전하였던 그것은 각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가 전도하도록 한 것과 똑같다. 침례자 요한의 전도에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만약 일곱 가지 것들이 나를 특징짓지 않고, 나의 전도를 특징짓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전도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일이 없으며, 아무 사람도 내가 전하거나 내가 쓴 어떤 것을 읽을 사람이 없다. 동일하게 “전도자”라는 말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이다.

1.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성취된 피의 속량으로 인한 죄사함을 전했다.
2. 그는 죄사함 때문에 회개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죄가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 안에서 체험한 죄의 용서 때문이다. (스가랴 12:10).
3.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전했다. Matthew Henry 는, “그리스도를 전함은 순수한 복음 전파이고, 그것이 침례자 요한이 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히 속박된 죄인들에게 감히 말하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고 말하겠다!
4. 요한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탁월함을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높은 관점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하찮은 방법으로, 그의 구원자를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전적으로 느꼈던 자신에 대한 그런 낮은 관점을 갖고 있었다.

---

5.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능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도 아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실만큼 전능하신 한 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해주려 왔다.”고 말했다.

6.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능하고, 구원하는 일을 전했다. —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성령 안으로 침례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사도행전 2 장에서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성령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고 그 영 안으로 잠겨졌다. 그것은 육적이고 가족의 왕국이 되는 것을 그치게 하였고, 영적 왕국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새로 태어남 가운데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침례 받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거듭 날 때 그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그는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옮겨졌다 (로마서 8:1-14).

7. 침례자 요한은 순수한 겸손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기꺼이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 최소한의 섬김에도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게 생각한다. (고린도 후서 4:7).

---

그것이 요한의 태도였다. 그것이 나의 것이고, 당신의 것이기를 기도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

### 3 장. 우리 구원자의 침례, 유혹, 그리고 첫 제자들 —마가복음 1:9-20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 세베대를 샀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9-20)

이 몇 구절은 마가의 글의 전형이다. 그 글은 매우 짧은 양의 공간에 큰 양의 문제를 다룬다. 이 열 두 절의 범위 내에서, 마가는 우



---

리 주의 침례, 광야에서 그분의 유혹, 그분의 가장 초기 전도,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의 간략한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는 주어진 순서대로 이 사항들을 각각 볼 것이다.

## 우리 주의 침례

이 단락은 우리 주의 침례의 간략한 기록으로 연다. —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11 절).

우리 주의 공개적인 땅에서 사역은 그분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와 공의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침례자 요한의 손에 침례에 순종한 그분으로 시작하였다.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분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길을 걸어오셨다. 왜? 나는 한 가지 매우 좋은 이유, 오직 한 가지 만을 줄 수 있다. —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은 광신자로 조롱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분이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침례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에게 오셨

---

다. 우리 주의 침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그것과 관련하여 단 네 가지 사항에 여러분이 주목하도록 하겠다.

### 1. 그분의 침례는 겸손의 행위였다.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이심을 기억하라. 그분은 나아만이 떨시하였던 바로 그 강에서 침례 받으려 오셨다. 그분은 조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요한에게 오셨다. 그분은 요한이 그분에게 올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분이 요한에게 오셨다.

### 2. 우리 구원자의 침례는 순종의 행위였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뜻의 일부가 이 행위였으며, 그것은 그분의 공사역의 시작에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구별하셨다.

믿는 자의 침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다. 그것은 복음의 그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귀한 이유는 없다: —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신다. 침례는 믿는 자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행하는 첫 번째 순종 행위이다. 그리고 주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종에게 없다.

### 3. 우리 주의 침례는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

침례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은 물론 그 초기에서부터 높은 상징적 행위였다. 비록 마가가 자세한

---

것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 주의 침례는 우리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마태는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침례 받아야 함을 역설하셨다 (마태복음 3:13-15). 분명히,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의를 성취하고 가져오셔야 한다는 의미를 강화하였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주 예수께서 인자로서 사망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가져왔고 성취하셨다 (빌립보서 2:5-11; 히브리서 10:5-14).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으므로, 죄를 알지 않으셨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격노 하에 살육되셨다.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살육되셨을 때, 그분은 땅 속에 장사되셨다. 사흘 동안 그분이 땅 속에 계신 후에, 그분이 정말로 모든 의를 성취하셨고 우리 죄를 없애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침례 안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다 (로마서 6:3-6).

그리고 누가는 그것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였던” 행동이었다고 요한에 의한 그분의 침례에 대해 우리 주의 나중의 설명을 기록한다 (누가복음 7:29-30). 우리는 침례가 하나님의 공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시며 분명 공의로우시다는 상징적인 고백이다. 그분의 공의는 만족되어

---

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침례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실 것을 고백하셨다.

우리는 아주 동일한 이유로 침례의 물에 온다: — 우리 죄들을 고백하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것으로서 그분 안의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 4. 우리 주의 침례는 또한 엄청나게 고결한 행위였다.

그 행위로써 그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승인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분의 침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우리 중보자, 보증, 그리고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탄하고 완전히 받으셨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 안에 영적 교훈의 큰 부가 있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11). 본문은 너와 함께 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 덕분에, 그의 죄속량의 희생 덕분에, 그분의 모든 백성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의 흠 없는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하네!”

모든 믿는 자가 여기서 위로와 확신을 찾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흠도 보지 않으신다 (아가 4:7). 그분은

---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옷, 그분의 완전한 의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았으며,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은 바 되었으며,” 그분이 함께 매우 기뻐하시는 백성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믿는 자들이 존귀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소유되는 것이 우리 침례에서 이다. 침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침례의 물무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 우리 구원자의 유혹

둘째, 마가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 구원자의 유혹에 대한 짧은 서술을 우리에게 준다. —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당신에게 임할 때, 어떤 이상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죄가 없이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역시 유혹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13; 히브리서 2:17-18; 4:15-16). 마가복음 1:12-13에 엄청난게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다. 우리 주와 관련해서 그것들은 사실인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 각자에 대해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이 네 가지 사항을 새기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그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리

---

스도께 속하고 따르는 것을 확신하는 한, 이런 것들을 곧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비록 그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계셨다.
2.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유혹은 많았으며, 그것들은 실제였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3. 비록 그분이 유혹의 광야에서 야수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은 특별히 신성한 보호 아래 계셨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보살폈다.
4. 비록 그분이 사십 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고, 인간적 약점의 모든 것으로 유혹을 받으셨고, 야수들 가운데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유혹은 끝났다.

시험과 유혹, 혹은 비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것이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가?”,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받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인들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까지 아무도 받지 않았던 고난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만약 죄를 몰랐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탄스러운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인내하여야 할 비탄을 갖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비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질문이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한, “왜?”라고 묻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다.

---

믿는 자들이 고난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옳을 감동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감동되었다. 그리고 비탄은 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집이나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 기록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로마서 11:36).

비탄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이유식을 주려 의도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내게 주어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롭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주신 것을 보신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소유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게 하시려 고통을 가진 그분의 성도들을 방문하신다. 시편 107 편을 읽고 섭리의 비밀을 배워라. 확고한 믿음과 더욱더 감사함과 더 충성스러운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는 그 비탄에 축복이 있으라.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전도서 6:12). 내가 부자인 것이 좋은가 가난한 것이 좋은가? 내가 건강한 것이 좋은가 아픈 것이 좋은가? 내가 강한 것이 좋은가 약한 것이 좋은가?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삶의 부와 건강과 강함은 큰 축복이거나 아니면 큰 저주일 수 있다. 가난과 질병과 약함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이사야 45:7; 로마서 11:36).

---

이것 만큼은 내가 안다: — 하나님께서 내 주목을 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게 좋다. 나를 깨우고 내 죄와 나의 불멸의 혼과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과 하늘과 지옥의 영원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을 꿇게하기 위하여, 그분께 공물을 호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좋다. 이 반역자의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나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떼어 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좋다.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 그리스도의 전도

14 절과 15 절에서 마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서술한다. —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자 요한이 그의 담대한 전도로 인하여 투옥되고 난 후에, 주 예수께서 요한이 그분에 앞서 전하였고 그의 사도들이 그분 이후에 전하였던 바로 그 동일한 것을 전하며 갈릴리로 오셨다. 그것은 모든 복은 전도자가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말씀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 그것의 장단은 이것이다: — 우리 주께서 사람들의 의로운 주권, 그들의 주와



---

왕이신 하나님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강권하려 오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시려 오셨다 (마태복음 10:39; 16:25; 마가복음 8:35; 누가복음 9:24; 17:33; 요한복음 12:25).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15 절) — 시간의 충만함이 이제 왔다 (로마서 5:6-8; 갈라디아서 4:4-5). 은혜의 왕국이 지금 왔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왔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교회인 영적 왕국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이 통치하는 왕국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 회개와 믿음이다. 그 둘은 언제나 나란히 간다. 당신은 다른 것이 없이 하나를 취할 수 없다. 이것이 노아가 그의 세대에 전했던 것이며, 바울이 그의 세대에 전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20:21).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석이었다. J. C. Ryle 은,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모든 충성된 사역자들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의해서 만이다. 우리 죄들이 면책되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성직자 선언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을 것이다. 평강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이런 것들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평생의 지속되는 길이다. 믿는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하며, 모든 것에서

---

그분께 자신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 첫 번째 제자들

마가가 이 단락에서 우리 주목을 이끄는 마지막 사항은 우리 주의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이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샅군들과 함께 배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6-20 절).

마가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서술하지 않는다. 우리 본문은 은혜에 속한 효험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다만 사역의 일에 믿는 자들을 부르심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이 구절들에게 우리 주의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 1.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 위대한 사람과 강력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유하고, 잘 교육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단순한 어부들과 시작되었다 (스가랴 4:6; 고린도 전서 1:26-29).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귀한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

사이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관념이다.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블루칼라의 노동자들은 세상을 뒤집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술취한 자이거나, 속이는 자이거나, 강도가 되는 것은 치욕적이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2. 사역의 일에 부름 받은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명예로운 일로 점유되었고 신실하게 추구하였다.**

종교 안에서의 경향은 사람이 전도를 위한 그의 부름을 공표하고 그 자신을 사역 안으로 넣기 위한 방도를 생각해 내는 것을 시작한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거나, 엘리사처럼 곡식을 경작하거나, 기드온처럼 밀을 털거나, 바닷가에서 그물을 낚는 그분의 전도자들을 찾는다. 그분은 결코 교회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열기 위하여 기다리는 성경 대학을 찾지 않으신다!

**3.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 사람의 혼을 낚는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어부는 계획이 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 나간다. 어부들은 매우 근면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부들은 매우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또 모든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며 당신이 알 특권을 받았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16).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5)는 것을 안다. —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

---

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3:1).

---

## 4 장. 기적의 날로부터의 공과—마가복음 1:21-34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21-34)

---

이 단락은 마가에 의해 기록된 긴 목록의 기적들로 시작한다. 그것을 읽을 때, 나는 우리 구원자께서 한 날에 얼마나 많은 일정으로 가득했는지 인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께서 거의 쉬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거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공훈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

우리는 물론, 행해지고 있던 가시적이고 시위적인 기적들의 날들이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을 인지한다. 사도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초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단지 사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다. 우리 주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공개적이고, 시위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훈에 속한 큰 기적들을 그분이 땅 위에 사셨던 동안 사람들의 육체 위에 행하셨고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으며, 그분의 사도들에게 그렇게 할 능력을 주셨으며, 메시아로서 그분이 그분의 주장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 아침에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시작한다.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갖고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 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다. 그분의 능력과 공훈에 관한 소식이 불길처럼 마을에 퍼졌다. 해질 무렵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색

---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우리 주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은 그분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교훈적인 그림이며,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화로 여기 기록되었다.

## 거짓 교훈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사항은 그것이 거짓 교훈을 바로잡기 위하여 의롭고,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21-22 절).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들을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가르치셨다. 그분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그런 틀림 없는 말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분의 교훈에 깜짝 놀랐다.

나는 때때로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 전하기를 요구 받을 때,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 의미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들 손에 성경을 갖고 그들이 지옥에 가게 하세요. 사람들이 타락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방해만 되지 않게 하세요.”이다.

---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이기적인 피조물들이 아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사람의 혼에 충성되며, 성경의 진리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성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은 대가나 결과에 관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한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만이 청중의 기호에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언짢은 표정을 두려워 한다.

### 마음의 믿음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사항은 마음의 믿음의 필요이다. 우리는 귀신이 주 예수를 알았던 것을 두 번이나 확실하게 듣는다. —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24 절). —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4 절).

서기관들은 그분을 몰랐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몰랐거나 그분의 교훈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그분이 누구이신 지와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의 진실성 모두를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 받지 않았다. 그들의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성경의 사실들과 성경의 교훈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인정은 구원이 아니다. 복음 진리에 대하여 알지 않고 아무런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는 실감한다. 그러나 단순



---

히 당신의 머리를 사실에 대한 것으로 채우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보다 낫 것이 없다.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안다. 귀신들은 모두 그분이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대속자를 위하여 승리의 효험 있고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모든 귀신들은 그분이 심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사악한 자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안다. 지옥의 귀신들은 대부분 전도자들과 대부분 가짜 그리스도인의 많은 광경을 안다. 그들 가운데 충성심은 없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더이상 머리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가공의 자유의지의 행위이다. 구원의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다 (야고보서 2:19; 로마서 10:9-10). 마음의 믿음은 머리 속의 지식 이상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뒤바뀌는 생명의 변화이다. 마음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그분께 기대는 것이다.

Martin Luther 는, “기독교는 인칭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쓴 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만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이다. 당신의 마음을 모두 하늘로 들어 올리고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이다. 지옥의 귀신들은 첫 번째 것을 인정한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진심으로 후자를 선포할 수 있다.

---

구원은 쇠신된 생활이나 쇠신된 교리가 아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지식이다. 영광의 소망은 당신 안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27).

## 기도에 있어서 간결함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29-31 절).

셋째, 우리 앞에 참 기도의 간결함이 있다. 믿음, 경배, 기도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참되고 신실한 곳에, 과시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위선을 닮은 것은 조금도 없다. 너무도 자주, 특별히 대중 예배와 기도의 행위에 있어서, 말해지고 행해지는 것의 대부분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하여 말하고 행해진다는 것이 두렵다.

이 세 구절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단순성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우리가 곤란한 지경일 때, 우리가 무거운 부담과 염려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보는 단순함의 예를 따라야 한다. 29-31 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앞에 제시되는 세 가지 사실들에 주목해야 한다.

### 1. 시몬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

---

한편으로 동시에 성직자의 금욕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치면서, 금욕이 혼인보다 다소간 더 영적이겠지만,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그들은 모든 관점에서 틀렸다. 베드로는 결코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다 (결혼하지 않고서 장모가 있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금욕과 영성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 비록 베드로의 장모가 믿는 자였고, 참되고 충성된 주의 종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아팠다.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관계가 그의 가족이 곤란에서 면하게 해주지 않았다. 구원자와 그의 장모와의 관계가 그녀를 곤란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비통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질병과 사별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고난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재량권이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분별있고 합당하다. 믿음과 수단을 공들여 사용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저축이 없다. 당신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가라.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사라.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이키고,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라. 그러나 이 세 번째 것을 부정하지 않게 확실히 하라...

## 3. 우리 고단을 위한 최선의 치유는, 우리 근심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단순한 믿음의 기도이다.

---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쭙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최선의 일이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무기력한 느낌에 대하여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분께 외쳐라. 다른 누구도 그분만큼 도우려 동정하고 자원하지 않는다. 다른 누구도 그분처럼 도울수 있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주께 돌이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다 (창세기 32:11). 헤즈기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주 앞에 산헤립의 서신을 퍼뜨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열왕기하 19:19). 나사르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 예수께 전갈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었다 (요한복음 11:3).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것을 행해야 한다. 아플 때, 사별할 때, 슬플 때,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단순함 가운데 행하고 능력이 계시고 기꺼이 도우실 분께 말씀드리자.

“치쳤는가, 마음이 무거운가?  
떠나간 기쁨으로 비탄에 잠겨 있는가?  
슬픔의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내일이 올 것을 염려하는가?  
예수께 아뢰어라, 예수께 아뢰어라;  
그분은 잘 알려진 친구라네;

---

그같은 친구나 형제가 없네,  
예수께만 아뢰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은 뜻이다. —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 하시리로다.” (시편 55:22).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7).

###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

31 절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위대한 역사의 그림이 주어진다. 그 역사는 언제나 완전하다. —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실 때, 그분은 치료하신다. 한 순간 이 여인이 침상에 누워 열병으로 아팠다. 주께서 그녀를 잡아서 일으키셨고, 즉시 열이 그녀를 떠나갔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분을 수종 들었다. 그런 열병은, 그것이 떠나간 후라 할지라도, 언제나 사람을 매우 매우 약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아무것도 미완성인채 남겨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확실하게 죄로 병든 혼을 다루는 방법의 그림이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분이, 그분의 영의 권능 안에서 우리 혼에 구원의 영 안에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 우리를 구속하셨던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분이 우리를 부르신다. — 그의 피로 영원한 구

---

속을 얻으셨던 분이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를 주신다. —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어 버리셨던 분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분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 —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그분을 섬기고 수종들 힘을 주신다.

죄로 병든 혼은 단순히 치료받지 않으므로, 그대로 버려진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마음과 의로운 영으로 공급 받으며, 그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충분한 은혜와 힘을 공급 받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은 주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그분과 함께 구별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가 여기 있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나와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그들의 십자가를 진다면, 그들이 계속할 수 없을 것 같고, 시간 가운데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내가 크게 다투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탄이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나의 구속자를 고백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실상은, 만약 당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 나오려 한다면, 당신은 곧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쪽 저주를 받은 경우가 없다! 그분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채 두시지 않는다. 모든 용서 받은 혼은 마지막까지 보존 될 것이며, 마침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기록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

---

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여기 구원자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낌으로 의기소침하게 될 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 당신의 날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당신의 힘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어려움들은 당신 앞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당신 앞에서 으르렁 거리는 사자는 당신 앞에 놓여진 길을 걷기 때문에 이 빨도 없고, 발톱도 없으며, 사슬에 매여 있다. 그 사슬을 잡고 있는 분이 우리 구속자이다. 그 사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 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은 잡음만 많이 만든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 당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다섯 번째 사항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아주 균형 있게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통치, 특별히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완결이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모든 것의 하나님”이심을 본다. 질병과 질환, 사탄과 지옥의 마귀들, 죄와 사망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도망간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8).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구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서 선택 받은 죄인의 삶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을 본다. 회당 안에 있는 그 가련

---

한 혼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을 적당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천영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며 마귀의 하인이다.

하지만, 안식일에 이 가련한 혼은 하나님의 집에 왔다. 그는 사탄에게 무기력하게 사로잡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집에서 그를 만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를 구원할 때까지 그 곳에 앉아 있었다 (이사야 49:24-28).

우리 구원자의 바로 그 접근에, 그 가련하게 사악한 자 안에 있는 불결한 영은 주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권위를 소유하신 것을 알므로, 사탄 그 자신에게 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분께 떨어졌다. 믿는 혼이 그런 구원자 안에서 가져야 할 자신감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대항할 수 없다 (이사야 54:17). 어떤 유혹도 우리를 파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13).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 발꿈치 아래 사탄을 손상시키실 것이다 (로마서 16:20).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우주의 왕이다. 우리는 그분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너무도 지혜로워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며, 너무 선하여 잘못 행하실 수 없으며, 너무 강하여 실패하지 않으신다.



---

## 5 장. 구원자와 함께하는 일요일—마가복음 1:35-39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35-39)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삶 가운데 모든 사건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지대한 중요성과 깊은 관심거리의 문제들으로써 우리가 여겨야 한다. 그가 말씀하셨던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이 하시기를 거절하셨던 모든 것 안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어야 할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본이자 우리의 교사이다.

토요일, 안식일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가능한한 많이 그 날에 많은 것을 하셨다. 그분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마귀들을 내 쫓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으며 성 안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이 단락에서, 피로한 안식일 이후에, 우리 구원자께서 일요일 아침 기도를 위하

---

여 일찍 일어나신 것을 본다. 마가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그날의 일들을 기록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가 이 다섯 절에서 서술한 그 일요일에 발생하였던 일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우리의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 기도에 애를 씹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기도에 애를 쓰신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배우기를 원한다. —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5 절).

기억하라, 마가는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분은 약하고, 죄로 충만하며, 궁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분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개인적인 기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께서 기도에 몰두하셨던 것을 본다. 그분이 공개적인 기도에 몰두하신 것을 우리는 거의 보지 않는다. 그분은 가능한 한 많이, 어떤 공개적인 과시나 헌신의 모습을 피하셨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경배는 다른 문제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반대의 것들을 행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헌신을 크게 과시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경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하다.

우리 구원자는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분은 결코 기도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분이 침례 받았을 때, 누가는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3:21). 그분이 산 위에서 변화되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

변화되고”(누가복음 9:29)라는 것을 본다. 그분의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 구원자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누가복음 6:12).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분을 왕으로 만들기를 원했을 때, 마태는 우리에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마태복음 14:23)라고 말한다. 그분이 겐세마네에서 사탄에게 괴롭힘 받으셨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마가복음 14:32)고 하셨다.

우리 구원자는 언제나 기도하였으며 약해지지 않았다. 비록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결코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이 기도하였다. 그분은 인자로서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와 교제를 지속하기를 꾸준히 구하였으며, 우리에게 본을 주셨다. 그분의 영원한 신격이 사람에게 수종 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방법에 무관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기 우리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 인자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를 보이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이 세상을 개인적인 기도와 공개적인 경배가 없이 살기에 자신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영적이라고 여기시지 않았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브리서 5:7). J. C. Ryle 은,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 개인적인 헌신의 지대한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썼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만약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에 많

---

은 시간을 들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의 공개적 경배이든 개인적인 경배이든, 결코 하나님의 경배를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하자.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경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이라 고백하면서 경배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열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기만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구원자의 종들이 아니다. 기도 없는 혼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혼들이다. 양자의 영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을 양자 삼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며, 경배 드리는 모든 자는 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혼을 살피도록 하자.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실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기도는 삶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법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자이다. 기도하는가? 다소의 사울을 알았던 제자들은 그들이, “보라, 그가 기도하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체험하였다 (사도행전 9:11).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실하게 은혜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지속할 것을 촉구 받는다. 기도와 경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은혜의 이유가 아니다. 의심할바 없이, 개인적이고 공개적인

---

기도 모두에 대한 실행을 정성들여 지키는 많은 사람이 타락한다. 그들의 종교는 모든 형태와 형식이다. 그러나 경배와 기도를 모두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은혜가 모두 없다 (히브리서 10:24-26).

## 그리스도의 주권

둘째, 마가는 우리 앞에 우리 구원자의 주권의 예를 제시한다.

“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6-38 절).

우리는 모두 너무도 멀리 치우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의 외적 반응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아무데도 더 보편적이고 아무데도 더 어리석지 않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너무도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매우 흥분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그분이 반복된 실행을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 하였다. 대신에, 우리 주께서 그분의 공훈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총체적 주권의 분명하고 틀림없는 표시를 주셨다. 비록 그분을 찾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많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

실상은 주를 전혀 찾지 않고, 그분에게서 공훈을 전혀 얻지 않으며, 주를 찾는 자가 오늘날 많으며, 자신을 그분에게 숨기며 그분을 찾는 많은 사람이 있다. 질문할 필요 없이, 주를 영적으로 찾는 모든 자, 믿음 안에서 그분을 진실로 찾는 모든 자, 그분이 필요하

---

고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12-14). 하지만, 마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 예수에게서 자신을 뒤로하고 숨으면서 그분을 찾았던 많은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그분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이유로 구했다.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은 그분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구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말과 행위로 그분을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이유들로 그분을 구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아무 것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다. 그들은 그분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닌 것으로 구한다. 바울이 서술하였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육체의 공로와 힘 가운데 그분을 구한다 (로마서 9:30-33; 10:1-4).

가버나움에 있는 그들은 주 예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늦게 그분을 구하였다. 구원자는 하루 전에 가버나움을 지나가셨다. 그분은 이제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을 구하지 않았다. 기록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6). 우리 주 예수께서 가버나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였고, 그분의 은혜를 주변의 더 작은 마을과 동네로 가져가셨던 것은, 그분이 공회를 베푸실 자들에게 공회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다. 그분은 그분의 뜻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분은 그분이

---

은혜로우실 자들에게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이것을 좀더 일찍 배울수록, 더 낫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주권을 은혜의 모든 방면에서 보이신다. 그분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택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셨다. 그분은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신다. 그분은 복음을 들은 자들을 부르시며, 다른 사람들을 어둠과 사망과 정죄 안에 남겨 두신다 (마태복음 11:20-30).

### 전도자 그리스도

셋째, 마가는 우리 주의 선택된 직무에 우리 주의를 끈다. —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38-39 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속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 오셨다. 그분은 모세가 직접 예언하였던 선지자,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 오심으로 성경을 성취하려 오셨다 (신명기 13:15).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전도자의 직무와 일에 맡겨진 것이 얼마나 높고, 높은 존귀함인가. 그분은 아론처럼 정식 제사장으로서 오실 것을 택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소유하였던 영광을 떠나셨다. 그분은 평강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려 오셨고, 의를 가져오려 하셨을

---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러 오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사로 잡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하며, 마음 상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려 오셨다 (이사야 61:1-3).

나는 매우 좋은 이유로 이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곳곳의 사람들이 전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적 범주 안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전도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였다. 그들은 영적 조언자들이 되었다. 죄인들에게 전도하기 보다, 그들은 대화를 행한다. 전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칸타나, 연극, 기념식, 축하연, 그리고 저녁 예배를 한다.

완전히 터무니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 전도로 모였다.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건강과 힘과 번성은 전도로 진작되어 왔고 유지되어 왔다. 죄인들이 구원 받고, 성도들의 신앙심을 함양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축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의해서 이다.

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존귀히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섬김을 결코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언을 떨시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20). 전도자는 잘 교육 받았거나 아주 평범하고, 매우 깊이가 있거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세련되거나 아주 거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당신의 혼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으며, 당신의 혼에 보내진 하나



---

님의 사자로 여겨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동일한 것을 하도록 가르쳐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효험 있게 적용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아무 것도 우리 하나님의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이며” (누가복음 18:1),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18).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36).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머리 숙이도록 하자.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자에게 공활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모든 역사 가운데 주권적이시므로, 그분은 효험이 있으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 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같이 하시기로 선택하신 방법들은 복음의 전도이다. 복음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16-17) 라고 한 가지 일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혼에 영적 축복과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도구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7, 17).

마가는 침례자 요한의 복음과 직접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 1:1-4),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아네 있는 구속과 은혜,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전해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뿐이다. Robert Hawker 의 말을 사용하여, “성삼위께서, 하늘에서 증언하시고, 우리 마음과 진리에 대한 양심 속에 그런 달콤한 증거를 주시고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주 여호와,

---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을 알게 하시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시작되었으며, 선택된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 시작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10).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18, 21).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10).

---

## 6 장. 어떻게 죄인이 공활을 얻을 수 있는가?—마가복음 1:40-45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감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40-45)

여기 그리스도의 손에서 공활을 구하고 있는 불결한 문둥병자가 있다. 그리고 그는 공활을 얻었다. 주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다. 만일 죄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문둥병자처럼, 불결하고, 소망 없고, 무기력하며, 의지할데 없고, 홀로 있는 이 글을 읽는 자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처럼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이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와 주 예수로부터 얻은 공활에 대하여 읽을 때, 나 스스로에게 생각한다. “만약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

---

다면, 왜 다른 사람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왜 내 죄는 용서하지 않겠는가? 믿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면, 왜 나는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으신다면, 왜 나는 안 받으시겠는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함께하는 공활이 있다면, 왜 내게는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왜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겠는가? 불의한 자를 구원하신다면,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만일 우리가 공활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가련한 문둥병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공활을 구해야 한다. 구원 받은 모든 죄인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견줄데 없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위하여 주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 가련하고, 길 잃은 모든 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이 그를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씻으심을 갈망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하자.

### **필요에 대한 깊은 느낌**

이 가련한 철면피가 그의 필요에 대한 깊은 느낌으로 주 예수께 나왔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 안에 있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나이들었는지, 그분에게 오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듯 보인다. — 그는 죄인이 공활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주께 나가야 하는지 보여 준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이것이다: —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공활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어떤 죄인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필요의 느낌을 창조할 때까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공활을 필요로 할 때까지 공활을 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문둥병이 무엇인지와 무엇을 대변하는지에 대하여 모두 잘 안다. 문둥병은 염증나는 질병이었으며, 우리 주의 땅의 사역 시절에 일반적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유별나서 그것에 감염된 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불쾌의 표시로 언제나 생각되었던 질병이었다 (민수기 12:10; 열왕기하 5:27; 역대하 26:19). 그들이 의례적으로 불결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걸어가는데 허용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문둥병은 아담의 아들이 걸렸던 질병으로 죄에 대한 재앙으로 적시에 대표된다. 그것은 몸에 해당하는 것이고 죄는 혼에 해당한다. Mr. Tomson은 그의 유명한 글, “땅과 책”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문둥병을 이렇게 묘사한다: — “모발이 머리와 눈썹에서 떨어진다. 손톱은 빠지고, 썩고, 떨어진다. 손가락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발톱이 오그라들고 천천히 떨어져 나간다. 잇몸은 함몰되고, 치아가 사라진다. 코와 눈과 혀와 입이 천천히 소멸된다.” 문둥병자는 메스껍고, 끔찍하며, 버려진 피조물이었다. 그는 걸어가는 시체였다.

문둥병은 죄처럼 메스껍고 불결한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

소멸시키는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확실한 사망의 선주자였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앞 이곳에 보인 사람은 그의 절대 절명의 필요에 대한 통렬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여기 그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덮인 사람이 있다. 그의 질병은 언제나 그 앞에 있었다. 그것을 숨길 것이 없었다. 그의 몸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액체로 흘러내리는 부패한 상태로 덮여 있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괴로워 하였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가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5:12). 그가 도움이 필요했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없이는, 그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이유이다. — 그들에게는 어떤 필요의 느낌도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 죄의 질병이 그의 바로 그 혼을 열이 오르게 할 때, 죄인들이 그가 길을 잃고, 무기력하고, 불결하며, 멸망하였다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 없이는 분명 그가 죽을 것이므로, 그는 그분을 찾는다.

그리스도만 우리 혼을 치유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의식법 (레위기 14)에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혜의 씻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에스겔 36:25; 요한일서 7-9). 그의 피로만 문둥병 걸린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의 공훈만이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다.

공훈이 필요함을 아는 자들이 곧 공훈을 얻게 될 것이다.

---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합당함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가련한 피조물, 예수께 나왔으니, 모든 가련한 죄인의 대표자니, 죄의 문둥병으로 판결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Joseph Hart 는 그의 위대한 찬송 중 하나에서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어떤 위로를 구원자께서 가져다 주실지  
그들의 고뇌를 결코 느끼지 못했던 자들에게?  
한 죄인은 신성한 것이라;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네.  
그에게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을 것이니,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슬퍼하기 전이네.  
이 충성된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라,  
믿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네,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임하셨으니,  
죄인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 받을 것이라.  
그를 존경함 가운데 죄인들이 높네.”

### 철저한 치욕

이 문둥병자는 철저한 치욕 가운데 주 예수께 나왔다. 마태는 그가 “경배하며” 나왔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누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렸다.”고 말한다. 마가는 그가 “무릎을 꿇고” 나왔다고 말한다.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구원 자께 나와야 할 방법이 죄인들의 나오는 방법이다! 죄인이 엎드려야 하고,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 놓고, 자기 만족을 내려놓아야 한다! 죄인은 자신의 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언제나 엎드려야 한다 (누가복음 18:9-14).

만약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엎드리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나는 아담의 아들딸들이며, 불결함으로 가득하고, 저주 받고, 비난 받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하며,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아시기에도 완전히 무가치 하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참되시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원할 능력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정결케 함을 위하여 열려진 샘이다. 그분은 그의 영광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발 아래 죄인을 데려와 엎드리게 하는 방법을 아신다. 시편 107 편은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그로써 선택 받은 죄인들을 데려와 엎드리게 하신다. 그러나 섭리만으로 죄인들이 주를 찾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불결함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죄를 선포하심으로 나오게 하신다 (로마서 7:9).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

그들 안에서 계시하심으로 죄인들을 나오게 하신다 (스가랴 12:10; 갈라디아서 1:15-16).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가?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부서지고 실망하였는가? 당신은 읊처럼 달콤하게 외칠 수 밖에 없었는가?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5-6).

### 크고 약한 믿음

이 가련한 문둥병자는 주 예수 앞에 매우 약한 믿음으로, 그러나 큰 은혜로 얻었던 믿음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든다 (히브리서 11:6). 나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갖고 왔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그는 우리 주의 전도를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의 명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분명하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셨는지 알았다. 그는 그분의 주장들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구원자에게 왔다 (에베소서 2:8; 골로새서 1:12).

문둥병자는 스스로 주께 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주께 선택되었고 데려와졌지만, 그러나 그 문둥병자는 아니었다.

오지도 않았고 이끌려 오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직접적인 방문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문둥병자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이 가련한 사람을 소망 없는 경우로서 포기 하였다. 그는 외

---

롭고, 고립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의 혼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구원자에게 데려갈 수 없었고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망 없고, 무기력하고, 의지할데 없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기쁨이다.

이 문둥병자는 많은 장애물을 거쳐 주께 왔다. 그가 따라야 할 전례가 없었다. 어떤 문둥병자도 그보다 앞서 주 예수에게 오지 않았다. 그는 치료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그는 오기로 초대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올 법적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문둥병자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였다.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옛시대에 치료 받았던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주로서 엮드려 경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말로써 그리스도 안의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하라고 했던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은 크고 두드러져 보였다. 실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큰 약점을 보였다. 비록 그가 주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실 수 있었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지만, 그는 그분이 그를 치유하실지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그는, 주 예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고 말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체험적으로 그런 믿음의 약함으로 주 예수께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긍휼과 은혜를 주실 것을 매우 크게 의심하면서 필요한 때에 긍휼

---

과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지 않은 구원 받은 죄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신다!

이 가련한 문둥병자가 구원자에게 왔던 것은 믿음의 단지 그런 약함 가운데에서 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은혜의 위대함이고, 그것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며,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의 품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41 절).

### 완전한 순종

이 문둥병자는 큰 치욕과 믿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그의 필요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구원자에게 왔다. 그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울부지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권일 뿐이다. 구원은 주 우리 하나님, 공홀을 베푸실 자에게 공홀을 베푸시는 분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스도만 구원의 권한과 구원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구원의 전체 문제는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다 (로마서 9:16, 18). 그리스도의 권세의 주권과 그분의 뜻의 주권을 깨달으면서, 문둥병자는 기쁜 소망으로 주께 순종하였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졌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것을 해야 한다. —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

하지만, 그는 소망을 가졌다. 주께서 전에 그런 요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분은 지금 누구든 외면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인다.

“아마 그분은 나의 탄원을 받으실 것이네,  
아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네;  
그러나 만일 내가 멸망한다면, 나는 기도할 것이네,  
또 오직 그곳에서 멸망하네.  
만일 내가 가면 나는 오직 멸망할 수 있으니,  
내가 하기로 결심하였네;  
내가 멀이 있다면 나는 알기에,  
나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구하던 공훈과 함께 죽는다면,  
내가 왕께 청하였을 때;  
이 사람은 죽어야 했네 (기쁜 생각으로!)  
죄인으로 결코 죽지 않았네.”

문둥병자는 그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더 나빠질 수 없었다. 또 만약 당신이 공훈을 청원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의 손해는 무엇이었을까?

### 얻은 공훈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 가련한 문둥병자는 그가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공훈을 얻었다. —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

---

라.” 주 예수께서 그를 향한 동정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한 동정심에 마음이 움직였으므로, 그분은 그를 즉시 완전하게 치료하셨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다. 주 예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이 가련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무한하고, 흠 없는 순수함이 내려와서 철저한 부패를 만지셨다!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 그분 자신과 우리 본성을 연합 안으로 이끄셨다.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 죄로부터 가련하고, 문둥병의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모든 것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분인 그가 그분 자신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마치 붉은 암소를 그 배설물과 함께 태웠던 제사장이 민수기 19:7 에서 요구된 제물로 불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깨개하지 않게 되었다. 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의인으로서 죽었다!

## 중요한 공과

이 단락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공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

---

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43-45 절).

주의 명시된 명령에 대한 이 치유된 문둥병자의 불순종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 기록되었다. 성령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할 때 뿐만 아니라 침묵할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도서 3:7). 우리 구원자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6).

나는 이것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는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구멍에 그것을 쭈셔 넣으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하기 위한 문을 여실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기쁜 소식을 듣는데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트집을 잡고 비웃을 때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침묵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의심할바 없이, 이 사람은 신실하였고, 그가 체험하였던 큰 은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널리 퍼뜨렸

---

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었다.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다. 그런 열심은 많은 해를 야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침묵해야 할 때와 “떠벌여야 할” 때에 대하여 어떤 것도 기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왕국의 유익에 다른 방법보다 침묵 가운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섬길 때가 있음을 안다.

이 단락을 시작함에 있어서, J. C. Ryle 은 경고한다. “그 주제는 의심할 바 없이 미묘하고 어려운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기 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주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 — 그리고 격려만큼이나 굴레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위한 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중함보다 더 열심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있고, 불합리한 행동과 말로써 진리의 적을 돕기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섬기고 방해받지 않게 되며, 선한 의미로 우리 구원자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헤롯 앞에서 침례자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의 진주들을 모욕하며 그 발 아래 짓밟히도록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한다.

아직, 더 있다. 구원자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또 이르시기를, “가서 네



---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러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가서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고, 특별히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들었으며,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증거로서 제사장이 그가 깨끗하다고 선포하였을 것이며,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 메시아였음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거나, 영원히 그들에게 대한 영속된 증거가 되었다.

분명히 이 명령 안에 아직 더 있다. 모든 은혜와 긍휼을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또 가장 우선하여,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이며 전능한 구원자, 모든 것의 창시자이고 증여자께 보여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 가운데 우선하여 목도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께로 살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로 살지 말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10).

---

## 7 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마가복음 2:1-12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1-12)

---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단락을 연구함에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여기 계시되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시기를 기뻐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효험 있게 적용하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가르침 받기를 바란다.

### 굳어진 복음

이 구절들에서 배우는 첫 번째 분명한 공과는 복음 아래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가장 큰 비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버나움의 역사로 충격적으로 그려지는 진리이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장소도 우리 주의 기적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것을 누린 곳이 없었고,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많이 누린 곳이 없었으며, 가버나움 성처럼 그분의 입에서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누린 곳은 없었다. 그분이 나사렛을 떠난 후, 우리 주는 가버나움에 거하셨다 (마태복음 4:13). 가버나움은 그분의 사역의 사령탑이었다. 그분의 설교는 종종 그곳에서 듣게 되었다. 그분의 기적들은 그곳에서 행해졌다. 그분은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수가 모였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에 깜짝 놀랐으며, 그분의 말씀에 감탄하였으며, 그분의 위격으로 경외하였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

---

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  
더니.” (1-2 절).

이 장의 여는 말씀은 한 가지 슬프고 슬픈 사실만 아니라며, 읽기  
에 매우 기쁠 것이다: — 우리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행하셨던  
것 중 아무것도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속하고, 영적  
효험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다.

그것이 놀랍지 않은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의의 태양의 빛나고,  
눈부신, 정오 광채 아래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회개로 녹아 내리기 보다 그들은 그분과 영적으로 빈약한 친밀함  
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냉냉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무거운 저주와 정죄는 이 성을 향해서였다 (마태복음  
11:23-24).

가버나움은 경고의 등대로 우리 눈 앞에 서 있다. 가버나움의 사람  
들만큼 그렇게 높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절대 없었다. 복음에 대  
하여 더 냉정하였던 사람은 결코 없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 더  
엄하게 정죄 받은 사람은 결코 없었다. 그들의 발길을 따라 걸어가  
는 것을 경계하자!

믿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동일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구원자이다. 초를 녹이는  
그 동일한 불이 진흙을 굳힌다. 아무도 복음을 굳어지게 하는 자들  
처럼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냉담함에서 하나님  
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기뻐 지키시기를 바란다.

**가장한 축복**

---

우리 본문에서 마비된 사람은 둘째로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 큰 고통과 시험, 그리고 비통은 종종 큰 축복의 선주자들이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5 절)

나는 이 가련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그의 비참한 삶의 나날의 많은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행하셨습니까? 만약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약 그분은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우시다면, 왜 이 보잘것 없는 다리와 엉망이된 발을 주셨습니까?”라고 물으며 허비했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리고 나는 이 날로부터 앞으로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의 혼에 죄 사함을 가져왔던 그 평생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절대 그치지 않았음을 한 순간도 의심치 않는다! 만약 그가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의 친구들이 그를 주께 결코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신다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가 그의 발걸음을 바다로 향하시고  
또 폭풍 위로 나아가신다.  
헤아릴 수 없는 광산 깊이

---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술로,  
그의 빛나는 계획을 쌓으시고,  
또 그의 주권적 뜻을 행하시네.  
너희 두려움에 쌓인 성도들아, 새 용기를 가져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들은,  
공홀로 크고, 부서져 버릴 것이니  
네 머리 위에 축복 가운데에서라.  
나약한 느낌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라.  
분노한 섭리 뒤에,  
그가 미소면 얼굴을 숨기시네.  
그의 계획이 속히 무르익을 것이니,  
매시마다 드러나고 있으리.  
봉오리가 쓴 맛을 낼 것이나;  
그 꽃은 달콤할 것이다.  
눈이 먼 불신자는 분명 잘못을 범하고,  
그의 역사를 헛되이 찾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해설자이니  
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William Cowper*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우리 사람의 여정이 잘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자.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며, 아주 강하여 쇠하지 않으시며, 아주 선하여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 수단을 사용함

셋째,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열심을 낳은 이 사람의 친구들의 행동으로부터 배운다. 3 절, 4 절, 5 절을 다시 읽어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5 절)

성령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어디 살았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 그들에 대하여 결코 아무것도 모른다.

1. 그들에게는 공황이 필요한 한 친구가 있었다.
2.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하게 마비된 그들의 친구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3.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공황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으로 그들의 가난한 친구를 데려왔다.
4. 그들은 장애로 단념하지 않았고, 어려움으로 방해받지 않았으며, 난관으로 미루지 않았다.
5.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구원 받은 것을 보았다.

---

이 네 사람들, Faithful Fred, Witnessing Willie, Praying Perry, 그리고 Diligent Dan 형제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들의 친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던 것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아는 한, 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전도자가 아니었다. 그들 중 아무도 감동의 글을 쓰지 않았다. 이 네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이 네 사람들의 이름, 나이, 출생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 네 사람, 알려지지 않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양 떼 중 하나를 그리스도께 데려오게 되었던 도구들이었다. 이 네 친구들에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비되었던 한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왔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친구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셨다. 그들의 주목할만한 믿음과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세상 가운데 결코 어떤 사람도 이 네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한 죄인이 구원 받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장면을 그려보도록 하라.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사람을



---

알았다. 그들은 주께서 어디 계셨는지 알았다. 그들은 친구를 구원자께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사려 깊은 고통과 수고와 인내로 그들의 친구를 주 예수께 데려오는데 성공하였다.

그 일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간과 열심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함을 알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의 길에서 방해 받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기로 결정되었다. 그들은 그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이런 것들을 그를 위하여 하실지 말지에 대하여 물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지런한 수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한 죄인이 구원 받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더 중요할 수 없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네 사람들은 우리 앞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보여진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혼을 구원자께 데려감으로 구원자가 누구신지 아는 자들의 중요함과 필요를 보여 준다. 나는 “구원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회개와 믿음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1.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타락하였고, 무기력하게 잃은바 되었고,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아무도 이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의해 상상과 자유의지로 주를 구하거나 그리스도 올 자는 없다 (로마서 3:10-12). 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더 구원 받은 것처럼 만들 수 없다.
2.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 자신이 직접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던 택정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아야 하고 구원 받을 것이다 (로마서 8:29-30).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피 흘리셨던 자들 모두를 위하여 그분은 하늘의 영생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사야 53:9-11).
4.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선택 받고 하나님 아들에 의해 구속 받은 자들 모두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효험 있게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보존하실 것이다 (시편 65:4; 110:3).
5.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18-29; 로마서 10:14-17; 베드로전서 1:23-25).

---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계시된 이 사실들이 우리의 신학적 체계를 훼손한다면, 우리의 신학 체계는 훼손당해야 한다. 죄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이다. 그분은 천사들을 쓰실 수 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당나귀 입을 통하여 죽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아무런 한계가 아니다. 그분이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교통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심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경이로움이다 (고린도전서 1:26-29).

### 오직 한 분

이 단락에서 가르치는 네 번째 공과는 오직 한 분만 계시다는 사실이며,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이 한 분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가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사람, 그리스도 예수이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

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6-12 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인자이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유죄를 면책할 수 없다. 어떤 교회나 교파도 유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따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사람만 우리를 위한 죄들의 용서를 얻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수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적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적개심에 대한 출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성경의 교훈이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이 신성한 특권을 행사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하나님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셨다. 그리고, 그 주장을 확증하듯이, 그분은 병자의 몸을 고치셨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을 가시적으로 보이셨다.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씻음을 위한 열린 샘이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 샘을 가리켜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심지어 용서를 선포할 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하며, 그리스도께 직접 가야하며, 사면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만 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

---

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고, 유일한 변호자이고,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기를 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만족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것을 줄 수 있다. 우리 유죄의 양심은 동일한 것, 의와 만족을 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유죄의 양심을 잠잠케 할 수 있다.

## 영적 중풍

이 사람의 몸이 고통받았던 중풍은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혼의 중풍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다.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불구의 무기력한 피조물이었던가! 이 가련하고 궁핍한 피조물은 그리스도께 올 능력이 없었다. 그것은 모든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에게도 그렇다 (요한복음 6:44).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그를 성실하게 구원자에게 데려왔다. 그들을 멈추게하려는 그들 앞의 균중이나 어떤 장애물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붕을 뚫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아! 주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에 있어, 예수의 은혜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동일하게 성실한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컨데, 나는 계명을 가지고, 또한 개인적인 접근에서, 시은좌로, 나의 세상적이고 은혜 없는 관계 전체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예수의 임재 앞에 내려 놓았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행하도록 격려를 받

---

는다. 그리고 그런 측은함으로 내 마비된 혼을 치유하셨던  
주께서 그들의 혼을 치유하실 것이다.” (Robert Hawker)

언제나 그렇듯이, 주 예수께서 그들이 갈망했던 것보다 말할 수 없  
이 더 많은 것을 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의 육체적 중풍을 치  
료받기 위하여 데려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큰 공훈  
가운데, 그의 몸과 그의 혼의 중풍 모두를 치료하셨다. — 그분은,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분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로 구별하셨으며, 영원 가운데 언약의 보  
증으로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셨고 (이  
사야 8:18), 마지막 날에, 그분의 교회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다 1:24)로 그분의 교회를 드리실 때,  
그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볼찌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  
게 주신 자녀라.” (히브리서 2:13).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혼에게 은혜로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한 그의 영원한 양자됨과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의 전능한 은혜와 권능으로 부름 받을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정  
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 그가 구  
원하려 오셨던 백성, 영원한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 언약  
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주어진 백성이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  
의 생각 속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  
베소서 2:3).

---

## 8 장.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마가복음 2:13-22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좃음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

---

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13-22)

이 단락은 마태복음 9:9-17 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두 이야기 가운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그 차이들은 유사성보다 더 우연은 아니다. 비록 마태와 마가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으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차이점들은, 미미하나, 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밭에 걸리는 수단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반역자들이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반역과 불신을 정당화 하는 것을 주신다.

마태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방법과 마가, 누가, 혹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는 방법 사이에 있는 약간의 차이점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보여 준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펜이나 타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그가 감동을 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할뿐 아니라 그들이 쓰기를 원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기록을 통하여 빛비추게 하려 그 사람들의 대조적인 개성을 허락하신다.

당신은 나처럼 여기 기록된 것은 매우 무심코 지나치면서, 이 단락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언제나 실수이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배움과 위로와 교훈으로 특별하게 기록되었다. 우리 주의 땅에서 삶에 대한 짧은 부분의 이 짧은 이야기



---

는 우리가 배우고 가슴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하고 영적인 공과들을 포함한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분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용하기를 바란다.

### 종일범하지 않은 자들

우리 앞에 제시된 첫 번째 공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종 그분의 종이 될 것 같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13-14 절).

여기서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가의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을 가진 복음 이야기에서 마태라고 부린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는 마태라 불리는 이기적인 세리의 초기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주목할만한 회개와 변화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즉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느 날 그분의 길을 가실 때, “레위야,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리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으며, 전도자가 되었다.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세 가지 사항이 분명하다.

1. 마태는 특정한 시간에 부름을 받았다. — 주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셨다. 구원이 약속된 “사랑의 때,” 은혜 가운데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에스겔 16:6-8).

---

2.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부름이었다. — 레위, 마태, 세리, 세금 징수원이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의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에 대한 많은 예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나치셨고,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가 주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에 의해 찾게 되었다.

3. 마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는 부르심이었다. — 주님은, “나를 좇으라… 일어나 좇으니라!” 마찬가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1-16).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으나.”(로마서 11:7), 마태,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위의 강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이사야 65:1).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은 마태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의 승리이다.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의 구원도 결코 단념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주께서 돈을 사랑하는 CPA를 마태처럼 택하시고,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단순한 부르심으로 그를 성도와 전도자로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까지 누가 선택 받았는지 절대 모른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언제나 놀란다 (고린도전서 1:26-29)

---

## 위대한 의사

다음으로, 15-17 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병든 혼을 위한 위대한 의사이심을 본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좃음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편안하셨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편안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 상하였다. 바리새인들의 불만스런 말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모든 세대의 바리새인들의 구별 표시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이 던지시 만드는 험담을 들었을 때, 그분은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왔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디모데전서 1:15; 마태복음 1:21). Robert Hawker 는 이렇게 썼다...

“예수께서 그분을 받게하려 마태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마태는 그의 집을 열고 예수를 환영하였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한 사람의 세리가 주로부터 공황을 찾았기 때문에, 마태는 다른 세리들도 와서 역시 공황을 찾도록 초대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를 위하여 충분할만큼 있다. 마태

---

의 식탁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둘러 앉은 위대한 구속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광경인가!”

그리스도, 위대한 의사의 바로 그 성격이 그를 죄로 병든 혼이 발견된 곳에 인도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대한 치료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라파,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다 (출애굽기 15:26).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들의 육신에 많은 강력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의료적인 도움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경이로운 개입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기적들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역시 설명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다. 그분이 치료하셨던 육신들은 곧 다시 병들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치료하신 혼들은 영원히 치료되었다. 육신의 치료는 그분이 혼을 치유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려 의도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는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세 가지 전능한 행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그것은 그분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피의 구속, 주권적 거듭남,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죄로 병든 혼을 치유하심으로 치료를 위하여 그에게 오신다 (누가복음 9:11).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긍휼을 위하여 온 자는 없었으며 그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이다.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가!

**혼란스러운 믿는 자들**

---

금식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18 절)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공과를 예시한다. — 때로는 참 믿는 자들이 의미 없는 것들로 길을 벗어나거나 혼란스럽게 되며 종교적 위선의 영향 아래 떨어진다. —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리스도의 양 떼는 낫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5).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으며 복음에 관련하여 속을 수 없다 (요한일서 2:17, 27).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살과 피의 연약하고, 변하기 쉽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영향 아래로 종종 떨어진다. 때로는 사람들로 부터 나쁜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의미 없는 문제들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들은 종교적 실행, 의례적인 금식을 일반적으로 행하던 자들이다. 구속과 은혜와 용서의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였고,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던 까닭에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잘 못을 저지르지 말자. — 요한의 제자들은 참된 믿는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1:29-37).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간단히 불려졌다. 여전히, 이들 참 제자들, 충실한 사람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 아래 떨어졌고 교리와

---

실행에 있어서 크게 잘못을 범했다. 이 믿는 자들은 우리 교만한 본성의 끔찍하게 악한 경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들 자신을 의와 참 거룩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지켰던 금식은 그들 자신의 약속으로 하는 금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주의 제자들을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슬픈가. 하지만, 그런 행동이 참되게 믿는 자들 사이에 얼마나 일반적인지. 로마서 14 장에 그런 믿는 자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대항하여 마치 그들이 대적들인 것처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슬픈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

## 우리 신랑

19 절과 20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네 번째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받은 신부라는 축복된 사실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분의 사랑스런 신부를 향한 비난의 말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보니 얼마나 달콤한가. 그것은

---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의 하늘 대언자로서 하시는 그것이다 (요한일서 2:1-2).

보여주었듯이, 요한의 제자들은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신부(교회)의 일부였다. 그들의 연합 가운데, 투옥되었던 그들의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유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과 결점 가운데,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들을 부드럽게 다루시고, 따라야 할 본을 우리에게 주신다. 동시에, 그분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던 자들을 지키신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인가는 그리스도가 그분에 백성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분 자신과 우리를 연합 안으로 이끄셨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역주: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5:30). 그분은 우리의 빛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든 결함들을 받아들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합함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은혜로운 충만으로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분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곧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 (계시록 19:7). 하나님은 우리 가련하고 죄로 충만한 혼을 우리 보배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연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연합하셨던 자들은 결코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처럼, 금욕주의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많은 종교적 금식을 지켰다. 확연히, 그들은 마태의 집에서 잔치에서 보였고 금식을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과 그들이 관련되어 분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질문을 하였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는 그의 신부에게 오신 “신랑”임을 선포함으로 부드럽게 답하신다. 그분은, “내가 나의 신부와 함께 있는 한 신부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분은 솔로몬이 노래했던 그 신랑이다. 왜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있는데 금식해야 하는가? 신부와 신랑의 혼인은 축제와 기쁨의 시간이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요한복음 3:29). 신랑은 신부를 두고 기뻐하고 (이사야 62:5), 그녀에 대한 그의 기쁨은 그녀가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신부와 곧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것이다.”고 하셨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가버릴 때, 그 제자들은 금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일어났다.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어떤 슬픔이 그들에게 쏟아졌을지! C. H. Spurgeon 은,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연회를 열며, 그분의 부재가 우리의 금식이고, 어둡고 비통하다.” 모든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금식은 돼지가 먹는 껌질이다.



---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금식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다. 금식의 실재는 그들의 주의 임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혼방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진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은 비록 그들이 금식에 대하여 몰라도 금식에 대하여 좋은 것을 약간 말한다. 우리 주는 음식을 단순히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혼의 금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 하셨다.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8:8).

우리가 중요한 거룩과 마음의 경배를 하는 대신 육체적 행위를 하게 하는 (매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우리의 죄로 충만한 마음과 혐오스러운 본성은 교만과 부패의 놀라운 표시이다. 이런 경향은 아담의 모든 타락한 아들딸들 간에 강한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교만한 육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을 믿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 할 것이다. 주 예수의 위격과 역사와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된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선포하신 거룩과 헌신과 영성의 모든 외적 나타남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골로새서 2:23)에 불과하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대신, 그런 것들은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 (골로새서 2:16-32).

---

큰 압박과 시험의 시기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 예수 모두 금식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일상적이고, 공개적인 광고 의식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거룩과 경건과 헌신의 외적 모습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종교적 관습에 크게 강조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주는 그것을 언제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셨고 사람이 금식을 할 때 아주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마태복음 6:16-18). 우리는 결코 종교를 과시해서는 안된다!

### 혼합되지 않음

다섯 번째 공과는 21 절과 22 절에서 우리 주께서 주신 우화 가운데서 발견된다. 영적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결코 섞으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절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는 안된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이 우화를 금식에 대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전해졌다. 우리 주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의 친구와 그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신랑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

---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거나, 새 포도주를 헌 병이나 부대에 넣는 것처럼 바보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그 우화들은 여기서 많은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단지 비유적 말들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미는 단순히 이것이다: — 우리는 섞으면 안되는 것들을 섞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큰 악들은 이 우화의 공과에 단지 유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이 이 공과를 따른다면 바로 잡아질 수 있다.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다른 것들을 섞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모세 율법 하에서 처럼 아마와 모직을 혼합하고 황소와 나귀를 함께 땅을 갈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율법, 육체와 영, 그리스도와 세상, 혹은 영적 경배와 세상적 규례를 섞을 수 없고 결코 섞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에 있는 문제는 모세 율법과 의식들에 속하는 오래 된 포도주를 은혜의 새 병에 넣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의 유대교인들은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모두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를 원했다. 그들은 영적 할례와 육체적 할례를 혼합하려 했다. 그런 혼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것은 공존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1, 2, 4).

초대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철학과 이교도 세상의 종교적 관습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혼합하려는 것은 오늘날과도 같다. 아무 것도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사도 이후 가장 초기에, 사도들

---

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조차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과 사상을 혼합함으로써 복음을 세상의 입맛에 맞게 하려 했던 자들이었다.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시대에 타협이 로마 가톨릭교로 가는 길을 덮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로마 가톨릭교로 돌아가는 길을 놓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섬김 안에서 육체와 영을 혹은 행위와 은혜를 절대 섞을 수 없다. —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술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3). 우상에 속한 십자가들과 조각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경배할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안식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

많은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꿰매려 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자들이, 우리 주가 틀렸다고 입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지만, 그러나 세상을 섬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낡은 병에서 마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제자직분의 새 옷을 완전히 떨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가나 십자가가 없이 그것을 원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대한 쾌락과 탐심과 사랑의 낡은 옷에 심으려 한다. 그들은 어느날 곧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성이 얼마나 세속 종교와 종교 의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지! 타락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대치할 것이다.

---

그는 실질적인 거룩보다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의례적인 금식,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 구호, 비용을 들인 종교 의식들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고, 행하고,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방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용서와 평강과 열납을 위하여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가장 가증스러운 탕자의 모독처럼 그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된다.

종교의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 새 천 조각으로 된 낡은 피조물의 복장에 불과하다. 우리 구원자는 이 두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낡은 옷에 새 천을 깐졌지만, 그 두 가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새 천은 낡은 옷에서 곧 떨어져 나갈 것이며, 터진 것은 분명 벌어진 구멍이 될 것이다. 만약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겨졌으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발효한 포도주는 곧 낡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말씀의 외적 사역이 들리고 아담 본성의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 경우, 새 포도주의 발효가 그것이 부어진 낡고 마른 부대를 터뜨리는 것처럼, 다람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모두에 대한 증오로 터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어떤 증오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여 세속적인 생각이 조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단순히 세속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자는 그 마음에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거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인한 이교도의 적의에 직면하는 것은 때로는 살과 육에

---

고통스럽다. 그러나 거룩을 고백한 자들, 바리새인과 자기의 가운데 있고, 신성의 덮개 아래 있는 자는 더 심각한 증오에 이른다.” (Robert Hawker)

우리 주의 교훈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새 옷은 우리 더러운 누더기에 기워질 수 없다. 그리고 복음의 새 포도주는 우리 타락한 본성의 낡은 포도주 부대 속에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새 옷이 되며, 은혜의 새 포도주로서 우리 혼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때, 우리를 거듭남 가운데 새 피조물들로 만드신다 (시편 104:15; 이사야 61:10).

---

## 9 장. 안식일의 주—마가복음 2:23-28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한 자들이 꺾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23-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은 토요일, 안식일,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경배의 날로 정해진 날 아침 일찍이었다<sup>1</sup>. 우리 주 예수와 그의 제자

---

<sup>1</sup>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영적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 안에서 산다 (히브리서 4:3-9).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약 성경은, 단지 “올 것에 대한 그림자” (골로새서 2:16-17)였던 그런 안식일을 준수를 분명하게 금한다. 믿는 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의 날” (계시록 1:10)이라 부르는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원자께서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니다.

---

들은 십중팔구 공예배 장소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이 경배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옥수수 밭을 통과하였다. 그들이 한 줄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옥수수 몇 개를 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손으로 옥수수를 비볐으며, 낱알을 뜯어서 약간 부드럽게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완전히 사소한 것이었다. 그들은 결코 문제가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옥수수를 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풍덩이에 덩벼드는 오리들 같이 덩벼들었다. 즉시, 그들은 주의 제자들이 끔찍하게 악한 도덕적 범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주께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교만하고, 행위 주창자들에게 하신 대답은 우리 혼을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충만하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그 단락을 연구하고 마음에 그 가르침을 새겨야 한다.

## 결점 찾는 자

---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교리적인가? 안식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의 멍에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에 대한 부인이다. 그것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한 바울의 강한 비난에 대한 이유였다.



---

이 구절들에서 분명한 첫 번째 사항은 교만하고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급하게 지적하고 가리키킨다는 사실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3-24 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가장 최악을 대표한다. 그들은 단순히 의식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종교의 외적 껍데기와 모양을 소중히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너무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식들에 율법을 더했다. 그들의 경건은 모든 형태와 형식, 신조와 관습이었다. 그들에게 씻고 금식하며, 십일조와 기도의 형식, 겉치레와 의식들은 거룩하였다. 그들의 경건은 모든 육신의 행위이고 의지 경배였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과 공홀에 대하여 절대 아무것도 몰랐다. 공홀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비롭다. 용서를 체험하였던 자들은 용서한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롭다.

우리 주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참 거룩의 어떤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2:7).

---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구원자께서 그들이 했던 것을 하는데 있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잘못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끔찍하게 잘못하였다고 단순히 추정하였다. 경계하고 기도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사악함으로 떨어진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 주께서 우리가 경계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이며, 죄인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자기 의이다. 오직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서로를 감시한다. 오직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 못을 급히 지적한다. 오직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규제하려고 한다.

## 성경의 교훈

두 번째 내가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행동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 교훈이다.

이런 트집쟁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께서 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인용된 것이었다. 그분은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다. 나는 그분이 이 책의 주제이실뿐만 아니라 저자이시기도 한 것을 안다. 하지만, 그분의 예가 여기 언제나처럼 우리가 따를 본으로 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행위를 변호하셨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한 자들이 핍  
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  
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  
니하였느냐?” (25-26 절)

영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 방법이 너무도 분명하여  
실수가 없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처럼 변론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변론처럼 강력한 것이 없고, 무기처럼 강력한 것이 없다.

교훈과 행위의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행동의 유일한 권위, 유일한  
근거는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 문제들에 있어  
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없고 “이것이 이유이다!”라  
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믿거나 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  
리 소망의 이유, 우리 교리의 논리, 우리 성례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식과 간접적인 종교로 채우지 말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공부하라. 열심히, 인내를 갖고, 기도하며, 주의 깊게 말  
씀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라 (요한복음 5:39; 디모데후서  
2:15). J. C. Ryle 이 바로 보았다…

“성경의 지식으로 가는 왕도는 없다. 통찰력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 책은 연구되고, 숙고하고, 두고 기도  
를 해야 하며, 추구되어야 하고, 언제나 보류해 두거나 가  
끔 부주의하게 들여다 보지 말아야 한다.”

---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굶주림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비유는 우리 앞에 축복된 영적 적용으로 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복음 시대는 단지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대한, 아비아달과 그 시대가 속한 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구속하셨던 왕들과 제사장들 모두를 아버지께 속하게 하였다 (계시록 1:6). 주의 날이나, 어떤 날이든, 굶주린 혼들이 참 진설병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주의 종들은 언제나 복음 잔치를 배설해야 한다. 굶주린 혼이 영적 식량을 찾아 갈 곳이 하나님의 집 외에 다른 곳이 있는가? 다윗이 예표였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 두 셋이 모인 그분의 집에 오시며 (마태복음 18:20), 그들 앞에 기름진 것들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가 5:1). 그리고 굶주린 혼은 주의 만찬에서 먹는다.

## 분명한 모순

이 단락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분명한 모순들이 사려깊게 재고할 때 쉽사리 분명해진다. 비록 당신이 그 사실을 놓칠 수 있을지라도, 마가가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을 아비아달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구별하였던 반면, 사무엘상에서 아히멜렉이라 불린다 (사무엘상 21:6).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 안의 모순들로 보는 많은 것들 중 하나로써 지적하였다. 믿는 자들은 축복의 책 안에서 그와 같은 분명한 모순을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회의론에 대한 변명을 찾는다. 그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 “거기서, 보는 것처럼, 마가는 판단을 그르쳤다. 그런 오류

---

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감동을 받고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분명한 모순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우선 확실히 해두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엮드리지 않게 될 반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쓰여졌다. 지옥에 가도록 결정되었고, 너무도 영리하여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너무도 궤변적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를 믿을 수 없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도록 길 위에 많은 거치는 돌을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무지를 보내실 때, 그분은 완전한 무지를 보내신다.

하지만, 불신자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쉽사리 분명하게 된다. 왜 마가와 사무엘이 다윗이 대체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대체사장으로서 두 사람의 섬기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사무엘하 8:17).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함께 행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서술할 때, 두 이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전부 합당했을 것이다. 둘째, 내 생각에 거의 그럴 것인데, 아히멜렉은 두 번째 이름을 가졌으며, 그것으로 그는 보통 불렸을 것이며, 아비아달이다.

## 안식일의 주

이 단락에서 제시된 네 번째 사항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안식일의 주라는 사실이다.

---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7-28 절).

이 두 구절 안에는 영적 진리의 큰 깊이가 있으며, 그 진리들은 다만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진리들은 우리 앞에 세 가지, 투명하고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써 제시되어 있다. 나는 바리새인이나 주의 제자들이 그 진리들을 그 때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들에 있어서 혼란스러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이제 취했으며 그 의미를 사도 서신 안에서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씩 보자.

### 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과 전도자들은 그 말씀을 혼란스러워 보이게 만들려고 매우 열심히 수고하고, 파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것은 전혀 홀란스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셨을 때,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졌지, 다치게 하려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 준수를 그분이 그 대표적인 시대의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제물들을 제정하셨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이유 때문에 제정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사람에게 묘사하기 위하여 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것은 안식의 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이신 분으로서 우리 안식일을 발견하는 믿음의 복된 안식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졌다 (이사야 28:12; 시편

---

116:7).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9).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이다.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고, 우리 자신의 일을 그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 만을 신뢰하며 그 자신의 일을 그쳤다. 그분 안에 안식하므로,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을 지킨다 (마태복음 11:28-30; 히브리서 4:7-10).

우리 주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절대 상상해서는 안된다. 성경은 안식일이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표적 백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에게 주어지거나 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출애굽기 31:16-17). 고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절대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에 의한 안식일 준수를 적극적으로 금하였다.<sup>2</sup>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식일의 안식 이시다.

## 2.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늘과 땅의 창조 후에 휴식의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시내 산에서 율법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

<sup>2</sup> 예루살렘 공회의 권고는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5 장). 만약 이전에 안식일 준수의 실행이 이방인들에게 부여 되었다면, 그곳이 그 실행이 있었을 장소가 된다.

---

게 주어질 때까지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킬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 것의 의미를 깨달으라. 사람들은 수백 년간, 심지어 수천 년간,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나, 그런 문제를 위한 어떤 다른 형태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겼다. 예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

### 3.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이시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28). 이 문장의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이 안식일을 정하셨고, 안식일을 성취하셨으며, 안식일을 시행하셨고, 그분이 율법 시대의 모든 다른 세속적인 계명과 의식과 의례를 폐하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과 같은 정도로 안식일을 폐하셨다.

당신은 아마도,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율법적이고 의례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옳다. 안식일 준수는, 유월절을 지키는 만큼, 신약에서 명백하고 단호히 금지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4:10-11; 골로새서 2:16-17).

이미 보았듯이, 안식일 준수는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속박되어 있지 않았다. John Gill 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은 결코 안식일 준수 책임이 없을 것이고, 지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가 부여되어야 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해야 했다. 그



---

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고, 검열을 받고, 정죄 받아야 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신경쓰지 않으면 안됐다.”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이신 분은 그분이 우리 안식일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믿음의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로써 사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우리 대속자이고, 구속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루신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로마서 10:4; 갈라디아서 5:1-4).

안식일, 안식의 그날,  
거룩하게 축복 받았으니  
우리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니,  
그분 안에서만 안식이 있다.  
율법적 안식일은 끝났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라.  
하지만, 남아 있는 안식일이 있으니,  
그분 안에서 찾게되는 안식이라.  
“내게로 오라,”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네,  
“그리하면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아 지친 죄인들아, 일을 그만뒀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달콤한 안식을 찾아라.  
아, 나의 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이니,  
믿음의 안식이 안식이네!  
일을 그만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네,  
그리스도는 나의 안식일 안식이시네!

---

---

## 10 장. 그분을 엿보거늘—마가복음 3:1-35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1-35)

이 장에서 마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섯 가지 사항들을 모두 연결시키도록 감동을 받았으며, 그것들이 거의 하나인것 같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 사이의 연결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2 절에서 마가는 이 말씀—“그들이 엿보거늘”—으로,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서술한다. 그들은 그분을 엿보았고,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분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고소하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잡기 위해 준비되었다. 그분을 주시하고, 고발하거나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을 따라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여정을 해나가도록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할 것이다.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며 움직이시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를 주시하자.

주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본이고 우리의 교사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다섯 가지 다른 위치에

---

서 그분을 주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 회당에 계신 그분을 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1-6 절)

우리 주 예수께서 한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궁핍의 일이 있던 그 날 회당에 오셨다. 그 손이 말랐던 사람은 거의 온전하게 되었다. 3 절과 5 절에서 구원자는 이 궁핍한 혼을 고르셨다. —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5 절에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택정은 이루어졌고 계명이 주어졌다. 주 예수는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골랐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

사람에게 은혜가 되려 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한 가지를 명령하셨다. — “네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그가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분의 영의 전능한 공훈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부름을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록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의 명령 이 후 믿음의 행위가 행해졌다. —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계명과 함께 순종할 능력이 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분은 순종할 의지를 그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 따라서, 기록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리라.”

마가는 2 절에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십일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엿보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배우려 엿보지 않았다. —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엿보거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척 하고 있고, 거룩한 척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인 척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정한 위선자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인을 모의하려 교회 제자 위원회 가운데 안식일에 해롯당원들과 함께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서로를 격렬하게 증오했지만, 그들의 종교는 동일하였다 (잠언 14:12; 16:25). 그것은 인간의 종교였고, 짐승의 종교였으며, 가인의 방식이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모두 독선적인 율법주의자들로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척 하였고, 그들 자신의 우월함을 위하여 종교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거룩하다는 환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였다. 주 예수와 그분이 계시하시는 복음이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그분에 대적하려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뻔뻔함을 산출한다. “형제 사랑”의 이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엿보는 자들은 오직 독선에서 나오는 마음의 뻔뻔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숭사하였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뻔뻔함을 낳는 어떤 종교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열한 영의 율법주의를 낳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험담이나, 비방이나, 중상하는 위선을 낳지 않는다. 은혜는 사람을 은혜롭게 만든다. 용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혼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체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인내심 있게 만든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엿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감명을 주거나 그들의 비방을 막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시지 않았다. 바울이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충고할 때, 그는 우리가 독선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막을 방법 가운데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

---

그는 모든 형태의 악한 교리의 모든 형태, 자유 의지와 행위 종교의 냄새가 나는 모든 형태의 교리, 독선적 율법주의의 모든 형태로부터 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므로써 세상이 우리 안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세상은 당신 안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 어떻게 세상이 당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거룩함으로 세상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 세상(비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은 거룩이 무엇인지 약간의 생각도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의 혼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세상을 무시하라.

5 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오만한 종교주의자들을 노려 보시며, 방을 돌려 보셨다고 말한다. 방 안에 있던 각각은 그분의 눈에서 분명히 불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죄로 충만하고 피해야 했던 분노가 있다. 개인적인 복수와 세속적인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분노 그런 모든 것들은 끔찍하게 악하다. 그러나 뻔뻔하고, 곡선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저주하는 종교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의 뜻 가운데 분노는 단순히 분노이다. 분노는 험담하는 혀에 있는 분노는 모두 합당하다. —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5:23; 시편 139:19-22).

**바닷가에 계신 그분을 보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좃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

---

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뿔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7-12 절).

여기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다른 그림이 있다. 회당에서 우리는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서 효험 있는 부르심의 그림과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그림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방법의 나타남을 본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에서든 제한되실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선택 받은 죄인들의 변화 가운데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일들이 있음을 선포하신다. 여기 세 가지 사항이 언제나 은혜에 속한 체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1. **말씀을 들었다.** —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모였을 때,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왔다.

그들은 단지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것이나, 하시려고 애 쓰셨던 것, 혹은 하시려 하였던 것에 대하여 듣지 않았다. 그런 종류의 전하는 말씀 안에는 복음이 없다. — “그의 하신 큰 일을 들



---

었다!” 복음 전파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복음 전파는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것들을 선포한다. 그분은 영원한 의를 가져 오셨다. 그분은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셨다. 그분은 그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다.

복음 전파는 구원과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절대 불가피한 것이다 (로마서 10:17; 고린도전서 1:18-23; 베드로전서 1:23-25).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함에 있어서 채용하시기로 선택하신 축매이다.

축매는 행동의 매개체이다. 만약 화학자가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 물질을 합하려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축매가 필요하다. 축매는 연합을 일으키지 않고 그 물질들의 결합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특정한 축매가 없이는 결합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계속될 수 없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확히 어떤 것인가이다.

물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떤 종류의 매개체가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선택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코를 꿰어 하늘로 잡아 당기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일단 속량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매개체를 통하여 구속 받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려 선택

---

하셨고 부르신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교통을 위하여 촉매가 필요하게 만든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항하여 소리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것은 구원을 사람에게 의존되게 만든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게 되지 말라.

우리는 결코 성경을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리적 관념과 신학적 체계 속으로 구부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인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계시에 우리 논리를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없고 존귀히 여길 수 없다.

성경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리스도 안의 거듭남과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포함함이 없이, 복음 전파라는 도구를 통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에 교통하고 있는 그 다음 단락을 그 문맥 안에서 읽기란 불가능하다 (로마서 1:15-17; 10:13-17; 고린도전서 1:21; 에베소서 1:13; 디모테전서 4:12-16; 히브리서 4:12;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그 단락 각각에서 주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기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아마도 당신은, “만약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곳인 뉴기니의 정글에 있는 까마득한 야만족이라면 어떻게 되나?”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어떻게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하나님

---

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분은 그분의 공활을 보여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사람에게 그분의 예언을 어떻게 이르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 바로 요나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급한 느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므로, 성공의 확신을 갖고 전한다 (고린도전서 15:58).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성취할 것이며 하도록 보내진 것 안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사야 55:11).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2. 구원자께서 만져진 바 되셨다.** —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들으면서, 피를 흘리는 여인처럼, 그분을 만질 소망 가운데, 이 가련하고 궁핍한 혼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변에 운집하였다.

그녀처럼 주어진 그들의 소망은 흔들렸을 것이고, 심지어 자포자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처럼, 그리스도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망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소망일 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들의 큰 필요 속에서 그들은 그분을 만졌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소망과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만진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 있던 세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칭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을 만지도록 도우신다.

---

“손을 뺀어 주를 만지라, 그가 지나가시니라;  
너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못 들으실만큼 그는 바쁘시지 않음을 볼  
것이다;

그는 이 순간 지나고 계시니, 너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손을 뺀어 주를 만지라, 그가 지나가시니라!”

**3. 그리스도는 고백을 받으셨다.** —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  
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1 절).

마귀의 소유를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었을 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자들이 그분 앞에 엎드  
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첫째, 그분  
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둘째, 그분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  
도께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의 소망을 주신다. 셋째, 그분  
은 그들의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백하게 하신  
다.

**산 위에 계신 그분을 보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지라.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  
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  
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  
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  
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  
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

---

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 다대오와 가  
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13-19 절).

이 구절들에는 사려 깊고 기도로 충만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주목을 끄는 아주 분명한 것들이 있다.

1. **우리 구원자의 주권의 나타남이 있다.** —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3 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가 부르실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2. **여기 복음 전도자들의 묘사가 있다.** —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vv. 14-15).

최초 사도들에 대하여 14 절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적용될 것이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임명 받은 사람이다. 그는 주와 함께 있는 자이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이다. 교회의 별들은 그분의 오른편에 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그의 종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그들을 그분이 명하신 때에 그곳에 두신다. 전도자는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모두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

그들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보내진 곳에서 역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다.

### 3. 여기에 우리 주의 사도들 가운데 계수된 가짜가 있다. —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19 절).

나는 유다가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로 보내셨던 자들 가운데 여기 올라 있음을 감사한다. 기억하라, 우리 주의 주권을 나타내며 그 단락은 시작한다. 그분은 그를 “할 자러라”고 부르셨다. 유다는 거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그곳에 있었으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였다. 비록 그가 사악하였고,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권적인 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려는 도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 매우 거짓된 선지자들 위에 계신 주(절대적인 군주)이시다 (베드로후서 2:1).

###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0-21 절).

만약 당신의 성경에 난외의 참조가 있다면, “친구들”이라는 말이 “인척들”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의 믿지 않는 인척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동정하였다. 그의 가족은 분명히 그분에게 공개적 적대감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가 친척이라는 사실로 난처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그분을 감싸 안고 길 밖으

---

로 끌어내려 시도했으며, 군중들에게, “그에게 아무 관심 갖지 말라. 불쌍한 사람이 제정신을 잃었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2 절). —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권능에 맞닥드렸을 때, 그에게 허리를 굽히기 보다, 그들은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렸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자칭 친구들 중 “공손한” 불신자와 바리새인들의 공개적인 모독에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3-30).

그분은 지옥의 권세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역설하신다. —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27 절).

---

다음에, 그분은 죄들의 용서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키신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28 절). 그리고, 그분은 의도적인 불신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29 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귀한 아들을 감히 비웃는 자는 누구든 영벌을 판결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지 않게 될 때가 온다. 나는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것을 가져오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래에 선을 그리셨던 것을 안다. 집요한 반역과 불신 안에서 그 선을 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저주 받았다 (잠언 1:23-33).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신다. 그분의 백성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할 능력이 없다. 그들의 마음을 세계 잡아 당기는 그 영의 부드러운 구애는 없다.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다. “나의 신(\*역주: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3). 사람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만약 그들이 감히 도전한다면 그것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도적 불신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분의 실제 가족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라**



---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1-35 절).

정신 나간 피난처로 그들과 함께 가려 그를 데리고 가려했던 그 형제들이, 가족의 곤혹스러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녀의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면서 그의 어머니께로 갔다. 그러나 우리 주는 그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측이나 추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23). 죄인들이 그의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양이다 (갈라디아서 4:4-7; 요한일서 3:1-3). 그리고 입양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

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14-16).

---

## 11 장. “그들이 그분을 엿보거늘”—마가복음 3:1-12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좃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뽀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마가복음 3:1-12)

---

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의 아들을 죽일 것과 그의 가족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가져가고,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사악함에 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2:35-36)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자와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공황이 많고, 충성되며, 순종의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 가운데 성취하셨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장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엿보고 그분을 고소하려 하는 한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료하셨다. 1 절부터 12 절까지 함께 읽어 보자.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행보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의 대적들의 시각과 그분의 친구들의 시각 안에서 그분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분께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고 계셨던 것을 하셨다. 그분은

---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안녕,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에게 선을 행함에 대하여 관심하셨다. 그것이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매일의 방향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발길을 따라야 할 하나의 본을 남기셨다 (베드로전서 2:21).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으며, 그들의 주를 닮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발길을 따라 걸으려 애쓰며 그분의 본을 따라 하는 자들은 복되다.

### 소망의 장소

첫째, 나는 하나님의 집이 소망의 장소임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1 절). 우리는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경배에 출석하는 자로서 회당에 왔었는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곳에 가실 것을 알았고 그분에 의해 치료받을 것을 소망하며 왔기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그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그곳에 계신 이유는 분명하다. 그분은 이 사람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공활에 속한 임무로 오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그에게 은혜로우실지 아닐지를 알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마른 손을 갖고 있었음은 알았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른 손을 치유할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았는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그는 지정된 경배 일에 그리스도께서 경배의 장소에 계실 것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회당에 왔다. 그곳은 그에게 소망의 장소였다.

---

나는 그랬을 것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이 궁핍한 죄인들을 위한 소망의 장소임을 확실하게 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다 (마태복음 18:20; 고린도전서 3:16).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사람의 혼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를 사소한 문제로 만든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집과 말씀의 사역에 당신이 불참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른 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공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망의 장소 안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공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처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병원에서 발견된다. 배고픈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궁핍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 소망의 장소에서 발견된다.

### 종교주의자를 증오하시는 하나님

둘째, 회당에서 우리 구원자를 고소하려 그분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의 대표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2 절). 만약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마태복음 12:10). 그들이 처음에 주 예수께 동정하는 척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은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동기는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기만적

---

임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속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행위나 말을 하는 것을 잡기를 바라면서 엿보고 있다.

이 일들은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 일은 술집이나, 뒷골목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멸하려 계락을 꾸몄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고, 아주 독실한 척 하고, 아주 엄밀한 것인 척 하였던 자들이 살인을 계획하며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었다! 주 예수께서 분노하며 그들을 둘러보셨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구원자를 고소하고자 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엿보고 있으며, 그로써 그들을 고소하려 한다. 좋은 그 주인의 위에 있지도 않고, 그의 주 위에 제자들이 있지 않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발길을 따라 걷는다면 그분이 하셨던 것 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잘 헤쳐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 많은 세상에서 모두 짝힌 사람들이다. 그들을 모든 사람이 엿보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주목함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은혜와 공화로 인하여 그분을 갈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분을 숭사하려고” 주 예수를 엿보았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이 가련한 사람을 향하여 그분의 온화한 공로를 드러내시자마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 획책하였다. Robert

---

Hawker 의 이 사악한 피조물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교훈적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 이로다.” (요한복음 8:43-47).

예수께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셨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여자의 씨, 그리고 사악한 자의 자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기억하도록 할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의 파멸이 그분의 선택 받은 자의 구원만큼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단의 시간이 올 것이며, 그 때 예수께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왕국에서 꺼내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구속 받은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될 때,’ 주께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그들을 ‘불뭇으로 던질 것이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사야 63:4; 마태복음 13:36-43, 15:31 마지막까지).



---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진실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하여 두 배로 진실이다. 그들의 옷, 그들의 시간 활용, 그들의 오락, 그들이 운전하는 차, 그들이 먹으러 가는 식당, 그들의 삶의 모든 관계,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 특히 종교적 사람들, 확대될 수 있고 그들을 대항하여 사용되는 어떤 오류 속에 그들을 가두어 두기를 바라는 자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찰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기록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은둔자처럼, 간단히 입고, Amish 처럼 단순한 옷을 입고, 누구든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행하지 않으려 매우 조심해야 하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은둔자 같이 산다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무 비우호적이다. 그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온화하고 친근하다면, 또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의 수다쟁이 자매들은, “저 여자를 보라. 지독한 바람둥이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평범하고 단순한 옷을 입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유행을 따르는 옷을 입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뽐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정말 나쁘고, 당신의 성품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거나 행하려 한다면, 그들은 개의 벼룩처럼 될 것이며, “자, 나는 언제나 의심스러웠다.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의 주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려 한 것과 그분

---

의 행동에 반응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절대 주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은 단순히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아셨던 것을 하셨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하고 처절한 모욕과 관련하여 하셨던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내려다 보셨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므로, 매일 매일의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지침을 주겠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 모독의 경우를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결코 주려 하지 말라.
-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의의 원칙을 범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 언제나 선한 것을 행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결코 행하려 하지 말라.
-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통치 받기를 구하라.

한 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도록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

---

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찐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

---

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4:7-5:5)

## 전능한 공훈

---

셋째, 3-6 절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전능한 공훈의 나타나심을 본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공훈의 사명으로 회당에 오셨다.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사명에서 그분이 벗어나게 하도록 하려 하지 않았다. 이 구절들에는 심각한 숙고를 할 것이 많다.

계명이 무기력한 혼에 주어졌다. —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3 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유 받은 사람의 율법적임을 이미 도전하였다는 사실의 빛 안에서 (마태복음 12:10), 이 사람에게 서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용기, 상당한 용기 혹은 큰 필요와 큰 믿음을 요구한다. 그 두 가지 사항, 큰 필요와 큰 믿음은 언제나 큰 용기를 낳는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4 절). —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사악함은 악의 행위만큼 악할 뿐이다 (계시록 2:4, 14, 20; 3:4, 15, 16).

그들 앞에 또 전 회중 앞에서 있는 이 가련한 혼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소를 끌어내기를 망설였을 자들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즐겁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당혹스럽게 된 사람들은 화가 난 사람들이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5 절). — 우리 주는 노하심으로 가득하였으나, 개인적인 복수의 분노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분노는 비통해하는

---

자의 분노였지, 격분한 자의 분노가 아니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것을 본다.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경멸로 여기셨다.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분노로 여기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 여기 우리 구원자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구원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다. 우리 주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을 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그분이 나사로에게 사망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의 부르심으로 죽은 자가 앞으로 나올 능력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으로 사망한 죄인들이 생명으로 나오도록 단지 자극하지 않는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이 온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다 (갈라디아서 1:6). 그분은 단순히 사망한 죄인들을 살리시려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사망한 자를 부르신다 (디모데후서 6:12).

이 궁핍한 혼을 치유하심 가운데 그분의 부드러운 긍휼을 구원자께서 보여주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주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6 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가졌다. 영광의 주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의 속임수를 가졌다. 그들은 헤롯당을 증오하였다. 그들은 헤롯당과 공통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을

---

때 헤롯당과 연합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이 “선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것을 하였던 것은 무시될 수 없다.

## 고무된 소망

넷째, 우리는 7-10 절에서 소망으로 고무되어 구원자께 달려들고 있는 궁핍한 혼들이 군중을 이뤄 모여드는 것을 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좃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뿔근히 함이더라.”

주께서 스스로 바리새인들로부터 피하셨다. 군중들이 그분의 권능과 은혜에 대하여 들었다. 이 궁핍한 혼들이 치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 예수께 나왔다. 그들은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사실로 공황을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기대가 부풀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만약 그가 문둥병자 열간이를 치료하셨다면, 그가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분명 치료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했던 자들은 치료 받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께 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치료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위하여 손 마른 자에게 하셨던 것을 하실 것이며,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약 그분이 하신다면, 그들을 치료하실 것

---

에 대한 소망으로만 나왔다. 그것이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방법이다.

## 패배한 지옥

다섯째, 11 절과 12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하고 엎드린 지옥을 본다. —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의 그림이 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원한 신격과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들 위에 임한 주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지옥 그 스스로 그리스도께 엎드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8-11). 사탄,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저주받은 모든 자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그분을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를 겁내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적들의 파멸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만큼 우리 중보자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사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범법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왕국에서 모으실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날에 주의 구속 받은 자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그분의 대적들과 우리 대적들을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을 불못”



---

으로 던져 버리실 것이다 (이사야 63:4; 마태복음 13:36-43;  
15:31; 계시록 20:14; 21:18).

---

## 12 장. 첫 열두 명의 전도자들—마가복음 3:13-21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지라.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마가복음 3:13-21)

여기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두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 언제나 기억되어야 하고 깊은 감사로 연구되어야 할 사건이다. 역사상 어떤 열 두 사람도 이 열 둘 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그렇게 잘 하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이 되지 않았다. J. C. Ryle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주었던 유익이 얼마나 큰가! 많은 왕과 부자들의 이름은 잃어 버리고 잊혀졌던 반

---

면, 몇 사람의 유대인 어부의 이름이 전 세상의 수 백만 인  
들에 의해 알려졌고 살아 있다.”

이 사도들은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의 책무는 아주 짧은 기간의 시간 동안만 존재했고,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었던 동안 뿐이었다. 그들은 치유와 방언과 계시의 구별된 은사들을 가졌으며, 그것은 사도 시대 이후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의 초기 동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성한 영감으로 설명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실하게 선택 받고, 은사를 받았으며, 임명되었다. 그들은 후계자들이 없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책무도 사망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었을 때, 사도 직분과 함께 하였던 모든 은사와 표적들도 역시 사망하였다.

## 열 두 사람들

여기 이 시대에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구원자에 의해 부름 받고 위임 받은 열 두 사람들이 있다. (1.) 베드로, (2.) 안드레아, (3.) 요한, (4.) 빌립, (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6.) 바돌로매, (7.) 도마, (8.) 마태, (9.) 가나안인 시몬, (10.) 야고보의 형제 다대오, (11.)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12.) 배신자 유다.

사도들의 숫자는 열 둘이었다. 그것은 중요하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열 두 지파들이 있었다. 교회는 열 두 별에 의해 대표된다 (계시록 12:1).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열 두 기초를 보았다 (계시록 21:12-14).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심판

---

하기 위하여 보좌 위에 앉은 열 두 사도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2:30).

우리 주에 대한 유다의 배신은 열 한 명만 남김으로써 사도 책무에 있어서 공백을 만들었다. 사도행전 2 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69:25 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은 유다의 배교로 남게 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교회의 책무이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맛디아를 택한 것도 교회의 책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주님의 의도는 그분의 교회가 열 두 사도들, 오직 열 둘 만을 갖는 것이다. 다윗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다른 사도가 유다의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 책무에 지명되어야 한다. 주께서 이 책무를 위하여 맛디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바울을 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5:8).

이 열 두 사람의 부르심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 높은 책무에 선택하셨던 증거였던 것처럼, 영원 가운데 하나님에 의한 모든 믿는 자의 택정과 같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의 구속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증거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1:1).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8:30).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피로 구원했던 자들을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부르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1:9).

동일한 일이 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실이다. 그분에 의해 보내진 자들은 그분에 의해 선택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름의

---

증거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이다. 그 전도자들은 그분의 사자들이 진리를 전하도록 보내졌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권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가 없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사람들인 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불결한 영에 권능을 행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 안에서 죽지 않는 혼의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곤 한다.

이 열두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것의 전형이고 예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공과에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내 의도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책무에 대하여 내가 쓰는 것이 당신의 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들이 이 복음 시대의 첫 번째 열 두 전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했던 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혼에 유익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전도자들이 세워졌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 주의 선택

내가 그 사도들, 이 열 두 전도자들이 모두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혼란스러운 사회에 주는 슬픈 해설이다. 그들 가운데 여자 이름은 없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도하는 여인은 무례한 행위이다! 하나님은 결코 전도

---

자료나 선교사로서 여자를 부르시지 않았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결코 남자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에 의해 명령을 받았다. 나는 뻔뻔하고 오만한 여자들을 제외하고 사내답지 못한 남자들보다 더 추악한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여자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추악한 자는 없다.

그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남자에게 적용된다. 그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그의 교파 소속이 무엇이며, 혹은 그의 외모가 어떤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남자가 복음 사역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이 일곱 가지 영역에서 이들 첫 번째 전도자들과 같아야 한다.

## 1. 변화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유다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가 변하지 않았음을 아셨다고 안다. 그것들에 대하여 나중에 다룰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다.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다. 사역에로의 부름은 언제나 제자 직분으로의 부름이 선행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할 수 없다.

---

우리는 결코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사역의 일을 매력적으로 만듦으로 그 일에 젊은 이들을 스스로 헌신하게 유인해서는 안 된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효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그 일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파멸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심지어 변화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내려 하는 것이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코끼리가 하늘을 날려는 것처럼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은혜롭다는 것을 결코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자에게 향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피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피신하라고 촉구할 수 있겠는가? 길 잃고, 변화되지 않은 전도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많은 상처를 입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불충성을 진작한다. 그들은 마귀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자이다.

## 2. 선택 받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은 거룩하게 선택 받은 사람들이다. 주께서 그를 “그분이 원하는 자!”라고 부르셨다. 그분은 키가 가장 크거나, 가장 멋지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호소력 있고, 가장 고상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내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B. B. Caldwell 이 성경

---

학교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로 너희 가운데 멋지게 생긴 소년들이 전도자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 말할 때 옳았다고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에게 의해 선택되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 3. 부르심 받은 사람들

첫째, 그들은 선택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부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모든 자는 복음 전파에서 발견된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효과적이다. 그분의 사자들로 선택하셨던 자들을 그분은 기꺼이 그분의 사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또한 우리 주의 구원 안에 있는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그림이다. 선택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부름 받았다. 그리고 부름 받은 모든 자는 그분의 은혜에 속한 권능의 날에 기꺼이 행하도록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효과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하려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정은 효험 있는 택정이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효험 있는 속량이다. 그 영의 부르심은 효험 있는 부르심이다.

### 4. 교통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은사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14 절에서 마가는 이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려



---

고” 그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들처럼,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며, 그분과 교통을 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을 쓰기 위하여 그분의 발아래 앉아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산으로 올라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 가운데, 그분의 영을 언제나 구하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따라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집에 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강단에 설 때, 요한이 그의 날에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1-3).

## 5. 봉헌된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성별되었다. 이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을 사고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0 절). 행해져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선과 하나님의 영

---

광을 위하여, 그들은 먹는 것조차 멈췄다. Matthew Henry 는 그의 소견에서 정확히 옳았다. —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마음이 확대 되어 버린 그들은 쉽사리 그에 대한 박해 가운데 자신들의 불편도 쉽사리 감수할 수 있다.”

## 6. 동정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동정심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믿는 자들을 관심한다. 15 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받았음을 듣는다. — 그리고 주께서 그들이 행하도록 주셨던 권세로 그들은 모든 그들의 능력으로 행했다. 그것은 특별히 사역의 일에 적용될 수 있다. 성별된 사람들은 동정심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동정심 있는 사람들은 실로 동정심 있는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들이다.

## 7. 위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성한 위임으로 전진한다. —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은 신성한 위임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도하려 보내졌다.

복음 사역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첫째로 또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상담자나, 아기 보는 사람이나, 사회 봉사자들이나, 교파 부흥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전도자들,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이다 (로마서 1:15-17; 고린도전서 9:16; 고린도후서 5:18-21). 이 모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다른 일들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 목사보다 더 철저

---

하게 쓸모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빛이 없는 등대처럼 쓸모가 없다.

## 합리적인 기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인 사람으로부터, 우리 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사들이인 사람들로 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해두겠다. 내가 복음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하여 언급할 때, 아르메니아 주의자들과 자유의지론자들과 행위주창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이다!

이 처음 열 두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면, 베드로처럼 비록 단순한 사람이고, 때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확고하고, 변치 않으며, 힘과 충성과 용기의 반석이 되기를 기대할만큼 합당하다. 복음 전도자는 비록 때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높이려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천둥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는 때로는 약하고 의심스러워 할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예루살렘으로 그분을 기꺼이 따라가는 도마가 되어야 한다.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나, 천연적으로 간사함으로 충만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바돌로매 (나다니엘)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많은 것을 잃을 것이 없는 자인 충성된 마태, 안드레아, 빌립, 야고보, 혹은 시몬일 것이다.

---

복음 전도의 일보다 더큰 짐은 없고 더 놀라운 책임은 없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되게 수고하는 자들은 당신의 끊임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이 아주 종종,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왜 유대인가?

하지만,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정통적인 자들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의 서신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비난할 경우를 주는 자인 간혹 이기적인 유대를 발견한다.

“왜 주께서 유대를 택하시고 사도들 가운데 그를 두셨는가?”로 전에 의아해하지 않았는가? 나는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가운데 적어도 어떤 부분을 말하도록 하겠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유대를 택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에 이르게하고 우리 혼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이용하려 배신자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려 지옥의 아들을 선택하셨다고 자신한다.

유대는 하나님께 예상치 않은 놀라움으로 그 장면에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있었다. 그리고 유다가 죽었을 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의 주에 대한 배신과 그의 자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향한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자리를 찾도록 이방인들에게 사도를 보내기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일 뿐이었다.

## 군중은 아무 의미가 없다

---

20 절에서 마가는 우리 구속자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군중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도록 인도한다. —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분이 가셨던 곳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 주변에 많은 군중을 이끄셨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인 큰 군중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설명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분의 은혜의 무한한 공급 가운데 우리 혼의 지속적인 치유를 위하여, 세상 주변과 하늘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넘쳐나고 셀 수 없는 군중과 함께 당신과 나는 매일 그분의 보좌에 모이는 특권을 가졌다 (시편 100:4-5; 히브리서 12:22-23).

그러나 큰 군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분의 세상 사역 동안, 우리 구원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던 군중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소망으로, 그분에 의해 먹으려, 그분에 의해 행해지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또는 그들의 몸에 어떤 기적이 행해지기를 바라며 그분 주변에 모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전도자였다. 그는 결코 말씀을 멈추고 찾지 않았다. 그는 결코 어떤 예시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언제나 권능으로 전도하였다. 그보다 더한 것은, 그분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였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지만, 아주 극히 적은 수가 그분의 사역 하에 변화되었다. 군중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전했던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느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

---

그것이 오늘날에도 사실이라니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신의 만족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종교를 사용하는지; 이기적인 전도자들, 교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너무 행복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종교적 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할 수 없다. 일요일마다, 교회들은 연극을 보고 공연하기 위하여, 시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논쟁거리를 토론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주장을 지원을 모으기 위하여, 연주회를 즐기려고, 셀수 없는 게임을 하기 위하여 군중들로 가득하다.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구하려 궁핍한 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은 거의 없고 아주 드물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 않는다.

큰 군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나 존귀하게 되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 안에 그분을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하기 위하여 두 셋이 모이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 영원히 매인 죄인들에게 기도로 충만하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 가족과 친구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21 절에서 그분에 의해 철저하게 당황하게 되었던 몇 명의 우리 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목하게 한다. — “예수의 친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

이 친구들은 그분의 인척들이었다 (요한복음 7:5). 그들은 그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이었으며, 그분의 복음과 헌신으로 당혹스럽게 되었던 친척들이었으며, 서기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생각했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 하였다.

누구에게든 어떤 놀라움이 될 만한 것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 예후에게 기름부으려 왔던 선지자는 “미친 자”라고 불렸다 (열왕기하 9:11). 베스도는 바울에게 그가 미쳤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26:24).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별을 깨닫기 위한 사람의 철저한 무능보다 더 충분히 인간 본성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야구 팀에 대해 충성스러운 팬이라면,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명예가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나, 학문이나, 사업이나, 스포츠나, 심지어 전쟁에 대하여 열심이라면, 그는 절제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다. 만약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그가 열정을 쏟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의 희생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 그의 하나님과 구원자께 은혜로 구원 받은 구속된 죄인의 성별은 나약한 생각의 표시로서 세상의 잘난체 하는 사람에 의해 멸시된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 영에 속한 것들은 이제, 그것들이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럴 것인 것처럼, 천연적인 사람에게 어리석음이다 (고린도전서 2:14).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오해 받고 잘못 전해 받게 되는 쓴 잔을 마셔야 할 때, 당신의 믿음을 흔들거나 그들

---

에게 양값음을 하도록 당신을 유도하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허락  
하지 말라.



---

## 13 장. 복음의 영광과 불신자의 위협—마가복음 3:22-30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가복음 3:22-30)

서기관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육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그분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들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주로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

그분을 마귀와 결탁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는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오해 받았으며, 그의 대적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호도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견디셔야 했던 시험이었다.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그분은 가장 오만한 분으로 여겨졌다. 그분이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분으로 여겨졌다. 비록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우셨지만, 모두 죄로 충만한 분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보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자기 고무적이고, 반역적이며, 반율법주의자라고 판단할 것이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행동을 곡해할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천박한 동기로 지배하며 우리를 고소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16-26).

우리 구원자의 인척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식충이고, 취하였고, 죄인이라고 불렀다.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우리는 동일한 대접을 예상하고 예비할만큼 지혜로워야

---

할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모르며,” 심지어 “세상이 그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악한 자들의 이런 비겁한 행동들은 우리 주권적인 주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선을 위한 일로 바꾸셨다. 그분은 그들의 악한 행동과 말을 취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만큼 지혜롭게 될 충분히 필요한 영적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다. 이 절 가운데 가르치는 것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 중상하는 서기관들

타락하고, 독선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비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처럼 하지만, 결코 그들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중상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John Trapp 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시샘은 절대로 얼마나 진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해로운가에만 관심한다.” 거짓스러운 마음은 거짓말 하는 혀에서 나타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주 예수에 대하여 고발 거리를 찾으려 하면서, 그분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22 절). 때로는 그들이 그분을 바알세불 (사탄)로 불렀고, 귀신의 왕 (마태복음 10:25)이라고 불렀다. 다른 때에는 우리 구원자의 공훈과 은혜에 속한 일들이 귀신의 일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적개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하도록 이끌렸다. 이 사람들은 그분이 미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

들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그분이 하나님만 소유한 권세를 행사하였던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의 적개심과 질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를 사탄에 기인한 것으로 돌렸고, 그분의 교훈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고 그분의 일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그분을 그들이 중상함으로써 폄하하기를 원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종교적 세력을 지키고, 그들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질투심 외에 더 고결한 것으로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구원자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종교적 중요성, 그들의 직업,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탄의 노예들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였다.

모두가 경계하자. 그런 거짓 일꾼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면서…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며” (고린도후서 11:13-15), 모든 세대 가운데 종교적 세상을 통하여 존재하였고 높이 존경 받았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 비유

우리 주 예수께서 비유로 서기관들의 고소에 대응하셨다 (23-26 절). 그 비유에서 그분께 대항하는 그들의 고소의 모순을 분명하게

---

보여 주신다. 어떤 바보라도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다”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합당하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 구속자의 이 말씀에서 가져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공과는 종종 가장 간과되기 쉬운 한 가지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공통된 근거로 친구이고 동맹이라고 추정하는 자들 사이에 싸움과 분열이라는 부끄러운 죄악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사악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평강을 높이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가 결코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배역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악하고, 언제나 악하며, 오직 악하기만 한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강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연합과 조화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에베소서 4:1-6, 30-32, 5:1-2). 우리는 가능한 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차별과 분쟁과 논쟁을 피하여야 한다.

---

교회를 가르는 세상적인 다툼처럼 교회의 무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다. 불필요한 논쟁은 복음의 확대에 쓰여져야 하는 생각과 정력과 시간과 노력을 흡수한다.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를 제공한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분열들은 얼마나 정당화하더라도 우리를 대항하는 마귀와 같은 편에 있을 뿐이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자이며, 지속시키는 자이고, 그런 것들로 이득을 얻는 자이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멸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의 군사들을 서로 싸우게 하므로 다투는 군대로 분열하려 지치지 않고 애쓴다. 교활한 옛 뱀은 오랜 경험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정복키는 것임”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들을 위하여 열심이어야 하고 그대야 한다. 내가 철저하게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라고 부르는 제단 위에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감상주의이다. 신성한 주권, 완전한 타락, 영원한 택정, 효험 있는 속량, 전능한 은혜, 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보전은 진리에 중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대하며, 사람들의 혼에 중대한 문제들이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한 치라도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그러나 교회 통치의 방법,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 회중이 설교를 “아멘”이라고 말하며 결론을 짓든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완전히 사소한 문제들이다.

우리는 결코 사소한 것들에 대해 법석을 떨지 말아야 한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

---

하고,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차이점들을 논쟁하면서 병적으로 빈틈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팔장을 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진리를 진작하기 보다 사소한 차이들을 훨씬 더 지적하고 확대하려 한다.

어떤 것도 그런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아무것도 없다! 당신과 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으며, 우리 의견, 우리 이름, 우리 욕망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은 무한하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모든 논쟁은 악하다. 그것은 육신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성취하지 않고, 오직 육체만을 만족시킨다. 논쟁은 언제나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소문과 험담과 비방과 살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거된다 (로마서 1:29; 고린도후서 12:20).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씀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을 세상 전체를 통하여 높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연결하셨던 지역 교회의 평강과 조화와 화합을 보호하고 높이는데 있어서 배가하여 신중하자 (고린도전서 1:9-13).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사려깊도록 하라. 서로에게 서로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인내하고, 관대하며, 오래 참아라 (야고보서 3:13-18; 4:1-3).

## 큰 은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7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위대하고, 전능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씀과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 안에와 위에 임하는 그분의 전능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운행하심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적 말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 보인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리라.” (이사야 49:24-26).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우리 마음은 그분의 집과 왕궁이다. 우리에게 대한 폭군적인 지배와 통치는 너무 커서 우리가 기꺼이 그의 종이 된다. 우리가 자유로워 지려 한다면 그의 통치에서 우리 자신을 결코 자유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인간 혼의 성을 점령하시고, 사탄을 내쫓으시고, 우리 삶을 소유하실 때 사탄이 한때 통치하던 그분의 보좌를 우리 마음 도처에 심으시면서 온다.



---

영광의 주께서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사망한 죄인을 기다리고, 그의 의지의 행위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불쌍한 작은 예수가 아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들이며, 긍휼 안에서 전능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완전히 잠겨진 문을 두드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안으로 오셔서, 혼을 취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환영 받으신다! 처음 하늘로 난 혼이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는 그분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이다!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권능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그분의 주권적인 영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사망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깨어나고 거듭난 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그분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분께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65:4; 110:3).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는 그들의 유일하고 의로운 주로서 그분께 자원하여 허리를 굽힌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자원한 매인 노예들이고, 그분 앞에 기꺼이 몸을 굽히고 그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 큰 용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28 절).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선포인가! 긍휼 가운데 기뻐하는 분이,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라

---

고 선포하신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를 맛보았던 사람, 자신의 마음의 타락을 아는 자, 그 혼이 바로 지옥의 불로 그의 양심을 괴롭히며 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전에 들었던 것 중 가장 큰 일이다. —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내 젊음의 죄들과 내 늙은 때의 죄들, 내 마음의 죄들과 내 손의 죄들, 내 생각의 죄들과 내 입의 죄들, 공개된 죄들, 감추어진 죄들,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그리고 미래의 죄들, 불신자로서의 내 죄들과 믿는 자로서의 내 죄들을 그분은 대가 없이,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하셨다! 사울과 같은 박해하는 자들의 죄들, 마낫세같은 우상숭배자들의 죄들, 라합같은 매춘부의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용서받았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 대한 얼마나 장대하고 폭넓은 선포인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사도행전 13:39; 요한일서 1:7, 9; 2:1-2).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범죄를 덮는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모든 범법을 이긴다. J. C. Ryle 은, “이것은 복음의 영광이다.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은 대가 없는 용서이고, 완전한 탕감이며, 완전한 사면이고, 돈도 대가도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음의 바로 그 영광인 이것을 붙잡아라. 종종 우리는 약해지고, 망설이고, 실패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전혀 무가치함을 올바르게 느낀다. 우리는 우리 혼 안에서 의기소침 하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수도 없는 죄들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분쟁을 넘어선 사실이다.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만을

---

우리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분의 피 만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한 것과 그분의 의 만을 하나님께 우리를 열납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모든 우리 죄들을 그분의 뒤로 영원히 던져버리셨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 영원한 저주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옥과 영원한 처벌의 실재를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회 집단 내에서 수용될 수 있고, 심지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29-30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저주”에 대하여 언급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 사실만큼 끔찍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기를 실패해서는 안된다. 죄는 무한히 악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무한한 가치가 있는 희생과 속량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서든지 죄를 발견하신다면, 그분은 그 혼에 그분의 무한한 진노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공휼 없이 쏟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도처에 있는 영원한 노예 상태의 죄인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가 없고 완전한 용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하자. 피난의 성에 당신의 혼을 위한 피난처를 취하러 오라.

---

시대의 반석이신 분 안에서 당신이 안식할 때까지 결코 안식하지 말라. 당신과 나는 영원한 지옥의 공포와 고통의 흑암 아래에서든, 하늘의 환희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에서 든지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곧 심판 가운데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분께 열납되기 위하여 어떤 탄원을 할 것인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아, 믿는 죄인들이 복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 어떤 복된 소망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니,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을 내가 갖네!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하네!  
이 소망을 나의 혼이 높이니,  
죄와 사탄이 압박할 때라: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은사라,  
그가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네.  
나의 죄들, 나의 죄들, 나의 죄들,  
하나 하나가 더럽혀졌네!  
나에게 임한 진노의 이유가 남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아들 안에서 보시네!  
그러니, 내게 올 수 있는 것은 오라,  
그것은, 내가 아니, 축복받을 뿐이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나를 위하여 축복된 것을 하실 것이라!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

29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강조하여,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라고 천명하신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와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억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적 체계로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한 계시, 분명하게 천명되고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히브리서 6:4-6; 10:26; 요한일서 5:16-17).

무엇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가? 나는 여기서 주의를 요함을 충분히 인지한다. 성경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서기관들과 그 공범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그것을 범한 자들의 실례로 갖고 있다 (마태복음 12:31-32).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며, 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장에 허리 굽힐 것을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적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의도적인 거절의 조합이고, 머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잠언 1:23-33). 비록 다소의 사울이 박해자였고 훼방자였으나, 그가 그런 것을 무지하여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다 (디모테전서 1:12-13).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수가 이것으로 크게 고통을 받아 왔으며, 그들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두려워 해왔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한다. 나는 동일한 두려움을 가졌었다. 사탄이 종종 그의 죄에 대한 인식으로 몰락하게 된

---

혼을 농락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확신하며, 우리 주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훼방, 용서 받을 수 없는 이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저지를 수 없다.

모든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의와 영생과 하나님께 열납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죄인은 그것을 범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 신뢰하였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심히 두려워 하여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시험 받은 혼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이 훼방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범할 위험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있다.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그들의 혼을 하찮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일서 1:9). 그러나, 모든 믿지 않는 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위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6).

---

## 14 장. 주님의 가족—마가복음 3:31-35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31-35)

앞서의 절들(22-30 절)에서 우리는 귀신들과 동맹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에 의해 비난받는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를 본다. 그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22 절) 고 말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혐의와 꾀스런 고소는 이 때 우리 주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유일한 시험이 아니었다.

3 장의 이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31 절)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다섯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그의 제자들과 동일시하며 그분의 제자들을 그의 참 가족으로 소유한다. 우리 주의 세상의 가족은 그분의 삶의 아름다움, 그분의 순종의 필요성,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

---

나는 그들이 그분을 형제로서 사랑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그들이 적어도 어떤 면에서 그분의 육체적인 안녕에 대해 걱정하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하면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그분에 대하여 염려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분이 단지 열 두 살의 소년이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라고 주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단락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의 영향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 죄인인 마리아

이 단락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야기 가운데 있는 많은 다른 단락들, 마리아가 육신 안에서 죄로 충만함과 약함에 대한 말씀은, 로마 가톨릭 우상의 지극히 한 부분인 마리아의 이상숭배적 경배를 막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다.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구원자의 인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처녀 태 속에 잉태되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자신이 완벽하게 수태하였고 그녀는 죄가 없었다고 우리가 믿게 하였다. 아무 것도 진리에서 더 떨어진 것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는 고결한 성품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라합이나, 당신이나, 나보다 본성적으로 더 영적이고 거룩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죄로 충만한 부모에서 난 죄로 충만한 딸이었다. 그녀는 그녀가 스스로 그녀의 구원자이고 주로서 경배하였던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거룩하고 고결하였다 (누가복음 1:46-48).

마리아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되다”고 불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선택 받은 죄인들이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 없이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받는 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정도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올려다 봐서는 안된다 (에베소서 1:3).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으며, 성령에 의해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분별된 죄인이었다. 그녀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었다.

로마 가톨릭은 또 마리아의 처녀성이 영원하였다며,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모순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원자의 형제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이 주 예수를 따라서 낳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의 어린 동생은 마태복음 13:55에 나온다.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는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처럼, 종교적 미신에 불과하다.

마리아에 대한 찬양과 찬사보다 더 완전하게 성경의 기초가 없는 종교적 실행은 없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는 모독적인 실행은 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상적이다! 이제까지 세상에 살았던 유일하게 죄없는 사람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사람, 우

---

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도를 드릴 유일한 사람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분은 하나님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 가족의 방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구하는만큼, 살과 피의 최선의 의도라도 종종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의 분명한 예를 본다. 영적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구원자의 가족은 그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하여 염려했던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그분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었다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헤롯당이 그분을 죽이려 모의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주 예수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사자를 보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말을 주체넘고 무례한 제안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마리아의 편에서, 전혀 그런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였지만, 그녀가 순수하게 믿는 자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비록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 주의 다른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의도를 가졌으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분께 최선이였기만을 갈망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연히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도록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제시하신 공과를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혈

---

과 육으로 타협해서는 안된다 (갈라디아서 1:16). 만약 우리가 우리 혼의 상태를 알았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갈망이나 우리 가족의 갈망, 혹은 인간의 지혜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삶의 어떤 주어진 영역 가운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주께서 당신이 하도록 하셨던 것이라고 아는 것을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아브라함은, 만약 그가 사라와 협의하였다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십보라의 말을 들었다면, 주께서는 그가 이집트로 돌아가기 훨씬 이전에 그를 죽이셨을 것이다. 나단은, 만약 그가 결과가 무엇이였을까를 고려했었다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 요구되는 충성

이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들 가운데 요구되는 한 가지 사항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예증한다. 그분의 대적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본성적으로 그분께 소중한 사람들의 잘못 인도된 염려들에 직면하여, 우리 구원자의 해결책은 확고하고 가차없다. 그분은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었다. 그분은 침례 받아야 할 침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곤란을 겪었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온전한 의를 성취하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저주 받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 진노의 컵을 마시게 되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종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당신을 좁은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자. 당신의 손을 쟁기에 올려 놓았는가? 아무것도 당신이 뒤돌아 보게 하지 않도록 하자. 당신은 경주에 돌입했는가? 오른편도, 왼편도 바라보지 마라. 오직 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를 바라보라. 만약 좋은 의도의 친구들이 당신을 단념시키려 한다면,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고 답하라 (느헤미야 6:3). 만약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하려 한다면, 바울이 그의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답하라. —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13). 당신의 마음의 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당신의 혼의 눈을 지키고,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한 자로 보이고 우리에게 앞서 하늘에 오른 사람들의 위대한 주를 지켜라 (히브리서 12:1-4).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은혜를

---

주시기를. —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 그리스도의 가족

주 예수께서 33-35 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참된 제자들은, 그리고 오직 그들만 그분의 가족의 지체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람으로서 자신의 육체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가지셨던 사랑의 깊이를 상상할 수 있는가? 아기인 그분을 보살피고 양육하였던 그 여자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분이 태어났던 같은 모태에서 태어났던 그들인 그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모와 삼촌과 사촌을 향한 애정을 알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분의 택한 자들과 비교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는 당신과 나와 비교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가족과 가장 귀한 인척에 대한 갈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모든 참되게 믿는 자를 위하여 여기 기록된 것들에서 찾게되는 것은 큰 위로이다. 하늘에 한 분이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며,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 모두이신 분이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고, 관심하며, 그분 자신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여기시는 분

---

이다. 우리는 더러운 것보다 더 가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이고 자매들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서 조차 박해를 받고 대접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신을 위하여 다윗의 말씀을 취하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10). 이 가족에 속한 자로 계수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수혜자이고, 하나님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일서 3:1-3).

## 엄중한 경고

이 단락은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박해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포함한다. —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고, 괴롭히며, 박해하는 모든 자는 두려움에 떨 이유가 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비방하고, 해치고, 욕설을 하거나 박해한다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임

---

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당신의 경멸의 대상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 혈족이다. 이 사람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분의 가족이다.

우리는 전능하고, 전능한 친구를 가졌으며, 그는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소유의 원수를 갚기로 맹세하셨던 분이다. 우리 구속자는 전능하다. 그리고 그는 우리 우리 주장을 변론하실 것이다 (잠언 23:11).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주장을 변론하신다. 그분의 주장 안에서 언제나 충성되게 보이도록 하자.

---

## 15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가복음 4:1-20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쥘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1-20)

우리 주께서 땅에서 사역 동안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중에, 아무것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폭넓게 알려지고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은 없다. 비유 그 자체는 쉽게 이해된다.<sup>3</sup> 누구나 농부의 일에 대

---

<sup>3</sup> 이 동일한 비유에 대한 Robert Hawker 의 해설과 마태복음 13:3-23 에 있는 비유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설명은 전체를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의 백성을 위하여 아주 기쁘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우리의 해석에 남겨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직접 그 해석을 주셨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분의 종들의 모든 수고를 필요 없게 한다.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우리 주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어린 아이라도, 은혜 아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더하기 위하여 독자를 붙잡아 두지 않고, 다만 그 위에 그 전체를 통하여 가르침의 아름다운 광택이 흐르고 있는 가를 잘 보도록 붙잡겠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뿌리는 씨를 그분의 왕국의 복음에 비유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전체 목표에 관한 이해의 축복 안으로 즉시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께서 공중의 새의 모습 아래에 있으며, 마음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가는 마귀에 대하여 말씀 하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며, 무익하게 되어 버린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은 때때로 기억에 남겨진다. 마리아의 경우에서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간직했다. 즉, 그녀의 기억 속에 간직했다. 누가복음 2:51. 따라서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낚아채 버린다

---

해도 깨달음은 그렇지 않으며, (깨달음의 원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을 또한 보라. 욥기 28:28) 마귀가 마음 속에 은혜로 심겨진 것을 가져갔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께서 심으신 은혜가 결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나, 그러나 마귀는 은혜 없는 듣는 자들이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들 가운데, 모든 다른 유익이 없이 듣는 자들은 물론, 왕국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므로, 이사야의 충격적인 예언이 성취되며, 그것은 그 광대한 중요성으로 신약 성경에서 여섯 번 이상 인용되고 있다. 즉, 이 장에서 14, 15 절이다. 마가복음 4:1. 누가복음 8:10.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8:26. 로마서 9:8.

같은 방법 안에서, 돌밭 같은 마음의 듣는 자들 위에 떠오르는 태양에 관하여, 우리 주께서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려, 그분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심으로 떠오르시기 때문에, 의의 태양을 의미하였다고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하여, 아가서 1:6 의 사람들의 분노, 교회가 불평하는 것들을 박해의 태양, 말라버리고 태워버리는 태양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물을 주는 하늘의 이슬이 없다. 그리고 더우기 씨가 땅 속이 아니라, 돌밭 위에 떨어졌음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논쟁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먼저 보았어야 했다. 우리가 절대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재를 따라 온다. 이 돌밭의 사람들은 절대 뿌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언급된다. 여기서 언급된 특징들이 공개적인 모독이고, 신성한 일들에 부주의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많은 고백을 한다는지 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 머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절대로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의 부자들은 영원한 부를 선호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시로 뒤덮인 땅처럼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땅에 있어서, 그 속에 씨가 뿌려진 땅은 새롭게 된 마음, 주권적인 은혜로 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 천연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온 다른 소출은 또한 동일한 은혜로부터 완전하며, 사람의 개선에서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증가가 단지 가장 낮은 종류에 속한 사람, 비록 동일한 양은 아니지만, 모두가 동일한 자질의 사람의 혼은 복되다.

---

해 잘 안다. 농부는 그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식물을 보살피고, 곡식을 거둔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나 뿌려진 씨 중 많은 양이 아주 손실되고, 결실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이 잘 알려진 비유의 영적 함축 내용을 깨닫는 것 같다.

이 비유는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생을 소망하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지역 교회로써 보이는 한, 이 비유는 적용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듣는 자들 중 대다수가, 복음을 들은 후 그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거듭나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한 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이다. 복음 전도자들은 밭을 심는 농부들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 위에, 영원히 매인 사람들의 마음 위에 뿌린다. 이것은 부주의 하고, 생각 없는 절차가 아니다. 전도자는, 만약 그가 정말로 충성된 복음 전도자라면, 그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한다. 그는 그가 전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반응에 무관심하지 않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혼에 대

---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은 태양과 같은 참된 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높은 자만큼 복되고 겸손한 혼을 만든다. 그것이 모두 예수께 속하였고, 예수로부터 나오며, 예수께로의 모든 것, 모든 영광이기 때문이다.

---

하여 깊이 관심한다. 그들은 수확의 소망 가운데 씨를 심는다 (시편 126:5; 전도서 11:1; 이사야 55:11).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큰 수확의 소망 가운데 복음의 씨를 충성되게 심는 자이다.

## 씨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 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 가운데 깨닫고, 전하고, 기뻐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택하셨다. —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1)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역주: 하나님, KJV 참조)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의 도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신다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은 성경의 신실한 전람의 방법을 통하여, 혹은 방법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성되게 설명되고 전도될 때만 충성되게 설명되고 전해진다. Rolland Hill 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정확히 옳았다. “어떤 설교든지 ‘세 개의 R’(타락에 의한 파멸(Ruin), 피에 의한 구속(Redemption), 성령에 의한 거듭남(Regeneration))이 없다면 절대 전해서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전도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이다.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 결과

복음 전도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히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모든 자에게 무작위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결과는 마구잡이가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성취한다 (이사야 55:11).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모두 산출하거나, 마음의 천벌의 무지와 냉담함을 산출한다 (고린도후서 2:14-16).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1-12 절).

여기서, 주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인용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9-10).

---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3:3-4 와 고린도후서 2:14-16 에서 필연적으로 동일한 것을 말한다. 사람의 불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행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정도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고친다. 오히려, 부도덕한 자의 의도적인 불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3-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14-16).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믿는 마음은 주께로부터 온다. 믿음은 사람들이 안으로부터 모으는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은사이고 역사이다. 만약 당신이 믿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심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29).

---

믿지 않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안보이게 할 뿐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자들처럼 눈이 먼 자는 없다. 그리고 아무도 복음에 냉담한 자들처럼 냉담한 자는 없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경멸할 때, 그들이 전해진 말씀에 스스로를 단호히 완고하게 할 때, 그들이 경멸한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매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 (잠언 1:23-33).

### 길가의 듣는 자들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길가에 심긴 씨처럼 받아들인다. —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5 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들의 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원에 대하여 무관하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다. 그들은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행하여 존경 받을 일이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그들은 전도자가 말하는 말씀을 들으려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으로 실증을 내지 않으려 애를 쓴다. 그가 전하는 동안 내내,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듣는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문을 나서기 전에, 지옥의 검은 까마귀가 그들의 냉담한 마음에 뿌려진 씨를 낚아채 갈 것이다. 그들은 길가의 청중들이다.

### 돌밭의 듣는 자들

---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에 의해서 돌밭의 듣는 자들로 묘사된다.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간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6-17 절).

많은 돌밭의 듣는 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빠르게, 그러나 오직 일시적으로 인상을 준다. 그들의 종교는 모두 피상적이며, 단지 헛된 것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불 속에서 타는 가지덤불처럼, 그들은 탁탁 소리를 내고 튈 것이며, 많은 소리를 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광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선한 농담을 말한다. 그들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그들은 심지어 내적인 충동과 희망과 갈망과 다툼과 두려움에 대하여 말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들은 뿌리가 없다. 문제의 뿌리는 그들 안에 있지 않다. 경작되지 않은 흙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아무런 뿌리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 확신도 없다. — 회개도 없다. — 그리스도 안의 믿음도 없다.

돌밭의 듣는 자는 한동안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종교는 요나의 호리병과 같다. 어떤 날 밤에는 솟아나고 또 어떤 날 밤에는 없어진다. 그는 한동안은 예쁘게 보이고 향기가 좋은 꽃들을 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시들어 죽는다.



---

뿌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으며,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작은 시험, 고통, 혹은 유혹은 너무 커서 돌밭의 듣는 자가 견디지 못한다. 복음의 실족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박해나 반대가 그를 파괴할 것이다.

John Trapp 은, 돌밭의 듣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며, 뒤로 물러선다. 이들은 변성하는 개종자들이고, 성일의 종들이며, 정치적 신앙 고백자들이고,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 가시떨기의 듣는 자들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들로 묘사된다.

“또 어떤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18-19 절).

길가의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돌밭의 듣는 자는 더 감동적이다. 그는 크게 튀지만,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이다.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는 복음에 동의하고, 복음을 인정하며, 복음에 감동 받는다. 그는 좋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종교 안에서 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하고, 참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한다. 그는 심지어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표면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모

---

든 사람의 눈에 감추어진 문제이다. 그것은 심지어 그 자신의 눈에도 가려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 문제는 세속적임 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한다.

하지만,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15). 조만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선택할 것이다. 슬픈 사실은 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지만,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옳아서 그들이 지옥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들이 했던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도 철저하게 정당화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주 예수는 세 가지 사항 중 하나가 결국 당신의 혼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당신에게 경고하신다. “이 세상의 염려들” (심지어 진정한 염려들), 혹은 “부자들의 부정직함” (물질주의),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명성, 평가, 지지, 지위, 권력, 음란, 쾌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그로 인하여 당신이 이제 제한되는 것으로 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조심하라!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혼에 좋다. 아무도 내가 느낀 것을 느끼고 체험한 것을 체험할 수 없고 여전히 타락하였다.” 당신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거짓 믿음은 강력한 기만이고, 그 기만으로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옥에서

---

끌어내려 진다! 아무것도 거짓 믿음만큼 그토록 모질게 하고 그토록 저주하는 것은 없다.

- 거짓 믿음은 크게 빗비춤을 받을 것이며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6:4).
- 거짓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개혁하였던 것처럼, 외적 삶을 크게 개혁할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큰 안녕을 말한다.
- 거짓 믿음은 사울 왕처럼 개인적인 죄를 고백할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아합처럼 비탄에 잠겨서 스스로를 실망시킬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에서와 유다와 함께 눈물로 회개할 것이다.
- 거짓 믿음은 다소의 사울과 함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행할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매우 관대하고 동정심이 있을 것이다.
- 거짓 믿음은 말썸 아래에서 벨릭스와 함께 떨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종교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히브리서 6:1-4).
- 거짓 믿음은 롯의 아내와 함께 큰 종교적 특권을 누릴 것이다.

- 거짓 믿음은 우리 주께서 언급하셨던 자들처럼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 거짓 믿음은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얻을 것이다.
- 거짓 믿음은 데마처럼 위대한 전도자들과 함께 행할 것이다.
- 거짓 믿음은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종말까지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확고하기 조차 할 것이다

### 좋은 땅의 듣는 자들

참된 믿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배와 육십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0 절). 좋은 땅은 거듭난 마음,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예비된 마음이다. 마음의 경장되지 않은 땅이 율법의 날카로운 쟁기로 깊이 잘려 부서졌다. 단단한 흙 덩어리가 죄의 자각의 무거운 쟁기로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우뢰와 같은 비로 산산이 부서지고, 마침내 하늘의 달콤한 이슬로 부드럽게 된다.

거듭난 마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예비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빨리 맺고 더 풍성히 맺는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 영의 열매이지, 독선의 행위도 아니고, 육신의 행위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5:16-23).

---

당신은 어떤 종류의 듣는 자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듣는 자인가?  
— 길가의 듣는 자인가? — 돌밭의 듣는 자인가? —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인가? — 좋은 땅의 듣는 자인가?

---

## 16 장. 개인적인 책무의 몇 가지 문제들—마가복음 4:21-25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21-25)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축복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은혜로 만의 결과이고 역사이다. 모든 영적 유익은 순수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영적 축복들이고, 은사들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당신은 당신의 어떠함, 당신의 행위, 당신이 행동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 나는 나의 어떠함, 내가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4:21-25 에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것이다.

---

이 정신이 들게 하고 날카로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우리 주의 비유 뒤에 바로 주어졌다. 그 말씀은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짧고, 짧고, 뾰족하며, 날카로운 화살들이고, 마음을 찌르려 한다. 우리 구원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은 종교주의자의 가짜 믿음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려 경고하신다 (그분은 그의 제자임을 고백한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에게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신약 성경을 무심코 읽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전도 사역 중에 자주 직접 반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수 많은 시도들이 복음 저자들에 의해 그분의 사역의 여러 이야기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여러 해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대답을 얻기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야기하고, 명확함보다 혼란을 더 야기했다.

이제까지 살았던 최고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며, 영적 진리들이 종종 반복될 필요가 있다는 예로서 보여지고 사람의 양심을 압박한다. 우리 주께서 등경을 말 아래 두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자주 전하셨으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 종교의 위험에 대하여 자주 전하셨다. 그분은 동일한 설교를 여러 번, 심지어 같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기 때문에 어떤 정당성도 주장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말씀은 가장 오래된 말씀, 가장 반복되고, 가장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그것은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전했던 말씀과 오늘날 아담

---

의 타락한 자손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 의한 구속과 구원의 말씀이다.

## 빛의 책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1-22 절).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의 빛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확산하는 것은 그의 책무이며,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도 그 책무임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우리 주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좋은 뜻을 가진 누구도 초를 켜서 그것을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촛불을 켜는 목적은 그것이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마루 불을 켜서 옷장에 넣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불을 켜면 그렇게 해서 어둠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은혜롭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의 빛을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고 나가서 어둠과 사망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려 하려 하심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주시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는 그가 살고 있는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전도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

오히려 주를 아는 모든 자의 일이다. 만약 당신이 은혜로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당신의 책무이다. —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우리가 만약 파괴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발견하였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정중하게 변명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내가 광신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가 개종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야만인 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단으로부터 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처해졌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촛불에 비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27). 거듭난 사람들은 어둠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며, 빛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진다. 하지만, 가장 밝은 등불은 의에 태양에 비유되는 단지 촛불, 아주 가련하고 희미한 빛이다. Matthew Henry 는, “촛불은 조금만 빛을 비추고, 단지 잠깐 동안 비추며, 쉽게 불어서 꺼지며, 계속하여 타들어가고 없어진다.”

등불이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빛비추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바꾸니 아래에 둔다고들 한다. 그들은 거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은혜를 덜 사역하

---

는 것 같다. 그들은 풍성히 갖고 있지만, 그것을 거의 행하지 않는다. 사실상, 일반적인 법칙처럼, 예외 있는 법칙들이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을 갖고 있고 선을 행할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많은 부자들, 도우려는 생각이 없이 어려움을 인내하는 형제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한 사람들을 안다.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고,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최소한의 행동을 한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매우 영적이지만, 아무도 그들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바구니 안에서 타는 촛불과도 같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탈 뿐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고 책임이다. 각각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선교사이다. 우리 사역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우리 삶이 접촉하는 사람들이다 (이사야 44:1-8; 사도행전 1:8). 촛불 같이 빛나는 자들은 자신을 촛대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섬김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받았다.

---

우리 주는 비록 복음이 과거 세대 안에서 세상의 열방들에게 가리워져 있었지만, 도처에 선포되어야 하고, 은혜로운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 절).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지기 위해 계시되었다. 영원히 맏인 죄인들에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성되게 전하며, 그들의 혼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은 각각의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다.

하늘로 난 혼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다.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5).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난 혼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감추신 은혜의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모든 하늘로 난 혼의 책임이다.

### 들음의 책임

둘째, 우리 구속자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속한 방법에 우리 자신을 유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3-24 절).

---

나는 그것과 관련한 나의 깊은 회오를 나타내기 위하여 충분히 강조하여 이것을 말하기 어렵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의 사역처럼 당신의 혼에 필요하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은 없다. 우리 구원자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은 영적 귀와 영적 들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묻겠다. “만약 육체적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영적으로 들으려 하는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지 않은 자는 아무도 결코 구원 받지 못할 것이며, 결코 아무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하였던 말이다 (에베소서 1:13). 그것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로운 방법이다 (로마서 10:17;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오늘 날에 도처의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일로 공공연히 비난 할 때, 바울의 말을 기억하자: “예언을 떨시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20). 그의 죽음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도자에게 명령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2).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이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고,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 안에서 계발되고 건축되며, 이 세상에서 한결같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복음의 전파로 인함이다.

우리가 그분의 성도들의 공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도

---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자가 자신과 가족을 이교도와 아르메니아주의,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영향 아래 처하게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고 세상 전반에 걸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듣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한다. 우리는 성도들의 집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 “전도자는 어떤 선한 것을 말한다.” …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 어떤 것에도 주목하지 않겠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나는 우리 구원자의 경고를 반복하겠다: —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 주께서는 그분이 그것을 언급하실 때 단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마가는 그가 그것을 기록할 때 단지 여백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요한일서 4:1; 요한이서 1:7-10). 만약 당신의 혼을 염려하고 당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아내, 자녀, 등)의 혼을 염려한다면, 아르메니아주의,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복속하지 말라. 만약 당신의 혼을 염려하고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복음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도에 자신을 젖어들게 하라.

## 판단의 책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4-25 절).

---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책무임을 우리는 가르침 받는다. 이 두 문장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당신은 이 두 문장에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그것은 좋은 칼빈주의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내편에서는, 나는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 이 두 문장을 주의 깊게 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헤아리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안다. 우리는 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안다. 하지만, 아무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없이 구원 받지 않을 것처럼, 어떤 믿는 자도 은혜에 속한 방법, 복음의 사역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정도는 방법의 사용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 가운데 행보에 있어서 그의 충성 가운데 그 자신의 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적용될 수 있다. —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

---

을 얻느니라.” (잠언 13:4). —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잠언 19:15).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은 언제나 근면한 혼, 기도 안에서 부지런하고, 말씀 보기에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부지런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면한 사람은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언제나 근면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말로 자신을 결코 묘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수한 것을 심는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베드로후서 3:18).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25). — John Gill 은 우리 구원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엄두에 두고 썼다.

“복음의 빛과 지식을 가진 그가,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게 할 것이며,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여정은 공의의 여정과 같을 것이며, 그것은 온전한 날에 더욱 더 빛난다. 은혜와 지식의 방법은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석하므로 그는 …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장의 정도에 이르며, 성숙함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며, 깨달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

그것이 정확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은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비록 혼 안의 은혜의 시작이 작으나, 구원 받은 죄인을 겸허하게 하며, 중국에 은혜의 영광은 형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행사하고 그분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축복된 구원자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로 인하여 성장한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므로,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에게 헌신 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충성되게 드린 자들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더 큰 유효함을 받게 될 것이다. Gill의 말을 다시 인용함을 허락하라.

“대중에게 쓸모 있는 은사를 가진 자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나, 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며, 그들이 늘어나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는 별로서 빛날 것이며, 교회의 하늘 가운데 더욱 더 밝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종말에 그들이 소유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마



---

도 유다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다. 분명히, 믿음의 고백 외에 은혜도 소유하지 않은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대한 여기서의 경고이다.

복음의 이론적인 개념만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는 조만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행로에서 그의 촛불은 꺼질 것이다. 그의 빛은 어둡게 될 것이다. 그가 한 때 하였던 고백을 일단 갖고 있다 단념한 진리들을 내려놓고 부인할 것이다. 오직 가짜 은혜와 믿음의 겉치레와 거짓 소망과 입으로만의 사랑만을 가진 자는 때가 되면 그가 실재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위선 외에 아무것도 없다!

참 은혜는 결코 잃어 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은혜와 믿음의 자처함들은 위선자에게는 영원한 곤란과 고통이 될 것이다.

---

## 17 장. 영적 성장—마가복음 4:26-29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26-27)

이 구절들에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 중 아무도 기록하도록 감동 받지 않은 우리 주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를 기록한다. 겨자씨 비유 바로 직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직후에 우리 주에 의해 주어졌다. 영적 성장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 주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언급되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망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우리 주의 가르침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깊이 교훈적이다. J. C. Ryle 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들에 대한 우리 체험의 예를 환기해 준다.”고 썼다. 이 비유는, 비록 아주 짧지만, 우리 주의 다른 비유들만큼 달콤하고 교훈적이다. 그것은 선택 받은 죄인들 안에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내가 성장 할 것인지 주께 물었으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모든 은혜 안에서;  
아마 그분의 구원에 대해 더 안다면,

---

또 진정으로 그분의 모습을 더 구한다면,  
내게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분은 그분이라,  
또 내가 믿는 그분이 기도에 답하셨네;  
하지만 그런 방법 가운데 있었으니  
나를 거의 절망하게 만드셨네.  
내가 소망했으니 은혜 받은 때에,  
즉시 그분이 나의 요구에 대답하시네;  
또,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능력으로,  
내 죄들을 정복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시네.  
이 대신에, 그분이 내가 느끼게 하셨으니  
내 마음의 감추어진 악들이라,  
또 지옥의 분노한 권세들이  
토처에서 내 혼을 괴롭히게 하네.  
그렇다, 더욱 그분 자신의 손으로 하시려 하셨으니  
나의 비탄을 가중케 하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공정한 계획을 넘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낮은 곳에 두었네.  
‘주여, 왜 이런가요?’ 나는 떨며 부르짖었네;  
‘당신의 버러지를 죽게 하시렵니까?’  
‘이런 방법 안에 있으니,’ 주께서 대답하셨네,  
‘내가 은혜와 믿음을 위한 기도에 답하노라.  
이 내적 시험들을 내가 쓰노니,  
자아와 교만에서 너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또 너의 세상 기쁨의 계획을 부수려 함이라,  
그로써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내게서 구할 것이라.’”

---

*John Newton*

우리 주는 여기에서 은혜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성장에 대한 특정한 네가지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작은 씨가 강하고 열매가 풍성한 식물로 자라는 성장을 사용하신다. — “하나님의 왕국도 그와 같으니라.” 마가가 이 비유를 기록하도록 감동케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공과를 함께 보도록 하자.

### 씨 뿌리는 자

첫째, 알곡의 성장은 누군가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역사 안에는 복음의 보배로운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6 절).

땅은 그 스스로 알곡을 결코 맺지 않는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이후로, 이 죄로 저주 받은 땅은 가라지와 가시나무와 가시떨기들 외에 아무것도 맺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밀이 아닌 잡초를, 알곡이 아닌 가시떨기만 산출한다. 단단한 땅은 농부의 쟁기와 씨레로 부서져야만 한다. 이 씨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뿌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이다. 홀로 남겨진 사람은 누구도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하였고, 영적이고, 선하고, 의롭고, 은혜로운

---

모든 것이 없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범죄 가운데 또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다. 죄인은 어떤 의롭고 영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 사망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상태는 모두 철저하게 무기력 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영으로 타락한 마음의 경장하지 않은 땅을 부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이 보배로운 씨를 뿌림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그 사망한 죄인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사랑스런 식물이 결코 인간 혼의 성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은혜는 외래종 식물이다. 그것은 모두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필요를 알 자는 결코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분을 거의 찾지 않을 것이다. 은혜롭고 의로우며 영적인 생명, 내적 선은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는 은혜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가르친다. — 복음 전파이다! 그 약속된 방법을 경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자들은 단지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경작되지 않은 밭속에서 옥수수 밭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 속의 사람은 복음 전도자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보배로운 씨를 갖고 보냄 받은 자이다. Robert Hawker 가 올바르게 보았다. “땅에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를 의미하지 않는데, 그분은 즐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분이기에 때  
문이다. 그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도 없으며, 그분의 씨가 싹트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시편 121:4; 이사야 27:2-3).”

## 씨

심겨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  
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고, 살아서 영원히 거하는 씨지 않  
는 씨이다 (베드로전서 1:23-25).

John Gill 이 이렇게 썼다. “그것은 그 외소함으로 인하여, 작은 특  
징을 갖고 있고, 누군가 그 안에 경멸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자체  
에 상등급과 뛰어남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 있고, 신성  
한 영향력 아래 그의 생명력으로 인함이다. 복음은, 고수 씨처럼  
작고 동그란 것이었던 만나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경멸  
스러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멸망하고 어리석은 복음 전도도 그러  
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수 많은 금과 은  
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 자체로 선택이고 보배로운 씨이다. 무  
가치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아 보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신성한 미  
덕이 있다. 또, 강하고 효험 있는 은혜의 영향 아래, 그것은 혼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며, 그들 안에 열매를 산출하고, 그것은 영원  
한 생명을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씨는 땅에 뿌려지고 덮이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이 소용 없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  
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곳에 받아들여져서, 그 권능을 통하여 효  
험 있게 역사하는 곳에 있지 않으면, 거듭남에는 아무런 소용 없  
다.”

---

땅에 씨를 뿌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다양하고 이상한 복음을 뿌리지 않는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이다. 그들은 모두 눈을 마주하고 바라본다 (이사야 52:7-8).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보배로운 씨를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종자를 전혀 섞지 않고 심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의 진리를 좁고 근소한 길에서 팔아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억제하고 감추지 않는다. 그들은 지붕에서 순수한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의 청중들 앞에 하나님의 전체 뜻을 제시한다. Gill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다...

“비록 그들에게 임하는 많은 낙심케하는 것들이 있고, 말 씀을 심는 것을 가로막으려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악천후, 폭풍, 비바람이 일고, 비난과 박해가 질고 빠르게 몰려오지만, 여전히 그들은 계속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기술과 현명함과 재량을 사용하고, 때가 되든 안되든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쳤을 때, 주와 함께 그들의 일을 떠난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주나, 키우는 것은 하나님 뿐이심을 알면서.”

씨가 던져진 땅은 말씀을 듣는 다른 청중들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복음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서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설명하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서진 자들은, 그들에게서 돌이 없어졌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듣는 자들이다.

성장

---

둘째, 알곡이 자라는데 있어서 또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사람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 많다. —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7 절).

여기서 언급된 잠은 자연적인 잠이 아니다. 우리 주는 천연적인 공과가 아니라 영적인 공과를 가르치고 계시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백성에게 사역한다 (갈라디아서 3:5). 하지만, 복음의 씨가 죄인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므로, 그는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는 그것을 이미 인정한다. 비록 각각의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눈물과 기도로 심겨진 말씀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보고 있지만, 열매는 그들이 잠잘 때 맺는다. 우리 구원자께서 “잠자다”라는 말을, 비록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나태함을 알지라도, 여기서 충성된 사람에게 있는 나태함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서 언급된 잠은 사망의 잠이나 믿음의 확신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 주께서 사망의 잠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종종, 충성된 사람의 수고의 열매가 그의 주의 품에서 잠든 후까지 알려지지 않는다. 그가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되게 수고하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와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라진 후 열매를 맺는다. Robert Hawker 가 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이 자각하기에 수도 없는 경우에 그들의 수고의 현장에 그들이 예수 안에 잠들 때까지 추수는 이르지 않는다. 많은 씨 뿌리는 때, 많은 수고하는 날이 기도로 이어지며, 예수의 충성된 사역자들이 그것들을 뒤로 남기도록 하며,



---

그것이 응답 받은 것이고, 그들의 몸이 무덤 속에서 썩어질 때이다.”

아마도 우리 주의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이 수고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리킨다.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은 확신과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를 맡기며 수고한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을 확신한다. 따라서,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들의 수고가 사람들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을 것이라는 보증에 만족하며 자리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공을 단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성공할 것임을 안다 (이사야 55:11; 고린도전서 15:58; 고린도후서 2:14-17).

부지런한 농부들처럼, 충성된 목자들은 “밤낮 깨어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일에 참여한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생각 위에 있다. 그것은 그들의 혼 안의 무게이고 그들의 마음 속의 부담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알며,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선한 농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예가 된다. 그는 지대한 근면함으로 수고하며, 그의 씨를 아주 조심스럽게 심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 비록 그가 크게 걱정하며 수고하지만, 씨는 생명이 움터서 자라고, “그는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좋은 씨를 심고, 좋은 땅에 많이 심는다. 하지만, 어떤 농부도 곡식이 자라

---

라고 명령 할 수 없으며, 까마귀가 그것을 훔쳐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비록 그가 그것을 볼 때 알곡임을 알지만, 심지어 어떤 알곡이 그 모든 성분을 가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는 알곡이 언제 생명을 트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씨가 생명을 뒀는지 아닌지를 안다. 그는 무슨 생명인지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서 행해지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고의 능력들, 가장 강력한 전도, 그리고 가장 근면한 일꾼도 성공을 명령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요한복음 3:8). 여전히 우리는 확신을 갖고 수고하며, 우리의 유일한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임을 알면서 수고한다. 하나님만이 합당한 것을 보시므로, 뿌려진 씨가 생명으로 싹트게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라!”

자연이 신비한것처럼, 은혜는 설명할 수 없이 더 신비하다. 우리는 땅의 흙 아래 좋은 씨를 심는다. 거기서, 그 씨가 생명으로 움트기 전에 죽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 속에 심겨진 복음은 접붙여진 말씀이 된다. 그러나 아무도 언제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방법으로 마음 속에 심겨지는지 알 수 없다 (요한복음 3:8).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사하고, 그것을 체험한 죄인에게조차 알려지지 않는다.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다. 이 놀랍고 불가사의한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한 역사는 비밀

---

스럽고 강력하게 신성한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게” 그가 잠드는 밤에 싹이 트고 자란다. 비록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이 전도자의 책무이지만,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밤낮으로 자므로,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거듭난 마음)은 열매를 산출할 것이라 한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 점진적 성장

셋째, 알곡의 경작과 은혜로운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모두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8 절). 두 가지 사항이 이 구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1.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 일단 씨가 심겨지고, 물이 주어지고, 지료를 주면, 농부의 일은 끝난다. 그리고 복음이 일단 전해지고, 물이 주어지고, 기도로 거름을 주면, 전도자의 일은 끝난다. 땅의 열매 맺음은 하나님의 산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것처럼, 말씀의 열매 맺음도 하나님의 산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9:16).

---

아무도 우리 주께서 우리가 땅이 실제로 생명을 산출한다고 깨닫기를 의미한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람이 직접 그 자신의 의지로 영생으로 열매를 산출한다고 믿게하려 할 것이다! 아무것도 진리에서 떠 나아갈 수 없다. 은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로마서 2:4; 사도행전 5:30-31). 믿음은 은혜의 은사이고 역사이다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2:12). 사랑은 그 영의 열매이다. 기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다. 평강은 은혜의 산출이다 (갈라디아서 5:22-23). 성화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아니다 (히브리서 10:10-14; 유다서 1:1). 여기서 우리 주의 말씀을 시작면서, John Gill은 이렇게 썼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 권능, 그리고 은혜에 빚을 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의, 그리고 그 영의 풍성한 공훈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을 통하여 거듭난다. 범죄와 죄들 가운데 전에 사망한 자들이었던 자들인 그들이, 마른 뼈들로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난다.

첫번째 산출 가운데 회심은 주님의 역사이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생명으로의 회개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은 그 영의 열매들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혜의 전체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도 아

---

니라, 주 중의 주의 그 영에 의해서 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며, 행하실 것이다.

성화의 역사는 따라서 그 영의 성화라 불린다. 몸의 행위가 굴욕스럽게 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이다. 실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는 자들은 스스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선행도 할 수 없거나 진실로 영적으로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

계획은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로써 인간의 능력이 없이, 농부가 없이, 하늘의 영향력 아래에서 땅은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이 없이, 복음의 사역자 없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뿌리를 내린 말씀은, 의의 태양과 신성한 은혜의 이슬과 축복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2.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역사는 점진적인 역사이다. — 자연 가운데 어떤 것도 잡초를 제외하고 갑자기 자라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사실이다. 씨는 심겨지자마자 곧 싹이 트지 않는다. 여문 알곡은 땅에서 첫 녹색 잎이 솟아난 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동안의 시간이 걸린다. 식물은 추수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성장의 많은 단계를 거친다. —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전히, 식물은 살아 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일들은 정확히 동일하다. 그분의 택정한 자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서서히 진행된다. 주의 자녀들 중 아무도 완전히 성장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

아무도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지식과 사랑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시작은 “작은 일의 날”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충만함을 보지만, 오직 작은 정도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지만, 오직 작은 정도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알지만, 얼마나 충분하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지에 대하여 모른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곳마다, 비록 겨자 씨와 같을지라도, 생명이 있다. 물을 필요 없이, 약함과 결점이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있다. 은혜의 씨는, 비록 부드러운 식물로써만, 땅에서 솟아나는 작은 싹일지라도, 마음 속에 나타났다.

여기 많은 교훈이 있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마음에 그것을 두실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한 때 무기력한 아기였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아기들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결코 거둬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취급하면 안된다. 그것이 본성 안에 있듯이, 그것은 은혜 안에 있다. 모든 부분이 온전한 아기라 할 지라도 아기에서 젊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기도 아버지에 이르게 성장해야 한다.

Hawker 가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열매가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은혜가 영광에 이르렀을때, 예수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 하늘에서의 수확에 이른 자들을 집으로 데려 가신다. 새롭게 된 마음에 뿌려진 씨가, 은혜로 되었으며, 확실한 추수때의 징조이다. 비록 사람들이 잠들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모두 아시고, 필요한 공급을 주시며, 농장 전체를 지키신다.

---

당신에게, 나에게, 황량한 시대에서처럼 일들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진행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약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 ‘나의 신(\*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44:3; 59:21).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혼은, 그 약속이 실패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로마서 8:39). 복되다, 따라서, 사도가 노래하네,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그가 말하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지라.’ (고린도후서 5:5).”

### 파종기와 추수

넷째, 알곡의 경작과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모두 파종기와 추수때가 있다. —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29 절). 추수를 위하여 약속된 때가 있다. 어떤 농부도 그의 밭이 녹색일 때 자르려 하거나, 이삭이 형성되기 전에 그의 알곡을 수확하지 않는다. 농부는 태양과 비를 기다리며,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하여 뜨거운 날과 추운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의 황금 곡식이 고개 숙이고 이삭이 충만할 때,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에, 그는 낫을 대고 추수를 한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추수하도록 여물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절대 모으지 않으신다. 그분은 은혜가 그들을 준비하기까지 그분의 택하신 자를 절대 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일이 완료될 때까지 그분의 택하신 자를 없애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

은 언제나 정확하게 정해진 때에 죽는다. 위대한 농부는 결코 알곡을 일찍 혹은 늦게 자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가 두렵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키시네;  
또 인간들은 여기서 죽지 않으니,  
그들의 일이 끝날 때 까지라.”

그리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분의 추수를 모으시기 위한 그 때에 정확히 오실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모든 택정한 자들이 구원 받았을 때, 그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추수 가운데 수확하실 것이다. 그분은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로 그분의 추수를 모으고 계신다. 그분이 그의 택정한 자를 사망에서 하늘로 부르시므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로 그분의 추수를 모으신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의 추수를 개인적으로 모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작지만, 교훈적인 비유의 가르침과 위로를 우리가 가져가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다음에 형제나 자매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이 비유를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만 그분의 추수를 정해진 때에 수확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우발적이거나,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동산에서 그분 자신의 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가장 잘 아신다.

씨를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알맞은 것을 보실 때, 알맞은 것을 보시는 만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마다



---

성장이 있다. 성장은 점진적이지만, 그러나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분의 약속된 때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

## 18 장. 겨자 씨의 비유—마가복음 4:30-34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30-34).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분의 다른 비유를 이용하신다. 그것은 마태(13:31)와 누가(13:19)가 기록한 비유와 동일하다. 기억하라, 비유는 영적이고 하늘의 진리의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세상적인 예시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비유는 우리 주의 세상의 사역의 날들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속담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 예시된 믿음

비록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결코 언급된 것이 아니지만, 겨자나무의 많은 변종들이 팔레스타인 내에서와 주변에 풍성하게 자랐다. 어떤 것은 들판에 자랐다. 다른 것들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경작되었다. 신약 성경 내에서 그것은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만 언급

---

된다. 다른 두 곳에서 그분은 참 믿음을 겨자 씨 알맹이에 비교하신다 (마태복음 17:14-21; 누가복음 17:3-6). 이 두 곳 모두 우리 주께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겨자 씨를 사용하신다. 믿음을 예시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겨자 씨에 대한 사용은 참 믿음의 특징에 대하여 네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치신다.

1. 참된 구원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 겨자 씨 알맹이.

참된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작고, 아주 작은 것을 언제나 깨닫는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혀 믿음이 없다.

2. 그 공로와 능력과 효험을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우리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 죄들의 산을 움직이거나 고난의 쥐방울나무를 뽑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질문은,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나?”이다. 우상에 대한 큰 믿음은 바다에 침을 뱉는 것처럼 쓸모없고,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겨자 씨 알맹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고, 효험 있는, 구원의 믿음이다.

---

3.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아무 것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분을 믿는 것을 가로 막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물리칠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파멸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의 행진을 흥해가 멈추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져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블레셋 거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그분의 백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야 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백부장의 종은 일어나야 했다.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40).고 말씀하실 때,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

4.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음으로 인한 마비시키는 효과보다 더 지독히 비참한 것은 없다.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땅에, 그분 자신의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58)라는 말씀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본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만큼 값 비싼 것은 없다 (이사야 48:16-19).

목적

---

비유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의 분명한 성장과 축복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Robert Hawker의 비유에 대한 짧은 개요가 뛰어나다.

“이 구절들은 혼 안에서 은혜의 점진적인 역사를 예시하기 위한 많은 다른 유사점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의 경험에 빠져들므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는 때로는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느낌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어떤 성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진리는, 그가 바라는 성장은 그가 찾기를 기대하는 것에 역행하여 발견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보인다고 상상하지만, 반면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여물게하는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매일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을 더욱더 발견할 때, 그는 실로 큰 진전을 만들게 되며,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을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 내주하는 죄가 남아 있는 것을 느끼므로 그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더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더욱더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실로 작은 시작에서부터 큰 달성에 이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이며, 그 가지 아래에서 그분의 백성은 잔치와 그림자를 모두 찾는다 (아가 2:3-4).”

## 성경의 정확성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무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 그들은

---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정확성을 부인한다. 한번은 ABC News 와 인터뷰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믿지만, 그것을 말씀한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동일한 부분에서 한 여자는, “나는 성경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말은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꽤나 잘 표현하고 있다.

영적 어둠과 타락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오한 말씀의 축어적이고 절대적인 감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의 일반적인 포기가 있다. 진실성을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성격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은, 곳곳의 사람들이 영적 권고와 도움을 위하여 강령술과 점성술과 마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사야는 그런 악에 대하여 특정해서 언급하였다 (이사야 8:19-20). John Hazelton 은, “사탄은 빛의 천사의 외모를 취하며 이런 태도로 하는 그의 속임수들은 치명적이다.”고 경고하였다.

자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비유를 우리 구원자가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데, 그분이 겨자씨를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로 말씀하고, 겨자 식물을 나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판단을 하는 자들은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주께서 겨자 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예외 없이 모든 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마당에 심는 모든 씨를 말씀하신다. 비록 우리는 보통 겨자 식

---

물을 덩불, 잎이 많은 식물로 생각하지만, 상당한 크기로 자라, 나무처럼 자라고, 크기가 바나나 나무와 비슷하게 자라는 여러 종류의 겨자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그들의 상상으로 부정확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을 흔들려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

마음 속의 믿음처럼,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는 그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속담적인 말로써 어떤 작고 하찮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체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 분명히 그것은 신약 성경의 교회와도 함께 있었던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초를 이룬 사도들로 선택되었던 자들은 가난하고, 문맹의 어부들이었다. 이 교회의 주이고 주인이며, 이 왕국의 왕인신 그는 멸시 받은 나사렛 인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이었다. 이 교회가 선포하는 교리, 그들이 도처에서 가르쳤던 그 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자의 공로와 효험으로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교리였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것도 성공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없었고, 아무것도 더 야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고, 아무것도 더 무례하였

---

던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일단 심겨지면, 이 교회와 왕국은 위대한 왕국으로 자랐다.

여기에서 우리 주의 비유는 예언적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겨자 씨처럼 비록 작고, 천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여기서 그분의 교회가 위대하고 큰 왕국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다. 그분은, “겨자 풀이 자라서 모든 향초들 중 가장 크게 되는 것처럼, 내 교회는 모든 왕국 중 가장 크게 자랄 것이다.”고 하셨다.

따라서 그것은 일어났다. 교회는 오순절 날에 성장하기 시작했다. 삼천 명이 그 날 그분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다.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오순절이 지나고 며칠 후, 오천 명이 즉시 교회에 더해졌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였다 (로마서 1:14-17).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것 중 가장 위대한 제국이다. 하지만 아직 다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교회의 건축을 위한 시작, 복음의 전도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채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21-31; 마태복음 16:18). J. C. Ryle 이 말한 것처럼, “Voltaire 와 Payne 의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없고 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교회는 전진한다. — 겨자 풀은 여전히 자란다!”



---

Hawker 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바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진리인 것이 그 각각의 지체들에게도 진리이다. 믿는 자의 인생에서 은혜의 시작은 아주 작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한다. 그들이 자랄 수록, 그들의 눈에 그들이 더 작게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셨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 신성하게 하는 교회의 영향

비록 이 세상의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도 거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사회의 나머지에 줄 심오한 성화의 효험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때를 지어 날고 겨자 나무에 둥지를 트는 공중의 새로 의미된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큰 나무처럼, 세상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선을 위하여 영향을 끼친다. 내가 고린도전서 7:14 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의 예가 있다. —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집에서 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덕적인 뜻에서 믿는 자로 성별되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로 인하여 성별된다. 당신의 역사책들을 읽어보라. 교육은 절대 그리스와 로마 세상의 도덕적 상태를 개선할 것을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Plato 와 Aristotle 은 도덕적 선을 위하여 사회에 절대 아무런 영

---

향을 가하지 않았다. 그 영향력 하에 모든 사회, 모든 문화,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관계를 개선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 시온의 뒤섞인 거주자들

공중의 새들은 또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에 있는 혼합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가시적인 교회는 언제나 정결한 자와 불결한 자 모두가 거주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참된 교회는 그 안에 염소들과 양 떼가 함께 있다. 교회는 깨끗한 새들과 더러운 새들을 위한 동지이다. 그것은 외부 접촉이 없는 뜰이지만, 밀과 가라지가 나란히 자라는 뜰이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까마귀들을 겁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피리새도 쫓아 버리게 될 것이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려 하지 말라. 그러면, 매번 밀도 뽑게 될 것이다. 양 떼를 염소들과 나누려 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직 주 하나님 자신만 참된 자를 거짓된 자와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하는 분은 그분만의 일이고 특권이다.

### 우리 주의 가르침의 방법

주 예수께서 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였다. 지혜와 지식의 본체이신 그분은 결코 복잡한 말이나 문장을 쓰지 않으셨다. 그는 결코 원래 말을 한번도 인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단어를 정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정의가 필요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는 이야기를 하였고 비유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예시하셨다.

---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3-34 절).

오늘날의 전도와 비교하여, 우리 주의 전도의 예는 많은 것을 말한다. 그분은 그가 전했던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그런 방법으로 전하셨다. 그는 결코 듣는 자들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로 감명을 주려 하시지 않았다. 그는 지식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분은 지식을 가르쳤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 주는 분명함과 단순함으로 가르쳤다. 그분은 그분이 예시 할 수 없었던 것을 전하지 않았다. 그분이 끝내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우리 구원자는 지식과 깨달음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정확히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은사를 받은 모든 목자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전한다 (예레미야 3:15).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충성된 사람들이 그의 본을 따른다.

겨자 씨의 비유는 우리가 결코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

---

분의 택정한 자를 모으시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6:8).

---

## 19 장.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비유—마가복음 4:35-41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가복음 4:35-41).

우리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무서운 폭풍이 닥쳤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공황상태 속에서 불신으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때, 주께서 깨어나셨고, 잠잠히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셨으며, 그분의 말씀의 간단한 권능으로,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

우리 주의 기적들 중 거의, 아마 아무것도 그분의 신성한 전능의 나타남을 확신시키면서 그의 제자들을 잇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셨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이들 중 넷은 전문적인 어부였고 숙련된 뱃사람들이었다. 십중팔구,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그 굉장하고 종종 치명적인 폭풍우를 젊은 시절부터 당했을 것이다. 결코, 우리 주의 다른 기적들 중 가장 위대한 것에서조차도 그들은 그분이 여기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 몇 마디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 폭풍우를 멈추게 하셨다!

## 공과

이 구절들 안에는 가르침 받아야 할 많은 중요한 공과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수시로 일깨우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1.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는 폭풍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다.
2. 우리 주께서 지쳐서 잠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은 그분이 실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구속자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었다. 이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람과 바다는 그 창조주의 음성을 알았다! — 오직 하나님이지고 사람이신 분께서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 
4.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믿는 자들은 때로는 불신으로 충만된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럽고, 동정심 있으며, 용서하는 구원자이다. 그분은 심지어 그 제자들의 비난 가운데에서도 친절하고, 온유하며, 은혜롭다. —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6.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이유는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이다. 그분은 건너편에 거칠고, 타락한 거라사인이 있었고, 그의 때의 충만이 왔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7.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라는 좋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들이 이 세상의 폭풍우 치는 바다를 통과할 때 완전히 안전하다.

## 생명의 비유

저 일곱 공과들은 종종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공과들이다. 그것들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종종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과들이다. 하지만, 내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자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여정을 갖기에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비유를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권능과 은혜 가운데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으로 데려가시며, 그분과 함께 우리를 은혜와 구원의 배 안으로 데려 가신다.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

그분은 그분과 우리의 눈을 시간의 물을 건너 생명의 바다의 건너편으로 돌리시며,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시편 107:23-31 을 읽어보면, 이 비유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삶의 비유로 사용하는 좋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 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시편 10:23-31).

## 항해

모든 믿은 자의 인생은 항해이다. 그것은 험한 바다를 건너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육망의 항구”로 가는 항해이다. 우리가 이 항해에서 하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은혜의 좋은 배 안으로 데려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다. 사망은 종종 건너 간다, 바다나 강을 건넌다는 말의 시적 표현이 사용 된다. 우리는 노래한다,



---

“그가 우리를 지키시리니 강이  
내 발에 그 물을 칠때까지,  
그러면 그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옮기시리니,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시간의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계속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다.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합당한 상징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로운 모든 상황의 상징이다. —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 — “나의 날은 벼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기 7:6). — “나의 날이 채부보다 빠르니, 갈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기 9:25-26).

나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하루 하루 영원히 매인 죄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생각한다. “저기 배가 가지만, 칠하지 않은 배가 생생한 바다 위로 가지만, 죽을 수 없는 혼들이, 시간의 너울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의 수평선 건너 영원 속으로 하나씩 사라져 간다.” 곧, 우리는 그 수평선을 모두 건너 가야 한다.

아마도, 그 수평선이 당신에게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 곧, 당신은 이런 시간의 변화 무쌍한 세상을

---

떠나 영원의 변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 날 당신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요단강의 너울 속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

둘째, 이 세상에서 인생은 항해에 비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이다. —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37 절). 우리는 종종 비탄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의 폭풍우 속을 항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있을 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이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바에 올라타서 주를 따라갔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종종 고난에 가장 확실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충성의 과정은 언제나 폭풍의 눈을 바로 통과한다.

비록 우리가 직면한 폭풍들은 많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은 두 가지 근원에서 일어난다: (1.) 우리 환경 밖의 역풍, (2.) 내부의 죄와 불신의 파도 (로마서 7:14-24; 시편 73:1-3, 21-28).

###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

셋째,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이다. 그렇다, 항해이다. 그렇다, 폭풍치는 바다를 통과하는 항해이다. 그

---

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와 동행이며 지속적인 임재와 보호와 보살핌 가운데 하는 항해이다.

주 예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주 예수께서 “배의 곁물에 계셨다.” 그분은 잠잠하셨지만, 거기 계셨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잠드신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조용히 계셨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하고 죄로 충만한 마음에 그분이 우리가 죽게될지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이 그분을 믿도록 가르치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구원자께서, “불찌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히브리서 13: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 기적으로 점철된 항해

넷째, 우리의 인생은 기적으로 점철된 항해이다.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 절). 은사주의 자들은 기적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체험한다. 그들은 거짓된 어리석은 짓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자서전이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의 이야기들인 사람들이다. 우리 혼의 구속은 우리 본성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하나님이 아들의 기적에 의해 성취되었다. 새로 태어남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을 사망한 혼에 직접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성취된 기적적인 은혜의 경이이다.

“세상을 제자리에 놓으려 기적을 택하였네.

별을 우주에 달려고 기적을 택하였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구원하셨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때,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택하였네!”

---

그리고, 곧,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부활이라 부르는 다른 기적을 수행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비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51-58).

여전히, 생각해야 할 것이 더 많이, 더욱더 있다. 우리 주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큰 고난의 어두운 배경 위에서 이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보존하는 능력을 아는 것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이다. 우리가 사자들에게 대한 주의 통치를 보는 것은 사자 우리 안에서 뿐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홀로 하나님. 그분은 실로 하나님이다!

**두려움 없는 항해**

---

다섯째,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 항해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항해이다. 우리가 가는 항해는 완벽하게 안전한 항행이다.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0절).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은 불신의 땅에서 거칠게 자라는 늘어선 본성의 잡초이다. 이 가련한 제자들은 우리와 너무나 같았다. 그들은 완전히 조용해야 했다. 그들은 주의 일에 있었다. 그들은 주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주의 권능을 반복하여 보았고 체험하였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능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그들은 끔찍한 폭풍과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그들의 배의 분명한 약함을 바라 보았다.

주의 부드러운 질책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자.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들, 우리의 가장 큰 유혹들, 우리의 가장 큰 타락들은 언제나 불신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 편에 있는 불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구원자는 섭리와 지혜와 선과 전능의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무도 지혜롭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으시며, 너무 선하시기

---

때문에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시며,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배 안에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작은 배 안에 있다 (골로새서 1:27; 요한 일서 4:4).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라는 배 안에 계시다 (신명기 23:14; 시편 46:5; 계시록 2:1).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는 안전하다. 그 배는 이 바다를 통과할 것이다. 그 배는 그 소원된 항구에 들어갈 것이다. 그 배는 건너편에 도달 할 것이다. 은혜라는 좋은 배 위에 탄 승객 아무도 바다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배 안에 계시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가운데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 깨질 수 없다. 의사 과학의 모든 혼드는 바람과 비학문적 비판의 파도는 그 배를 가라 앉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의 트집잡기를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신다. 그들의 웃음이 애통해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들의 비판이 그들의 혼 안에서 불처럼 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가운데 여전히 정착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의 배 안에 계시다. 그분이 배 안에 계실뿐만 아니라, 그분은 조타기에 계시다. 우리는 섭리, 혹은 경배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신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 기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그분의 손 안에 세상 전체를 소유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

---

분은 우주 통치의 고삐를 잡고 계시다.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릴 것을 명하신다.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 믿음에로 부르심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물 속으로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고난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너희의 작은 배를 쳤는가? 하나님의 영이 이 비유를 여러분의 혼 가운데 믿음으로 삼으실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혼으로부터 그리스도, 주께 외쳐라. 그분의 큰 동정에 호소하라. — “당신께서 내가 죽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고난당하는 마음에 평강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큰 평온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당신의 소원의 항구로 데려 가실 것이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와 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너희가 평온



---

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아께서 저희를 송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23-31, 42-43).

그분을 믿어라, 오직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1:40).

---

## 20 장. 죽은 자 가운데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마 가복음 5:1-20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것을 보러 와서

---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마가복음 5:1-20)

나는 이 구절들에 기록된 이야기를 개인적인 큰 관심으로 읽는데, 다른 누구도 성경의 지면에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나의 체험을 더욱 완전히 예시하는 것을 언급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십 년 전 나는 죽은 자의 무덤 사이에서 나 자신의 타락의 어둠 속에 거칠게 돌아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나를 제한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쓸데 없었다.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를 묶을 수 없었다.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를 길들일 수 없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몰랐지만, 나는 내 자신의 과멸로 끔찍하게 굶어 있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는 사망한 자들 가운데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사탄을 내 쫓으

---

시고, 내 마음을 소유하셨으며, 나를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구원하셨다. 가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것을, 그분은 오늘날 죄인들을 위하여 여전히 하신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구원하신다!

## 죄인들의 구원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 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거라사의 바닷가로 막 오셨다. 그분이 거라사를 향한 배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폭풍우 속으로 바로 향해하실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배에 앉으셨다. 그분은 공황의 사명 위에 계셨다. 그분은 한 사람의 선택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라사로 가실 것이었는데, 사랑의 때가 온 사람을 위함이었다. 주 예수께서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선택 받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꺼운 마음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의 은혜이 대상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오셨던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자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셨으며, 시간과 죽을 운명의 바다를 건너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속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한 폭풍우로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택하신 자가 구원 받아야 할 전능한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셨을 때), 그분은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마태복음 1:21; 누가

---

복음 19:10; 디모데전서 1:15; 로마서 5:8; 요한일서 3:5; 히브리서 10:10-14).

그분은 적어도 가라사인들 같은 자들, 거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되었던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다. 사실, 악령의 군단이 그 가련한 혼 안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앞으로 올 시대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가져 오셨을 분에 의해 공훈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6-29).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에게 사로 잡힌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사탄을 쫓아내기 위하여, 강한 사람을 묶고, 그의 집을 취하고, 그의 선으로 그를 망친 가라사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해야 할 것을 다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의 구원자이다.

### 끔찍하게 비참한 사람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 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2-5 절).

마태는 그의 이야기에서 거라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미치고, 귀신에 점령된 두 거라사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가리키며 말한다. “거기서, 당신이 보듯이, 성경

---

이 모순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들의 탁월을 볼 수 없다. 만약 둘이 있었다면, 하나가 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마가는 한 사람에게 대하여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마태가 두 사람에게 대한 그의 묘사에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하였다. 분명히, 마가가 기록한 사람은 두 사람 중 더 악명 높게 사악 했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얼마나 슬프고도 슬픈 그림인가.

이 가련한 거라사 인은 끔찍하게 사악한 자였다. 비록 묘사가 그 묘사하는 것에 훨씬 부족하더라도, 가련하게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상황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의 끔찍한 결과와 그리고 타락 속에 있는 우리 자손의 철저한 파멸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천연적으로 부정한 영의 완전한 통치와 영향 아래 있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과 의지로 지배받고 있으며, 그의 의지대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로마서 3:10-19; 요한일서 3:8; 디모데후서 2:26). Robert Hawker 가 정확히 보았다. “그것이 만일 제한된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에 만을 곱한 경우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자이고 우리 본성이 사탄에게 정복 당하였기 때문에, 죄의 끔찍한 모든 결과로 그 노예 상태에 있다. 그 정욕을 가진 육신, 거짓이 있는 세상, 그의 도구를 가진 사탄이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을 절대적 통치권을 갖고 지배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우리는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또 우리 자신의 양심의 송사로 공의롭게 정죄받는다. 이것이 아담의 모든 타락한 아들딸의 상태와 조건

---

이며, 그것은 모두가 사망의 두려움 안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살도록 하게 한다 (히브리서 2:14-15).

## 불결한 영

이 가련한 거라사 인처럼,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불결한 영을 갖고 있다. 그렇다, 이 사람은 마귀에 의해 점유되었다. 그러나 그가 천연적으로 더럽지 않다면 마귀는 결코 그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악한 자들은 오늘 “사탄의 뜻에 따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디모데후서 2:26). 이사야는 우리가 모두 불결한 것으로 선포한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속일 수 있고 절망적으로 사악하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스러운 악이다. 아, 우리가 단지 우리 마음의 악을 알기만 했어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악의 충격적인 공포가 인간의 어떤 지독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는 하지 않게 막을 것이다.

##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있음

이 가련하고, 미치고, 타락한 혼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았다 (3 절). 사망한 죄인들, 불법과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고, 그들 자신처럼 사망한 죄인들 사이에 산다. 그것이 당신의 경우인가?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당신은 사망한 자들 사이에 사는 것인데, 당신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망한 자들 가운데 가장 편하였다. 그것이 주께서 나를 찾으셨을 때 내가

---

있던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연적으로 당신이 있는 곳이다 (에베소서 2:1-4).

### 맺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가련하고 난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매는 족쇄와 사슬로 묶을 수 없었다. 사회의 족쇄, 사회적 용인, 친구들의 호감, 사회적 우위, 가족의 압박, 명성,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염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묶고 그들이 예의의 외양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그야말로 아무런 효험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들은 그 권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것에 매일 수 없다. 밤낮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미친 행위의 삶 가운데 파멸로 치닫는다.

그것을 내 치옥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상태이다. 거사라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회적 족쇄가 나를 묶을 수 없다. 그리고 종교의 그 족쇄와 사슬들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포 가운데 어떤 것을 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지옥과 끝없는 사망의 공포는 내 혼을 괴롭혔고, 때로는 수 개월동안 괴롭혔다. 그 공포는 때로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족쇄들은 또한 쉽게 벗겨졌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 길들여 질 수 없음

아무도 이 미친 사람을 길들일 수 없었다. 사회가 그 사슬과 족쇄들이 사람을 묶을 수 없고 더 낮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순화와 교육과 보상과 관대한 설득으로 그를 도덕적으로 준



---

경할만한 사람으로 길들이려 한다. 주 예수께서는 매거나 길들이지 않는다. 그분은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며, 깨버린다! 그리고 다 하셨을 때, 부서진 죄인은 부서진 것으로 기뻐한다.

이 가련한 귀신 들린 자, 나 같고, 이 글을 읽는 어떤 자와도 같은 자는 그 자신의 혼의 파멸에 끔찍하게 타락하였다. 그는 “언제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이곳을, 특히 밤에 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했던 공포를 상상해 보라. 그런 사람 근처에 사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당신의 창과 문에 철제 막대기를 설치하고, 매일 밤 침대 밑에 총을 두고 잠들 것이다. 그가 길을 내려 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점잖게 목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급히 빠져나갈 것이고 가능한 당신의 가족이 그의 광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끔찍한 것이 사람 자신 속에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사람의 사악함은 그 자신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혼의 비참함을 안다. 나는 그 무덤과 나 자신에 대한 한탄과 신음과 외침과 잘라냄 사이 그곳에 있었고, 언제나 사망을 희롱했지만 언제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고독과 고립을 멸시하였지만 언제나 나를 더큰 고독과 고립 속으로 몰아가기에 필연적인 것을 행하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가련하게 비참한 사람인가? 당신은 한 때 그와 같았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면, 그분의 전능한 공훈과 무한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한 때 그런 공훈과 은혜에 대하여 자각하지 않았음을 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직

---

없다면, 당신이 비록 당신의 타락하고 파멸된 상태를 완전히 의식하지 않다 하더라도, 죄와 사탄과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다.

## 경배하는 마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6-7 절).

여기 악령의 고백이 있다. 나는 얼마나 악령과 귀신 숭배에 대하여 알지 않고, 많이 알기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악령들은 실재이다! 당신은 초자연적이고, 심령주의적이고, 마법적이고, 사탄적인 것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경배자인척 하는 마귀가 있다. 그의 계획을 돕는 것이라면, 빛의 천사의 특징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일 가운데 그를 보았다. 그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고, 그 마음 속에 아무런 경배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상대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경배자인척 할 때 마귀를 가장 섬기고 있다. 말로만의 경배는 경배가 아니라, 모독이다! 마귀에 대한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 John Owen 이 한 번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

“오늘날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퍼져있는 모든 독 중에, 복음의 비밀에서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 이 빠뜨어진 상상보다 더 파멸적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고는 없다!”

### 그리스도께 피신하라

하지만, 이 두 구절은 또 우리에게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로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라사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마귀들을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서 이 구절을 지나칠 수 없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 본성으로 인한 우리 거처이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 예수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격상 그는 떨어져 있었다. 이 사람과 하나님-사람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식에 있어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귀신들린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다. 소유한 것에 있어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런 선한 느낌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선한 생각도, 아무런 거룩한 갈망도 없었다. 그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라고 외쳤다. 그 가련한 귀신들린 자는 철저히 무기력했고 소망이 없었다.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말도 당신의 절실한 필요에 대한 그림을 그려줄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

---

어져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력으로 그분께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가련한 죄인은 그에게 오시는 분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공훈 가운데 죄인에게 오실 때마다, 그분은 자신을 공훈의 하나님과 그분을 통하여 공훈이 오는 구원자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가 알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았다. 그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았다. 그는 이 위대한 구원자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주권적인 권능을 가진 분임을 보았고, 심지어 그를 점령했던 귀신들조차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할 것이라면, 그분이 그를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았다.

“그가 달려와 절하였다.” — 이 가련한 혼은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강력한 세력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다. 여기 그를 구원하려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그를 파멸하려는 군대 귀신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파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달려왔고, 그의 주권의 왕 앞에 엎드렸고, 그분을 경배하였다. C. H. Spurgeon 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자석이 바늘에 가까이 움직였을 때 바늘은 자석을 향하여 움직일 것이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위대하고 영광

---

스러운 선한 뜻이 우리 마음 위에 운행하실 때 구원과 거룩을 향하여 달콤하게 기꺼운 마음을 나타낸다. 모든 경주가 우리 것인 것처럼 주 예수께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비밀스런 진리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께서 달려 오시는 것이며, 그것이 그 일의 가장 중심이다.”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당신 안에 있는 죄 말고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시간을 갖고, 당신을 강권하는 영원을 갖고, 당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과 함께, 당신 위의 하늘과 함께, 아 죄인아, 달려라, 그리스도께 달려라! 당신이 용서와 평강과 관용과 영생을 받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 달려라! 이것을 나는 안다 — 만약 당신이 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당신에게 달려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공훈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하여 달려가신다!

누가복음 15:20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복된가. 가련한 탕자가 그 자신에게 오지 않았을 때, 그가 압도적인 치욕을 갖고 아버지께 왔을 것이므로, 우리는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듣는다. 그 어떤 그림인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서두시는 어떤 모습이 여기 있으며, 그의 사랑스럽고, 선택된 탕자가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서두시는 것을 본다! 400 년 전에 Tobias Crisp 가 누가복음 15:20 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한 설교가 있다. 그 인용이 길지만, 생략되거나 편집되기에 너무도 보배롭고 필요하다.

---

“그의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발견한다. 아버지는 죄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서 있고, 그의 마음은 오직 그를 향하여 이미 바라보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실 그분은 분명히 그에게 가까이 이끌며 그들에게 가까이 닥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31:18). 아니, 아버지는 그를 동정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애가 끓으나, 아들은 멀이 있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분은 죄인보다 빠르게 움직이신다. 공홀은 걷는 속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 온다. 날개를 달고 온다. 마치 다윗이,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시편 18:9-10)…아들의 걸음은 느리다. 그는 일어서서 왔다. 아버지의 걸음은 빠르다. 그는 달려왔다. 비록 아들이 뭘 필요가 더 있었지만, 공홀로 움직이는 심정이 원함으로 쫓기는 심정보다 빨리 움직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으려는 것보다 더 속히 공홀을 보여주시려 한다. 비참은 걸으나, 공홀은 날아간다. 아니,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포옹하면서 아들의 목에 달려든다.

야! 은혜의 깊이여! 자기가 키웠던 돼지 냄새가 나는데, 자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오려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지 않겠는가? 코를 막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올수 있겠는가? 그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구역질이 나지 않겠는가? 하지만, 보라, 죄인들의 아버지께서 그런 더럽고 비참한 사람들의 목을 끌어 안으신다! 공홀과 은혜는 구역질 나는 것이 아니다. 탕자가 불량배처럼 닥아 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부처럼 그를 포옹한다. 최근까지 돼지 여물통을 뒤집

---

어쓰고 있었고 추한 매춘부와 입맞췄을 그 입술이라 해도 그에게 입맞춤을 퍼붓는다. 아버지는 그에게 입맞춤 것이 아니라 차버려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이 화해와 은혜의 상징, 이것으로 아버지는 그의 측은지심을 확인해 준다. 아니,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요구하고,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아들의 바람은 고용된 종으로 되는 것이었으나, 보라, 그는 가장 좋은 옷에 잔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요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방탕으로 인하여 가난과 헐벗음과, 공허가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겠는가?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테고, 그러므로 그를 따라서 마음 속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신은 들어가도록 허락될 것이 지 않겠는가? 공홀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것을 반대하라. 그런 아들처럼 누가 더 무가치하겠는가?”

다시 말하겠는데, 공홀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그러면 공홀과 무한하고, 압도적이며, 구원의 공홀과 함께 당신에게 달려오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그 모든 가련한 죄인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그들의 구속을 사셨던 자들은 이 가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주시라**

---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8-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절대 군주이다. 이 귀신들, 그 군대는 술취한 망나니처럼 그 주의 발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에 엎드리도록 되었다. 그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구원자로부터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는 우리 주께서 귀신들이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 죽게 하도록 한 허락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 좋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1.) 그분의 거룩하고 구원하는 중재를 위함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이 불쌍한 가라사인이 이 지옥이 귀신들이 그에게 하려 했던 것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했다. (2.) 그분은 그 성의 백성이 주목하기를 바랐다.

은혜에 대한 우리 주의 계획은 가라사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사랑의 때가 곧 오게 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저장했던 것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은 지옥의 마귀들과 그분의 손의 피조물들에 대한 그



---

분의 경이롭고 주권적인 권세와 한 때 그 성의 공포였던 이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 모두를 보여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 우리 구원자께서 이 질문을 하셨고 귀신이 그분께 들리게 대답하기를 강요하셨는데, 그분 자신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의 유익, 그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과 시간의 마지막까지 그분의 제자들이 될 모든 자 모두를 위함이었다. 우리 혼의 대적은 정말로 군대이다. 많은 수의 그 병사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정육 안에 거하며, 그 명령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정복자 그 이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위대함이며 (로마서 8:37),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에게,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14; 43:1)고 말씀하신다.

## 하늘로 난 죄인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4-15 절).

놀라운 변화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변화였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런 공포이다. 마귀에게 점령 당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전에는 통제할 수 없이 거

---

칠고 사악했던 그가 그의 주 앞에 앉아 있었다. 한때 반나로, 또는 완전히 벌거벗은채로 돌아다니던 그가 옷을 입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바로 그 의로 옷 입었다.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가족 옷을 입혔고, 영원한 언약의 사랑에 대한 가족 반지를 끼우셨고, 복음 평강의 가족 신을 신겼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족 만찬에서 먹게 하셨다.

미친 사람 앞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그의 생각 오른편에 계셨다. 누군가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정신이 나가 있다.”

그러나 그 일어났던 일을 보았던, 그러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자신이 옳바르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은, 특히 구원 받은 사람이 한 때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으로 두려워 한다. 이들 가련한 혼들은 전능한 공홀, 전능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에서 공포에 떠다.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살았다. 그들과 귀신 들린 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족쇄와 사슬에 붙잡혀 있었고, 사회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를 위한 그들의 족쇄와 선을 위한 그들의 길들여진 것을 잘못 이해했다.

혹자는 물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이 돼지를 점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분은 단지 귀신들을 만족하게 하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이 돼지 떼를 점령하도록 허락하셨다. 사탄이 읊을 피어내도록 허

---

락을 받았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의 선과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사탄의 혼란을 위하여 돼지 떼로 들어가서 죽도록 허락하셨다. 욥의 시험이 그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가져왔고, 사탄에게는 혼란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행할 허락을 받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욥 1:8-12; 로마서 8:28-30).

### 경멸당한 그리스도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 구하더라.” (16-17 절).

나는 이보다 더 슬픔을 자아내는 말쑤를 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여기 영원한 노예 상태의 죄인들의 회중 한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께서 서 계시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 주셨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세상으로 가득하여 그분이 그들의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상한 기도였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떠나기를 기도했고, 그분은 떠나셨다! 마태는 우리에게 전체 성이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촉구하는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8:34). 이 가련한 거라사인이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던 한, 그들 모두에게 공포였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공휼을 나타내실 것보다 그 귀신이 그들 가운데 날뛰게 내버려두는 것을 더 바랬다!

우리는 매일 매일 똑같은 행동을 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처럼 그들의 불신으

---

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한다. “우리를 떠나소서!” 한 때, 우리도 똑같이 그랬다. 우리가 지금 옳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구원자의 말에 앉아 있는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 “축복의 구원자여, 가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 거절된 요구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붙잡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18-20 절).

이 젊은 개종자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했으며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역에로 부름을 위한 전도자가 되는 갈망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 주 예수께서 그를 그의 집과 친구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과 함께 보내셨다.

주는 그가 가기를 원했던 곳으로 가거나 하기를 원했던 것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도록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신의 지역사회에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이제, 그는 전도자다! 주께서 그에게 그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할 말을 그대로 하셨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주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으며 어떻게 그를 동정하셨는지 말하도록 보내졌다.

---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죄인은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을 했다. —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20 절). 여기서 사용한 말을 주목하라. 그는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전파하려 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주이심을 알았다. 그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체험으로 그것을 배웠다.

주 예수께서 많은 자의 선을 위하여 데가볼리에서 이 사람을 은혜롭게 사용하셨다. 주께서 그 지역에 오신 다음에, 그분은 영접 받을 준비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 의해 치료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손으로 인해 먹게 되었다 (마가복음 7:31-8:1). 공황이 많은 사람에게 온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한 죄인이 충성되게 다른 죄인들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들이었는지를 말했다!

## 더 나은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거라사인들에게 역사하였는지! 귀신 들린 자였고, 귀신에게 점령당했던 그가 즉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 그는 그의 주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였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 받고 죄와 사망의 잔혹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있어서도 해당되지 않는가? 일단 우리가 주께서 은혜롭다는 것을 맛 보면, 우리는 “육신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갈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24). 구원

---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길 잃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기 위하여 집으로 가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 위의 그분의 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셨다. 이런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영원히 맏인 죄인들의 혼을 섬기는데, 그분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셨던 때가 올 때까지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 약속된 때를 넘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된 때는, 만일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선택 하신 자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아주 오래가 될 수 없다. Hawker 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올때까지 우리의 약속된 때의 모든 날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만들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축복임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선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 21 장.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마가복음 5:21-34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 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마가복음 5:21-34)

우리 주 예수는 사망의 문턱에 있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공홀의 기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구원자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따라서, 야이로는 주께 달려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고, 그의 집으로 오셔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이 따라갔으므로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야단법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1-23 절).

홍분이 번져 가득하였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야,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이라 주장하였다. 모두가 그의 주장을 알았지만, 다른 누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지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거라사에서 귀신들 자신도 그분을 주 그들의 하나님, 그들 위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분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되었다. 이제, 그분은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시민이었던 어린 소녀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작은 소녀는 죽음 직전에 있었다. 모두가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



---

그들은 주께서 걸어가는 곳을 따라 그분을 재촉하면서 가능한 가까이 주를 따랐다. 모두가 흥분하였다. 모두가 호기심에 찼다. 모두가 기대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따라서 움직였을 때, 한 가련하고, 허리가 굽고, 빈혈에 걸린 여인, 길고 고통스러운 열두 해 동안 피를 흘리는 역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갔다. 나는 거의 그녀를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해야 했다. 그녀는 불결하다! 그녀는 길 거리에 조차도 있는 것이 율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고 있다. 그녀는 주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 그 외에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사렛 예수께서 실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녀는, “만약 내가 그의 옷깃을 만지기만 할 수 있다면, 확신하건데, 그가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이 갈 때까지 군중을 뚫고 기어갔다. 그리고, 힘 없고 떨리는 손으로 믿음으로 그 손을 뻗어 주 예수를 만졌다.

그녀가 그분을 만지자마자, 주 예수께서 그분이 가던 길에서 갑자기 멈추셨다. 그분은 그분에게서 덕과 능력과 효험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따라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농담하시는 것이겠죠. 주변에 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당신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눅 8:46) 고 하셨다.

---

이 가련한 여인이 주 예수를 만질 때 그녀의 질병에서 즉시 치유 받은 것처럼, 죄인들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 받고, 율법과 죄에 대한 죄의식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 저주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5-26 절).

천연적으로 모든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질병을 앓고, 아프고, 죽는다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모든 병과 질병과 사망은 죄와 죄로 인한 인류 위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이다.

이 여인의 질병은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죄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예였다. 그녀의 병과, 그녀의 그치지 않는 혈루는 그녀를 의례적으로 부정하게 하였던 것이었다. 그것은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죄로 인한 역병을 앓고 있다. 죄의 역병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부정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갇히게 되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그녀는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죽이고 있었던 무력하게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례적으로 부정하였다 (레위기 15:25). 여이 가련한 혼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 있는 모든 의사를 찾았으며, 가짜

---

의사와 돌팔이 의사와 독사 기름의 약초장수와 신앙 치료자들이 포함되었다. 인간의 혼에게 셀 수 없는 “무가치한 의사들”이 있다 (욥기 13:4). 결단 박사가 죄인들에게 만약 그들이 예수를 위한 결정을 단지 내리기만 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죄인들에게 말한다. 선행 박사가 죄인에게 그의 삶을 개혁하라고 강권한다. 자유의지 박사가 죄인들이 자신의 삶에 뜻을 세울 것을 충고한다. 의식 박사가 가련 혼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으려면 종교적 계명과 성례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옳은 교회 박사가 가련한 혼에게 만약 그들이 옳은 교회에 간다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열광 박사는 죄로 병든 혼이 기적을 구하고, 방언을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 할 것을 촉구한다. 감정 박사는 그로써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회개와 비통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의 느낌으로 그들 자신 속을 바라보도록 사망한 죄인들을 촉구하면서, 내성적 성질을 처방한다.

다음에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한” 가련하고 죽어가는 여인에 대하여 듣는다. 이사야 46:6 에서 묘사된 우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들처럼, “무가치한 의사들”에게서 도움을 구하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지만, 그녀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오직 죄인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 실행은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1:29). 아, 죄로 불구된 죄인들은 눈물로 “무가치한 의사들”을 찾

---

고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려 하는 대신,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께 인도되기를 바란다!

## 큰 무리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4-27 절).

주 예수를 압박하였던 군중들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오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를 것을 선포한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흥분으로 휘저어지고, 군중을 따라 온다. 어떤 사람은 친구 압력으로 고백한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의 큰 무리는 우리 주에게 몰려들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어떤 유익을 얻었다. 오직 한 사람이 뒤에서 왔으며 그분께 손을 대었다. 이 큰 무리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그분이 필요했다. 주 예수를 믿었던 오직 한 사람만 실제로 그녀의 질병을 치유 받을 수 있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녀는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지혜롭게 되어 그녀의 예를 따라라.

“손을 뺀어 주를 만져라, 그가 지나가시기 때문이니.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외침을 듣지 못할만큼 바쁘지 않으심을 볼 것이다.

---

이 순간 그가 지나시니,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이라.  
손을 뺀어 그가 지나실 때 주를 만져라!”

## 치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인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27-30, 34절).

여기 우리 주목을 당연히 끄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놓친다. 그들은 그 여자를 모두 강조한다. 감동의 말씀은 그녀에게 공홀의 수혜자이고 은혜의 은인으로서만 강조한다. 그러나, 공홀의 행위와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고려한다면, 그런 강조는 구원자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죄인이 온전하게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섯 배에 달하는 역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1. **섭리의 역사** — 그녀의 병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분의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선한 섭리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 약속된 구원자를 사랑의 때에 함께 데려왔다.

- 
2. **말씀의 역사** — 이 전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왔다 (27 절).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 구원 받은 적이 없다 (로마서 10:17;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은 결코 은혜에 속한 약속된 방법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3. **은혜의 역사** —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 안에서 구두로만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기록되어 있다. 은혜가 “어떤 여인”을 선택하셨다. 은혜가 주 예수께서 그녀를 지나가도록 하였다. 은혜가 그녀가 그분에 대하여 듣도록 하였다. 그리고 은혜가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녀 안에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였다 (에베소서 1:19; 2:8;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2:12).
  4. **믿음의 역사** —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참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사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오기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그분의 능력의 날에 자진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하였다. 그녀는 은혜의 달콤한 강권함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왔다.
  5. **전능의 역사** — 하나님의 전능하고,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힘이 이 선택 받은 죄인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구원자로부터 이 여인에게로 나갔던 그 덕은 그분 자신의 전능한 은혜였다.

---

## 고백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0-33 절).

우리 구원자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묻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누가 이것을 했는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필요가 있음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0). 이 여인은 구원자께 와서 공개적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다. 그녀는 주 예수께 그녀의 질병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며, 안으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였으며, 그분의 전능한 공활이 치유를 역사하였다.

“큰 무리 가운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는 물론,” Robert Hawker가 쓰기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약속과 뜻이 모든 것을 성별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주 예수께서 이런 사건에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나타내셨던 풍성한 온화함을 충분히 감탄할 수 없다. 그 여인은 비밀스럽게 치유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니다! 예수께서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련한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은혜가 그로써 선포될 것이

---

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녀의 신뢰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 없는 세대를 통하여 빛나게 만들 것이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여인의 고백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를 구원받게 한 것 보다 더 그녀가 치유받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구원 받게 한 고백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게 한 구원이다.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구원에 관하여 고백한다.

## 칭찬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34 절). —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그 대상이며 창시자인 은혜 그 큰 역사인 믿음을 칭찬하신다.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처럼 그리스도께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의 믿음처럼 우리 혼에 유용한 것은 없다.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서며, 믿음으로 행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

안에서 죽는다. 아무것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복음 9:35).

여전히, 이 기적의 최우선 대상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큰 은혜이다. 비록 그녀에게 알려진 그 때, 그녀가 그분 안에서 가졌던 믿음이 그분이 그녀에게 주셨던 믿음이었고 그분의 영으로 그녀 안에서 역사하였다 (골로새서 2:12). 분명히, 그 가련한 혼은 모든 사람의 주목에서 탈출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분께 손을 대자마자, 주께서 그녀에게 그분이 그녀의 필요를 아셨고 그녀를 치유케 하셨음을 알게 하셨다.

---

## 22 장. 달리다굽—마가복음 5:21-43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 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 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 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합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21-43).

이 단락에서 기술된 두 가지 기적들은 우리가 배우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함께 의도적으로 안배 되었다. 주 예수께서 그 여인에 의해서 멈추셨던 것을 본 야이로의 믿음에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일어났겠는가! 그의 필요는 위급하였다. 그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미칠 듯 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의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하려 가시기 전에 한 가련한 여인을

---

치료하시려 멈추셨다. 종종,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똑같다. 그분은 거의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답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측은지심을 보이시는가! 얼마나 큰 인내를 훈련하셨는가! 그 어떠한 자기 부인에 대한 예를 보이셨는가! 그 어떤 믿음을 실행하셨는가!

25-34 절에 기록된 사건들이 진행되는 내내,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아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주 예수 앞에서 그의 딸에게 오셨던 그가 그의 때에 그의 딸을 치유하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지만, 야이로는 주 예수를 기다리기를 계속하였다. 그분을 믿었던 이 빈궁한 혼을 위하여 주께서 공훈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의 사망한 딸은 구원자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사망은, “공포의 왕”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 공포의 왕보다 더 강력한 한 분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그 손에 쥔 분이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을 패배케 하셨다. 곧, 그분은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실” 것이다 (이사야 25:8). 그리고 그분이 이 어린 소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그분은 사망과 무덤에서 부

---

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모든 많은 무리를 살리실 것이다.

## 헛됨

이 단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첫 번째 것은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철저한 헛됨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2). 그 말은 낙심하고, 실패한 늙은 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위에서 행했던 가장 지혜롭기만 한 한 사람의 말이다. 솔로몬이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 이 현재 상태의 것들 가운데에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완전히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야이로는 십중팔구 엄청난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이 있고,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회당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딸, 그의 유일한 딸은 누가가 말한 것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의 마음의 소중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열 두 살 밖에 안 되었다. 가서 야이로에게 물어보라. “돈이 얼마나 중한가? 권력과 영향력과 명예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만일 세상이 당신에게 묻는다면, 지금 무얼 원하는가?” 그는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만 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다. 나는 그가 내 집에 와서, 내 가족을 방문하고, 나의 유일한 귀한 죽어가는 딸에게 공활을 베푸실 것을 원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 없다.

나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치 있고, 중요하고, 중대한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보

---

이는 것은 잠깐이요!” (고린도후서 4:18).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다. 지혜로우라. —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이 세상에 있는 아무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를 두게 될 것보다 더 가치를 두지 말자.

## 죽음

이 단락은 또 비통과 질병과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보여준다. 야이로의 딸은 단지 열 두 살 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파 죽게 되었다. 질병과 비탄과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일반적인 일들이다. 야이로는 믿는 자였다. 하지만, 그의 어리고 소중한 딸은 그가 주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 집을 떠날 때 죽어가고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만 베풀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동안 죽었다.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 각자는 곧 죽어야 한다. 우리는 약속된 때에, 약속된 방법으로, 약속된 장소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복된 안식이다. 우리 주께서 야이로의 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39 절). 그것은 나사로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다. 실제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11:26).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의 품 안에서 잠든다. 그들의 육신은 세상에서 잠든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통과 영원한 비애의 시작이다.

## 기도

---

22-23 절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자의 특징에 대한 것을 배운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기도에 대하여 매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 기도자가 있는 곳마다,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1.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일어난다. — 야이로는 “예수를 보았다!”
2. 기도는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이다. — 야이로는 “발 아래 엎드렸다.”
3. 참 기도는 인내심 있고 절박하다. — 우리는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였다!”
4. 참 기도는 언제나 기도가 진심 어리고, 절망적인 필요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절박하고 인내심이 있다.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5. 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아는 자가 없다 (로마서 8:26). 우리는 결코 최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혼의 선을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의

---

성취를 위하여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최선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방법을 모른다.

기도는 우리의 욕욕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로 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기도는,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포함한다. 그것은 의롭고 최선인 것을 하시도록 하늘 아버지께 하는 믿는 자의 마음의 외침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분을 진실로 알고 신뢰한다면, 나는 그분이 계획하셨던 것을 원한다. 나는 그분께 엎드려, 나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내 갈망을 그분의 계획에, 나의 기쁨을 그분의 영광에 넘기면서, 그분의 뜻이 최선임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무지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참된 신음을 드린다 (로마서 8:26).

야이로는 이 단락 안에서 이런 영과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딸이 죽이 않게 되기를 구하면서 주 예수께 나왔다. 그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구원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엎드리기를 계속하였다.

### 하나님의 필요

35 절과 36 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임을 충분히 깨닫는다. 하지만,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믿는 것만”을 필요로 하신다.



---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만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주 예수께서,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면, 그분의 계명은 “오직 믿기만 하라.”이다. 만일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 한다면, 그분은,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해야 한다.” 요한복음 11:40 에서 우리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본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행에 가운데, 주께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가져다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차갑고 사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영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야이로를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축복의 구원자를 바라 보자. 일들이 소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또 우리 혼의 부패를 느끼고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죽었음을 느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9). 그럴 때, 우리 혼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을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자.

## 전능하신 그리스도

나는 성령께서 마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였음을 확신한다 (시편 68:20). —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1-42 절).

이 영광스러운 기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 지를 한 번 더 보게 된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죄인을 영적 사망에서 생명과 믿음으로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권능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비밀스럽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공훈의 손길로 사망한 혼에 손을 대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선택 받은 죄인을 부르신다. 전능하심으로 부름 받은 사망한 자가 그리스도께 살아서 온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놀랐다. 살아 있는 죄인이 놀랐다. 주의 깊은 성도들이 놀랐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종교주의자들이 놀랐다.

## 그리스도의 공급

43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그분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분

---

의 자녀들의 혼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음식을 공급하셨고 계속하여 공급하신다. 이 종말에 그분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분의 교회에 목자들을 주셨으며, 그분의 영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으며, 지식과 깨달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함이었다 (예레미야 3:15; 에베소서 4:8-16).

## 부활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우리 자신의 부활의 주목할만한 언질로서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그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곧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으로 살리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 23 장.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마가복음 6:1-6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1-6)

이 감동의 여섯 구절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의 나약함에 관한 슬프고 황량한 예시가 주어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그분은 사방팔방에서 주목할만한 기적들,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기적들, 그분 자신의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기적들, 그분을 마을 영웅으로 만들었을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이 한 분은 하나님의 체현이실

---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에서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복음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대신,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존귀히 여기는 대신, 그분 자신의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절하였고, 그분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을 경시하였다. —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11).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한 행씩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구절들 가운데 제시된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당신이 주목하도록 할 것이다.

### 참된 기독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 (1 절). — 첫째, 우리는 1 절에서 참 제자들이 그들의 주를 따르는 것을 본다. 그 사실은 누구에게나 분명해야 한다. 마르쿠스 주의자들이 마르쿠스의 추종자들이고 레닌 주의자들이 레닌의 추종자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안디옥의 그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교리와 행위를 지켰던 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의 근거나 우리 확신의 기초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순종

---

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함께하는 소망을 주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소망이나 확신도 환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도 좇으니라.”라는 말을 본다.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온전하게 따른다는 것을 나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주인으로서 그들의 삶의 주제로 따른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엮드리며,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의 멍에를 그들 위에 짊어지고 그분을 따른다.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계시록 14:4).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분을 따른다. 그들은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의 교훈을 따른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본을 따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인 것은 특별히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진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구원자이시므로, 비록 그분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 곳에서 그분을 죽이려 하였음에도 (누가복음 4:29), 그분은 아직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한번 더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대적들 사이에서 기꺼이 공개적으로 다니셨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그분의 피를 찾았던 자들에게 전하셨다.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에 기꺼이 해를 입혔다 (사도행전 15:25-26). 자신의 종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공급하시는 그의

---

주, 그리스도 예수 주께 생명을 맡기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에 해를 끼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무시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제자들의 본에 합당하지 않다.

Matthew Henry 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위험 속이라 하더라도,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고 썼다.

### 공개 예배

이 단락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공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배에 스스로를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와 그 제자들이 나사렛에 왔을 때, 혹은 다른 마을이나 동네에 왔을 때, 약속된 경배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찾게 된다. 2 절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본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그의 성도들의 공개적 집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에 빠지는 것은 큰 특권이고 책임이다 (히브리서 10:25). 그 시대에 경배의 지정된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였다. 경배의 지정된 날은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였다. 비록 유대인과 회당은 하나님의 제단과 경배를 오래 전에 포기하였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치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을 고백하였다.

---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 받지 않는 교회에는 결코 있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양떼는 사회적 피조물이다. 아주 아프거나 완전히 길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혼자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 염려나 사회적 염려는 어떤 것이든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날 것을 약속하셨던 곳이다 (마태복음 18:20).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보내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여기다. 이곳이 우리 혼을 위한 양식을 찾는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곳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공예배의 다양한 방면들이 있다. 성경을 읽고, 찬양과 공개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대단히 주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구원자께서 회당에서 전하셨던 것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과 예언자를 그분이 그곳에 마지막 계셨을 때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소상히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4:16-32). 그분은 자신을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셨고 (18-19 절), 모든 성경의 성취를 전하셨으며 (21 절),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전하셨다 (25-27).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를 떼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

이런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23-25).

종교 흥행, 정치 선전, 사회 운동, 심리 분석, 종교적 토론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져야 하는 것은 전도하고, 분명하고, 솔직하며, 교리적이고, 단호한, 복음 전파다!

그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지혜와 권세에 놀라기도 했고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 상하기도 했다 (2-3 절). 비록 그들이 그분의 지혜와 권세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은 그분의 복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실족케 함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천연적이고, 거듭나지 않고, 타락한 종교적 사람들이 그 복음에 의해 마음 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 맛에 결코 맞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타락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무조건적인 택정이 사람의 독선을 상하게 한다. 제한된 속량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구원에 완전히 자신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택정의 확실한 보존이 종교적 공정함과 의에 대한 사람의 느낌을 상하게 한다.

### **그리스도의 굴욕**

셋째,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굴욕에 대하여 다시 일깨우게 하신다. —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

---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3 절).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특정한 표현은 성경의 다른 아무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중요하며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사람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셨다 (고린도후서 8:9; 빌립보서 2:5-8; 히브리서 2:14-18).

“그분의 구속 받은 자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가지들 가운데 그분이 그 저주를 당하게 하였다. 타락에 선고된 저주의 중심은 그 말씀 가운데 흐른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노력과 수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분의 떡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셨다면, 저주의 이 부분은 그분 위에 빛 비출 수 없었을 것이다.” (Robert Hawker)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그가, —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는 분, — 하나님 자신이 아들에게서 노예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얼굴에 땀이 흘리셨다. 이것은 실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이다. 비록 그가 부요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모두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죄인들이 살고 영원히 통치하시게 되었다.” (J. C. Ryle).

---

평범한 목수로 살고 일하심으로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근면한 수고의 존귀와 게으름과 무위와 나태함의 치욕을 예로써 우리를 가르치셨다. 모든 존경스런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게으름을 혐오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혐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무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용납되지 않는 것은 없다 (에베소서 4:27-28; 데살로니가후서 3:10; 디모데전서 5:8).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슬렁거리는 습관을 갖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좋은 법칙이 있었다 — 학자로서 지목되었던 그들의 젊은 이들은, 어떤 직업으로 키워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천막 짓는 자였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채울 어떤 일을 가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빵을 얻기 위하여 일했다.” (Matthew Henry)

목수로서 그 일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원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명예를 주었으며, 그런 사회 계급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더 고귀한 사회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다. 게으르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더 불쾌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자신들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교만, 인종에 대한 교만, 은혜에 대한 교만은 철저하게 비열하다!

**멸시 받은 축복들**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4 절). —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것들을 저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경향이다.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 주께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삼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 가족을 잘 알았던 그들이, 목수 외에 다르게 양육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던 분이 그런 존경과 평판과 과분한 찬사를 이 사람에게 쌓이게 할 많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 특별히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지어 아주 조금이라도 믿지 않았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삼십 년간 그들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철저히 멀시하면서 바라 보았다. 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 혼의 안녕에 치명적일 때조차도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려는 것이 육과 혈의 이제까지의 경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전과, 신성한 경배의 계명들은 준비되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보배로운 것으로 거의 진실로 평가되지 않는다. 친밀함이 멀시를 낳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더 사실이다. 경계하라. 그런 멀시는 하나님에 의해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역대하 36:15-16; 마태복음 23:37-38).

가장 큰 악

---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5-6 절).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경악할 악은 불신의 끔찍한 죄이다. 이 두 개의 구절 안에 나를 진정 놀라게 하는 두 문장이 있다. 그것들은 과도하게 빛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첫째, 우리 주께서 나사렛에서 전능한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마태는 왜 그분이 그곳에서 전능한 역사를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그곳에 살았던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한다 (마태복음 13:58).

우리 주께서는 나사렛에서 그분이 하시기를 갈망하셨던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품이 사람의 의지와 불신으로 그만두게 되거나 심지어 방해로 받았음을 이제 결코 아무도 상상하지 않도록 하자.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쉽게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나사렛에서 그 전능한 역사들을 하시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분의 공훈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에게서 아무런 공훈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체현된 지혜와 권능 앞에서 그들의 고집스런 불신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분의 경이를 행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공훈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을 듣는다. 오직 두 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에 이상히

---

여기셨다는 말을 듣는다. 하나님-사람께서 이 세상을 지나셨을 때 그분에게 진실로 인상을 주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이었다. 그분은 아무도 믿음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에 이상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15:21-28). 그리고 여기서 마가가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믿음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그분은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의 평생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 신성한 경배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체현된 임재와 권세 조차에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은혜의 수단들과 그리스도의 체현된 구원의 권능을 누리고 혜택을 받은 자들의 불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 불신은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파멸적이다. 불신은 모독이다. 불신은 하나님은 거지말쟁이 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이며, 하나님의 영은 환상이라고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자포자기적인 주장이다! 불신은 사악한 자에게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불신 자로 만드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믿는 자들 사이의 거룩과 사랑과 공훈의 필요도 아니고, 영광의 주를 신뢰하려는 그들 자신의 마지못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이유로 이것저것을 헛되이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려는 의지는 그들의 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영적 장님으로부터

---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불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조차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서둘러 더하겠다. —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마가복음 9:24).

---

## 24 장. 열 두 제자를 부르심—마가복음 6:7-13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7-13)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주의 선택 받은 사도들처럼, 그분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성경 대학이나 신학교를 나왔고 잘못된 사람들의 조상들을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게 하는 정치적 술수를 연구하고 전하고 행사하는 방법을 배웠던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어떤 주일 저녁에, 나는 회중에게 이렇게 전했다  
...

“나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정직한 남자든,



---

여자든,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그 단락을 세심하게 연구한 사람이라면 계시된 사실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단락을 이번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을 위한 말씀을 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을 내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것, 본문이나 교훈을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시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준비한 설교라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것을 듣든지 말든지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내 마음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신선한 말씀)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친 것입니다! 반복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녹음 테이프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을 테이프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테이프에 절대 녹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사자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

---

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20).”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불리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보증으로서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받은 위임을 갖고, 여호와와 종으로서 그분에게 할당된 특정한 일을 갖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으며, 그것을 행하셨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만 해야 하는 일을 갖고 있다. 위임은 명령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나는 더 귀한 일이나, 더 큰 책임의 부담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마가복음 6:7-13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사자들로서 사도들에게 위임된 것을 기술한다.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왕께서 사자들 (사도들)을 처음부터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분은 공훈의 사자들을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고 반역자들을 항복하게 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약속과 함께 보내신다.

###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첫째, 성령께서 이 단락 안에 기록하신 것처럼,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상고하라.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구원자, 우리가 행한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하셨던 것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

---

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마가는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을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했던 것을 말하기 전에 기술한다.

그분은 그분의 사자들을 부르셨다. —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마태가 그의 글에서 했던 것처럼, 마가는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좀더 짧은 이야기를 주고 있고 이미 3장에서 그 이름들을 열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마가는 제자들을 보내는 다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떻더라도 그대로 두라. 나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점을 당신에게 주지하고자 한다. — 당신의 혼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전도자들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중의 부름을 받는다.

첫째,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이고 주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부름을 받았다 (마가복음 3:13-19). 그분이 처음 그들을 그분의 사도들로 부르셨을 때, 먼저 이 사람들은 주 그분 자신과의 연합과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그분을 알게 할 수 있기 이전에 그들은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심부름을 실행할 수 있기 전에 그들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야 한다. 그들이 그분을 대표하기 전에 그들은 그분과 함께 다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믿는 자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

지도자가 될 수 있기 전에, 그는 제자로서 자신의 충성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기 전에, 그는 가르침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자가 될 수 있기 전에, 그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주와의 동행 가운데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야, 주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그분의 사도들, 그분의 사자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예언자 책무가 침례자 요한에게 끝났던 것처럼, 역시 사도 직분이 열 두 사도들과 시작되었고 그들과 함께 끝났다. 우리 시대에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없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복음 선포자)이면서 사도(하나님의 사자)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6:7-13 에서 계시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세부적인 것 가운데 적용가능하며,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구별한다.

비록 그런 부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언할 수 없는 명예로 여기면서, 그 일에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을 택하고 대부분 기꺼이 자원하지만, 복음 전도의 이 일은 선택된 경력이거나,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섬기기 위한 소명이 아니다 (에베소서 3:8; 디모데전서 1:12-17).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 안으로 두셨다는 사실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 가운데 두실 때까지 사역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대개는, “전도자”라는 호

---

칭을 입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명칭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경험이 없고, 초대되지 않은 채 그 책무에 들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명령도 없다. 따라서, 그들은 곧 그 일에 실증을 내게 되며, 과도한 짐을 지게 되고, 궤양을 얻으며, 신경쇠약에 걸리고, 소멸되며, 다른 할 것을 찾는다.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인도하며, 선교사로서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름 받은 일을 위하여 은사를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그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전도자로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름 받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영의 은혜로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 (예레미야 3:15;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1-9).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면, 그는 복음 사역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 받지 않았으며 은사도 주어지지 않았다.

## 구별해둬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전도자가 되도록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첫 번째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역의 일에 부르셨다고 추정하는 젊음 사람들에게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감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던 척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설교단을 만들지

---

않은 설교자를 만드시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들은 보내심 받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다. 주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둘씩 둘씩 보내셨다.”

여기서 사용된 “보내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의 동사형이다. 그 뜻은, “분별하다, 어떤 일에 보내다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에 보내는 것이다!), 멀리 보내다, 앞으로 내 보내다, 혹은 자유롭게 하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의 일에 분별된 자들이며,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임무에 보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며, 그들 안에 또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능으로 그들의 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그들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에 분별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하여 복음에 자신을 분별한다 (로마서 1:1).

### 둘씩 둘씩

마가는 우리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것을 특별히 말해주도록 감동 받았다. 그분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다. 마태나 누가는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도록 이것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 (전도서 4:9)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좋은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역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나, 두 사람이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심판에서 서로 도움이 되며 잘못을 덜 범한다. 그들은 서로를 어려움 가운데 도우며, 유혹 가운데 상대방을 지키며, 시험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약해지는 때에 서로를 일으켜 세운다. 두 사람은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덜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게 한다.

우리 주께서 하나의 원칙을 가르치고 계심이 분명한 것 같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계약직도 자칭 사도들도 아니며, 아무에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 지침 하에 있는 동안, 사역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집회의 일이다. 더욱이, 가능한 한 많이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과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도들의 말은 우리 모두,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 권능과 공급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역의 일에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의 포도원에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 받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듣는다. — 그분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도록 위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무장되었다.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들의 기적적이고, 사도적 권

---

능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전하는 그분의 복음의 권능의 상징이고 표적이며, 인간 혼의 성 안에 무장한 강력한 자를 묶고 내쫓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교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8 절과 9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여정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 것을 그분의 사자들에게 명하셨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사소하고 상대적으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아무것도 이 두 구절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고, 더 교훈적이며,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들의 여정을 위하여 지팡이를 갖고 가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듣는 것과 그분이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고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 가운데 아무런 모순이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순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아주 쉽게 설명된다. 첫째, 그들은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불필요하게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완전히 합당하며, 그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였을 것이다. 둘째, 비록 그들의 보호나 방어를 위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걷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되었다.



---

8 절과 9 절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 시대에 뚜렷한 선명함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두 구절의 교훈은 얼굴 위에 코가 있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와 설교자들에 의해 거의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세 가지 사항을 여기서 가르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

1. 복음 전도자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사역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든, 혹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큰 주의를 해야 한다.
2.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예비하거나, 혹은 이 생명의 일로 자신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자기 자신을 학습과 기도와 전도의 일에 완전히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
3.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대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그리고 합당한 보살핌에 대한 세상적인 염려들로부터 그들을 지킬 만큼 충분한 방법으로 지역 교회에 의해 공급 받아야 한다.

John Gill 이 이 구절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정확히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복음의 사역자는 세상적 생각을 가진 사람, 세상과 세상적인 일에 염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재산과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더러운 돈벌이를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양 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임으로, 음탕하고 향

---

락적인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세상적인 염려들로 가득해서도 안되며, 세상적인 일에 휩싸이지 말아야 하고, 이 생의 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염려와 근심스러운 생각, 그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생계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에 더 크고 더 근접한 적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그가 사역하는 사람이 관심하고, 그를 위하여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그로써 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스런 염려와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그의 생각이 그가 부르심 받은 그 일에 대하여 더 뜻을 둘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중점적으로 이 모든 것으로 계획하신 것이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기름 부으셨고, 그것을 위하여 안심하고 공급받고 살도록 되어야 한다. 사역하는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함인듯이, 사역을 받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10 절에서 주 예수께서 특별히 이 첫 번째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섬겼던 것처럼 공급을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다. —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들이 이곳 저곳을 다녔으므로, 마태에 따르면,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비굴하게 구는 거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

---

나님, 영광의 왕의 종들이었다! 우리 주께서 구걸을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의 종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것도 예비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섬기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자선과 호의로 살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관대히 공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에 의해 섬김을 받는 혼들에 의한 관대하고 자원하며 대가 없는 은사로 그들의 수고 가운데 안심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11). —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14).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6).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관용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도들이 어떤 집에 있는 동안, 그들이 그곳에 있는 한, 그들을 공급하는 가족의 능력에 따라 살았다. 그것이 우리 주의 말씀에 의해 전달된 생각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목양한다면, 그가 섬기는 사람들 위에 사는 것을 절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목사를 기꺼이 지원하고 십일조 이하로 그들이 공급하는 회중 안에 열 가정이 있을 때, 목사와 그의 가족은 다른 가정들이 살아가는 것에 맞추어 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더 부

---

유한 회중을 목양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더 편하게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필요 이상으로 더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복음 전도자가 부업을 지속하고 자신을 사역의 일을 “임시직”으로 드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시간 이상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막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

1. 바울은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천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비용과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전도자들의 비용을 대기 위함이었다.
2. 바울이 직접 노동하였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여겼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3. 성경 전체에서 어떤 기자보다 더 목자와 선교자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지원 받아야 함을 다루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면, 그분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충분한 것 이상으로 공급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22:35).

## 큰 책임

11 절에서 우리 주께서 복음을 듣는 특권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밭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그 성에서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딜만할 것이다. (\*역주: 후반 절은 개역한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대사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낸 왕, 그가 대표하는 왕을 영접하는 것이다. 대사를 거절하는 것은 그를 보낸 왕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의 가르침이며,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마태복음 10:40-42). 그리스도의 종과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그의 말씀을 거절하고,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가장 끔찍한 범죄이고 위법 행위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 조차도 의도적인 불신의 사악함에 필적할 것이 없다.

11 절에서 시작해서, J. C. Ryle 은,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사람을 지옥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라 앉힐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14-16 에서 천명한 바로 그것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

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  
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요?”

## 제자들이 행한 것

이제, 12 절과 13 절을 보고, 제자들이 행했던 것을 보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  
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

Matthew Henry 는, “비록 그들 자신이 크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  
고, 그것으로 아무런 세속적인 우위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가  
운데, 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나갔다.”  
고 썼다. 이 사람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그들이 체  
험하였던 것, 그들이 가르침 받았던 것, 그리고 주님 자신이 전해  
던 것 — 회개 — 을 그대로 전파하며 세상 속으로 나갔다. 회개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죄 (나의 본성), 나의 죄들 (나의 사악한 행동  
들), 그리고 나의 의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소망  
하는 그런 더러운 누더기 옷)에 대한 생각의 변화이다. 회개는 주  
인들에 대한 변화이고 동기의 변화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우  
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의 계시와 지식 (그분의 영원한 신성 —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  
성 — 그분의 효험 있는 성취들!), 거룩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 죄  
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 공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새로 태어남의 결과이

---

다 (예레미야 31:19).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관점의 열매이다 (스가랴 12:10).

사도들은 병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모든 병자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아직 그분의 직무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분의 상징이다. 기름으로 붓는 의식이 오늘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해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예민하게 이해된다. —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성유와 기름부음이 없이는, 우리 수고는 철저히 헛되고 의미가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복음 안에서 그분의 종들의 수고를 병든 혼을 치유하게 하는 효험이 있게 하실 수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또한 치유 받았음을 보기를 실패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유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피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의 적용으로 효험 있게 치유 받는다. 그리스도는 우리 혼이 치유 받게 되는 길르앗의 달콤한 유향이다.

회개하였는가?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3). 우리의 교리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 마음이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 진리를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 체험되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제 사망에서 살아나시고, 지극히 높은 곳의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회개하라 (예레미야애가

---

1:12; 고린도후서 5:20-21).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회개하도록 하신다!



---

## 25 장. 목 베인 침례자 요한—마가복음 6:14-29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 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왕이 심히

---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앓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누가복음 6:14-29).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살해에 대하여 마가가 신성하게 감동 받아 기록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다. 첫 번째 침례자 요한에 의해 너무도 명예롭게 일컬어졌을 때, 왜 많은 사람이 침례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지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불려진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이 다 할 때까지 그의 발길을 따라 걷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한다. 마가는 헤롯에 의해 요한이 살해당한 침울한 이야기를 마태나 누가보다 더 자세하게 다룬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포함한 공과로 은혜롭게 치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심을 갖고 언제나 읽도록 하라.

## 인간의 타락

여기에 우리에게 인성의 아주 분명한 나타남이 주어진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인류가 타락하고, 죄로 충만하며, 철저히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인정이 우리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의 딸의 사악함은 당

---

신과 나의 마음의 사악함이다 (마태복음 15:19-20). 얼마나 흉포하고, 잔혹하며, 야만적인 교만한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기 보다 헤롯은 그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믿어지는 사람의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닫기를 소망한다. Robert Hawker 가 올바로 언급하였다. — “이것이 마음 속에 느낌으로 알게 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무한히 보배로운 구속은 결코 깨닫게 되지도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죄의 씨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동일하게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그분의 선택 받은 자와 세상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결코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4:7).

## 인간의 양심

침례자 요한의 살해 후에, 헤롯의 양심이 그를 너무도 괴롭혔으므로 그가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요한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서 그를 파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 떨었다. 헤롯은 단지 그의 양심이 죄의식으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고통이 죄의식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벌레가 결코 죽지 않을 지옥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조차도 증인이 없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죄인의 양심은 놀라운 것이다. 우리 본성의 나머지 부분들처럼, 우리 양심은 부패하고 죄로 충만하다. 하지만, 진리는 사람들의 양심 위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헤롯 왕은 전도자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두려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한 동안, 거리의 전도자 침례자의 기억과 그의 음성이 그를 괴롭혔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하였다. 벨릭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떨어졌다. 아그리파는 투옥된 전도자들이 그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토론하였을 때 “거의 설득되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그 안에 양심이라 부르는 음성, 그를 송사하든지 변명하는 음성, 침묵할 수 없는 음성, 심지어 위대하고 권력이 충만한 왕들도 떨게 할 수 있는 음성이 있다.

이 음성, 양심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양심은 적어도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반영이고 결과이다.

양심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많은 것들에 의해 침묵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의식의 양심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죄 속량의 희생을 취한 혼란스러운 양심에 평강을 말해주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대가로 한다.

헤롯은 끔찍하게 야비하고 사악한 사람이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왕이 했던 오직 두 가지 주목할 만 하고 분명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언급하지만, 누가는 요한은 그를 그가 행했던 모든 사

---

악함에 대하여 질책하였다고 말한다. 헤롯은 근친상간과 간통의 죄가 있었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면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의 타락한 행위를 뽐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상황은 이것이다: “로마로 부르러 보내졌던 헤롯은 그런 방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동생의 아내와 밀통에 빠졌고, 그가 돌아갈 때 그와 함께 그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아라비아 페트리아(Arabia Petraea) 왕, 아레다(Aretas)의 딸이었던 그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였고, 그 사건으로 헤롯과 그의 아내의 아버지와 전쟁이 일어났으며, 헤롯은 패배하였다.” (Gill 에 의해 인용됨)

### 하나님의 충성된 종

이런 공개적인 치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모욕의 이런 공개적 표시로써, 요한은 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8 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충성된 사람은 따라야 할 모든 복음 전도자를 위한 한 예와 본으로서 서 있다. 오늘날과 시대에 백악관에서 세탁소까지 모든 사람이 동성애와 레즈비언과 간음과 매춘을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뻔뻔스럽고 모욕적인 위배들이다. 그런 방탕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게 가

---

르치므로, 그들은 계속하여 사회를 부도덕하게 만든다. 그들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한 가족을 파괴한다.

침례자 요한은, 왕궁 안에서 전도하게 불려왔을 때,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운집한 군중들에게 어린 양을 쫓는 사자 같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헤롯에게 말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발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배 모두를 위하여 섬기려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마음에 들게 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지혜롭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타협과 반역이라고 부르겠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령으로 인도받고 충만한 자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임을 드러내고, 그 양심을 살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에 엮드릴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4:5-12).

하나님의 종,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전도에 있어서 충성되었고 그의 행동에 있어서 충성되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 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영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

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2).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위하여 구부러지고 뺨뚫어진 세대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태도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악한 사람들이 충성된 전도자들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존경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거의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행동하므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욕하게 하는 근거를 주지 않거나,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모독할 경우를 주지 않게 된다. 헤롯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따라서 그가 그의 태도에 있어서 흠이 없고, 공의롭고 거룩함을 알았다.

### 반역의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반역의 순간에 만나시고 항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역시 헤롯은 보여준다. 사람들은 종교적 실행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가고 많은 것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놓치는데, 그들이 반역의 순간에 양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헤롯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갔다. 우리는 그가 “요한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듣는다. 그는 요한을 “관찰하였고”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고” 그의 전도에 대응하여 많은 것들을 했다. 그러나, 헤롯이 하지 말았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그는 헤로디아에게 항복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그의 간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오늘 지옥에 있다!

---

모두가 경고를 받도록 하자. 우리가 반역의 순간에 그리스도께 옆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죄들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항복을 요구하신다. 나아만은 요르단 강에 일곱 번이나 잠겨야 했고, 아니면 문둥병자로 죽어야 했다. 헤롯은 헤로디아를 포기하든지 멸망하든지 했어야 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가려고 우리 대부분이 열심히 갈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오른팔을 자르고 오른쪽 눈을 빼내는 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눈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머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자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기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과 삶이 우리 주로서 그분의 통치에 항복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누가복음 14:25-33).

### 종종 멸시 받음

이 단락 안에 나타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종종 그의 무자비한 대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헤로디아가 헤롯의 옆에 앉아서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동요하고 있었다. 의심할여지 없이, 그녀는 그녀의 분노를 숨겼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요한이 문에서 그녀에게 인사할 때도, “당신은 오늘 분명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파멸시키고자 하였다. 그 희생물을 잡으려 기다리는 사자처럼, 그녀는 그를 죽일 기회를 기다렸다.



---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증오하는 자들에 의해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되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아합은 미가야가 결코 그에게 좋은 것들을 예언하지 않고 오직 악한 것들만 예언하였다고 하여 그를 증오하였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침례자 요한이 그녀의 간통을 드러냈기 때문에 증오하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에게 등을 돌릴 때, 비록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도자가 그의 충성된 복음 전도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고 자신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서 규정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반감을 받고, 나쁘게 이야기 되는 것은 전도자에게 치욕이 아니다. 군중에게 갈채를 받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6:26).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위험스러운 방탕**

헤롯은 자신을 위한 큰 생일 잔치를 열었다. 누가되었든지 모든 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하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무해한” 즐거움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무해한” 즐거움이 끝났을 때, 웃고 있는 여왕 무릎 위의 은쟁반에 있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머리였다!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은 헤롯이 여자에게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다. 그래서 여왕은 그녀의 딸을 헤롯 앞에서 스트립 쇼를 하게 하였다. 그의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주체할 수 없는 흥분된 순간에,

---

왕은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다. 그는 그 춤춘 여자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 헤롯은 궁지에 몰렸으며, 거기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인물들 앞에서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대신,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를 괴롭혔을 어떤 것, 오늘날 지옥에서 그의 고통스런 혼을 계속 떠올리게 하였을 어떤 것을 했다. 그는 자신의 혼에 충성되었던 의롭고 거룩한 자인, 침례자 요한을 잔혹하게 죽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요지가 무엇인가?”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 사람들은 종종 크게 흥청망청한 시간이나 혹은 지난 후 즉시,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그들의 여생 동안 후회할 것들을 한다. 우리는 결코 유혹의 장소에 우리 자신을 자의적으로 처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혜로와야 한다. 손해와 불행은 종종 이 세상의 “무해한” 쾌락에 이어서 오게 된다.

젊은 이들은 왜 그들의 부모가 모든 친구들이 참석하는 파티에 가지 못하게 하는지, 왜 밤새도록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을 거절하는지, 왜 그들이 언제나 옳은 것을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지 않는지를 의아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부모들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 중 아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손해와 불행은 종종 이 세상의 “무해한” 쾌락에 이어서 온다.

더 나은 세상

---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 침례자 요한은 머리가 잘렸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사도들은 투옥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잔혹하게 살해 당했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세상이 받을 가치가 없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보상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의도이다. 우리의 안식, 우리의 왕관, 우리의 대가, 우리의 보상은 무덤의 반대 편에 있다.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19).

보복의 날이 있다. 수확의 때가 있다.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추수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시간에 속한 것으로, 혹은 보이는 것으로 측량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늘은 모두를 위하여 보상을 할 것이다!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9). —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인생의 날은 곧 끝날 것이니, 모든 폭풍은 영원히 지나네,  
영광에로의 큰 나누임을 건널 것이니, 마침내 안전하리;  
하늘의 기쁨을 나누리라 — 수금과 짐과 왕관이니,  
사탄은 쫓겨날 것이니, 우리 짐을 내려 놓을 것이라!  
예수를 볼 때 모두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네!

삶의 시험들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것이니, 그리스도를 볼 때

---

라!

그분의 귀한 얼굴을 한 번 보니 모든 슬픔이 지워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경주를 아주 용감히 달리네.”

---

## 26 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마가복음 6:30-46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

---

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던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 6:30-46).

36 절에서 우리는 이 큰 군중에 대하여 들은 것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좋은 설명이다. 굶주린 죄인들은 먹을 것이 없이 그리스도께 온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물질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심지어 음탕함이라는 돼지 여물로 우리 혼을 먹이려 했지만, 그러나 우리 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굶주리고 목말라서, 먹을 것 없이 그리스도께 온다.

하지만, 그 날이 저물기 전에, 오천 명 (여자와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고)이 “모두 먹었고, 가득하였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떡 다섯 덩어리와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다 먹었을 때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의 의미와 이 단락에 포함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만 죽지 않는 혼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그분에 의해 먹게 되고, 그분 위에서 먹게 되며, 우리 혼의 만족에 먹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종들**

---

첫째, 마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사역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종들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감동받았다. —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 절). 매우 교훈적인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종 각자는 이 사도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행해야 한다. 전도를 준비할 때, 주로부터 온 말씀을 추구하여야 한다. 전도하는 동안, 주의 권능과 지혜와 은혜와 강인함을 추구하여야 한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주께 보고하여야 하고, 했던 것과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쳤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하며, 그분의 영께서 그들의 수고를 효험 있게 만드시도록 추구하여야 한다.

사역의 일에 있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가 하늘과 땅을 감동하게 하는 그를 감동하게 한다. 기도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준다. 복음 전도자 각자가 연구에 열심을 내고, 수고에 헌신적이고, 전도에 열심이도록 하자. 기도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없이 전도할 수 없는 자, 에스겔과 함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에스겔 37:9)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 교회는 복이 있다. 그는 충성된 목자이며, 그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사도행전 6:4)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둘째, 사람의 혼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충성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당신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

---

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1-32 절).

안식과 휴식의 필요에 대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조차 복음의 일에 매우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그토록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기서의 우리 주의 말씀은 매우 필요하다. 혹자는, “우리는 잠시동안 산산히 부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산산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사역의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수고에 속한 문제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마음과 생각의 수고이다 (로마서 1:1; 고린도후서 11:28). 하지만, 다른 사람의 혼에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동안,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혼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큰 위험 속에 있다 (아가 1:6). J. C. Ryle 은, “사람의 사역과 공개적인 일의 번성은 그 자신의 혼의 번성과 친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썼다. 우리 주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릇 안에 그분의 복음의 보화를 갖고 가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다만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며, 많은 결함으로 에워쌓여 있음을 아신다. 오용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안식과 숙고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매우 필요하고 유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을 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있어서 너무 지장을 결코 받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많이하면서 그 일을 영터리로 하는 것보다 조금하면서 잘하는 것이 더 낫다.



---

##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셋째, 33-34 절에서 그리스도의 동정의 일견을 보게 된다. — “그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그분 앞에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을 감동케 하였던 그것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이 수천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온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먹이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전도자는 없었다. 그들은 너무도 많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과 의식들, 전통과 관습, 헌신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거룩의 형태는 공허하고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거룩의 능력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의 종교는 모두 빈 껍데기였다. 수천의 영원한 혼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궁핍한 채, 지옥으로 가는 고도에, 종교적 어둠과 눈먼 것과 무지와 독선과 미신의 고도에 서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때, 사람들에게 생명 길을 가르쳐야 했던 그들, 우리 주께서 멸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분은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을 지나셨을 때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얼마나

---

자주 보는가 (마태복음 9:36; 14:14; 15:32; 20:34; 마가복음 1:41; 5:19; 8:2; 누가복음 7:13; 10:33; 15:20).

우리 주께서 병자를 보셨을 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태복음 14:14). 그분이 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황량한 곳에서 나온 것을 보셨을 때, 굶주림으로 약해지려 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셨다. 우리 주의 성품에 있어서 이 큰 특징은 너무 자주 기억되었고, 너무 높이 평가되었든지, 너무 자주 선포될 수 없다. 그분 앞에 있던 병자와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의 감동은 우리 구원자께서 얼마나 부드럽고 애정어린가를 보여준다. 이 말은 여백을 채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심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화함을 우리가 알게하고 확신시키려 의도하신다. 그분의 소유는 하나님 자신이신 분의 긍휼과 동정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은 하나님-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인들을 선택하려 흐른다.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의 긍휼과 동정은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임은, 그분이 “모든 것 위에, 영원히 축복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동정 이하가 아닌 것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6-17).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

---

안에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무한한 충만과 감정의 온화함(완전한 인간적인 부드러움) 모두가 있다. 동정심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분노를 없애시고, 그분의 모든 진노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시편 78:38).

“동정”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Spurgeon 이 언급한 것처럼, “그분의 온 존재는 그 가장 깊은 곳이 휘저어졌으며, 따라서 그분은 그들 가운데 긍휼의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즉시 진행하셨다.” 군중 속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군중이 그분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들을 동정하셨다. 모두 먹었다. 모두 안도하였다. 모두 채워졌다.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의 은혜로운 성품에 결코 의문을 갖지 말자 (출애굽기 34:6). 그분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 (미가 7:1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긍휼과 동정에 대한 그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자 (요한복음 13:25; 갈라디아서 6:1-2; 에베소서 4:32-5:1; 야고보서 1:27). J. C. Ryle 이 올바르게 촉구한다. “우리 주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임을 절대 잊지 말자.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늘 가운데 높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은 인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바라보신다. 그분은 여전히 무지한 자를 측은히 여기시며,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신다.”

---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므로,” 우리 구원자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모든 것에 의심이 없다.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그분이 다른 모든 곳에서 가르치셨던 복된 복음을 가르치셨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필요, 새로 태어남의 필요성과 본성, 그분의 오심의 계획, 그분의 피로인한 구속의 경이로움, 회개와 믿음의 축복이다.

개인적인 시험의 장소가 있다. 우리는 서로를 시험하고 판단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해 판단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나의 구원자, 멸망하는 죄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좋아하는가? 영원히 노예 상태로 매인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는가?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기꺼이 맞추어주고 사역할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심각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속히 답해라.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진자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노예 상태로 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그리스도 같은 자”라면,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 그리스도의 인내

35-36 절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또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

---

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은 우리와 너무도 많이 닮았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이었던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주를 신뢰하기 보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이었다고 알았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으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군중은 굶주렸으므로, 그들은 주 예수께 먹을 것을 얻으러 멀리 보내실 것을 말했다. 그들은 주를 신뢰하기보다 그들 자신이 아는 것에 기댔다. 하지만, 주 예수는 아주 인내심이 있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닮았는지! 하지만, 주 예수는 인내로우시다!

###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37-44 절에 기록된 기적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

---

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보리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자녀들을 제외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우리는 군중이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듣는다. 그 무리 가운데 떡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주 예수께서 약 이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얼마나 놀라운 연회인가! 여기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계시된 사실을 저장할만큼 지혜롭게 되므로 필요한 때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며,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것을 하려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공허에 속한 그분의 기적의 성취 가운데 은혜롭게 자신을 낮추어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

그 보리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는 사소하였다. 그런 작은 것으로 그런 군중을 결코 먹일 수 없지만, 먹였다! 그 작은 소년의 점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히 사소하였다. 그 소년은 결코 그날 이만 명의 사람을 먹일 것을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는 했다!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은 결코 허비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혹은 심지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 주어진 그것은 매우 조금이었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컸다. 그 소년은 많이 드리

---

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렸다. 그는 그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셨다. 여기서 드림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어떤 공과들이 있다. —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9-10).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바,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떡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6-11)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6-10)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38)

### 그리스도의 예비하심

42 절에서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의 예가 주어진다. — “다 배불리 먹고.” 나는 선한 남부 여인들같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원하는 대로 먹지 않으면 그것을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이 꽤 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당혹스러움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확실하다: — 그리스도의 만찬상에서 먹은 모든 자는 잘 먹었다! 그분의 은혜로운 예비하심은 무한히 풍성하다. 그분의 구속은 “풍성한 구속”이다. 그분의 의는 우리 혼을 위하여 충분한 의이다. 그분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이다. 그분의 평강은 “깨달음을 초월하는 평강”이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의 은혜는 초특급의 풍성한 은혜이다!

그분의 은혜처럼, 우리 구원자의 섭리에 속한 예비하심은 선하심으로 넘쳐난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몇 개의 떡 덩어리와 물고기로 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수의 군중을 위한 공급을 하셨다면, 그리고 넘치도록 남겼다면, 생각해 보라, 모든 경우를 위하여, 그분의



---

택하신 자의 영적이고 일시적인 필요들 모두에, 얼마나 무한한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의 사도가 말했던 그의 결론은 매우 축복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그분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들은 언제나 풍성히 찾는다. 그분의 식량 통에서 먹는 자들은 충분한 빵을 찾으며 남길 것이다. 그분의 기름의 공급으로 그들의 그릇을 채우는 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그릇이 가득하게 된다. 비어 잇는 유일한 그릇은 그분에게 가져오지 않은 그릇이다 (시편 34:7-10; 37:23-25; 누가복음 22:35). 그것이 나의 체험이었다.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하였던 적이 없다. 당신은 어떤가?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충성됨을 입증하시지 않았는가?

##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45-46).

우리 주께서는 끔찍한 태풍의 눈 속으로 그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음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벧새다로 가는 배를 타도록 재촉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의도적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달리 그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폭풍 속에 있음을 직접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폭풍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데려 가셨다.

---

그분의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버리셨을 때, 주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려 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구원자, 우리 주인, 우리 주께서 당신을 많은 폭풍 속을 통과하도록 보내셨지만 더 많은 것을 당신이 통과하도록 보내실 것이다. 때때로 그분은 마치 당신을 단지 지나쳐서 폭풍 속에 남겨두실 것처럼 행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을 폭풍 속으로 보내는 그분은 하늘의 고봉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중보하신다 (요한복음 17:6-19, 25-26).

## 복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아름답고 분명한 비유로 제시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지시 않은 곳에 비유를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게 만들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과 은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써 사라와 하갈을 이용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 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이고 복음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기적들의 기록을 주셨다.

사막 가운데 있던 이 배고픈 군중은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인류의 좋은 예시이다. 모든 야담의 자손들은 멸망해 가는 혼들이며, 길을 잃었고, 무기력하며, 굶주렸고, 영원한 파멸의 가장자리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집단이다. 그들과 영원한 파멸 사이에 간발의 차이 밖에 없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서 1:15-16).

---

떡 덩어리와 물고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멸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부었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졌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1-23; 요한복음 6:33). 이 단락의 떡 덩어리와 물고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군중에게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적 수단의 영역을 보여 준다. 나는 떡과 물고기를 만들 수 없지만, 내 점심을 주께 가져갈 수 있다. 나는 떡과 물고기를 몇 배로 많이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구원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노예 상태로 매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위한 기회와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을 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점심 도시락을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 보라!

모든 군중의 만족과 바구니가 남은 것으로 가득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은혜의 충만의 아름다운 표시로 보인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주신다.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는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므로,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한 만족을 찾는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므로, 우리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하지만, 은혜의 창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의 집 안에는 “충분한 떡이 있고 남는다!”

---

---

## 27 장. 선한 격려를 위한 다섯 가지 이유—마가복음 6:45-56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45-56)

---

성육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삶 가운데 모든 발걸음은 깊은 의미와 영적 중요성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행위의 충만한 뜻을 그분과 맞대면 하지 않고서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경의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들이 매우 폭넓은 범위의 교훈을 갖고 있음을 보는 것은 쉽다.

이 구절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의 위치에 대한 그림과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작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종종 많은 폭풍우와 역풍에 의해 이리 저리 튕겨진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체현된 임재의 누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 자신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진 이 제자들처럼, 곧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더이상 던져지지 않는다. 우리가 맞은 폭풍은 끝날 것이다. 우리 기쁨에 반대가 되는 모든 것은 종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를 위하여, 나는 50 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원한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폭풍과 역풍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견디어야 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당신에게 안심하라고 할 다섯 가지 이유를 주기 위하여 이 구절들에 기록된 이야기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

진행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안심하기 위한 아무런 이유를 절대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 위에 있다. 당신은 지옥의 바로 가장자리 위에서 맴돌고 있다. 당신은 영원한 고통으로 숨이 멎을 뿐이다.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피하기 전까지, 당신이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엎드리기 전까지, 당신은 어떤 것에도 기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는 가운데 당신이 들이마시는 모든 호흡이 앞으로 올 세상 안에서 당신의 비탄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탄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 있어서, 비록 당신이 지금 폭풍우치는 바다를 향해할 것이 요구되고 역풍으로 이리 저리 튕겨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들이 이 감동의 몇 개의 구절 안에서 발견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치실 것이다.

##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모든 때에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안심하기 위한 이유를 갖는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의 하늘의 아버지의 지혜롭고 선한 섭리 가운데 안심하게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택정한 자의 선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이고, 정부이며, 지배이며, 계획이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제자들이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과 이 기록된 큰 고난을 체험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

---

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이 폭풍 속으로 향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강요 당했다. —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45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 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33-36).

그 폭풍이 어떤 것이든 나는 견뎌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맞을 역풍이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확신들을 받는다...

- 내 삶과 그 모든 행사들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에 의해 정해지고 명 받았다.
- 내 주께서 내게 오셔서 달래 내가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나운 파도 위에서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실 것이다.
- 나는 폭풍우를 뚫고 향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

“평화가, 강처럼, 나의 길에 임할 때,  
비탄이, 바다의 큰 파도처럼, 휘몰아 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당신께서 내가 말하도록 가르치셨지만,  
‘모든 것이 좋으니, 내 혼과함께 좋네!’”

##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때에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임재의 자각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시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모르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즉각적인 임재 가운데 있다. —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 절).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주 예수께서 폭풍 속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보셨다. 우리는 그분의 시야 밖에 결코 있지 않다. 우리 길은 결코 그분에게 감춰지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가 택한 길을 아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환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보신다. 혼자든지 혹은 군중 속에든지, 아프든지 혹은 건강하든지, 바다에서 위험 가운데든지, 바닷가 위에서 위험 가운데든지, 그리고 광야에서 위험 가운데든지, 그분의 눈은 우리 위에 있다! 폭풍우가 제자들을 이리저리 흔들 때 지켜 보았던 그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본다. 우리 어둠은 그분 앞에서 빛이다. 우리가 그분을

---

볼 수 없을 때가 여러 번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때는 한 번도 없다.

주 예수께서 커다란 고난과 고통의 한 가운데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셨다. 길고 긴 밤의 큰 고난 후에 밤 사경에 그들에게 오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초자연적이고, 기대하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성난 그 바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분은 그들이 절대 절명의 필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느라고 수고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오시고 계셨지만, 그것은 마치 그분이 그들을 지나쳐 가실 것처럼 보였다. 아무 것도 그분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과 함께 바로 거기 계셨다.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옳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가자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할 때, 밤 사경에 우리가 길고 힘든 수고를 하고 우리 수고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후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나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 것처럼 보일 때, 주는 가까이 계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항상 안심하여야 한다. 내 마음에 더 위로가 되는 것을 내 마음 속에 결코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무소부재, 혹은 하나님의 전능 (시편 139:1-18). —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1 절).

우리 주께서 그들의 작은 배 위로 올라 타시자마자, 폭풍이 그쳤다. 그 어떤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신가! 그 어떤 능력이 그분께 있는가! 바람과 폭풍우 조차도 그분의 단순한 뜻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뜻에 굴복한다.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6)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개입에 그렇게 놀라는 체험을 얼마나 자주하게 되는지.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구속자의 신성한 전능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기를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 하나님의 동정

---

넷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큰 동정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안심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78:38-39)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3-14)

49-52 절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동정을 품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약함과 죄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때 때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49-52 절).

그들의 행동은 꽤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우리 모두를 나타낸다. 우리는 결코 교만하고, 의기양양하고, 고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 사람들이나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하는 다른 믿는

---

자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혹해서는 안된다.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었으며,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복음 전도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유령을 보았던 것으로 생각했고, 무서워 떨어졌다! 그들이 금방 증언했고 체험하였던 기적들을 그들은 잊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불신 가운데 완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하나님께 향한 길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심하여야 한다 (53-56 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네 구절에 대하여 Robert Hawker 가 해석을 썼다…

“나는 상식과 모든 인류의 역사에 호소하겠는데, 그 상상이 초상화를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꾸밀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수 세대 전의 선지자가 말했다. ‘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때에 소경의 눈이

---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이사야 35:4-6).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실로 그분의 귀한 아들의 위격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병자와 각종 묘사와 특징으로 병든 자들로 둘러쌓이셨으며, 한편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짐으로 온전하여 졌다. 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제 그분께 나오며, 확신을 갖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주께서 빈 손으로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 언급된 것들이 궁핍한 혼들을 구원자께 데려왔던 것처럼, 당신과 나는 다른 모든 영원히 노예 상태로 매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분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할 책임이 있다. 공홀의 장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며,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며,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다. 궁핍한 자를 그분의 집에 데려오고, 그들을 기도 가운데 구원자 그분 자신께 데려가고, 그들을 그분 앞에 내려 놓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영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분을 만질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는 여전히 사실이다. —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

## 28 장. 바리새인들의 종교—마가복음 7:1-13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닛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1-13)

---

우리 주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 하시듯이, 그분은 거짓 종교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여기에서 경고 하신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보다 더 사람들의 혼에 위험한 것은 없고,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주의 만찬에 대하여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행하는 다른 모든 종교적 실행에 대해 진리이고 적용가능하다. 믿음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척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는 자주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된다. 여기서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의미했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신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경고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교리나 혹은 종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앞에 배교자, 즉 인간 종교에 대하여 얼마나 겸허한 그림인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정도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는 한편, 인간이 진리의 왜곡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본다. 이들 박식하고, 높이 교육받고, 크게 존경받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

서 그들이 종교 의식 중에 손과 그릇을 씻는 것을 꼼꼼하게 지켜보심으로 감명을 받으실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그들과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세상적 마음의 천연적인 종교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그것에 끌린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매력을 끌고 보편적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모든 사람의 혼에 치명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기도 하고 가장 새롭기도 한 것이다. 이 공과에서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특징짓는 일곱 가지 사항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요구하겠다. 그것이 이 일곱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자. — 나의 종교가 그리스도의 종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종교인가?

**1.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독선적이고, 비판적이며, 판단적으로 만든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1-2 절)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못이 있는지 찾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예민하게 지켜 보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을 찾는 사람들은 혼하지 않다. 만약 당신 어떤 것을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당신 앞에 앉아서, 어떤 것이든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따라와서 당신이 했던 것에 잘못이 없는지 찾을 것이다. 천연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은 화나는 것이다.

---

그러나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것은 율법주의, 곧 행위 종교의 결과들인 교만과 거듭나지 않음과 독선을 드러낸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그들의 외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누가 영적이고 누가 세상적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였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시대의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자신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8:11)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정당화 한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그들보다 더 죄가 충만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 한다. —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거룩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행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 은사의 역사에 기초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자들이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끔찍한 악이었다는 것을 지적할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미리 그들의 손을 의례적으로 씻지 않고 공개적으로 먹는 그들을 보았다. 그것은 간단히 용서될 수 없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범한 것이었다! John Trapp 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범한 것처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큰 죄처럼 여겼다”고 말한다.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고소한 것은 그들이 악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손을 씻는 것은 언제나 좋으며, 개인적인 위생상의 문제로서 더 자주 씻을수록 좋다. 그러나 먹기 전에 언제나 손을 씻는 실행은, 종교적 신앙심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종교적 전통이 되었고, 적어도 대중 앞에서가 아니면, 그들이 감히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전통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영성과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헛되게 상상하였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있든 없든지 그들은 손을 씻었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그분의 예와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적 전통에 복종해야 할 아무런 강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떡을 떤 때 그들의 손을 씻지 않았다!” 만일 깨끗하다면 왜 손을 씻어야 하는가? 전통은 그들의 양심 위에 아무런 힘이 없었다.

당신은 아마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하겠는가?” 순수하게 종교적 전통에 적용되는 많은 것을 하며,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생각을 가졌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말하고, 혹은 당신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을 듣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가지는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옷으로, 우리의 공개적인 모습으로, 혹은 공개적인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려 시도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6:3-18 을 읽어

---

보라. 당신은 아마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과 내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직함 가운데, 일 가운데, 대화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디도서 2:10)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조심하자.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몇 년 전, 한 식당에서 몇 사람의 목사들 사이에 있었다. 그의 음식이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원로 목사가 먼저 감사의 머리 숙임이 없이 (공개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그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들 중 하나가 그의 행동에 반대하였고, 말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먹기 전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특히나.” 나의 더 나이든 친구가 “왜”라고 물었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고 했다. 나이가 더 많고 지혜로운 목사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웨이트리스에게 좋은 팁을 남기시오.”

옛 것을 무시하기보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로운 종교적 의무를 가르칠 권한이 누구에게도 더이상 없다. 명령을 하는 것은 왕만을 위함이다. 하지만 이 종교주의자들은 왜 주의 제자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율법을 어겼는지 알기를 원했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은 전통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위에서 그들의 혼을 안식한다.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스스

---

로를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참 거룩의 권능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부인하는 거룩의 모양을 갖고 있다 (로마서 1:16-17).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진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15).

손을 씻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적 전통들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의지 숭배 가운데 자신을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 2.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종교이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

---

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7:3-9)

이스라엘 국가처럼 아주 높이 올랐다가 아주 낮게 떨어진 인간의 국가는 전혀 없었다. 유대인들처럼 던져져 버릴 뿐, 그런 큰 특권과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그분의 성막과 그분의 성전과 그분의 제단과 그분의 시은좌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주셨던 나라였다. 이들은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백성이다.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사자로부터 난 백성이고, 다윗의 왕국에서 계승된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입은 백성이다. 이들은 언약궤 앞에서 한 때 떨었던 백성이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 여기 모세의 이름을 외치고, 비록 오래전에 그 교훈을 거절했지만, 손과 잔과 받침과 단지와 두멍을 의식적으로 씻는 것이 영성의 증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생각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관습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 그들 중 가장 거룩하였다.

주의하자. 일단 교회나, 교파나, 혹은 개인이 왕의 진리의 대로를 벗어나면, 단지를 씻는 것과 그것을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을 본다고 놀라서는 안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을 입고 그들의 신분을 주장한다. 그러나 철저한 배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래 전에 포기

---

하였다. 오늘날의 종교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에 큰 강조를 두지만, 아무도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는다. 십자가의 교훈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에 십자가를 교만하게 걸친다. 도처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교훈을 멸시하면서, 사람들은 “Amazing Grace”를 부른다.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 종교의 큰 행사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무시한다. 그들에게 거룩의 형태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멸한다. 모든 세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을 씻는 큰 자들이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적인 종교는 마음의 믿음이 없이 공허하고 쓸모 없는 종교이다.

### 3. 바리새인들 종교는 외적이며 입에 발린 종교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 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6 절).

우리 주께서 인용하신 단락은 이사야 29:31 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를 빗는 방법이나,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혹은 경건과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배울지 의문이 든다. — “주께서 우리의 심중을 보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줄지어다.” (잠언 23:26).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23). 마음이 믿음 가운데, 개인적 경배 가운데, 공개적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일들 가운데 마음이 근본적인 것임을 기억하자.

---

마음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섬김과 경배 가운데 중점된 문제는 우리 마음이다 (이사야 29:13; 에스겔 33:31; 로마서 10:13; 14:17).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하는가? — 새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 부서지고 통회의 마음이다! 무엇이 참된 할례인가? — 마음의 할례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주하시는가? — 우리 마음 속이다! J. C. Ryle 은 이렇게 썼다. “끓은 무릎, 고개 숙인 머리, 큰 아멘 소리, 매일 한 장씩 읽기, 주의 만찬에 주기적 참여는 우리 애착이 죄에, 혹은 쾌락에, 혹은 돈이나 세상에 못박혀 있는 한, 모두 쓸모 없고 무익하다.”

#### 4. 바리새인의 종교는 무책임에 대한 덮개와 변명의 속임수를 쓰는 종교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0-12 절).

한편 참 종교, 참 영성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 거짓되고, 공허한 종교는 사람들이 삶의 가장 일반적인 의무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참 종교, 참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

을 위하여 일상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의무를 소중히 하고 충성되게 수행하도록 한다.

주 예수께서 만약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핑계대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사로 그가 헌신했던 것은 오직 돈이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를 보살피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스스로를 종교적 위선자로 증명한다. 하나님의 경배가 믿는 자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아버지와 남편이 그 가족에게 필요를 공급하게 하며, 믿는 자가 근면한 피고용자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인이 충성된 고용주가 되게 하고, 여인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게 한다. Rowland Hill 은 한 번은, “사람이 주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개와 고양이와 농장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올때 모든 관계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가 그의 종교가 순수하기 이전이나 다른 때보다 더 좋은 남편, 아버지, 주인, 일꾼, 그리고 친구가 된다.”고 썼던 사람이 William Jay 이다.

**5. 바리새인의 종교는, 인간의 관습과 신조와 신앙고백으로 말씀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효하게 만든 종교이다.**

우리 주는 이 오만하고, 자기 만족적이며,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 앞에 이 명령을 세 번이나 내려 놓았다. 당신은 사람의 전통을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8 절).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9 절). 당신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험이 없게 만든다 (13 절). 첫째,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성경에 더했다. 다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절하였으며 그들의 전통을 사로잡았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과 전통과 동등하게 만드는 종교이다. 성경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피와 의와 은혜로만 인한 구원을 가르치는 대신에, 종교적 도덕성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경배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계명을 지키게 가르치는 대신 (믿는 자의 잠김과 주의 만찬), 순전히 사람이 발명한 의무와 의례를 가르친다 (유아 세례, 사순절 준수, 종교 행사). 그런 종교는, 비록 큰 헌신과 의식의 천박함으로 실행했지만, 철저하게 헌된 일이고, 공허한 모습이며, 생명과 권능과 영성의 공허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의 실행은 자기 자신의 혼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 6. 바리새인의 종교는 율법주의와 행위와 금욕주의의 종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불결하다고 여겼던 물건을 만지거나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신들이 불결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를 따른다. 종교에 기초한 일의 전체 체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한 성경적 금기들을 고안함으로써 세워졌고 인기 영합을 얻는다. 재림주의는 고전적인 예이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적 종교, 그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어떤 종교로, 그것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만드는 종교를 좋아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골로새서 2:21)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그것

---

이 어떤 교파의 이름을 입고 있더라도, “자의적 숭배 가운데 지혜 있는 모양” (골로새서 2:21-23)에 지나지 않다. 권투와 경마와 야구와 농구와 혹은 축구를 즐기는 자와 돼지고기와 생고기와 메기를 먹는 자와 커피와 차와 혹은 코카 콜라를 마시는 자의 영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종,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 자신의 주 앞에 서든지 아니면 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알콜중독과 선정성과 간음과 간통을 그들이 못하게 하겠는가?” 그것이 모든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법에 의해 통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간주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통치되고 제한되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를 노력한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만일 우리가 서로를 지배하고 심판하기 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구한다면 훨씬 더 쓰기 좋을 것이다. 나는 독자가 한 항목만으로 이런 생각에 무게를 두기를 요구한다. — 영과 신약의 서신 모두에 완전히 부합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7. 그 본질에 있어서, 그 핵심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종교는 사람의 철저하고 완전한 타락을 부인하기 때문에 은혜와 구속의 필요를 부인하는 종교이다 (14-23 절).

---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4-23 절).

모든 인간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촉하는 것들에서든 아니든 사람의 혼의 더러움과 부패가 온다는 가정 위에 작용한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 혼의 더러움과 부패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오염되었고, 더러워졌으며,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마음이 부패하였으며, 하나님께의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의 필요 가운데 있다.

옛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종교주의자들처럼, 거룩과 의와 경건이 특정 고기와 마시는 것을 자제하며 씻고 깨끗하게 하는 종교 의

---

식을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에 좌우된다고 가르쳤다. 우리 구원자는 세 가지 사항을 선포하심으로 이 교리를 뒤집어 엎으신다.

- **당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몸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 14:17).**

물질은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당신의 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물질적 의식은 그것들을 견뎌냄으로 당신의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세상적인 것들은 당신의 혼을 부패하게도 깨끗하게도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분별된 삶과 거룩의 모양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과 의로운 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의 영의 역사이다.

- **모든 죄와 더러움은 마음 속에서 기원하며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 환경도, 우리 회사도, 우리 교육도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 얼마나 놀라운 목록인가! 그토록 많은 악한 것들을 쏟아붓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만약 이것들이 벌이라면, 벌집은 무엇이란 말인가? “악한 생각,”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악한 궁리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살인”은 비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 있는 적의로 시작된다. “간음”과 “간통”은 몸으로 행해지기 전에 마음 속에서 저질러진다. 마음은 모든 부정한 새가 세상 속으로 날아가는 새장이다. “도적질”은

---

마음의 탐심 가운데 태어난다. 어떤 사람도 그가 먼저 욕심을 내지 않고서 흠치지 않는다. “거짓 증언”은 거짓과 중상이며, 입에서 뱉어지는 마음 속에 있는 원한이다. “모독”은 혀로 모독스러운 말을 함으로 표현되는 마음 속의 적의이다. 이 모든 것들과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사람 내부에 있는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스며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 절) —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타락이지, 먹기 전에 손에 물을 씻지 않아서도 아니고, 종교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메스꺼우며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모든 것을 노출한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오염과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피 뿐이며,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충만히 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타락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회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눈이 멀게 되므로 인하여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면서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볼 때 그들이 지옥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 것이다.

-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선호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기 때문이다.

---

거의 아무도 그런 기본적인지만, 치명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데, 그들이 독선적이고 행위의 종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더러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혼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통과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들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먹은 그것은 물질적인 요소이며, 누구도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불결해지게 만들 수 없다. 그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여 거짓 종교의 인위적 신조를 위함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달리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혼과 나의 혼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이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지혜이고, 의이며, 성화이며, 구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란다.

---

## 29 장. 완전한 타락—마가복음 7:14-23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가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14-23).

모든 인간의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처럼, 사람의 혼의 더러움과 타락이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정하에 작동한다. 그런 종교의 교리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서 2:21)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락 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우리 혼의 더러움과 타락은 우



---

리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오염되었고, 더러워졌으며,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이 구절들을 함께 할 때, 나는 세 가지 사항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 마음의 우둔함

첫째, 우리는 우리 생각의 우둔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게 된다 (14, 16, 18 절). 단순한 사실은 타락한 사람은 절대 영적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는데 단지 느린 것만은 아니다. 그는 깨달을 능력이 없다. 우리 주께서 무리에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하셨다.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전무하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까지, 영적인 것은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2:14; 요한복음 3:3; 로마서 3:11).

인간 본성의 타락은 보편적인 타락이다.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의지와, 감정과, 양심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생각에도 영향을 준다. 다른 것들에 현명하고 심지어 뛰어나다 할 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깨달음이 없다. 탁월한 세상적인 사람들은 종종 복음 가운데 계시된 가장 단순한 것들에 넘어진다. 그들은 복음 진리의 가장 분명한 말씀 가운데 아무런 계시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영적 지혜나

---

뜻의 깊이를 보지 못한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기쁨에 넘치는 경이로움 안에서 믿는 자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것들은 어리석음이다. 그가 모든 것을 듣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처럼, 여기 저기에서 단어를 듣지만, 그 대화의 흐름을 놓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듣지만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21).<sup>4</sup>

주권적인 택정이 속물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불신자에게 운명론으로 보일 것이다. 삼위 일체의 교리가

---

<sup>4</sup> 예를 하나 들겠다. — Thomas Jefferson 은 미국의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우리 나라 초기 정치가들처럼, 그는 이신론자였다. (이신론자는 순수하게 이성적 근거 위에 신을 믿는 자들이며, 어떤 계시나 감동 받은 권위가 없다. 이신론자들은 신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분명한 자연의 법칙을 세웠으나, 그가 창조한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Jefferson 은 대부분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에 관하여 뛰어났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하였다. 이것이 Thomas Jefferson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있어서 Calvin 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는 실로 무신론자이며,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면 차라리 그의 종교가 마귀신앙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짜 신에게 경배를 했다면, 그가 그런 것이다. 그의 다섯 가지 요점 안에서 기술된 것들은 당신과 내가 인정하고 앙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세상의 창조주이고 자비심 많은 통치자가 아니라, 극히 해로운 영에 속한 악령이다.”

Jefferson 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의 뛰어남의 표시로 서 있다.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

명석한 이교도에게 불가능한 수수께끼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출생이 세상적 사고에는 쓸모 없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속의 구속과 형벌의 만족이 불신자들에게 야만적인 관념이다. 전가된 의가 독선적인 속물에게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은혜로만의 구원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다 (고린도전서 1:18-31).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는 것이 종종 느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양떼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거듭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고 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분별력과 깨달음은 가장 좋은 부분이고 썩은 부분이다.

분명히 그것은 주님의 초기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였다. 이런 차이로부터 그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 주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아 보인다. —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들은, “그 비유로 무엇을 뜻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대답하셨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자. 그 영의 가르침이 없이, 가장 뛰어난 생각은 가장 단순한 진리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복음의 전도를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함으로써, 그 영의 직접적인 개입과 계시가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으며, 가르침

---

받을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다윗과 함께,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시편 119:64)라고 기도함으로서, 언제나 다가가야 한다.

### 우리 본성의 더러움

둘째,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 본성의 더러움을 우리 앞에 제시하신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5-16 절)

금욕주의가 그리스도교는 아니다. 분리주의가 영성이 아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수성은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는 것, 물건을 만지느냐 만지지 않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좌우되거나 그로부터 오지 않는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수성은 분명히 종교적 관행과 형식을 가장 열심히 실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

입을 통하여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눈이나 귀로 우리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럽게 한다. 모든 악한 말은 우리 악한 마음에서 솟아난다. 모든 타락한 행동은 우리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이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몸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을 가증스럽게 만들며 그를 진노와 심판에 임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악이 생각과 양심, 혼의 기능들, 그리고 몸의 지체들을 더럽게 한다.

---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는 그의 내면 깊숙이 사악의 소굴을 갖고 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타락하게 할 나쁜 친구가 필요 없다. 우리는 나쁜 친구이다! 우리 안에는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 사악함의 근원과 시작을 갖고 있다. 모든 악의 시작은 모두 우리 안에서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위 마음에 품어야 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때는 특히 더 품어야 한다.

내 생각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고립되게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고, 그들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들의 친구나 그들의 환경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어리석음이 모든 아이의 마음 속에 묶여진다. 그리고 회초리가 그것을 그에게서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종교적 은둔자들로 살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행악하는 자들과 친구를 구별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시편 26:5; 고린도전서 5:11; 15:3). 그러나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 친구가 아니다. 부패는 속에 있다. John Gill 이 썼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죄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모든 악한 생각들, 부도덕한 말들,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행동들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람을 불결하고 정결치 않다고 부르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혐오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

자녀들 자신의 개인적인 타락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일깨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행해야 할 길 안에서 훈련시키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열납되는 우리 자녀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며,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철저하게 독선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너무나 천연적으로 금욕적인 종교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사악하게 보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보기를 속히하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의 실행을 품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이다. 이것을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도록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알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누구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라.”고 하신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자.

## 우리 마음의 타락

20-23 절에서, 우리 마음의 타락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주어진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23 절).

---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부도덕한 자와, 천한 자와 평판이 나쁜 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귀하고, 권세있고, 존경받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묘사한다. 악의 씨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며, 가식적 경건에 덮였고 사회에 의해 억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바로 핵심에 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것들이다! 우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시편 5:9), 아무것도 선하지 않다 (이사야 1:2-6; 로마서 3:10-18).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구원에 관련한 모든 “악한 생각들”과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 대한 “악한 생각들”은 우리 타락한 마음에서 나타난다. 모든 사악한 상상들, 세속적 논리와 정욕, 악의적인 상상들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겨나며, 날조된다.

모든 “간통”은, 불법적인 성행위이고, 생각과 행동 가운데 혼인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며, 타락한 남자와 여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솟구친다.

모든 “간음”은, 성적 행악, 외설, 소아애,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우상숭배로서, 천연적으로 모든 마음 속에 자리잡은 악들이다.

모든 “살인”은, 증오와 원한으로 인하여 살인이 일어나고, 중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과 성품을 손상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그들이 손으로 범하기 전에 저지르는 마음의 행위이다.

모든 “도적질”은, 강제적이든 속임수든, 마음에서 일어난다.

---

모든 “탐심,” 탐욕과 시기와 착취,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좇는 탐욕스러운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솟아난다.

모든 “악독,” 모든 부정한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모든 범죄, 모든 죄로 충만한 생각과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행위는 모든 악한 것들로서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속임,” 책략, 위선, 교묘함, 그리고 교활함은 마음의 악한 특질이며, 배운 행위들이 아니다.

모든 “음탕함,” 음란함, 평온의 부족과 생각의 외설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정욕들이다.

모든 “흘기는 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마법과 마술이다.

모든 “훼방”은 하나님에 관하여 악한 말이며 마음으로부터 온다.

모든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인종에 대한 교만 혹은 위치에 대한 교만은 사악함에 속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며, 모든 인간 속에 내주하고 있다.

모든 “광패,” 무분별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행위는, 자신 외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하고 이기적임 마음에서 솟는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 절). 그러하므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5). —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18).



---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9-11, 19-20).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과 전가된 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변함 없는 공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인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뻐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30-31).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뿐이다.

---

## 30 장. 필요한 공흠, 구한 공흠, 주어진 공흠—마가복음 7:24-30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려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마가복음 7:24-30)

여기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가련한 여인, 큰 필요가 있는 여인, 주 예수의 공흠을 얻었고, 그녀의 믿음의 높은 칭찬을 받은 여인에 대하여 그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제시한다. 이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15:21-28 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관련

---

하여 감동을 받지 않았던 특정한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따라서 마태의 이야기도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21-28).

마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마가는 그녀가 수로보니게 족속, 즉, 그녀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베니키아에 속한 지역의 사람이었다고 첨가한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다. 누가 그녀에게 주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는가? 어떻게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었는지 알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자

---

신이 그녀의 교사였음이 분명하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그녀에게 주셨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 54:13).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 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7-40)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들을 함께 가지고, 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안에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열 가지 복음 공과를 본다.

1. **사람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지연시키지 못한다.** —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마태복음 15:21).

기록되기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3-4).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

---

다. 그들의 교만과 독선과 종교적 전통이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과 차단하였다. 따라서, 법적 영벌 가운데, 우리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버리심은 두로의 해변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었으며 그곳에서 선택 받은 이방인 여인에게 그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 2. 어떤 죄인이 공황을 구하려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황 가운데 그 죄인에게 분명 오셨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오는 궁핍한 혼이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계 여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공황 가운데 그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공황을 구하려 그리스도께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주를 찾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먼저 찾으려 오셨다. 목자를 찾아 발견한 자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발견한 분은 목자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때문이다 (요한일서 4:19).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24).

우리 주께서 군중을 지나셨고, 밀집한 도시들을 지나셨으며, 유명한 사람들을 지나서 아무도 아닌 자에게 공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무데도 아닌 외곽지역에 오셨다. 그것은 내게 세 번째 공과를 가져온다...

## 3. 은혜는 언제나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자에게 온다.

---

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 받게 될지에 대하여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면 언제나 약간 거북하다. 누구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 주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위대한 기적을 행하려 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중요한 사람, 존경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인이고, 가나안 사람이며, 수로보니계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의 권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여인에게 오셨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특별한 대상으로 사랑을 받고 선택 받은 “어떤 여인”이었다.

4. 주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 은혜로우려 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그 죄인이 이 가련한 여인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마가복음 7:25).

내가 이미 언급했다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어느 누구의 도구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저런 수단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기 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전도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안을 말해주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안다 (로마서 1:15-16; 10:13-17; 고린도전서 1:18-29; 에베소서

---

1:13; 4:8-16; 디모데전서 4:12-16;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촉매이다 (로마서 1:16). 촉매는 작용을 위한 매개체다. 만약 한 화학자가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 물질을 결합시킬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촉매가 필요하다. 촉매는 결합을 일으키지 않지만 결코 그 물질들의 결합 속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특정한 촉매가 없이, 결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될 수 없다. 그것이 정확히 복음의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것인가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종류의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택하실 수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우리 코를 꿰어 하늘로 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고, 일단 속량의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아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매개체를 통하여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려 하셨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교통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필요한 촉매로써 만드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항하여 외치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것이 구원을 사람에게 좌우되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보이게 되는

---

것처럼 어리석지 말라.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의 의미하도록 성경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리적 관념과 신학적 체계에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야 한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계시에 우리의 논리를 승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없다.

위에서 인용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 보라. 그리스도 안의 거듭남과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운행이 복음 전파라는 도구를 통하여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교통된다는 결론을 배제한 상황 안에서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단락 안에서 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기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당신은 아마도, “만약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중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뉴기니아의 정글 멀리 있는 한 야만 종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지를 알 수 있다. —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선지자를 그분의 공활을 보이려 계획하셨던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실지를 정확히 아신다. 요나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긴박한 느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므로, 성공의 확신을 갖고 전한다 (고린도전서 15:58). 하나님



---

의 말씀은 헛되게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성취할 것이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전해진 것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55:11).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름 받는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5. 참된 기도는 공홀과 은혜와 신성한 간섭에 대해 마음으로 느끼는 필요로부터 일어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15:22).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26).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함이다. 우리가 공홀이 필요할 때까지 공홀을 절대로 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까지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해야 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녀의 딸이 “마귀로 인하여 슬프게도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녀를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 (요한일서 3:8). 큰 고뇌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자 (히브리서 4:16).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의 그런 믿음을

---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그분 앞에 펼쳐놓을 수 있고 모든 필요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여인은 주께로부터 단 한 가지 것만을 원했다 — 공홀이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제게 공홀을 베푸소서, 오 주여!” 그것이 얼마나 포괄적인 기도인지. 만일 그분의 공홀을 베푸실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녀가 공홀을 소망하였던 그 배경은 인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한 인격 안에 계신 분 이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공홀을 구하였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매일 그분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몰랐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께 왔고, 그분에게서 공홀을 구하였다. 분명히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녀를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그녀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 데려왔다. 언제나 그랬으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요한복음 6:45-46).

## 6. 공홀의 장소는 그분의 발 아래이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마가의 서술을 보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25-26).

---

그녀는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었고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왔다. 그녀는 그분의 발 아래 었드렸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에게서 긍휼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궁핍한 혼처럼 “그분의 발 아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5:22; 누가복음 7:2; 요한복음 11:32; 계시록 1:17). 이곳이 긍휼의 장소, 겸손의 장소, 존경의 장소, 경배의 장소, 사랑의 장소, 복종의 장소, 축복의 장소, 존귀의 장소, 평강의 장소, 그리고 마음의 평온의 장소이다.

### 7. 참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었드린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하신 것들에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는다. 믿음은 주로써 그리스도의 위치, 통치 그리고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은 머리 숙인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23-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찌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

---

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27-28).

주 예수께서 그녀를 무시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이라고 여겼으며 그분이 그녀에게 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주께서 그녀에게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의 구별하는 특징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5:24-25). 주께서는 그녀를 개라고 부르시면서, 가장 천한 말로 그녀를 묘사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이 주셨던 근거를 취하여 그분의 공훈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이 멸시했던 빵 부스러기라 할 지라도 구걸하였다.

**8. 믿음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28).

“네 소원대로 되리라.” — Robert Hawker 는, “마치 그녀의 손에 예수께서 통치권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가 모든 참된 믿음에 동일한 것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사야 45:11).

**9.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혼이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것을 소유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으로 마귀를 내몰아 버리신다.**

---

이 여인이 그녀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귀신이 나간 것을 발견하였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축복인가!

한 가지 더 보여 주도록 하겠다. 이제 아주 엄격하게 비유적이고 영적 방법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본문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자진하여 수용하겠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위치에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축복된 가르침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후식이다. 마가복음 7:30 에서,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라는 걸 본다. 여기 우리의 열 번째 공과가 있다...

### 10.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때 언제나 그들을 침상에 눕히신다.

이사야는 종교적 속임수의 침상, 자유 의지와 그 안에서 아무런 안식을 찾을 수 없는 행위 종교의 침상 안에 누워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당신의 행위의 침상은 너무 짧아서 그 위에서 몸을 펼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독선을 덮는 이불이 너무나 좁아서 감쌀 수 없다 (이사야 28:20).

여기 당신이 몸을 펼 수 있는 침상이 있다: —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다! 여기 당신을 감쌀 수 있는 이불이 있다 —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당신이 이 침상 위에서 몸을 펴고 이불로 완전히 덮게 될 유일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그분은 은혜롭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죄로 충만한 죄인들이 공황과 은혜를 위하여 그분께 올 것을 명하신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던 감동의 기록들 안에 보여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경이로움 들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바란다.

이 선택 받은 공훈의 그릇, 두로와 시돈의 바닷가에서 부름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주권을 본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분께 모여야 할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들은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여 올 것이다 (시편 110:3).

종종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가 그분의 공훈을 찾도록 달콤하게 강요하시기 위하여, 마치 그분께서 이 여인의 경우에 하셨던 것처럼 큰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신다 (시편 107).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즐거이 만드시는 인생의 그러한 시험들에 대하여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의 견해로 그분의 축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훈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잠시 동안 자제되는 어떤 것이다. 은혜롭게 그

---

분의 발 아래에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힘을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 40:27-31).

이 여인에게 주께서 놀라운 공훈을 행하실 즈음에, 그분은 먼저 그녀를 그분 앞에서 합당한 겸손의 장소를 취하도록, 그녀를 개라고 부르셨고, 그녀는 거기에, “웁소이다, 주여.”라고 답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자녀의 떡도 가질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은혜와 영광에 대한 합당한 관점은 언제나 죄인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합당한 관점을 갖도록 한다.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복된 체험 가운데 그분이 알게 되는 곳에서 찬양 받으신다 (시편 115:1).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훈을 체험했던 모든 자는 Augustus Toplady 와 함께 기쁘게 노래한다...

“공훈에 빛진 자일뿐—  
언약의 공훈을 노래하니;  
두렵지도 앓음은, 당신의 의를 입음이며,  
내 자신을 제물로 가져가네.  
율법과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나의 구원자의 순종과 피만  
내 모든 범죄함이 보이지 않게 감추네.

그의 선하심이 시작한 그 역사,  
그의 강한 팔이 이루실 것이니;  
그의 약속은 예이고 아멘이라,  
또 결코 빼앗기지 않았네;

---

장래의 일도, 또 지금의 일도 아니니,  
하나라도 아래에 없고 위에 없으니,,  
그의 계획이 앞서게 할 수 있으니,  
아니면 내 혼을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리라.

그의 손바닥에서 나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네;  
그분의 마음에 새겨 남아 있으니,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 안에서.  
그렇다, 나는 끝까지 참을 것이라,  
정직한 자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니—  
더 큰 행복을, 허나 더 확고하지 않으니,  
하늘 가운데 영화롭게 된 영들이라.”



---

## 31 장. “에바다!”—마가복음 7:31-37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7:31-3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 귀먹고 어눌한 자였던 사람의 치유가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은 오직 마가만 언급한 이야기이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속히 지나시는지! 그분이 계시는 동안 그곳에 소망이 있다. 그분이 떠나신 곳에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두로와 시돈의 해변가에 오셨다. 그가 그곳에 계신 동안 단 한 사람의 가나안 여인이 그 기회를 잡았다. 단 한 여인이 주께 왔으며 공활을 받았다. 이제, 그

---

분은 떠나셨다! 공홀도 떠났다! 은혜도 떠났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두로와 시돈의 해변가를 지나셨지만,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어떤 경고인가! 그분은 그 선택 받은 죄인에게 공홀을 보이시려 그곳에 오셨다. 실로 공홀로 인하여 그분을 찾았던 모든 죄인에게 공홀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오셨던 것처럼 속히 떠나셨다. 아마도 우리는 Fanny Crosby 와 함께 외칠 것이다...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아 선하신 구원자여!  
저의 하찮은 외침을 들으소서  
당신께서 다른 자를 부르시더라도,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 위를 걸으시는 동안, 결코 한 곳에서 아주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그분이 가아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셨을 때, 그가 거기 오셔서 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데가볼리의 해변을 따라 가셨다. 그분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셨으며, 그곳에서 공홀의 기적을 아주 종종 행하셨고 생명의 길을 죄인들에게 가르치셨다.

두로와 시돈의 해변에서 우리 주께서 떠나신 것은 하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분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가장 소망적이고 격려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종 동일한 장소에서 나타나며 동일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주 예수께서 지난 28년 동안 그분의 임재를 계속하여 나타내셨던 곳인 한 지역 교회의 지체로서 그것이 나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다. 예배를 위하여 내 마음을 준비하려 하면서, 매주 일요일과 매주 화요일에, 나는 기도와 소망을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

---

리를 다시 만나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자신을 보이실 것이며, 다시 말씀하실 것이며, 선택 받고, 구원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롭고 전능한 그분의 팔을 다시 펼치실 것이며, 그분의 품에 나를 다시 안아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경건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집에 온다!

### 아주 슬픈 상태

하나님 아들에 의한 이 귀머고 어눌한 자의 치료는 우리 주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며, 영적 교훈으로 가득하다. 32 절에서 아주 슬픈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본다. — “사람들이 귀머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는 이 불쌍한 귀머고 어눌한 사람을 주께 대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다. 아마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의 기적적인 치료와 구원의 능력을 보았거나 체험하였을 것이다. 어떤 경우가 있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련한 혼이 구원자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를 주 예수께로 데려왔고, 만약 그분이 손을 그에게 얹어 놓기만 하면, 귀머고 어눌한 자가 치료될 것을 알았다. Robert Hawker 가, “주를 알았던 은혜로운 혼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를 그분께 잘 데려왔다. 당신의 귀를 트게하고, 당신의 입을 열었던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게도 동일한 것을 하실 수 있다.”

---

라고 말했다. John Gill 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의 친구들과 인척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큰 생각을 갖고 그를 해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능력을 찾아서 그를 그분께 데려왔고, 그분이 그 손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으시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직접 데려왔고, 그들 자신의 혼 위에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느꼈고, 그들과 천연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이 귀먹고 병어린 자를 은혜로운 방법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것을 매우 갈망하였기에, 그분의 은혜롭고 전능한 팔을 뻗어서, 그들 머리 위에 올리고,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고, 그분을 찬양할 혀를 주실 것을 알았다.”

성령께서 마가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목하라. —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2 절). 그것은 정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가련한 사람을 그분께서 그에게 안수하기만 함으로써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고하게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큰 실수를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을 말씀할지를 감히 추정하였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할지 추정하여 설명해서도 안되고, 혹은 그분이 언제나 동일한 날에 그분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추정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방법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

---

이 사람의 체험은 실로 유일하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누구도 체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였다.

이 가련하고, 궁핍한 피조물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모두의 음성에 귀가 먹은 자들로서,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아주 좋은 그림이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이 아직 없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

그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 가운데 진노와 정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율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는 율법의 교훈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위협적인 저주와 정죄와 끔찍한 진노와 공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4)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는 귀가 먹었다. 그는 그런 것들로 전혀 영향을 받지도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거듭나지 않은 혼들에게 말할 때, 당신은 역시 돌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당신은 돌에 대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돌같은 마음을 치우실 때까지, 아무도 들을 수 없다.

마치 귀가 먹은 독사처럼, 거듭나지 않은 혼들은 복음의 매력적인 소리에 그들의 귀를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달콤한 음성을 그들은 철저히 경멸한다. 그들은 그것이 경멸스럽고, 귀찮고, 곤란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과 지침과 주의와 권고, 그분의 종들, 그들의 가장 귀한 인척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귀가 먹었다.

---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영적으로 귀가 먹었을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먹은 병어리들이다. 그들이 하려 했겠지만, 그들은 가나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말이다.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일들은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한 중얼거림 같이 들린다. 그리고, 그들의 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참된 체험이 없으므로,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영적 귀머거리와 병어리의 증거 안에서, 가련한 깨어나지 않은 죄인보다 더 충격적이게 된 것은 없다. 그는 마치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찌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 같다 (시편 58:4-5).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공훈의 모든 선율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정죄의 모든 가속한 소리도 그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그가 사로 잡는 것이든 경고를 하는 것이든, 아무 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아무런 외침은 결코 그의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 (Robert Hawker)

이 가련한 귀먹은 병어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깨어난 죄인들에 대한 그림이고, 예표이고, 대표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처음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체험 있는 성도처럼 행하고 말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 안의 젓먹이들은, 비록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매우 강하고, 성숙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언제나 그렇게 행동한다. 아이들은 자주 그런식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혼 위

---

에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역사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종종 허가 묶인 것과 같다. 공포와 수줍음이나,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것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은 허 짚은 소리와 더듬는 식일 뿐이다.

### 매우 이례적인 치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3-35 절).

우리 구원자께서 행하셨던 이 강령한 기적은 그의 주권적인 권능을 모든 창조 위에 그리고 창조 가운데 있는 모든 천연적인 요소 위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기적 가운데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머거리와 어눌한 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육체적 치유의 그림이라면, 우리는 모두 요점을 놓쳤다. 여기에 계시된 보배로운 영적 진리, 무기력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공훈과 은혜에 대한 공과가 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적 귀머거리를 치유할 권능을 가지심을 여기에서 보기를 의도하신다. 그분은 가장 경직된 마음과 영적 귀머거리인 죄인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가 한 때 경멸했던 바로 그 복음을 들음으로 기뻐하게 만드실 수 있다.

---

그분이 영적 귀머거리인 죄인들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영적으로 병어리인 자들의 혀를 푸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집스런 반역자를 믿음 안에서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가장 비열한 범죄자의 마음과 입 안에 은혜의 새 노래를 두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비열한 모독자를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구원의 권능 안에 오실 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절 될 수 없는 은혜를 믿고 전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품으실 때,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려는 죄인은 거절할 아무런 의지가 없다.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3). 어떤 죄인도 자신을 하나님의 전능한 품 밖에 있다고 여기지 말자. 아무도 소망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는 구원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귀머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셨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께서는 일을 하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제한되지 않으심을 당신에게 다시 일깨우겠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사용된 그 독특한 방법이 내가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일이라는 많은 숨겨진 공과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을 그분이 성경 속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은혜롭게 약속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안다.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역주: 한글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KJV 은 하나님의 말씀, NIV 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



---

씀).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전파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때로는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때로는 말씀을 구두로 해설하시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때로는 기록된 해설을 사용하신다. 때로는 죄인들을 그분 자시께 데려오기 위하여 큰 역경과 고난들을 사용하신다. 때로는 선택 받은 자의 주목을 사로잡기 위하여 친구나 친척의 부드럽고 사랑스런 설득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과 계획에 따르려 훈련된 물개처럼 그분의 은혜로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마자, 궁핍한 혼에 안수하시므로, 그분은 침처럼 우리가 멸시하는 것을 사용하시며,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하셨던 것의 자세한 것을 보고 이 공훈의 기적 같은 일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영적 진리들을 잡아라. 그분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그를 따로 두셨다. 주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은 목자에 의해서 양 떼에서 골라낸 양처럼, 세상의 나머지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혼에 은혜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택함 받은 사람을 광야로 매혹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자신계로 데려오신다.

주께서 그분의 손가락을 귀먹은 사람의 귀에 넣으시고, 마치 “그 귀를 만든 나뿐만 나의 은혜의 손가락으로 내가 뜻하는 자에게 들을 귀를 줄 수 있다.”고 하시는 듯 하다. 그 귀가 열릴 때 “기쁜 소

---

리”를 들을 수 있게 여실 때, 그분의 손가락을 그 구속 받은 자의 귀에 넣으신다.

그분은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고, 마치, “내게서 나와 너에게 들어가는 그것만 너의 혀를 풀 수 있고 나의 찬양을 알고 보여 줄 수 있게 한다.”고 하시는 듯 하다. Hawker 가 말했듯이, “그분의 입의 침으로 우리 혀에 정말 대셨으며, 그때 그분이 우리 입술이 그분을 찬양하도록 푸신다.” 얼마나 보잘 것 없지만, 그러나 필요한 그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신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은혜와 권능,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 실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주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한숨을 쉬셨다. 이것이 궁핍한 혼을 위한 우리 구원자의 동정심, 연민, 그리고 공홀에 대한 그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한 숨이었지만,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그분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직접 바라보셨으며 주권적인 권능과 권위의 한 마디를 하셨다. — “에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열려라!”이다. 즉시, 이 사람의 귀가 열렸고 그의 혀가 풀렸으며, 따라서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귀가 열리고 그 혀가 풀린 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에 대한 근거를 묻는 누구에게라도 준비된 대답을 줄 수 있다. Spurgeon 목사가 한번은 이렇게 제시된 이야기에 대하여 아름답게 말했다.

---

“한 때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니, 행상이며, 그의 물건을 팔면서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 이 가련한 피조물은, 그가 여행을 하며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여자들이 작은 소리로 합창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가련한 죄인,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시네.’

Jack 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건 분명 나한테 맞아.’ 그래서 그는 걸어가면서 그 멜로디를 속으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간 가운데, 그 작은 합창의 말쑤이 그 불쌍한 행상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길로 역사하였다.

얼마가 지난 후 그는 개종되었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 안의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등록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그는 목사를 만나러 갔다. 그 목사는 그에게, ‘당신 자신을 위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말지 않아요.’라고 Jack 은 대답하였다. ‘이것 밖에는…

‘나는 가련한 죄인,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시네.’”

‘그것 말고 좀더 말해야 합니다.’라고 목사는 대답했다. — ‘아뇨,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라고 Jack 은 이어서,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 목사는, ‘나는 당신이 교회 교제 가운데 당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신

---

은 장로들과 집사들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나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약속된 시간에 그 가련한 행상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만났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잘못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를 원했다. 일어나서 그의 체험을 선포하기를 요구받아서, Jack 은 간단히 말했다...

‘나는 가련한 죄인,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시네.’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다. ‘그게 당신이 말해야 할 전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목사가 말했다. ‘원한다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Jack 형제, 당신은 의문이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아뇨.’ Jack 은, ‘내가 가련한 죄인이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전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이심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증거와 내 은혜를 잃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매우 서글픍니다.’ — ‘아,’ Jack 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 없는 데, 왜냐하면, 첫번째로 나는 가난한 죄인이고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도 내게서

---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그분을 훔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더 부유한 자도 아니면 더 가난한 자도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귀한 형제, Jack.’ 다른 사람이 물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때때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 ‘글쎄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련한 죄인이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Jack 의 단순하고, 일관된 침착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의 세상을 가졌다. 그들이 그가 왜 절대 의심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가련한 죄인이고,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의심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매일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이심을 내가 의심해야 합니까?’

‘아,’ 나이든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내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Jack 이 대답하였다. ‘나는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가련한 죄인이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

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들과 장로들이 이 단순한 사람을 그의 단순한 믿음에서 흔들려고 계속 시도하였다. ‘왜,’ 다른 형제가 물었다. ‘나는 때로는 너무나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기도 하고, 성화 가운데 꽤 전진한 것을 느껴서, 매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적이 없습니다.’ Jack 이 대답하였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고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그랬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 형제는 계속하였다. ‘나는 나의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Jack 이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시고, 그분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Jack 을 교회에 받아들였으며, 이 단순한 고백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날을 계속하였다….

‘나는 가련한 죄인,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 가운데 만유시네.’

그것이 그의 모든 체험이었으며, 그 이상으로 그에게 갈 수 없었다. 세상에서 그의 남은 날 동안, 이 가난한 행상은 그의 믿음 안에 있는 그의 행복 때문에 ‘행복한 Jack’이라고 불려졌다. 행복한 Jack 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다. 그것은 골로새서 2:6 에 있는 바울의 훈계에 대한

---

견지를 실증한다.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매우 만족한 고백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하파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36-37 절).

치유 받았던 이 사람과 그가 치유 받기 위하여 데려왔던 사람들은 도처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며 다녔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하셨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아마도 그분이 사람들의 찬양을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있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려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그의 입이 계속 닫혀지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 안에서 그런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여기 저기로 갔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이 “귀머거리를 듣게도 하시고 병어리가 말하게도 하신다!”

그들은 또, “그가 다 잘 하였도다.”고 고백하였다. 이 가련한 혼은 그들을 반복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것보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말의 완전한 의미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혼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만족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우리가

---

현재를 상고하고 미래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를 기다리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에, 우리는 완전히 보고 기쁘게 고백할 것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그 큰 날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무엇을 위함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과거의 눈멀고 우리 구원자의 사랑에 한 때 의심하였고 그분의 충성에 의문을 품었던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

## 32 장. “그가 다 잘 하였도다”—마가복음 7: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7:37)

그 장면을 그려보도록 하라. 우리 주 예수께서 더러운 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은혜롭게 치료하셨던 곳인 두로와 시돈 해변에서 데가볼리로 오셨다. 여기서 그분은 병어리였고 언어 장애로 고통스러워 했던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분의 공훈에 속한 행위를 계속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너무도 위대하여 그분은 간단히 숨으실 수 없었다. 그분 앞에 엄청나게 큰 군중이 있었다. 그분은 절름발이가 걷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으며, 병어리가 말하게 하셨다. 마귀를 쫓아내신 분이 소경의 눈을 여셨으며, 놀라서 “그가 다 잘 하였도다.”라고 말했던 깜짝 놀란 군중 앞에서 서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한 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만약 우리 구원자의 기적들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가 다 잘 하였도다.”고 외쳤으며,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였던 자들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고백해야 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고백해야 하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에게 고백해야 하는지.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

## 나의 간증

이 57년간의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과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가 다 잘 하였도다!” 당신처럼, 나는 몇 가지 시험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약간의 고통과 슬픔이 있었으며, 약간의 상처와 쓰라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 부끄럽게도, 내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야기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도 친절하고 은혜로우셔서, 내가 오늘 죽어야 한다면, 내 비석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여기 57년 동안 끊임 없이, 특별하고 신성한 보살핌의 은인이었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그리고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셨도다.’

구속 받은 죄인들이 놀라움으로 말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잘 하셨도다!

그분의 큰 죄속량의 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받았도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한 분

이제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이 우리 모든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네 —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잘 하셨도다!

## 질문

당신은 동일한 것을 간증할 수 없습니까?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당신 자신의 인생의 체험이 이것을 입증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하나라면, 그럴 것임을 안다. 그

---

렇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바로 이 시간까지, — 죄의 자각이 있는 가장 초기의 통한에서 죄의 용서에 대한 축복된 흥분에까지, — 무덤에서 요람까지, — 세상에서 하늘까지, — 이것은 우리의 영원히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그 길을 따라서 행한 모든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에 관련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다.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섭리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모든 진리 가운데, — 그분의 사랑의 모든 징조 가운데, — 우리 하늘을 어둡게 하였던 모든 구름 가운데, —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넣으셨던 모든 달콤한 한 입의 음식 가운데, — 그분이 우리 잔 속에 섞으셨던 모든 쓴 것들 가운데, — 신비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던 모든 것 가운데, — 그리고 그가 가져가셨던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그 모든 것의 종합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이것은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인정함이며, 인정해야 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던 구원자, 우리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던 분께서 다 잘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잘못하시지 않으며, 매우 강하시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매우 선하시기 때문에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 행하실 수 없다. 그분의 우주, 그 모든 이야기를 연구하라.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은혜를 연구하라. 모든 빛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라. 꽃잎을 시험하듯, 혹은 별

---

레의 날개를 시험하듯, 그것들의 가장 세밀한 것들을 시험하라. 믿음의 미세한 눈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찬양을 향한 당신의 기쁜 간증이 될 것이다. —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고, 우리의 간증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65-68).

그것보다 더 나은 말로 내 인생의 체험을 결론지을 말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다루셨다. — 얼마나 경이로운 생각인가! 내 삶의 모든 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다. 내 생의 모든 날 주의 천사가 그의 장막을 내 주변에 치셨고 나를 다루셨다 (시편 34:7).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잘 다루셨다! 실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 사실은 나를 아주 잘 다루셨으므로 이 말씀은 그가 나의 혼을 얼마나 잘 다루셨는지에 대한 나의 놀라움을 말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다윗이 사용한 “잘”이란 말은 의미가 가득한 비길 데 없이 작은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가장 호의적으로, 가장 친절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기쁘게, 가장 달콤하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가장 세밀히,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후 이 마지막 41년 동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서 잘 대해 주셨다. 물

---

론, 그분은 나를 그분의 아들로써, 그분의 배필로써, 그리고 그분이 친구로써 나를 대하셨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는 그분이 나를 그분의 종으로서 대해주셨던 것을 말하며 특별한 기쁨이 있다 (에베소서 3:8; 고린도전서 1:26-29): 그분의 약속하심 가운데 또 그분이 종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가운데, 그분의 종으로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심 가운데, 그분의 종을 보호하심 가운데, 또 그가 그분의 종에게 주신 보상 가운데.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생의 모든 날들을 잘 대하셨다. —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예정 하심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감동 받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따라, 실로,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아주 약간만 자세히 말하겠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은 자신에 대한 주의 확실한 관용을 인정한다. 실로, 그분은 모든 그분의 종들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잘 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은혜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에 더하여,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날들을 섭리 가운데 있는 관용으로 채우신다! 그분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잠언 12:21) 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무런 재앙도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은 때로는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재앙이라고 바라보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 충성되게 증거하셨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

있다. “그것이 일어났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체험으로 인하여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선이 내게 왔고 선이 이곳에 있는 형제와 이곳에 있는 자매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선을 볼 때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용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은 존경이 된다. 나의 뺨을 뜨겁게 하는 눈물과 내 마음을 부수는 슬픔으로 나의 아버지를 바라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고 말할 때, 그러면 나는 나의 믿음의 실재를 입증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든지 혹은 하도록 허락하셨든지, 그분은 당신에게 잘 하셨다. 마찬가지로 내게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그 참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을 지금 인정하자. —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의 찬양과 경이를 말하라,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다 좋으니라!  
예수의 죄 속량의 피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 되었네.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다 잘 하셨도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  
약속하셨으며, 또 선함을 증거하셨으니,

---

그것은 우리 선을 위한 모든 것을 역사하시네.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다 잘 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신 죄인들,  
대가 없는 은혜로 찾은 바 되었던 자들아,  
우리를 그의 선택으로 삼으신 분을 사랑하자.  
기쁜 찬양을 하며,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은혜와 섭리 가운데,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다 잘 하셨도다!

## 영원 가운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다 잘 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보증으로서 오래 전의 영원 가운데 (만약 내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세상이 있기 전에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고백한다.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분이 자신 위에 우리 혼을 위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유를 우리의 위대한 보증인으로서 지원 하셨을 때,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 위에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것을 스스로 다짐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 안의 모든 영적 축복들과 함께, 그분을 우리 보증인으로서 신뢰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축복하셨다 (에베소서 1:3-12).

##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을 때,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인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의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으므로, 우리 대신에 무한한 가치의 영원한 의를 가져오실 수 있었고, 그가 “주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었다. —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30).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당신의 과거 죄들을 돌아보라, 또 당신의 현재의 결점을 보라, 또 당신의 미래의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의 눈물을 흐느끼는 한편, 정죄의 두려움이 없음을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룩한 구속자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아담이 동산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였다. 그리스도의 의가 정결한 백색의 세마포에 비유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우리는 흠이 없다. 이 옷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왕의 혼인 잔치에 앉기에 합당하다. 탕자의 비유 안에서 이것은 “가장 좋은 옷”으로 불린다. 그것은 아담이 동산에서 입었던 옷보다 더 좋은 옷이다. 그것은 천사들이 입은 것보다 더 좋은 옷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을 옷이다.



---

그리스도께서 칭의를 위한 우리의 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성화를 위한 우리의 의이다 (고린도전서 1:30; 히브리서 10:10-14). Ralph Erskine 은, “당신이 의를 가지려 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분이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전가된 의와 당신을 거룩하게 할 분배된 의 모두를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담의 타락하고 불의한 본성이 천연적인 출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본성은 새로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효험 있는 은혜로 인한 거듭남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3:10-12; 요한일서 3:7-9).

“만약 일단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잡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의’가 되셨다는 진리 —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 온다. 혼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외적으로 하셨던 것을 내적으로 받아들인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서 영접되셨을 때, 그분은 생생한 체현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 (J. C. Philpot)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이 주신 의로 거룩하게 된다. —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10).

---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뿐이다. 그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7)고 선포하신다. —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산 제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그분께 가져오는 산 제물 제물을 받으심은 (로마서 12:1; 베드로전서 2:5)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의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 뿐이다. 하늘에 속한 기업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주장은 그리스도 우리 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주장도 필요하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12).

## 구속 가운데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속량 없는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의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 소유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6).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고, 그렇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범해진 공의에 대한 우리 죄들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이루시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공의

---

의 하나님과 구원자”로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오신다. 공의는 만족되었다. 죄가 없어졌다. 율법의 저주가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다 (로마서 8:1-4, 32-34; 갈라디아서 3:13; 베드로전서 1:18-20; 3:18; 이사야 12:1).

###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또한 비추어 보라. —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전능한 역사 안에서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성령 회오 가운데, 효험 있는 부름 가운데, 회심 가운데, 우리 죄들의 용서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혼의 보존하심 가운데, “그가 다 잘 하였도다” (시편 32:1-5; 34:1-4; 116:1-7).

“내가 그의 은혜를 멸시하였고, 그의 율법을 범하였으니,  
그러나 여전히 그가 나의 동기를 지켰으니,  
나의 죄로 충만한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니,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 사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가 다 잘 하였도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를 기뻐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7-19).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8-10).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1).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1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지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9-10).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 섭리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3:6). —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16:7).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자 구원자를 우리가 소유하였는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의 자서전이 어떤 책보다 훨씬 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주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대하셨다. 그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그분과 함께 주셨다. 그분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들을 전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신다. 그분이 모든 그분의 무한한 충만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다.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16).

당신의 삶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이 아닌가? 나의 삶은 그렇다. 실로, 섭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그가 영원 가운데 하시기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하기를 마치시칠 때까지, 그분은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돌아볼 것이며, “그가 다 잘 하였도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우리의 저택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몸은 사망에서 일어났으며, 그분이, “나아와 창

---

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으며, 아, 우리가 그 어떤 들림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그가 다 잘하였도다!”고 외치게 될 것인지!

“아 찬양 할 준비가 된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께 또 나의 왕께:  
모든 성도들과 내가 말하려 함께 할 것이니,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모든 세상이 그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고백하니,  
그의 지혜가 그분의 모든 일을 고백하네,  
그러나 아 그분의 사랑을 어떤 말로 할 수 있을지!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얼마나 주권적이고, 놀라우며, 또 자유한가,  
그의 모든 사랑이 죄로 충만한 내게!  
그가 나를 지옥에서 구원 받은 자로 끌어내셨도다! —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또 나의 혼이 그의 사랑을 알게된 후이니,  
그가 내게 얼마나 큰 공활을 증거하셨는지,  
나의 모든 찬양을 능가하는 공활이네. —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곧 내가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날 것이니,  
또 그의 품 안에서 내 숨을 거둘 것이라,

---

하지만, 그때 나의 행복한 혼이 말할 것이라,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또 내가 그 세상에 일어설 때,  
그리고 하늘에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니,  
남은 자들 가운데, 이 음조가 넘칠 것이라,  
나의 예수께서 다 잘 하였도다.”

*Samuel Medley*

이런 사실들의 빛 안에서, 땅 건너편, 어둠이 없고, 슬퍼함이 없으며, 비통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죄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늘”이라 부르는 축복된 그 곳,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늘이라 부르는 곳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네.  
순수한 자와 자유한 자를 위하여 지어졌네.  
하나님의 말씀 안의 이 진리들을 그가 주셨네. —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하늘 가운데 약함도 슬퍼함도 없으니,  
다른 있을 곳을 바라지 않네.  
하나님의 빛은 그곳에허 영원히 빛나니 —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순수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으니;  
마시는 자는 모두 자유할 것이라.  
광채 있는 희귀한 보석들이 빛을 발하니 —

---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천사들이 너무도 달콤하게 노래하니  
저 위에 아름다운 바다 곁에서.  
달콤한 합창이 그들의 황금 수금에서 울려 퍼지네. —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기쁘고 자유한 자의 달콤한 집이니,  
지친 자를 위한 안식의 좋은 하늘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가!”



---

### 33 장. 광야에서 찾은 만족—마가복음 8:1-9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흠어 보내시고.” (마가복음 8:1-9)

다시 한번 우리 구원자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을 기적적으로 먹이는 이곳에서 보인다. 여기서 그분은 단지 일곱 개의 떡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셨다. 비슷한 기적이 마가복음 6 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기적이 마태복음 15 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아신다). 그분은 트집쟁이 회의론자가 그분의 기적적인 일들, 부정할 수 없는 명확성으로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었던 일들을 부인하려 했던 자들이 모든 세대에서 일어날 것임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매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 큰 기적을 반복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확정 지으셨고 따라서 당신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여전히 불신 가운데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걸림이 되는 큰 석재 벽을 넘어 뛰어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를 신뢰하며, 주권적인 주 앞에 엎드리기 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스운 논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해 내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 우리 혼을 위한 만족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4 절). — 이 광야에서 우리는 생명을 외치며, 이 죄와 비탄과 고통에 속한 세상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 안에서, 영원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광야에서, 우리의 죽지 않을 혼을 위하여 찾을 만족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그 만족을 기대한다.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만족한 것을 찾지 않게 하라. 그 자체로 아무리 기쁘지 않고 고통스럽다 할 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불만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분의 은혜에 속한 사랑의 상징은 모든 기쁨을 증가시킨다. 그분의 복된 이름의 달콤한 구원자는 쏟아 부은 기름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생명을 향기롭

---

게 하는 매우 보배로운 감송유(나드)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의 마음과 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구원자를 제외하고 아무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않도록 하자! 그분만 그분의 택하신 자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다. 그분은 그분의 살을 실로 음식이 되게 하였고 그분의 피를 실로 음료로 만드셨으며, 그로써 우리를 먹이시므로, 우리가 다시는 시간과 감각의 만족하지 못할 것을 따라 결코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다 (계시록 7:17; 요한복음 6:51; 4:15).

### 거짓 믿음

“큰 무리가 있어” (1 절). — 우리 구원자를 따랐던 무리 가운데, 비록 그들이 결코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따랐지만, 무리가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믿음의 분명한 모습이 있다. 이 큰 무리는 떡과 물고기 때문에 우리 주를 따랐다. 그들은 그분의 기적 같은 능력과 풍성한 공급에 대하여 보았고 들었다. 이 무리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때로는 여러 해 동안 따르지만,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상이나, 기적을 보았다는 상상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께서 땅에서 성취하신 역사적 사실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이 순수하게 세상적이고 탐욕스러운 이유로 종교적 고백을 드린다. 더 많은 사람이 심리적 비극의 시점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대다수 많은 사람은 얼마 안돼서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한다.

---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은 종교적 체험, 교리적 위치, 기록의 모양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참 믿음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지식 — 당신 만약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
2. 동의 —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증거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위임 — 우리는 우리 혼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통치 위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Matthew Henry 는, “진실된 열심은 의무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 그들의 혼에 대한 충만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을 위한 빈약한 공급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의 외적 열심을 산출하는 거짓된 경건은 전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열심이 없는 종교는 분명 거짓이다. 그러나 외적 열심이 내적 은혜의 참된 증거는 아니다. 은혜는 사랑과 친절과 동정과 관심을 산출한다.

종종, 거짓 믿음으로 속은 자들은 그들의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큰 고초를 견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힘든 섬김이었다. 아마도, 집에서부터 함께 약간의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없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있었

---

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며, 그분을 떠날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2-3 절).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궁핍한 혼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충만한 구원자시다. 그분은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인자로서, 그분은 사람들을 가장 잘 보살피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궁핍하게 된 자들에 대한 특별하고도 개별적인 염려를 하신다. 그분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셨다. John Gill 이 말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과 혼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시다. 그분은 이 무리의 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수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분의 중심이 그들 모두를 향하여 배려하셨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경멸스럽게 바라 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과 온유함으로 바라보셨다.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분 앞에 있는 그 많은 무리가 위선자들이었음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향한 온화한 느낌을 가지셨다. 따라

---

서, 예로써, 그분은 우리를 우리 적을 사랑할 것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신다. 나는 사람들을 모질고, 냉담하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어떤 형태의 종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의 최우선의 관심은 뒤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함이다. 무리가 흔히 그분의 공훈에서 일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할 때, 그분은 공훈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위하여 계획된다. 바울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확실하고, 개인적이며, 구별된 구원자라고 말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분은,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고 하셨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름으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보게 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실이든 입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겠지만, 어떤 희생을 하도록 강요되겠지만, 그분을 위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헌신은 우리 주에 의해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30)고 약속 하셨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10)고 약속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조성을 아시고 관심하신다.

---

만약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떡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들의 많은 수가 멀리서 왔고, 그들  
이 집에서 멀리 있음을 참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집으로 굽혀서  
돌려보내시지 않으려 하셨다. 그분에게 떡을 바라는 자들을 빈손  
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 아니다.

### 충만한 은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4 절). —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  
의 끄적하게 약함을 일깨우게 된다. 이 불쌍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던 불가사의 한 일들을 빨리 잊는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지만, 우리 주의 모든 충만과 은혜는 우리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 그것이 주께서 고린도후서 12:9 에서 우리  
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믿지 않음과 죄는 종종 우리 주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금  
강석이 가장 빛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검은 장막이다. 우리의 불충  
성은 그분의 충성을 가장 더 빛나는 것으로 만든다.

나는 한 순간도, “은혜가 풍성하도록 죄를 짓자.”고 제시하지 않는  
다. 그러나 우리 불신과 죄,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죄들과 불신이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께서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도록 만드시므로 은혜롭게 정복된다고 말하  
겠다.

이 제자들은 그들이 비록 전에 그것을 보았지만, 광야에서 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겠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

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행해졌을 때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 사실은, —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가장 극한 때에 언제나 개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안도를 위하여 행하시는 때는 일들이 가장 마지막 극한에 이르렀을 때이다. 그분은 그들이 기진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공급하셨다 (3절). 그들이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서셨다. 그것이 언제나 공황이 오는 때이다.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할 때, 그분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시려고 나서신다. 우리 지력이 끝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구원하시려 나서신다.

### 소진되지 않는 은혜

우리 구원자의 은혜의 창고는 소진되지 않는다. 그분은 사실상 전에 동일한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으며, 생각 속에 특정한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언제나 은혜롭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무한히 풍성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주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며, 그로써 우리가 공황을 얻게 되고 시간의 필요 가운데 도우실 은혜를 찾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16).

이것을 역시 주목하라. 첫 번째 기적에서 그분은 떡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셔서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사천 명을 먹이시려 떡 일곱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취하셨다. 왜? 나는 그분이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특별하게 깨닫게 하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 
1. 그분이 사람들의 혼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2.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께 전부 똑같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로 사소하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과 능력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와 책무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일 가운데 정말 사소하다.
  3.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충분하고 남겨둘 만한 떡이 있다. —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8 절). 그들 모두 배불리 먹었다. 단 한 사람도 더 요구하는 장면이 없다. John Trapp 이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식탁에 다양한 음식으로 넘쳤던 잔치에서 먹듯이,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충만함이 있으며, 그것은 그분에게 오는 모든 자와 교통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요한복음 1:16). 그리스도 위에 사는 자들은 언제나 충분한 떡을 먹으며 남고 궁핍하게 될 걱정이 결코 없다.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육신이나 그들의 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7:25; 107:9).

---

## 34 장. 누룩을 경계하라!—마가복음 8:10-21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 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열 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8:10-21).

---

우리 앞에 성경의 매우 확고한 부분이 있다. 주 예수께서 “달마누다”<sup>5</sup>라는 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곳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기회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한 가운데로 그분의 제자와 함께 대가 없는 은혜와 구원의 복음과 함께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이 멸시 받았다. 그곳에서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 놓인 특권에 대하여 그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했던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되돌아서 그분의 제자와 함께 배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말씀한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확고한 단락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여시고, 그것에 우리 깨달음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 바리새 인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

---

<sup>5</sup>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복음 15:39)고 말한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없다. Danville 이 Boyle County, Kentucky 내의 한 도시인 것처럼, 달마누다는 막달라 내에 있는 곳이었다.

---

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0-13 절).

주 예수께서 이 바리새 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종교적 트집을 들으셨을 때,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우리 구원자의 인성에 대한 증거인가.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제외하고 체험하는 비통과 슬픔과 동정 모두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셨다. 우주를 통치하고 하늘에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중재를 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결점에 대한 느낌으로 영향 받는 사람이시다 (히브리서 2:14-17; 4:14-16).

하지만, 우리 주의 탄식이 그 분 편에서의 낙담의 어떤 표시였거나, 혹은 그분이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을 뜻하시기도 했고 또 않으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분이 그들을 지옥의 저주를 믿지도 못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독사의 세대라고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1-33). 비록 인자로서, 그분의 마음은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비탄스러웠지만,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동의하셨다 (마태복음 11:25-2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친근하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며, 예정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뜻에 언제나 머리 숙이지만, 온유함의 충만하게 한 마음, 심지어 가장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며,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조차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뛰어난 은혜가 확대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언제나 구하자. 그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

---

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되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모두 멸망하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4:7;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셨지만, 그들의 믿지 않음과 마음의 냉담함 때문에, 아무것도 자부심이 강하고, 종교적 위선과 독선적임 보다 더 구역질 나고 모욕적인 것은 없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이 바리새 인들은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간주하면서 하나님 아들에 의해 선포된 은혜와 그분이 성취하려 오셨던 구속에 대한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은 모욕이었다. 의로울 때 누가 은혜를 필요로 한가? 여기 네 가지 사항을 주목하라.

**1. 이 사람들은 배우고자 주께로 왔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트집잡는 질문만 하기 위함이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기를 시작하거늘.” — 그들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론하고 논쟁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질문 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도록 반복하여 경고를 받는다 (디모데전서 6:3-4; 디모데후서 2:23; 디도서 3:9). 언제나 배우기를 계속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면서, 우리 현대 최고 법원이 미국의 헌법을 대하는 것보다 덜 존경심을 갖고 종교적 유희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영리한 영적 거인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영적 열간이고 난쟁이들이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셨다. 그분은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려

---

굽히지 않았다. 더 일찍 우리가 그분의 예를 따르고자 배우면, 더 좋다.

## 2. 이 종교적 광신자들은 표적을 찾아 주 예수께 왔다.

바울은 후에, “유대인(타락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타락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고린도전서 1:22)고 말했다. 두 무리 모두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다. 만약 그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나 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둘 다 믿는 척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거부하셨다. 그분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많은 표적들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으며, 쉽게 조사할 수 있는 표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침례 때에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서 하늘에서 공개적인 표적이 있었다 (마태복음 3:16-17). 만약 그들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참석하였다면, 그들이 해야 했던 것과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그 표적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주의 공황에 속한 기적은 모두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것들 중 하나라도 어느 누구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믿음이 표적과 기적들 위에 세워진 자들은 절대로 충분한 표적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후에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동일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본다.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말했다. Matthew Henry 가 바로 보았다…

---

“따라서 집요한 배신은, 비록 전혀 터무니 없지만, 여전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시험하면서 이런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려 했던 소망 가운데, 즉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지 않을 소망 가운데, 즉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배신에 대한 구실을 가지려 상상하였던 것이다.”

### 3. 종교적 배신과 위선보다 더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탄식하심,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심이 있고, 혼의 고통스러운 괴롭힘 가운데 있는 분으로서 신음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 복음을 전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세대가 표적을 원했다! — 선대들의 전통을 탐욕스럽게 삼켰던 그 세대는 어떤 표적에 대한 확증이 전혀 없이 표적을 원했다! — 그 세대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고 계시되었던 횡수를 계산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셨던 때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던 그 세대는 표적을 원했다! — 그 세대는, 놀라운 불가사의와 기적들을 보았던 그 세대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표적을 원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신성한 계시에 대한 그들의 불복 안에 있는 상상을 넘어 불합리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다. 전능자로부터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추정의 절정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기 21:22). 우리 주께서 이 오만한 바리

---

새인들의 요구를 부인하였다. 혐오와 모욕 감을 갖고 그분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4.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떠나셨다. —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3 절).

아,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 말씀인가. — “저희를 떠나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빛의 어둠 속에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독선의 부패 속에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뛰어난 무지 속에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떠나셨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친절하고, 충분히 선하며, 충분히 긍휼이 있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은혜를 경멸하고, 그분의 아들로써 주셨던 기록을 믿기를 거절할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분이 당신을 홀로 남겨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을 홀로 남겨 두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



---

회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23-33).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 바리새인들의 누룩

우리 은혜로운 주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5 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가담하지 않도록, 거기에 너무도 단단히 결합된 선조들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위선적인 의식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

이것은 단발적인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 차례 주어졌다. 마태는, “사두개인의”라고 첨부하고, 마가는, “헤롯의”라고 첨부한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보수주의자 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자유주의자 들이었다. 헤롯은 불신자였다. 우리 주께서 이

---

들 세 무리의 누룩을 언제나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 주께서 이 경고로 의미하시는 것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거짓 교리의 누룩이다. 거짓 교리는 어떤 교리,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가톨릭 혹은 개신교, 유대인 혹은 무슬림, 구원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어떤 교리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가지 별개의, 교리적으로 다른 종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인 종교 의식주의와 보수주의이고, 신학적 순수주의자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종교의 한 형태이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흥미를 끌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주의인, 독선적인 종교 자유주의자들이지만,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고, 복음 독단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관대한 독선적 지성주의자들이다. 사두개인들의 종교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옥보다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이다.

혜롯과 그를 닮은 자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속인들이며, 이기적 물질주의자들이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의 편에도 서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그들은 실리주의자들이다.

우리 주께서 거짓 교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신약 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두 번 다 그 말씀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고린도전서 5:6 에서 본다. —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누룩은 죄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큰 반죽 덩어리에 있는 작은 이스트가 덩어리 전체에 걸쳐서 점점 확산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죄에 대한 관용이 재앙적임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함에서 약간이라도 모자란 것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요한일서 2:1).

바울은 갈라디아서 5:9 에서 거짓 교리에 대하여 아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허용한다면, 행위나, 체험이나, 느낌이나 혹은 결정이라 할 지라도,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허용한다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 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라낸다 (갈라디아서 5:1-4). 구원은, 택정함에서 영화롭게 됨으로 또 그 사이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다. 세상의 목소리, 전체 세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당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너무 엄격하다. 그것은 너무 교리적이다. 그것은 너무 편협하다.” 그러나 기억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교리는, 덩어리 속에 있는 누룩처럼, 언제나 아주 작은 것,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크게 미묘히 통과하고 침투하지만, 치명적인 효과를 가졌다. 죄와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부의 기만, 이 세상의 염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은, 덩어리 속 누룩처럼 아주 작고, 하찮은 타협으로 시작하며 그것들이 끝날 때까지 거의 감지하기 어렵다.

---

## 영적 약점

이 단락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에 죄로 충만하고 육체적으로 둔감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14 절과 16-21 절을 읽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믿는 자들이 끔찍하게 약하고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 밖에 저희에게 없더라…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짝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열 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 가장 신성한 자들은 아직까지 죄인들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가장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깨달음이 우둔하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편다. 롯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때로는 죄로 충만한 선택을 한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악을 피하는 완전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 그의 출생의 날을 저주할 것이다. 노아같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도 술 취해 무감각한 상태에서 발견될 것이다. 모세같이 이

---

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온화한 사람도 돌발적인 분노 가운데 그의 막대기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 던져들 것이다. 다윗같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닮은 사람도 홀로 남겨졌을 때 간통을 범하고 그의 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하게 될 것이다. 대담한 베드로는 한 처녀 앞에서 위축되어 그가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는 주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 같이 충성되고 성실한 친구들이며,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도 약해지고 육신 안에 있을 때 동역자를 떠나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종종 현재의 염려와 불신들로 사로 잡히는데,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하여 알았고 보았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atthew Henry 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그분을 불신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심하게 꾸짖어야 한다. ‘내가 그토록 깨달음이 없는가?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냉혹해지는가?’” 라고 썼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깨달음에 대한 그런 약점들과 죄들과 믿지 않음과 우둔함을 제시하시는가? 여기 그와 같은 계시들에 대한 일곱 가지 분명한 근거들이 있다.

1.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뿐임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3.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온화하고 인내하며,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5. 우리는 우리를 생명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지키시는 분은 그분 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상기해야 한다.
  6.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함에 가까운 어떤 것에 도달했을 것을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된다.
  7. 하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이고 죄를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중재자이고,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요한일서 2:1-2).

---

## 35 장. “저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마가복음 8:22-26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 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22-26).

이것은 다른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아무와도 관련이 없는 기적들 중 또 다른 것이다. 마가만 벧새새에서 이 소경을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우리 주의 기적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적이었다든지 혹은 육체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주에 의하여 행해졌던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 진리들, 그분의 택정한 자들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역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점차로 단계적으로 치료되었던 한 소경을 본다. 이것은 신약에서 일어났던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그

---

자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고 교훈적인 것임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 이 소경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죄인들을 그분의 성령의 전능한 권능과 은혜로 구원하는 방법의 그림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소경을 안수하신 것처럼, 선택 받은 죄인들을 그분의 전능한 공효로 빛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자신께로 인도하신다.

### 친구들에 의해 데려오게 됨

22 절. “벧새다에 이르매” — 벧새다는 어촌이며, 안드레아,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다 (요한복음 1:44). 주 예수께서 공효의 일로 여기 오셨다. 13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바리새를 떠나셨음을 본다. 거기서 우리는 매우 확고한 말씀을 본다. “저희를 떠나사!”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분은 공효의 일로, “사랑의 때가 이르렀던” 그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사람, 이제 그의 눈이 밝아 짐을 받은 가련한 소경을 찾아서 벧새다로 오셨다. —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 그 친구들에 의해 한 소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 마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간단한,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교훈적인 것들이 구절에서 말한다.

첫째, 우리는 그 사람이 소경이었음을 듣는다. 그 사실에서, 그는 천연적이고 거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다.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지 간에,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 가련한 사람은 주 예수께서 그를 안수하실 때까지, 한 가닭의 희미하고 어렴풋한 광선조차도 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



---

된다. 홀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산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조차도 볼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소경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천연적인 상태이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력이 없어서 이다. —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11).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타락한 사람은 가련하고, 비참하며, 불행하고, 별거벗었다. 그러나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계시지만,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지만, 그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는 소경이다.

둘째, 마가는 이 가련한 소경의 친구들이 그를 주께 데려왔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 소경이 어떤 것을 믿었다든지, 혹은 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했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들은 바 없다. 단순히 그의 친구들이 그를 거기 가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던 곳에 그는 온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을 가졌던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의 친구들은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믿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겠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데려왔다.

셋째,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으로써, 이 소경의 친구들은 “주 예수께서 그에게 손대시기를 구하였다.” 그들은 그를 치료할

---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소경은, 자신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 친구들을 가진 이 사람은 복되다! 그런 친구가 된 이 사람은 복되다!

## 신성한 구별

23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 위에 축복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이런 그림을 달리 보지 못한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신다. 분명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셨다.” 이 사람의 친구들이 전능한 팔이라고 알았던 그 팔을 그들의 친구에게 공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께서 펴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운이 나고, 얼마나 떨리며, 얼마나 흥분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자체로 큰 겸손의 행위였다. 그러나 여기 훨씬 더 큰 겸손의 행위가 있다. 어느날 주 예수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셨다! 그분은 오랜 영원 가운데 나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잡으셨다. 나를 그분의 손으로 잡으시고, 그분은 나를 주권적인 태정과 개별적인 구속으로 인류의 나머지 모두로부터 나를 구분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

사랑의 약속된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손으로 나를 잡기 위하여 몸을 굽히셨다.

만약 그분이 죄인을 그분의 손 안으로 이끄신다면, 그분은 그의 소경된 눈을 여실 것이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손 잡으신다면, 그분은 결코 당신이 가버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당신을 잡아챌 수 없다. 만약 그분이 시간 가운데 당신을 손 잡으신다면,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을 손 잡으셨다. 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손 잡으실 때, 그분은 John Gill 이 썼던 것처럼, “그들의 인도자와 이끄는 분이 되신다. 더 낮고 더 안전한 인도를 그들은 받을 수 없다. 그분은 그들이 알지 않는 길로 데려가시며, 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로로 인도하시며,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다음으로, 그분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호세아가 고메르를 매혹하였고 그녀를 광야로 데려갔고, 그것으로 그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은혜롭게 이 선택 받은 죄인을 그분 자신하고만 데리고 가셨고, 그것으로 그분이 사랑의 시간 가운데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이 가련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 가셨는데, 그분이 마을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벧새다 사람들의 갈채를 원하지 않으셨고, 다만, 이 죄인의 마음을 원하셨다. 벧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기적같은 역사들의 증인이 될 가치조차도 없다고 선포되었

---

다 (마태복음 11:21). 따라서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  
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다. 그분은 우리가 허식  
이 없이 그분께 오기를 지시하신다. — 인간 종교의 허식 밖으로 —  
세상적 야심의 허식 밖으로 — 죄의 통치의 허식 밖으로 — 야  
영지 밖의 그분께로!

### 경멸스러운 방법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다음 일은, 만약 그분이 누구든 그것을 보  
게 허락하셨다면, 그야말로 천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  
을 것이다. — “눈에 침을 뱉으시며.”

왜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타액에 치료하는 의약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  
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거기에 더하여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의료술을 사용하셨다고 많은  
사람은 제시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  
님의 아들은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  
으셨다. 그러나, 우리 모든 지혜의 구원자께서 이 가련한 소경에게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려 끔찍하게도 천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선택하셨고 (여전히 선택 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의 어리석  
음을 선택하셨다. 구원자의 입에서 나온 침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소경의 눈에 기름을 바르는 복음의 눈 연고를 나타낸다 (계시록  
3:18).

---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주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분의 손길은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상징이며, 그것이 없이는 은혜로운 방법, 복음의 전도는 철저히 쓸모 없다.

## 주권적인 구원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우리 주의 주권에 대한 그림이다.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혀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의해 제한될 수 없다. 그분은 어떤 자들을 점진적으로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즉시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침으로 또 다른 사람은 침 한 방울 없이 치료하신다. 구원 받은 모든 죄인들은 동일한 구원자를 신뢰하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동일한 복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구원자에 의해 치료 받은 다른 네 명의 소경에 대하여 들었다 (마태복음 9:27-30; 마가복음 10:46-52; 누가복음 18:35-43; 요한복음 9:1-7). 세 경우는 그분이 손대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치료 되었다. 한 사람은 그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신 구원자에 의해 치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구원자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 치료 되었다. 다섯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르게 행해졌던 분명한 것들이 있었다.

## 나무가 걸어감

---

주 예수께서는 이 소경에게서 고백을 요구하셨다. —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기억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믿음도 표현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그의 소경됨과 치료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주께서 그에게 그가 체험하였던 그의 병과 하나님의 능력 모두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개인적인 고백을 떠나서 구원은 없다 (로마서 10:1-10; 요한일서 1:9). 비밀스러운 제자들은 언제나 수상한 제자들이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도, 취급되지도, 혹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합당하시다.

그분이 그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신 후에, 구원자께서 그에게 어떤 것이 보이는지 물었다. 그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24 절). 그는 볼 수 있었지만,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는 즉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을 즉시 보지 못한다.

24-25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오는 것을 본다. 세상의 빛이시며 소경에게 시력의 회복을 전하며 오셨고 (누가복음 4:18), 그분께서 선포하셨고 그 시력을 받았던 사람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말하게 하셨다. 이 소경은 그가 알았고 경험했던 것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대로 고백하였다. 그는 그의 소경됨에서 갑자기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구원 받았다. 그는 약간 보였지만, 많이 보이지는 않았으며, 그는 그가 보았

---

던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다. 그는 그가 보지 않았던 것을 보이는 척하지 않았다.

이 소경은 그의 시력을 점차 회복하였다. 그 일은 바디매오의 치유처럼 (마가복음 10:46-52), 피를 흘리는 여인의 치유처럼, 또 문둥병자의 치유처럼 진실로 은혜롭고, 기적적이며,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덜 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멸시받고 무시될 기적이 아니다. 우리 주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택 받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는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빛과 깨달음에 이른다. J. C. Ryle 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그러나 매우 심오한 교훈적 해설을 이 사람의 체험과 전달하려 의도된 공과들에 대하여 하였다. Ryle 은 말했다...

1.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소경이며 우리 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무지하다.”
2. “회심은 하나의 계시, 어둠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것에 이르는 변화이다.”
3. “회심한 사람들은 처음에 사물을 거의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그분의 참된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한복음 17:3)과 동떨어진 어떤 구원의 믿음도, 어떤 회심도, 어떤 참된 구원도 없다는 것을 정당하게 고집하는 한, 그분이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이 다만 제한적으로 아는 것임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

---

게 깨닫도록 하라. 빛은 빛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단계적으로  
죄로 눈이 먼 우리 혼으로 온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것들을 점진  
적으로 본다. — 먼저 우리는 우리 행위의 죄로 충만함을 보고, 그  
리고 우리 마음의 죄로 충만함을 본다. — 먼저 우리는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합당함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  
하는 그분의 은혜한 마음을 본다. — 먼저 우리는 용서의 사실을  
보고, 그리고 용서의 체험을 본다. — 먼저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  
식을 보고,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본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는 내가 믿었던 분을 알았  
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알았지만, 그러나 나  
는 성삼위 안에 있는 영원한 아들의 명분과 위격의 특질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확신하였지만, 부정과  
범죄와 죄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존하는 의를 가져 오셨으며, 내게 그분 말고는 아무  
런 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전가와 법적 의에 대하  
여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심판이 끝났다고 확신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법적  
칭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나를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셨음을 알았고,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다. 만약 당신  
이 나에게 예정론에 대하여 묻는다면, 나는 아마도 ‘나는 라플란드  
(Lapland: 유럽 최북단, 핀란드에 있고 썬타가 산다고 믿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만약 누  
가 내게 택정에 대하여 물었다면, 나는 “나는 선거할 나이가 되지



---

않습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 나는 나의 구원자를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정말 거의 몰랐다. 내가 소경과 관련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9 장에서 치료하셨으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만히 보지 못한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나무가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그분의 일을 부분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이 사람의 치료는 곧 완성되었다. 일단 그분이 인간의 혼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빌립보서 1:6).

이 소경의 치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같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빛이 계시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거의 빛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특별히 섭리의 문제에 있어서 단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쉽사리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것들, 이 사람처럼, 나무가 걷는 것을 적어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때가 곧 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영적 시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 두 번째 안수

---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25 절). — 주께서 이 사람의 눈에 두 번째 안수하시고 그가 보게 하셨을 때, 그는 회복되었고 “만물을 밝히 보았다.” 기록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18).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빛나는 빛이 증가하고, 온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빛난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한, 우리가 가진 빛은 온전함에서 멀고, 가장 잘 보고 가장 분명하게 보는 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아는 것들이 있으며, 당신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12).

몇 년 전 저녁 예배 가운데 하루에서 이 단락을 읽은 후, Rex Bartley 형제가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치유하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시고, 그가 그분을 우러러 보게 하실 때, 그는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선 언급된 네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죄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는 이 네 사람을 분명하게 봅니다.”고 말했다.

죄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고린도전서 15:45)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사람 (로마서 5:12-21) 모두로서 첫 사람, 아담을 분명하게 본다.

---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은 둘째 사람, 그리스도 우리 주를 분명하게 본다.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분은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 우리 신성한 보증인, 여호와와의 의로운 중,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 주 우리 의이다 (고린도전서 1:30-31).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9-10).

그리고, 성경은 천연적인 사람, 길 잃고, 파멸한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천연적인 사람을 분명하게 본다. 천연적인 사람은 범죄안에서 또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없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외국인이며, 약속의 언약에 이방인이며, 소망이 없고,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다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역시 그분을 분명하게 본다. 성령은 그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신다 (고린도후서 5:17; 에베소서 4:24; 골로새서 3:10). 이 새 사람은 “너희 안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부르는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로서 난,” 것, 당신 속에 남아 있는 “그분의 씨,” “그 영,” “신성한 본성”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9)라고 말한다. 새 사람, “그 영”은 당신 속에서 옛 사람, 천연적인 사람, “육신”과 전쟁 중에 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한다 (갈라디아서 5:16-25).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17; 에베소서 2:13-15; 골로새서 3:10-11).

---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보지만, 완전하게 보지 않는다. 곧, 그것은 바뀔 것이다. 곧,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알려졌던 것만큼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게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보이게 될 것인지. 복음의 선포가 있는 곳에 태양 빛이나 달 빛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어린 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들이 행보하게 될 그 성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원자를 직접 보게 될 때, 또 그 때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 단락에서 당신이 보기 원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확실하게 있다. 26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를 행하신다. 그것도 역시 그분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이한 역사이다.” —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셨으며, 특별하게 그가 벧새다로 돌아가지 말고 그 마을에서 누구에게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말하지 말고 하셨다. 왜?

주 예수께서 벧새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그분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 떠나셨다. Matthew Henry 가 말했다. “벧새다는 그 방문의 날에 그 평강에 속한 것들을 알지 않았을 것이며, 이제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은 보지 않을 것이므로, 보려하지 않을 것이

---

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을 사람들 위에 임한 그분의 공의의 심판이다 (잠언 1:23-33). 얼마나 큰 진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 위에 쌓이는지!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더이상 그들에게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그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말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그분은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도록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달리 하려 한다면,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다.

우리 주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자 마자 곧, 그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셨지만 (27 절), 그러나 그분은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가 되셔야 비로서 치유하려 벳새다에 오셨다.

---

## 36 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마가복음 8:27-33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27-33).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교훈과 그가 행했던 기적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우리 주의 기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과 우리 시대의 자칭 기적의 일꾼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의 기적들은 수도 없고, 잘 입증되었고, 많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며, 치유 받고 사망에서 살아나고, 그분의 권능으로 먹은 사람들을 알았

---

던 수도 없는 증인들 눈 앞에서 행해졌다. 그것들은 아무도, 그분의 삶과 사역을 잘 아는 단 한 사람도, 그분의 대적들과 고소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절대 그 것들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들로서 아주 잘 확립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으므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 경이로운 일들, 우리 주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길거리에서 알리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우리의 배움과 충고를 위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지 않으셨고, 또 토론을 위한 재료로 우리에게 제공하려 기록하지 않으셨다.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우리 앞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여 걸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가 있다. 27 절에서 이것을 본다 —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가 단지 무심코 들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일로부터 조차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종교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자, 혹은 만나는 사람마다 잠자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쭐한 종교적 위선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혼에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또 길을 가는 중

---

에 서로 돕기 위하여, 언제나 시기 적절하게 한 마디 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 지식과 믿음

많은 사람이 교리적 지식과 구원의 믿음을 혼돈한다. 그들은 복음에 계시된 사실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헛되이 상상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에 대한 아주 높고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분을 모른다. 그 사실은 27 절과 28 절에서 분명하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은 그분이 매우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심지어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겼으며, 아마도 부활한 선지라고까지 여겼다. 그들은 그분을 침례자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와 비교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사망에서 돌아온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생각했다. 이 때 아무도 그분을 사기꾼이나 사악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에 대해 나쁘게 말했고, 그들은 시기심 때문으로만 그렇게 하였다. 무리들은 구원자에 대하여 많이 알았고 그들이 알았던 것에 대해 시인하였다. 하지만, 아 극소수가 그분을 알았다.



---

실상은 오늘날에도 아주 똑같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이천 년 전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 거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우리 친척과 이웃들 대부분이 교회에 가며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인정한다. 그분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거룩한 날들을 챙기고, 큰 건물을 짓고, 큰 사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은 왜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불분명함을 넘어선 많은 사람이 있으며, 매우 분명하고, 심지어 복음 교리와 복음 안에 계시된 역사적 사실의 정통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임을 쉽사리 고백한다. 그들은 대속과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거듭남의 교리를 이해하고 수호한다. 그분에 대해 분명하게 모르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즉위, 우리 변호자로서 아버지의 우편에 그분의 제사장의 중재,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확신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은 극히 드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구원이 없다.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이, 영생은 없다. 그분을 알 때까지, 범죄와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요한복음 17:3).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알려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5-7).

---

삼백 년 전 이단자 Robert Sandeman 가 주장하였던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거듭남 가운데 하늘로 난 혼은 신성한 본성에의 참여자가 되었고 이 새롭고 의로운 본성은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함에 전해졌고 구원에 중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오히려 그들 자신 안에서 의를 찾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의 후계자들처럼, Sandeman 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 교리적 사실들에 동의 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다른 이 교도의 이름이 Sandeman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 Alexander Campbell, Arminian 의 창시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the Church of Christ)”라는 교파를 만들고, “Sandeman 은 난쟁이들 가운데 거인과 같았다”는 글을 썼다. 바울의 경고에 주의하라.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8).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역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단지 교리를 배우는 것임을 가르치는데, 철저한 이교도이고, 낙인 찍고 피해야 할 사람이다.

새로 남은 생각의 변화 그 이상이다. 그것은 종교적 지식에 대한 단순한 획득 그 이상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다 (로마서 1:18-20; 2:14-15). 사람은 천연적으로 매우 종교적인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5:39-40). 그리고 구원 받지 않은 종교인들은 종종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하여 약간의 사실들을 깨닫고 믿는다 (요한복음 3:2).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사실을 품는 것 훨씬 그 이상이다. John Owen 이 기록하였던 것처럼…

---

“오늘날 인간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독소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로부터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한 가지 왜곡된 상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새로 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택 받은 죄인 안에 계시된다 (갈라디아서 1:15-16). 성령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사망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3:5-8; 에베소서 2:1-5). 그리고 그분이 나누어주신 생명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골로새서 1:27; 베드로후서 1:4).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하므로, 그분은 죄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요한복음 16:8-15; 고린도전서 2:7-10; 스가랴 10:12), 죄인들을 효험 있게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그들이 기꺼이 그분께 오도록 만든다 (요한복음 6:44-45; 시편 110:3).

### 구원의 지식

이 일들을 오늘날에 실랄하게 적용하기를 허락하라. 고린도후서 5:14 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요되고, 동기를 부여 받고, 지배 받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서 통치하신다고, 15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새로 남을 얻었고 보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듭났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던 분께로 산다. 그리고 16 절에서 감동 받

---

은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지혜의 세상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력에 대한 세속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계시이다. 전지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공화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의지 숭배자 아르메니아주의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의지와 정신적 동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가르쳤다. 내가 일곱 살의 소년이었을 때, 만약 내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인 의지 경배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믿음의 고백 안으로 속았었다. 내가 들었던 것에 동의를 하면서, “혼의 승리자”가 내 어깨에 팔을 얹고, 그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선포하였다. “주를 찬양하라, 아들이야, 네가 구원 받았다! 네가 거듭났다.” 그러나 나는 호리병에서 나온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속임수는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은혜의 교리로 지칭하는 것, 동일한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에 동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비밀”(디모데전서 3:9)이라 부른 것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아무런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웃는다. 그들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거듭남,” “새로 태어남,” “효험 있는 부르심,” “새 본성,” “새 사라,” 그리고 “당신 안의 그리스도” 같은 용어 사용을 계속한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구원이 신성한 거듭남에 의하지 않고 얻어진 지식에 의해서 도달되고, 은혜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의지의 행위에 의해 도달된다고 가르치면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한다. 이런 헛된 속임수의 철학은 새로 태어남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 본성이 주어지는 것을 부인하며,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인하며, 우리가 거듭남 안에서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됨을 부인한다. 이 현대적 영지주의자들(Gnostics)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의 “신념”(수용된 철학적 통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언급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그들의 지혜뿐 아니라 그들의 의와 성화와 구속뿐만 아니라, 가련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영적 이해가 없는 자들로 바라 본다. 그런 한 사기꾼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신” (고린도후서 4:6) 하나님께서 주신 빛 비춤이라 부르는 것을, 무아지경에 빠진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라고 서술하였다!

---

사기꾼들은 절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다! 1900년 대 중반의 자유주의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피의 속량과 거듭남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용기가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기 위한 창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빛 비춤 받은” 깨달음으로 분명하게 정의된 성경적 용어에 새로운 정의를 부여하였다.

### 세속적 지식

그것이 정확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그들의 제단에 엮드리는 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상상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은, “정신적 동의 그 자체는 믿음과 등식을 이룬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이 영지주의 바로 그 본질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 속임수 형태로 있는 자유의지주의이다. 그것은 구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 인간의 결정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들이 도달했던 그것은 그들의 상상 속의 “지력의 뛰어남”으로 이르렀던 것이며, 성령이 이르기를, 단지 세속적 논리로 “육체를 따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은혜와 영적 생명의 완전한 공백이고, 그들이 만든 빛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믿음의 기초라고 추정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임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1:3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라고 선포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보며, 알아차리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 믿음, 영적 깨달음을 주는

---

이 믿음은 새로 태어남의 결과이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5-7).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영적 지식과 깨달음의 기초이다.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결과이다. Henry Mahan 목사가 여러 차례 말하는, “여러분은 교리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교리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 구원의 지식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이다 (요한복음 17:3).

### 믿음과 고백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8:29-30).

베드로가 여기서 드렸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고백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는 주 예수께서 매우 비참한 세상적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존귀도, 권능도, 위엄도, 부도, 영향력도 없을 때 이 고백을 했다. 그것은 그분이 그 안에서 살았던 세상의 의견과 생각들에 정면으로 반대가 된 고백이었다. 유대인 세상과 시민과 성직자 모두,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전체 이방인 세상은 그분을 향하여 유대 광신자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의 믿음은 반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확신은 대중 생각에 흔들리지 않았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께서 실로 그리스도이며, 약속된 메시아이고, 모세처럼 선지자이며, 뿔기세택 같이 제사장이고,

---

다윗처럼 왕이심을 믿었다. 그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였다!

그의 믿음처럼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불안정한 하였지만, 베드로는 강하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기록을 믿었고 그 안에서 그분의 주와 그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였다. 분명히, 그가 알지 않았던 많은 것이 있었고, 아직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핵심에 충성되었고 그리스도를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였다.

이 충성된 제자의 사례를 따르도록 하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은 결코 인기를 따르지 않았고, 특별히 종교적인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는 비록, 필요하다면, 우리가 종교적 세상의 장막의 바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지라도, 그분을 고백하기를 준비해야 한다 (사도행전 2:36; 4:11-12; 히브리서 13:7-12).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한다. Matthew Henry 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성스럽게 믿는 것이다.”

마가가 신성한 감동으로 마태가 포함하도록 감동되었던 그 말씀을 생략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마가가 베드로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기초로서 존중하였다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분명히 우리 주의 그 말씀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실로,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 가운데 누구든 생각



---

했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표시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실상은, 마태, 마가, 베드로 그리고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 구원자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건축되는 초석으로서 그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은 성경 안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천명되었으므로 로마 교회의 기만은 분명하게 의도된 기만이다 (시편 118:22; 이사야 28:16; 마태복음 21:42; 마가복음 12:10; 누가복음 20:17; 사도행전 4:11-12; 고린도전서 3:11; 베드로전서 2:7).

### 고난 받아야 하리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31 절). — 우리 주께서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암호로 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애매모호한 말로 둘러싸지 않으셨다.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평범하며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 모든 참 선지자가 동일하게 한다.

여기 주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선포를 하셨다. 이 제자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으나 여전히 그분을 찾고 있고, 어떤 순간에, 세상 위에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실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우실 분을 찾는 자들의 귀에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분은 지금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거절당해야 하며, 죽임당하셔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선포하신다.

---

왜 우리 주께서 “하야야 한다(must)”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요구할만한 큰 필요인가? 그분이 이런 것들을 견디게 했을 것 보다 더 큰 어떤 힘 때문인가? 그분이 그분의 대적을 압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분이 이런 것들을 참아야 하는 것이 사랑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좋은 예로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나? 말도 안 된다! 우리 주께서 이런 일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었고,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로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요구되었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 크게 갈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저녁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15)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다면,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없었다. 공의는 제물을 요구했다 (잠언 16:6; 17:15; 로마서 4:5; 베드로전서 3:18). 선택 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영광과 기쁨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고 목적이며 기쁨이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징벌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요구하였던 모든 것에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

나는 그로써 공의가 만족되었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지,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공의 만족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이 없이 결코 하나님과 화목 될 수 없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그분은 한 가지 위임, 공훈의 사명 위에, 그분 자신의 자명한 보증 자격의 약속의 매임 아래, 그가 영존하는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받아들였던 것에 따라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 때문에, 혹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도록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다! 주 예수는 그분이 갈보리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죽으셨다! 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위하여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가? 왜 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야 했나? 왜 이 구원자께서 죽음에 처해야 했는가?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저주 받은 죽으심을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네 가지 이유들이 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구원자께서 죽으셔야 했다 (사도행전 2:23).

- 
2.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 혼을 위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셔야 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셨기에,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셔야 한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도록 귀하게 매이셨다 (창세기 43:8-9; 요한복음 10:18; 사도행전 13:29).
  3.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던 것처럼 죽으셔야 했다 (시편 22; 40; 69; 이사야 53).
  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고, 땅에서 들리셨던 것처럼 죽으셔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다 (로마서 3:24-26; 요한복음 3:14-17).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했다면, 그분은 오직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죄가 심판 받아야 하며,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사함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사랑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거룩하고,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면, 공의의 만족에 의해서야 하며, 공의가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될 수 없어야 한다. 이제, 공의가 만족 되었으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며, 그분의 아들 가운데 가련한 죄인들이 바라보게 하며 영원히 산다 (이사야 45:20-25).

---

## 베드로의 큰 잘못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2-33 절).

나는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 베드로를 힐책하는 것들 들으면서 멈칫하고, 하나님의 모든 참 자녀 가운데 육체와 영, 은혜와 결점, 힘과 약함, 믿음과 불신, 지식과 큰 무지, 낡은 사람과 새 사람의 이상한 혼합이 있음을 스스로 상기하려 애쓰게 된다.

나는 베드로를 거의 알 수 있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가 그의 주께 대한 사랑과 열심이 없는 행동을 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지금 당신께서 이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 초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열정은 세속적인 논리와 무지의 잘못된 열정이었다. 그는 주의 길을 가로막으려 했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주의 입에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제까지 떨어진 가장 날카로운 질책을 자신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이야기에 보다 특히 염려하였을 것인데, 이제 막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그가

---

기대했던 메시아의 일시적 왕국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듣자마자 곧, 그의 영이 위축되었고, 그의 소망을 멸했으며, 그를 그가 없앨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를 곁에 모시고, 아주 따뜻하게 그가 말했던 것에 대하여 그를 훈계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것과 이야기 하지 말 것을 그에게 간청한다.”

John Trapp 은 이렇게 썼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고백을 하면서, 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의 주께서 십자가를 거절하라는 충고를 하는 중에, 곧 믿음의 참된 기록에서 추측의 건방짐으로 하락하는 기회를 잡는다.

그가 그랬을 때, 주 예수께서, 이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선포했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분께서 이 제자, 그분의 택함 받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마귀가 직접 베드로의 약함과 무지를 이용하였으며, 그의 육신을 통하여 행동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을 부정하고 저항하도록 자극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죽으심을 그분이 포기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과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서약을 성취하는 것을 그분이 하지 않도록 하였다.

---

비록 그가 신실한 믿는 자였고, 하늘로서 난 혼이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당신과 나처럼 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여기서 구원자께 했던 것처럼 말했을 때, 그는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말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것들을 구원하고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려 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장 최고인 자는 단지 가련하고, 타락하기 쉽고, 죄로 충만한 피조물들이다.
-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가장 높은 지식의 달성은 무지이다.
-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자신에 대한 높은 생각을 즐기지 않도록 하라.
- 우리의 죄 많은 형제들을 향하여 관대하고 은혜롭게 되도록 하자 (갈라디아서 6:1).

---

## 37 장. 가장 깊이 중요한 진리들—마가복음 8:34-38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34-38).

성경의 이 다섯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고하고 무게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불결한 것과 귀한 것을 구별한다. 그 말씀은 주의 손 안에서 겨를 밀과 구별해내는 키질하는 키이다. 이 말씀은 자주 읽혀져야 하고, 많이 기도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묵상되어야 할 말씀이다. 이 몇 마디 말씀이 참 기독교를 사람의 손으로 쓴 모든 신학과 변증론 책보다 더 특별하게 규정한다. Robert Hawker 가 말했다...

“한 사람의 혼은 전체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세상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

이 파멸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 각자의 혼은 기쁨 때이든 혹은 슬픔 때이든 영원히 살 것이다. 독자여, 그 주제에 잠시 멈춰서, 가능하다면,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따져보라. 그 창조는 신격의 모든 인격의 회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 구속은 그리스도께 그분의 피로 값을 치렀다. 그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영원한 기쁨은 천사의 수종과 사람들의 봉사를 계속하여 약속한다. 천사들은 각각의 죄인의 회복 가운데 하늘에게 기뻐한다. 지옥은 그들의 구원의 사건에 격분한다. 그 혼은 이 세상에서 은혜의 능력을 받으며, 영원히 영광의 능력을 받는다. 따라서 그런 자격의 존재가, 그렇게 형상을 받은 존재가 영원한 파멸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며, 셀 수 없이 큰 것인지.”

## 그리스도께 나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문제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은 그분께 나오는 것이다. 그분께 나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들의 주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 감으로써 그분께 나온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34 절).

그리스도께 나옴은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선택이다. 그것은 의지의 행위이다. 우리 주께서, “아무든지 하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 바꾸지 말자.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안다. 나는 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효험 있게 그

---

들이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올 자가 없을 것을 안다. 하지만,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이 그분을 원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분께 오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머리를 두드려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끌고 옴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더 원하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징발의 문제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이다. 그리스도 군대의 병사들은 징집되어 강제로 병사가 된 자들이 아니라, 지원병들이다. 기록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시편 110:3).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

그리스도께 나옴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닌 마음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행위이다. 아무도 교회 복도를 거닐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들에게 누군가 가르친 기도를 반복해서 말하며, 결정문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올 자는 결코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오려 한다면, 당신은 근육을 움직이지 말고 나와야 한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분께 나와야 한다. 믿음은 마음의 일이다 (로마서 10:8-10). 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의도적이고, 숙고하고, 자원한 확신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열납되는 그분의 피와 의의 공로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나의 주로서 그분께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나의 주로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굴복하고 순종함이다 (누가복음 14:25-33).

---

그리스도께 나옴은 부단한 일이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께 나오는 것에 대하여 한 때의 일로, 단 한번의 행위로 말씀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부단하며, 평생의 일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삶 가운데 있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길이다. —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베드로전서 2:3-4).

죄인들만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 나오도록 명령을 받았다 (요한일서 3:23). 믿음의 보증은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어떤 예정된 상황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그분께 나올 것을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분께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께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 축복의 세상을 사용하시며 자주 사용하신다 — “아무든지”. 나는 그분께서 “만일 돈포트너가 의도한다면”이 아니라 “아무든지 하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다른 돈포트너를 의미하셨을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든지”가 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

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17).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

믿음의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다. 둘째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자기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34 절).

다시 말하건 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인내심으로 섭리의 고초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신 위에 확실하게 가져오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만으로, 믿음 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

하시고 하셨던 것에 의해서 있다. 우리는 은혜로만으로 구원 받았다 (에베소서 2:8-10).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많은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J. C. Ryle 이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옳았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종교는 지금 있는 삶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는 앞으로 올 삶에 아무런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를 따른다. 나는 그분의 교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그분의 뜻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며, 그분의 존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한 낮의 태양처럼 분명하다. 만약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십자가 질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서 그분의 왕관을 결코 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참된 구원의 믿음은 의도적이고 인내심 있는 자기부인과 헌신을 포함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Matthew Henry 는, “그리스도의 학교 내에서 첫 번째 공과는 자기부인이다.”고 썼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는 대가 없다. 그러나 값싸지 않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께, 그분의 통치에 나의 주와 구원자로서, 나의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행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이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 참 기독교, 참된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 주께 완전한 행복을 포함한다. 당신은 그분의 주장에 모든 것을 자원하여 포기하

---

면서, 왕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종이 될 것이든지, 아니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현실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해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생명 그 자체도 내려 놓는 것처럼 당신 마음 속에서 정말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로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께 철저히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하여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께서 당신의 주이신가? 그분이 참으로 당신의 주이신가?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초기 체험 안에서와 믿음의 처음 행동 안에서만 다뤄지는 문제라고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다. 여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롭게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의 죄로 충만한 육신이 갖고 있는 끔찍한 경향에 대한 보호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우리의 세속적 오해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가져오는가!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33 절), 우리 감정과 개인적인 욕망과 세속적 논리로 사물들을 심판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뜻을 알고 그것에 엮드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향기를 맡게 되는 은혜를 위하라!

**그리스도께 헌신**

---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5-37 절).

내가 만일 내 생명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께 놓아야 한다. 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 구원은 나의 주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에 항복하는 것과 똑같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찢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5-33).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통치를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큰 희생이 아니다.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6-37). 그 질문은 잘 알려져 있으며 자주 반복되어서 마음에 두는 사람이 거의 없을까 두렵다. 우리가 우리 영원한 이익을 무시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우리 귀에 나팔소리 같이 울려야 한다. 우리 각자는 멸하지 않는 혼, 영생의 기쁨 가운데에서나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살 혼을 갖고 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혼과 비교하여 지정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세상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떠나야 할 때 계수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계수하지 말자!

당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달림으로써 그것을 죽일 수 있다. 거짓과 자유의지의 행위 종교의 죽음의 포도주로 그것에 독을 넣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로운 방법, 복음의 전파를 무시하고, 생명의 떡을 혼에서 멀어지게 하며, 기도의 무지와 경배의 무지와 그분의 말씀의 무지로 당신의 혼을 굶주리게 할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많은 길들이 있다. 어떤 길을 택하든 당신 자신만 책임질 문제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이다.



---

## 그리스도를 고백함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다. —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 절).

누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 아무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분을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그분과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아담의 아들딸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찾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자와 주로서 그분 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스스로를 부끄럽게 보고 있다.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하여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보혈에 그들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 하는 모든 자는 그들 스스로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임을 입증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끄러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1:16-17). 만약 그리스도의 계명을 부끄러워하면,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부끄러워하고, 당신 자신을 그들과 함께임을 규정하기를 부끄러워하면,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 부정하고 죄로 충만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분

---

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 오실 때 당신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예수여! 또 언제나 계실 것이니  
죽을 사람이 당신을 부끄러워 하리이까?  
당신을 부끄러워 하나, 천사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누구의 영광이 끝 없는 날을 통하여 빛날 것인가?

예수를 부끄러워 하나? 훨씬 더 빨리  
저녁이 별을 품도록 붉어지게 하라.  
그가 거룩한 광선을 흘리니  
나의 이 어둠이 깃든 혼 위로.

예수를 부끄러워 하나? 정말 속히  
자정이 정오를 부끄러워하게 하라.  
자정이 나의 혼과 함께하게 하라, 그분이,  
밝은 새벽이신 그가, 어둠을 달아나게 할 때까지.

예수를 부끄러워 하니, 사랑스런 친구  
그에게 나의 하늘의 소망이 달려 있는가?  
아니; 내 얼굴이 붉어질 때, 이것이 나의 부끄러움이라,  
나는 더이상 그의 이름을 경외 않네.

예수를 부끄러워 하나? 그렇다, 나는 아마도  
내가 씻을 죄가 없을 때,  
씻을 눈물 없고, 갈망하는 기쁨 없고,

---

잠잠케 할 두려움 없고, 구원할 혼 없네.

그 때까지, 헛된 자랑 없네,  
그 때까지 죽음 당한 구원자를 자랑하니,  
아,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분깃이 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

---

## 38 장. 주의 변화로부터의 공과들—마가복음 9:1-13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던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가라사대 엘리

---

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1-13).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것 안에 있는 상황을 숙고하기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 9 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우리 주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본다. 그것은 교훈과 감화로 충만한 단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신성한 안배로 그분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마가복음 8 장 내에 있는 우리 주의 설명과 만약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 삶을 맡기고, 죽음까지 조차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분명 많은 것을 놓친다.

이제, 우리가 잘 행동하는 가운데 치쳐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내려 놓도록 유혹 받지 않는다면, 자기 부인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께서 그분의 왕국에 대한 약속과 그 왕국 안에서 그분 자신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 전쟁이 끝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에 대한 예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강하게 요구하는 말씀을 따르신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고 그 전쟁에서 돌아설 것을 유혹 받을 때,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신성한 이상을 구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룩한 산

---

에서 주와 함께 있을 때 보고 들었던 그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 사망을 맛봄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 절). “사망을 맛봄”이란 그 말을 읽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만 “사망을 맛본다.” 사악한 자들은 사망에 의해 삼켜진다. 그들은 “사망에 죽임 당한다.” (계시록 2:23).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6).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죽음은 전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다. 믿는 자의 몸의 사망은 그 혼의 해방이다. 우리 혼이 이 죄의 육신에서 자유롭게 되자마자 우리는 하늘로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사야 57:1-2). 의인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들은 당당하게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그들이 죽을 때 악으로부터 떨어진다. 그들은 평강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안식하고, 무덤 속에 있는 육신과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그들의 혼은 안식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롭게 된 영의 당당함 안에서 영원히 산다.

믿는 자가 죽자마자 곧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22-25), 끝 없는 위로가 있는 곳 안으로 인도 된다. 회개한 모든 죄인은 죽음의 순간에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인도된다 (누가복음 23:43). 낙원은 천국, 하나님의 동산이다 (계시록 2:7).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

궁핍을 구하는 죄인들에게 약속된 확실한 축복의 그 장소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즉시 확실하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며, “동산에서” 하늘의 영광 안에 “네가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이, 직접적인 이득이다 (빌립보서 1:21-23).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죄와 슬픔 외에 아무것도 잃지 않으며 모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다.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성도의 생명의 상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이라 하는 특별한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화롭게 된 교회로 모인다 (히브리서 12:22-23). 그리고 그들은 혼은 나사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알아보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누가복음 16:23; 마가복음 9:4).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육신을 갖고 있는가? — 육체적인 몸인가? 아니다. — 영적인 몸, 하늘의 형태, 그들의 혼을 위한 집인가? 아주 단호하다! 고린도후서 5:1 을 읽어보라. 모든 믿는 자는 그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어간다. 사망을 믿는 자가 맛보기 위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확신이다.

### 왕국의 출현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 절). — 제자들은 우리 주께서 거절 당하고 죽임 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8 장 31 절에서 서술된 우리 주의 선포로 엄청나게 당혹해 하였다. 그들이 그 장의 마지막 몇 절에서 기술된 참 제자직분의 요구에 대하여 매우 걱정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분이 실로 하나님의 메시야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고, 너무 가까이 임박해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 왔을 때 아직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말뿐이고, 세상적인 천년 왕국이 장래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때가 되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현재의 본성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땅 위에 세속적 천년 왕국을 세우실 어떤 장래의 때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왕국이고, 참 시온이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시작되었다. 비밀한 들림, 장래의 글자 그대로 7년 환란기, 천년 유대 왕국, 유대인 희생의 회복 등등에 관한 모든 기상천외한 헛소리는 사람의 창작과 전통과 종교적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실 때, 비밀스럽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영접할 두 번째 기회나, 유대 제사장 직분과 성전 예배를 재건할 기회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과 그분의 대적들의 파멸을 위하여 권능과 큰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



---

밀스러운 오심이나, 교회의 비밀스러운 들림에 대하여 절대로 말  
씀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후서 1:6-10).

마가복음의 이 시작하는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특별히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첫째, 구원자  
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과 보이게 올 것임을 선포하셨다. 메시  
야의 왕국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유대 나라의 철저한 멸  
망으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하였다. 창세기 49:10 에서 권능의 왕  
권과 입법자께서 실로가 오게 되었을 때 유다로부터 떠나실 것임  
을 듣는다. 여기서 실로는, 내가 왔고 입법자 뿐만 아니라 권능의  
왕권이 이제 유다에서 떠날 것이다 고 선포한다. 로마서 9-11 장  
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한 나라에  
게 못 보게 하시므로, 그가 모든 세상 안으로 복음을 보낼 것이며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  
다고 설명한다. Matthew Henry 가 올바르게 보았다. “이것은 사람  
들 사이에서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유대  
인과 이방인 모두의 끔찍한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었다.”

둘째, 우리 주께서 그분의 왕국이 그 자신의 길을 만들고 그 글에  
서 있을 모든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권능으로 올 것임을 강조하셨  
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 위에 부어졌을 때 권능과 함  
께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AD 70 년에 예루살렘 전체에 내린  
디도(Titus)의 명령 하에 로마 군대를 보내셨을 때 권능을 갖고 임  
했다. 그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  
들에게 죄와 우상숭배와 미신의 사슬들을 끊음으로 왔을 때 권능  
을 갖고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성령께서 복음으  
로 반역 죄인들의 마음을 정복하실 때마다 권을 갖고 임한다.

---

셋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때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서 있을 자들 몇몇은 인간의 육신 안에서 세상에 오심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보좌에 앉으신 시온의 왕으로 그분의 영을 부여하실 때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사도행전 2:36-37). 그곳에 그것을 볼 때까지 사망을 맛보지 않고 서 있을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34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바로 이 동일한 제자들이, 비록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 때 그들이 거의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을 구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왕국을 볼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3:3-7).

이 약속,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하면서, 옛새 후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으며 그분의 왕국과 영광에 대한 확신의 증거들로서 그들이 후에 보게 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 예수의 변화

2-10 절에서 마가가 구원자의 변화를 기록한 것을 본다. 비록 옛새의 간격이 있었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1 절에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적 이상으로서 그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성령에 의해 마가는 감동받았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과 우리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찬양과 영광의 예표로서 여기 제시되어 있다. 비록 그들이 그 때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

---

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모두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후에 전했다 (베드로후서 1:16; 요한일서 1:1-3). 마가복음 9:2-10 은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께서 지금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중보자와 왕으로서 소유하신 영광의 그림이다.

그분의 비통과 치욕의 날들은 영원히 끝났다. 우리 주 예수는 이제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시다. 성경이 여기서 그분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음을 말할 때, “변화된”이란 말은 완전한 변화라는 우리 말에서 온 말을 번역한 것이다. 그 의미는 그분이 그들의 눈 앞에서 변화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구속의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셔야 했던 죽음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께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가복음 9:29-31). 구원자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베드로전서 1:11).

이 그리스도의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닦쳐 올 영광스러운 것들의 은혜로운 언약이기도 했다 (골로새서 3:1-4). 비록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어도, 복음을 위하여 멸시를 당하고 증오를 받아도, 우리가 전능과 존귀와 영광으로 영원히 웃 입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에베소서 2:7).

비록 모세가 엘리야가 수백 년을 떨어져 살았고 제자들이 전에는 그들을 전혀 못 보았고 그림조차 본 적이 없었지만, 서로 알았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이 기회를 결코 지

---

나칠 수 없다. 나는, “우리거 하늘에서 서로 알아보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분명히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이다. 이 육신들이 사망 안에서 그 눈을 감자마자 곧, 믿는 자들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늘 안에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그 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물론, 서로를 알아 볼 것이며 대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대화의 최우선 주제는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한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죽으심일 것이다.

이 우리 주의 변화의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가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가운데 그들의 성취를 보는 사실의 그림이기도 하다. 율법은 윤리적 법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선지서는 단지 미래 있을 일들을 미리 예견하려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 선지서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난 당하는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현장과 이해가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고 위로인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라고 한 것은, 껌뻍함이 그 말 안에 많이 있다. 그것이 보여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음이 끔찍할 정도로 더뎠으며 그에게 엄청난 무지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 예수께서 바로 며칠 전에 그에게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의 형제들의 매우 유감스러운 건망증과 그에게 있는 이기심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한 것들에 대하여 튀어나오는 어

---

리석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실로 내가 지금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가 원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원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산 위에 바로 이곳에 머물시다. 나는 절대로 내가 있었던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구원자를 더 이상 떠나지 않으려 만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얻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사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을 알 때 우리 혼에 어떤 감정들이 넘쳐날 것인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먼저 맛 보았다.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 그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의 선포들에 대한 또 다른 것들을 준다. 그들이 그들 앞에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산에서 구원자와 함께 있었던 반면, 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우리처럼 모두,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었고, 양자됨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들 하나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는 육신 안에 체현된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고

---

아무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다. 하나님 말고 아무도 우리 죄를 없앨 수 없다. 하나님 말고 아무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고 왕이신 분 안에 모든 권능과 권위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침 받았다. 우리 주의 침례 때 하늘로부터 들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던 그 동일한 음성이 다시 그분의 변화 때에 말씀하셨다. 두 가지 경우 그 음성은 동일하였다. 두 가지 경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로써 소유하셨다. 그러나 여기 두 마디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더해졌다. — “저의 말을 들으라! (Hear Him!)”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에서 그분의 음성 외에 어떤 권위의 음성은 없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한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어야 한다. 그분만이 인간의 구원자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은혜롭고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의 말을 듣기”를 배우는 모든 죄인들은 복되고, 영원히 복되다 (요한복음 10:27-28).

### 엘리야가 와야 한다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변화하신 주 예수를 본 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음성을 들은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주 예수께서 사망에서

---

살아나실 때까지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특별히 들었다. 그것을 들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잊은 것처럼 보였고 주께서 뜻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의문과 논쟁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사망에서 살아나시는 것으로 그분이 의미하셨던 것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주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실 것임을 믿지 않았다 (9-10 절). 그들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1-13 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해석하려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실제로 오셔야 한다고 믿고 가르쳤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고 그것으로 혼란스러웠다.

말라기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은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소개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

---

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5-6).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이 엘리야가 정말로 세상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주 예수께서 말라기의 예언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13 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몸 안에 왔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 왔다. 그것은 말라기의 말의 의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해석하려 결코 시도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짓 종교의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종교의 편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이 제자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그들이 스스로를 바리새인들의 세속적 교리에 영향을 받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

## 39 장. 환영 받은 개입—마가복음 9:14-29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누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괴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

---

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14-29).

우리 주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 오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청년을 점령하였던 마귀를 내 쫓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던 그분의 제자들을 발견하셨다. 주 예수께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보셨을 때,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난처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던 박식한 서기관들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었던 아홉 제자들을 지키려 즉시 개입하셨다. 그분은 서기관들에게 왜 자신의 제자들과 (질문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물으셨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일반적으로, 고상한 사회에서 그런 개입은 무례하게 여겨지며 경멸 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개입은 자포자기한 사랑의 아버지가 그의 귀신들린 아들을 위하여 개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환영 받았다. 이 가련한 사람은 서기관들과 우리 주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아들은 마귀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의 아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초췌해 졌다. 그의 아들은 멸망해가

---

고 있었으며 그는 무기력했다. 그러므로, 그가 기회를 잡자마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직접 왔다. 그는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권능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긍휼과 은혜와 생명을 구하면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데려왔다.

## 산상 체험

내가 이 단락에서 보는 첫 번째 사항은 산상 체험이 거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단락과 앞 서의 단락 사이의 대비는 충격적이고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청년의 삶 가운데, 변화산에서 비탄의 계곡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상에서 사탄의 권세와 영향의 슬프고, 슬픈 역사로 이동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축복 받은 친구들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막 들었다. 그들의 눈 앞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막 보았다. 이제 그들은 혼란과 고통과 약함과 비탄의 장면 속으로 들어온다. 여기 고통 속에 있고, 마귀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소년이 있다. 여기 깨질듯한 마음을 가진, 깊은 번뇌에 있는 한 아버지가 있다. 여기 사탄의 권세로 좌절 당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약한 제자들의 한 무리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꽤 생생한 그림이다. 산상 체험은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된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기대하거나 너무 많은 경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의 사람의 대부분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의 충돌 가운데 허비되고 있다. 영광에 대한 우리 축복된 이상, 하늘에 대한 달콤한 미리 맛보는 것, 주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보낸 시간들

---

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실 때 잡고 누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이지, 일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안에 있을 때, 주 예수께서 산상에서 하신 것처럼, 그 계곡 안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그분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오신다. 그리고 우리 계곡의 슬픔과 다툼은 우리의 산상의 기쁨처럼 신성한 안배로 인함으로 많이 있다.

### 철저한 의지

우리가 철저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된다는 이 이야기를 또한 상기한다. 이것이 이 구절들 내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온다.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세처럼, 우리 주께서 그의 제자들이 완전한 혼돈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악의적인 서기관 집단의 공격 아래에 있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그들이 이 사람의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으려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실상이었다. 이들은 바로 직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았던 동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사람과 그 아들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무기력했다.

이 제자들은 겸손한 체험으로 매우 불가결한 공과를 배웠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이고, 우리 마음 속으로 불타야 할 공과이다. 요한복음 15:5에서 그분의 선택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 육신에 용납되지 않고 쓴 공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반복하여 다시 또다시 보여지는 공과이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

---

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힘이 없거나 마귀를 거절 할 어떤 방법도 없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롯과 다윗과 베드로의 체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며, 약함 그 자체이고, 그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그리스도의 지혜와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 철저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사탄의 권세

이 이야기는 사탄의 권세의 공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하여 성경의 지면 위에 역시 기록되어 있다. 아무도 사탄이 마귀의 거짓 능력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사탄은 단지 작은 아이들을 두렵게 하는 변덕스러운 노인 때문에 마법에 걸린 종교적 춤꾼에 불과하다 것을 비웃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자. 이 감화 받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 위에 임한 거짓 영과 파멸의 영으로서 사탄의 권세와 영향을 묘사하는 것을 듣는다. 이 청년을 제어하는 마귀는 귀머거리와 병어리 영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차지한 마귀는 미치광이 영으로 그의 몸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점령하였다 (마태복음 17:15). 마태는 그의 상태를 간질의 한 형태로 서술하며, 그것이 기절과 침묵을 일으켰고, 그것을 John Gill 은 “마음의 광란”으로 규정한다.

이 마귀는 단순한 아이로 이 청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깊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하며, 그들의 초년기부터라 할지라도, 그들의 혼의 유익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만약 사탄이 일찍이 그들을 파괴하려 시작한다면, 우리

---

는 일찍 그들을 구하려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능력의 최선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를 그들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선택하면서 통제하며,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 약한 믿음, 그러나 참된 믿음

우리는 또 이 단락에서 믿는 자의 이중 본성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주어진 수 많은 예들에 대한 다른 것을 본다. 누가 이 단락을 볼 수 있고 믿음과 불신, 의와 죄가 동일한 사람 안에서 발견된 것을 보는 것을 실패할 수 있겠는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 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 하였다.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의심이 있었다. 그는 그의 자식을 소망을 갖고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그는 22 절에서 이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 하였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했다면 당신 생각에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겨자씨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 아무도, 단지 단순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해도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그 힘도 아니며, 그 속성도 아니고, 그 양도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뿐이다.

---

비록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였다. Robert Hawker 가, “세상의 모든 부를 위해서보다 믿음의 가장 작은 정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축복하려 함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우리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로써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은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갔다. 그의 믿음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전능하신 분 앞에서 믿음의 약함에 대한 그의 자각을 고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가 필요했던 공활을 얻게 하였다. 당신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과 그로 인한 우리 구원의 증거이다 (사도행전 10:43; 13:48; 히브리서 11:1-2). 우리가 가장 작은 믿음을 소중히 하는 한편, 그것으로 우리 부름과 택정이 증거되고 우리 혼에 확증이 될, 더 큰 믿음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전무결을 생생한 예로써 배운다. 사탄과 지옥의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이 되며, 그들이 어떤 면에서 통제 밖이라고 어리석은 상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을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귀를 이용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와의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분은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보이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 대리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언제나 행사하신다. 그분은 전능과 주권과

---

권위로 말씀하시며,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즉시,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분의 음성에 복종한다. 사탄은 강하고, 악의 있고, 분주하다. 우리는 그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여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신다. 사탄은 우리 구원자의 강력하고 전능한 손에서 우리를 절대로 낚아챌 수 없다. 그리고,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분의 발꿈치 아래 부술 것이다 (로마서 16:20).

## 믿는 부모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는 부모의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 감동의 지면 위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반역으로 가득한 집을 키워왔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거만하고 무지하게 자녀들이 약하기 때문이 부모가 결코 잘못되지 말아야 한다고 상상하는 자가 없도록 하자. 그런 말은 가족을 결코 키우지 않았던 사람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했던 것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아들을 구원자에게 데려왔고, 그리스도께서 발견되었을 곳으로 데려왔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함께 데려올 수 있고 데려와야 한다. 그 아버지는 열심으로 한 기도로 구원자를 그의 아들에게 모셔왔다. 그는



---

그의 아들의 상태를 주 예수께 알렸다. 그는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귀가 먹고 병어리이고, 정신 이상이며, 그의 존재의 핵심에 악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 예수께 말했다. 그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언제나 그랬음을 덧붙였다.

그의 아들의 절절한 필요가 그의 필요였다. 그의 기도는, “그를 붙잡히 여기시고, 그들 도와주소서.”가 아니었다. 그의 기도는,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소서!”였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대리자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었다. 대리 믿음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믿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음이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묶여 있음을 깨달았다. 회초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효험 있게 죄인을 그의 속에 있는 어리석음에서 구할 수 있고 그를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운행

성경의 이 단락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때마다, 당신이 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고,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다.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체험을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의 체험은 유사하다. 사망은 사망이다. 생명은 생명이다. 은혜는 은혜이다. 그리고 구원은 구원이다. 이것이

---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는 방법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구원하실 때, 그곳에는 신성한 부르심이 있다. 주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 절)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대하신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다. 그분은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 43:6)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올 것을 명령하시고 모든 창조를 그분께 데려 올 것을 명하신다.

주 예수께서 죄인들이 그분께 오는 것처럼,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사탄의 차례가 있다 (20 절). 구원자께서 죄인을 그분께 부르실 때, 사탄은 그의 시간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격분 가운데 있다 (계시록 12:12).

셋째, 주께서 영생을 주시려 오실 때, 소망으로 가득한 살육이 있다. 그분은 살리시기 전에 죽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전에 추락시키신다. 그것이 25-26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 예수께서 구원의 권능으로 오실 때, 그 곳에 사망으로부터 부활이 있다. — “예수께서 그 손을 잡

---

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7 절).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전능한 공훈의 권세와 역사로 영적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5:25; 에베소서 2:1-5; 계시록 20:6).

---

## 40 장.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마가복음 9:30-37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삼 일만에 살아 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앞서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30-37).

### 모든 교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삼 일만에 살아

---

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30-32 절).

이 구절들 안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대속의 속량의 복된 복음 교훈이며, 죄인들의 대속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우리 죄들을 위한 신성한 공의 만족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주제이고 계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야 하는 교훈이다. 이것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훈 안에서 죄인들을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발되고, 격려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도전 받고, 질책을 받는 말씀이다.

30 절에서 우리에게 신성한 주권의 모습이 주어진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시 지나고 계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주께서 그분의 죄 속량 죽음에 관한 복음 교훈을 그분의 선택 받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데, 그분 자신의 주권적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서이다 (마태복음 11:25-27).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구원자의 인격과 권능과 은혜에 대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사실은 매우 확고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죄인들의 길을 반복하여 가로지르는 것의 단 한 예도 보지 못한다. 그분을 경멸하는 자들은 생명을 경멸하고 파멸을 초래한다. 그리스도는 임재 하셨으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의해 알려지지 않았다! 얼마나 자주 그런 경우가 있는지! 경

---

계하라. 만약 당신에게 전해진 복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인 그 복음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음 자체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잠언 1:23-33). 기록된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이 그분의 귀한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또한 나타났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그분은 이미 행해진 일로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의도와 미리 아심으로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던 이유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보증으로서 영원 가운데 동의 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간 가운데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그분이 세상에 보냄 받은 사명이었다 (마태복음 1:21; 20:28).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희생에 대한 해야될 수 없는 중요성은 분명히 제자들에 의해서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비록 그분께서 그것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지만, 메시아께서 하셨을 것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편견과 선입관이 그분의 교훈으로 향한 그들의 생각을 눈 멀게 하였다. 그런 것들이 이 영광스럽고 복음의 교훈을 향한 당신의 생각을 눈 멀게 하지 말라. 대속은 복음의 총체이고 실재이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로마서 5:6-8). 대속은 죄를 위한 유일한 치료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은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고 (고린도후서 4:6) 구속 받은 죄인들의 기쁨이다 (고린도후서 9:15; 요한일서 4:9-10, 19). 우리 사랑의 구원자의 대속의 희생은 그리스도

---

께 대한 모든 경배와 헌신과 섬김을 위한 동기이고 (고린도후서 8:9; 고린도전서 6:19-20), 고모든 참 믿는 자들의 재결집 점이다 (골로새서 3:11).

주 예수께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 후에 사흘 만에 사망에서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백성의 죄들을 위한 그분의 한 번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임과 그로써 우리 죄들을 영원히 없애실 것을 주장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것, 모든 교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들 항목들 하에서 그것을 생각하라: 주권, 대속, 만족, 그리고 성공.

### 모든 속이는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도, 저희가 잠담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3-34 절).

이것은 너무도 이상하고, 너무도 슬프며, 슬프게 보인다! 주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들 가운데 단지 가장 위대한 것만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늘 왕국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셔야 할 분에 대하여 법석을 떨고 토론하고 있다! 이 단순한 어부들, 순수한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은 은혜에 정면으로 반대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 이 형제들은 각자가 선호와 우위를 위한 비밀스런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었다!

---

슬픈 사실은 우리가 모두 천연적으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고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잘 대접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이것, 모든 속이는 자들의 위대함—교만에 쉽사리 속는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우리에게 경고한다. 교만보다 다른 것들 가운데 더 기피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더 주의 깊게 육성할 것은 없다.

교만은 매우 오래된 죄이다. 루시퍼를 파멸케 하였던 것이 교만이다. 아담을 파멸시켰고 그를 동산에서 내 쫓았던 것이 교만이었다. 우리 인류를 파괴하였던 것이 교만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자에게서 차단하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매우 분별을 잃게 하는 죄이다. 이 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늘의 왕국 안에서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웅장한 장면으로 사로잡힌 생각 때문에 대속의 구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 교훈을 깨달을 수 없다!

교만은 매우 교활한 죄이다. 그것이 가장 강한 곳에, 거의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을 알지 못하게 하고 통치하고, 종종 겸손의 옷을 입고 있다. —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레미야 49:16).

교만은 혼을 강도 짓 하는 죄이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의 사역 아래에서 그들이 비밀하게 그들 자신의 교만을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가. 이 제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축복을 놓쳤다.



---

교만은 큰 분열의 죄이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10).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25). 사실상, 형제들 사이의 모든 다툼과 싸움과 분열의 원인은 교만이다. 모든 상처 받은 느낌이 바로 부상당한 교만이다. 모든 추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교만이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위대한 마음은 위대한 생각과 원칙을 논한다. 작은 마음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적 소인배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만은 혼을 파멸하는 죄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23). 교만은 죄인들을 회개와 차단한다. 교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막는다. 교만은 우리에게서 개인적으로 또 서로 간의 평강을 약탈한다. 교만은 형제 사랑을 파괴한다. 교만은 장벽을 친다. 교만은 자아를 진작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 내리기를 구한다. 교만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느낌들에 대하여 악의 적이며 냉담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고, 용서가 없게 하고, 굽힐 줄 모르게 하며, 양보하지 않게 하고, 비판적이고, 경박하게 만든다.

언제나 교만에 대하여 경계하라. 어떤 것도 더 속임수로 가득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더 파괴적인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지 않게 할 것은 없다.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위**

---

“예수께서 앉으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5-37 절).

“예수께서 앉으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 이것이 참된 위대함에 대한 우리 주의 기준이다. 세상은 말한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강력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왕으로서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명예와 주목과 힘을 구하지 말고,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찾도록 하자.

훨씬 더 자주,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요구를 세속적 야심과 혼돈하여 두렵다. 많은 사람이 그곳이 현저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안에 수고하고, 자신을 사람들의 혼을 섬기는데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의 혼을 충성되게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차이가 있다.

정통과의 공허한 자랑은 쓸모 없다. 좋은 설교와 종교적 행위만 좋아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만약 우리 종교가 서로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종교는 환상이다 (야고보서 1:25-27).

---

기꺼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 중 가장 작은 것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 소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우리 주께서 36 절과 37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예시들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확신하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믿는 자들은 종종 작은 아이들에 비유되는데, 아이들은 쉽게 가르침 받으며, 험사리 범죄하지 않고, 빨리 용서하고, 매우 신뢰할만하다는 데 있다. 언제나, 달리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른 아이들과 기꺼이 나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위하여 그에게 행해진 어떤 것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가? 만약 믿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더 사려 깊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훨씬 더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선한 행위”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

## 41 장. 지옥의 소금과 은혜의 소금—마가복음 9:38-50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절 없음. KJV: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절 없음 KJV: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38-50).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말라기 3:18)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축복되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결정적이다.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0 절). 아무도 중립적일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든, 아니면 그리스도께 반대가 된다. 중립은 없다. 솔로몬이 말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열왕기상 10:8).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왕에 대하여 얼마나 더 언급되어야 하는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 다른 형제들

이 단락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모든 자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이다 (38-42 절). 형제들을 서로 떼어 놓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형제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가 주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8 절).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

이름으로 마귀를 내 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작은 무리의 지체가 아니었다. 그는 같은 전쟁을 싸우고 있었지만, 다른 군대였다. 그것이 요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 사람을 비난하였다.

이 사람에게 대한 요한의 비난은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분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고, 주께서 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구별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 쫓는 사람을 보는 것이 요한에게는 마음 상하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마귀들을 내 쫓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아마도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들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를 비난하는 요한을 꾸짖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 슬픈 사실은, 우리는 모두 교만하여서 우리에게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거나, 우리가 구별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선한 것이 행해질 수 없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절대 관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면,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르고 편협한 종파들로 우리를 중상하게 하라. 우리 책임은 모든 형태의 거짓

---

종교, 모든 형태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와 관련하여 분명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고린도후서 6:17; 계시록 18:4; 이사야 48:20; 52:11-12; 예레미야 50:8, 45; 갈라디아서 1:6-9; 요한일서 4:1; 요한이서 1:9-11).

우리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형제들로 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역대하 19: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과 관련하여 타협할 곳은 절대 없다. 그것은 발람의 저주 받은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시킨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30 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지하게 대하고 언제나 관대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때로는 충성된 사람들이 나뉜다. 모두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바울과 마나바가 서로 나뉘어야 했을 때가 왔다. 그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이다.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경우처럼, 마찬가지로

---

오늘날에도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분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소유하셨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서로를 정말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주를 섬긴다면,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비록 그들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서 나오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자.

여기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의 속담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돕게 될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 관계가 있는 단락이 있다 (민수기 11:27-29; 빌립보서 1:15-18).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27-29).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모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15-18).



---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말자 (41-42 절).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보이든지, 그리스도에 의해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의 자녀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보다 결단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낫다. —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들이고 자매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관대하고 너그럽기를 배우자.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께 속하고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를, 혹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기억하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0 절).

## 자기 부인

이것을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보여 주신다. 43-48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와 그분 사이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 그리고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잘려져야 하는 손과 발, 뽑아버려야 할 눈은, 만약 범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켜야 할 우상들이다. 내 오른쪽 눈, 내 오른쪽 손, 혹은 내 오른쪽 발만큼 내게 귀하다 할 지라도,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어떤 것, 나의 혼과 그

---

분을 갈라 놓는 어떤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대가가 크더라도 잘려져야 한다 (누가복음 14:26-27, 33).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덤으로 가서 우리 우상을 묻어야 하며, 더 빠를 수록 더 좋다.

처음 볼 때, 이와 관련한 우리 주의 가르침이 어렵고 괴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반에서 모든 우상을 뜯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대부분 마음에 품는 우상은 분명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 내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 되려 한다면, 의도적이고 확고한 결정으로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갈라디아서 5:24: 고린도전서 9:27).

### 지옥의 실재

성경의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세 번째 사항은 영원한 지옥의 실재이다 (43-49). 나는 지옥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나는 지옥 불이 무엇인지, 혹은 지옥의 흑암과 어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만은 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 예비된 괴로움 주는 장소에 대하여, 벌레가 절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대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신다.

이것은 끔찍한 체험들이다. 그것들은 해석보다 목상을 더 요구한다. 그것들을 숙고하라. 그것들을 고찰하라. 그것들을 비추어보라.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라. 당신이 그 말을 비유적이든 축어적이든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들이 비유적

---

으로 취했다면, 절대 죽지 않는 벌레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은 실질적인 것들의 모습이다.

지옥이라 불리는 영원한 고통의 실제 장소가 있다. 지옥에서 죄의식의 양심의 고통을 주는 벌레가 절대 죽지 않거나, 어떤 정도이든 침묵하고 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 저주 받은 자의 고통은 결코 죄에 대하여 기록하신 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이 소금으로 절여지기를 요구하셨던 구약 성경의 제물을 예로 드신다. 49 절에서 그분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당신의 죄들 가운데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없이 멸망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영존하는 형언 할 수 없는 공포에 고통 받도록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고통 주는 양심의 벌레가 당신의 혼을 냉혹하게 갇아 먹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진 고기 처럼, 지옥의 불은 저주 받은 자를 타서 없어지는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도축한 동물의 살에 소금이 하는 역할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소금이 부패와 오염에서 살코기를 보존하는 것처럼, 지옥의 불도 마찬가지로, 저주 받은 자를 불태우고,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동안 그들의 존재 동안 그들의 몸과 혼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다른 말로, 불타는 바로 그 불이 그들이 타버리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능이나 감각 중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

---

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은 모두 강화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사람이 불에 절여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지옥에서 공황도, 피의 속량도, 은혜도, 그리스도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

### 은혜의 소금

50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평강의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거룩히 분별할 그 은혜의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라. 종교적 체험에 만족하지 말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소금이 있음을 확신하라 (고린도후서 13:5).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평강을 갖도록 하자. 구약 성경에서 평강의 언약은 소금의 언약으로 불린다 (민수기 18:19; 25:12).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단지 누가 가장 클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던 그분의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그들 자신 가운데 평강을 높이고 유지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평강의 매임 가운데 그 영의 하나됨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며 품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평강을 진작시킬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소금으로 우리 말에 양념을 쳐야 한다 (골로새서 4:6; 에베소서 4:29; 로마서 12:18; 14:19; 고린도후서 13:11).

---

---

## 42 장. 혼인과 자녀에 대한 주의 가르침—마가복음 10:1-16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  
가복음 10:1-16).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그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거스르는 말을 하게 하려 시도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까지의 책략이다. 뱀의 교활한 추종자들은, 진실의 허위 속에서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대답을 우리가 하도록 할 유도하는 질문을 하려 시도한다. 그들의 말 속에 뱀의 경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전에 수 차례 그들의 교활함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자신의 진흙 속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게 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단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스핑크스와 침 뱀기 시합을 해야 한다면, 비록 시합에 이길 수 있을 지라도, 분명 스핑크처럼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다.

여기 마가복음 10 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런 경험을 이제 막 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모세와 율법에 거슬러서 말하게 하여 율법에 반하는 반 율법주의자로서 그분을 고소하려는 근거를 가진 것으로 가장하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을 가장하였다. 우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아주 지혜로우셨다. 그분 자신이 직접 대답하시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지극히 중요한 것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가에게 이 단락에서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예**

---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 절)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전형적이고, 충성되고, 열렬한 전도자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전도자로서 얼마나 충성되고, 인내하고, 끈질긴 전도자셨는지. Robert Hawker 는,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기쁨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으셨으니, 태양이 그분의 길을 매일 지켰고, 별들이 밤에 그분의 교제를 목격하였다.”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의 본이었다. 그러나 전도자로서 그분의 본보기 행동과 사역의 일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위에 둔 요구들이 종종 간과된다.

우리 구원자께서 가셨던 곳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계셨다. 그분의 공사역의 시작 날부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마지막 숨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 혼의 선을 위하여 수고하셨다. 그분은 기회를 내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게으르게 외로운 날을 허비하셨던 것을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의 전체 이야기에서 읽지 못한다. 그분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셨다” (이사 32:20). “그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전도서 11:6). 그분이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셨는지. 그분은 피로하지도 않고, 끊임 없이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러우셨다. 그분이 요단강의 건너편으로 오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모였을 때, 그분은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복음 사역의 수고에 그들의 삶을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들을 사랑하는 좋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의해서 천



---

천히 할 것과 너무 심각하게 일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힘을 아끼라고 촉구 받는다. 아무도 그런 조언을 듣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열고 전도자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였으며, 당신이 본을 따르려는 당신의 종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 썩어 버리는 것보다 타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우리 주께서 언제나 “전례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지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일의 긴박함을 아셨다는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의 어머니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의 친구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의 사도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분 말고 아무도 그분의 사역의 긴박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시간이 모자른 것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시간을 구속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전도하였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 가운데 충성되고, 열렬하고, 열심이셨으며,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의 기적들은 유명했지만, 그분의 교훈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말씀은 막힌 귀로 갔고, 주목 받지 않았고 무시되었다.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분을 멸시하였다.

요한복음 6 장에서 한 번은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보았던 큰 무리, 그들 중 많은 수가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가버렸다. 그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인함이라고 선포하셨다 (29 절). — 모세

---

가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32-35), — 어떤 죄인이든 영생으로 이르고자 그분을 믿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효험 있는 역사에 의해서라는 것 (36-40, 44-45, 63-65), — 믿음의 한 가지 대상은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이라는 것 (53-58 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정하심에 따른다 (964, 70 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무리는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심이다 (고린도전서 4:1-2). 우리가 갈망하는 결과를 못 보았기 때문에 우리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그 수고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고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기회와 능력을 가진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의무임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열심히 수고하자. 주께서 “잘 하였도다”고 말씀하실 것은 선하고 성공적인 종에게 가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다 (마태복음 25:21).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추수꾼들은 아니다. 어떤 쟁기, 어떤 씨 뿌림, 어떤 물, 어떤 수확, 그러나 산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안에서, 다른 모든 영적 문제들에서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성공적인 종이다.

## 혼인과 이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2-12 절).

혼인의 존엄성과 불변에 관련한 우리 주의 가르침은 맑고 분명하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그분께 했던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비밀하게 그분에게 한 질문에 대답하신다. 이것이 혼인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우리 주의 가르침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른 두 단락은 마태복음 5:31-32 와 마태복음 19:3-9 이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31-3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

---

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3-9).

성경의 이 세 단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의 존엄성과 불변성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을 보여 준다. 혼인에 있어서 사람들의 특권과 책임의 다른 방면들이 로마서 7:1-4, 고린도전서 7 장, 그리고 에베소서 5 장에서 발견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관심 없다. 혼인의 신성함과 중요성과 불변성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겠다.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글을 주의 깊게 모두 읽기를 바란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 주께서 혼인은 생명을 위함임을 가르치신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 결합은 결코 와해되면 안 된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심각한 이유들이 아니면 결코 깨질 수 없다. 우리 주의 가르

---

침의 중요함은 과장될 수 없다. 열방들의 안녕과 사람들의 행복과 사회의 도덕적 힘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은 가족의 힘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가족 힘, 가족 가치, 그리고 가족 일체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타당한 오해와 존경에 좌우된다.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이 그 절정에 있었으며, 도덕적 타락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와 아주 동일하였다. 이혼은 거의 혼인만큼 일반적이었다. 혼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조차도, 가장 하찮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즉시 깨졌었다.

마가는 마태가 기록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바리새인 질문을 기록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9:3 에서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 마음의 냉담함 때문에 아내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명기 24:1-4)가 아니라, 모세는 아내와 이혼할 허락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방종으로 모세가 허용했던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행하였다. 혼인은, 오늘날 그런 것처럼, 예측불허의 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은 짐으로 여긴다. 마태복음 19:10 에서 제자들의 언급은 일이 단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쥘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그들이, “아니다. 너희는 아무 연고로 인하여 너희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았다. “남편이 원할 때마다

---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고 혼인을 경멸하며 바라볼 때, 그들은 철저히 양심이 없는 자녀 세대를 낳는다 (말라기 2:14-16).

혼인은 다른 어떤 세상 관계보다 더 크게 중요하고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동산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창세기 2:18-25). 혼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예표로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에베소서 5:25-33). 혼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이다 (에베소서 5:31).

혼인은 위임 — 헌신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헌신적인 것처럼,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헌신적이어야 한다. 아내는, 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헌신적인 것처럼, 그녀의 남편에게 헌신적이어야 한다.

혼인은 희생 — 자기 부인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신을 그 아내와 가족에게 희생해야 한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희생하듯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혼인은 사랑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

혼인은 다른 모든 관계의 종결과 서로와 서로에게 복된 고립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로의 격리인 것처럼, 상대방으로의 복된 격리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교회의 격리처럼, 성장하는 격리이다.

한 마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혼인에 대한 축복의 관계가 평생의 연합임을 가르치신다. J. C. Ryle 은 이렇게 썼다…

“그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써, 창조 때에 혼인에 대한 본래 제정을 언급하신다. 그분은 영구히 중요한 말씀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 사용된 확고한 말씀을 인용하고 지지하신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그분은 이 말씀에 확고한 말씀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불충실의 이유로 인함을 제외하고,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것은 제 7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오늘날, 극히 소수의 사람이 결단하고 혼인에 이른다. —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하다.” 많은 사람이 이혼을 예측하면서 혼인 서약을 한다. 많은 사람은 혼례식을 갖는 것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는다. 그들은 야생 동물처럼 좀더 매력적인 상대가 올 때까지 동거할 뿐이다. —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는 모두 간음의 죄인이며, 개의치 않고 포기된 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

이런 평생 지속되는 혼인의 결합은 오직 지대한 이유로만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지 될 수 있다. 비록 마가가 그것을 생략했지만, 마태복음 5:32 와 마태복음 19:9 에서 우리 주께서 이혼의 유일한 근거로서 간음을 인용하신다. “간음”이라는 말은 “호색”이라는 말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다. 그것은 모든 성적 도착을 가리킨다. 혼인 관계에서 사용된 것처럼, 어떤 형태의 성적 배신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 주께서 남녀가 한 편에서 성적 배신의 행위를 범한다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경우에 혼인의 결합이 해체될 수 있음을 가르치신다. 그것은 남자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허용되었다. 사도 바울은,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단념이 역시 혼인 결합을 해체하는 것을 또한 허락한다 (고린도전서 7:15). 그런 경우에 버려진 사람, 혹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주 안에서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신명기 24:1-4).

이미 이혼과 재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는 그런 믿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 이미 이혼당한 사람들, 혹은 이미 이혼 당하고 재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다른 구속 받고, 용서 받은 죄인을 대하듯이, — 구속 받고, 용서 받은 죄인들처럼, 우리 나머지 사람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다면,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 받았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이다 (로마서 8:1).<sup>6</sup> 여

---

<sup>6</sup> 디모데전서 3:2 절은 이혼과 재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단락에서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

기에 그것들을 구별하는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될 세 마디의 가르침이 있다.

1. 당신이 혼인 할 때,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하라.
2.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 혼인은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한 두 죄인의 결합이지, 두 천사들의 결합이 아니다.
3. 지속적인 정직함으로 서로의 영적 선을 추구하라.

### 우리의 사례

모든 것 가운데, 따르게 될 본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그분의 아내, 교회를 버릴 것을 거절하신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19)고 쓰도록 감동을 주셨던 분은 결코 그 아내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럴 수 없다.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사랑할 것을 모든 남편에게 가르치신 분은, 그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에베소서 5:28-29), 그 자신의 몸과 같이 그 아내를 너무도 사랑하고,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Robert Hawker 는 이 단락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자신의 육체를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과 상처로 뒤덮였지만, 예수께서 문둥병으로 불결한 그분의 교

---

다른, 일부 다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 (많은 수의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수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한 여인과 그 자녀들을 택하고 나머지는 버렸을 한 회심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듯이 우스웠을 것이다. 그것은 야만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아내 이상을 가진 남자는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디모테전서 3:2의 가르침이다.

---

회를 사랑하셨다. 아, 보배롭고, 보배로운 주 예수여!”라고 기록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말라기 2:14-16)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자도 역시 그것을 증오하자. 그분의 교회의 모든 배신적인 출발 이후에, 모든 교회의 영적 간음 가운데, 주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려” (에베소서 5:27; 계시록 19:5-9) 교회에 제시하실 때인 영원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 어린 아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16 절).

이 어린 아이들은 다른 병자와 아픈 사람들처럼 우리 주께 데려왔고, 그분께서 손을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 이상으로 본문 내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기록되어 있다. J. C. Ryle 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가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가르쳐야” 하도록 한 것처럼 제시하는 상상을

---

초월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정말 멍청하다! 그 아이들이 이들이라는 것은 이 단락에 한 마디도 없다. 물 뿌리는 것은 고사하고, 침례에 대하여 이 구절들 안에 한 마디도 없다! 영아 헌납 예배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 마디도 없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성경의 이 구절들은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1. 우리 자녀들이 선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한다. — 본문은 단지 이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병들었을 때 처럼, 그들의 자녀를 구원자에게 데려오고, 그분이 아이들 위에 안수하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를 위하여 행하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아이들을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 데려오라. 그분이 아이들 위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손을 안수하시기를 간구하라. 그분의 손에 그들을 남겨두라.
2. 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의 필요를 섬기시려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이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인가! 궁핍한 죄인들에게 그분이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인가!
3. 우리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이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에게 이끌려와야 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

---

들처럼 낮아져야 한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며,  
해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전도자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본이다. 우리가 혼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가장 먼저 가져가자. 그분께 혼인하라! 그분께 먼저 혼인한 자들은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든다. 자녀를 바라볼 때, 품어주고, 보살피고, 아이를 위하여 조금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당신이 그분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

## 43 장.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마가복음 10:17-2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17-27).

우리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세 번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자세히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 이야기 안에 기록된 단순한 사실에 대한 세 번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가르치는 공과들이 대단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셨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 부자 청년이 선택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한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 세 가지 일반적인 착각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17-20 절).

이 청년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정직했고 열심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 달

---

려 왔다. 그는 공경과 존경심으로 충만했다. 그는, 경배심이 아니었다면, 존경과 공경하는 태도로 구원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의 혼과 영원에 대하여 생각이 많았다. 그리고 적어도 그의 외적 행동에 있어서 그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딸의 데이트와 아마도 결혼을 위하여 청년을 찾는 어떤 부모라도, 주변에 이런 부자 청년이 있다면, 딸에게 그에게 인사하라고 강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유하고, 도덕적이고, 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그 자신의 독선과 교만으로 착각 속에 있었다. 그의 착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이었다. 그것은 세 가지 착각이었다.

첫째, 그는 구원이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타락한 사람의 착각이고, 모든 인간 종교의 착각이며, 적그리스도의 착각이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그들이 행한 것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한다. 은혜를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청년은 영생이 은혜의 기업이고 은사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 (로마서 9:31-10:4).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

---

이까?”라고 묻는 모든 자기 의의 사람에게, 나는 James Procter  
의 말로 대답하겠다…

“아무것도, 크든지 혹 작든지,  
아무것도, 죄인아, 아니다;  
예수께서 하셨다, 모두 하셨다,  
오래, 오래 전에!  
그의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그가,  
행하시고 죽으시려 몸을 낮추셨을 때,  
모든 것이 충만이 행해졌다네.  
그분의 외침을 들어보라: —  
“다 이루었도다!” 그렇다. 실로,  
모든 계획을 이루었다:  
죄인아, 이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다.  
내게 말하라, 그렇지 않은가?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자여,  
왜 그렇게 수고하는가?  
너의 일을 멈추어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오래, 오래 전에!  
네가 예수의 역사에 매달릴 때까지,  
단순한 믿음으로,  
행함은 치명적인 것이라.  
행함은 사망으로 끝나네.  
너의 치명적이 행함을 내던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라!



---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만 서라,  
영광스럽게 끝내라!

이 사람의 두 번째 착각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만이 외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19 절과 20 절을 읽을 때, 수많은 학식 있는 신학자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지 말고 주 예수께서 실제로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거나, 사람이 은혜로나 혹은 행위로서 어느 쪽이든 지에 의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말라. 그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그가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의 행위로 구원 받고자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 완벽하게!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우리 주의 계획은 율법 순종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불가능함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이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겪기에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역겹고, 지옥에 가기 합당하고, 타락하고, 엄청나게 사악한 자임을 스스로 보게 될 때까지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독선적인 바리새인은 모든 타락한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 본성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하였다. 그는 율법이 외적 행위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주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간음이 욕정이 아니라 성행위라고 생각했고, — 살인이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해

---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 흠치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 거짓 증언하는 것이 빗대 말하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 사기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 부모 존경이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존경하고, 그들의 갈망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나이 들었을 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인” 혹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세 번째 착각은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 열납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세상의 가장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 지극히 고고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선하다고 뻔뻔스럽게 추정한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움을 결코 금치 못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불신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의 겸손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너무 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와 의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가르치시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한 우리의 교만한 착각 속에서 멸망한다.

### 그리스도의 동정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이 사람을 보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듣는다. —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

(21 절). 마가는 이 젊은 이를 향한 주 예수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사랑과 동정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

이 본문에 대해 많은 해설을 읽는다는 것은 역겹다. 아르메니아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맹렬히 말한다. “거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받아야 하고 아르메니아주의 바보들은 대답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사랑”(아가페)이란 단어를 그 말이 정말로 절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사용을 그리스어에서 찾는다.

이 축복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며,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큰 사랑 가운데 기뻐하라! 여기서 관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 그분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의 현재 상태를 보셨다. 그분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했던 것과 그분을 위하여 할 것을 보셨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사람이 비록 처음에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선택하였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후에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를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 안에 계시된 네 가지 달콤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이 있다.

- 
1.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예레미야 31:3).
  2.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변함 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말라기 3:6).
  3.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13:1).
  4.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분은 그가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로마서 9:15; 예레미야 31:3).

신성한 계시의 이 네 가지 달콤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구원자에게 사랑 받았고, 그의 배역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이 젊은이가 사랑의 약속된 때에 그분에 의해 구원 받았다.

### 드러난 죄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으므로 그분은 은혜롭게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끌어내셨으며, 21-22 절에서 그의 내적이고 숨겨진 타락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을 배역의 지점에서 만나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러신다. 조만간, 그분은 당신의 배역의 지점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이며 항복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 짧은 이의 죄에 대한 지배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대항할 수 없는 애착을 야기했다. 그의 부는 그의 우상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재산 위에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출애굽기 20:3). 그의 안에서 원하는 한 가지 이상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으로 이것을 주목하신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그를 상당히 감동시켰고, 충만이 시험하였고, 그의 자랑스런 완벽함의 헛됨을 충분히 드러내었다… 그의 마음을 두었던 두 가지 것들, 자기 의에 대한 그의 우상과 그의 불의한 물질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의 교만의 허풍은 터졌으며, 그의 헛됨과 자만은 드러났다… 그것은 슬프도록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에게 대단히 동의할 수 없었다.”

무엇이 당신의 배역의 지점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일을 해야 하는 지점이다. 당신은 “한 가지”라는 두 마디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나? 그 말은 매우 교훈적이다. — 다윗은 “한 가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갈망했다 (시편 27:4). — 마리아는 “한 가지” 필요한 것,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다 (누가복음 10:42). — 소경으로 태어난 자, 주님께 치료를 받았던 자는, “한 가지 아는 것은

---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9:25)고 말했다. —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13-14)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젊은 부자는 “한 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다. 비록 그가 많이 느꼈고, 많이 행했고, 많이 생각했고, 많이 믿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었다.

### 축복의 계시

이 부자가 자신의 부에 매달려서 가버렸을 때,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한 마디 하셨다. 그것이 그들을 크게 동요했고 그들과 우리에게 축복의 계시로 가르치시도록 그분께 길을 열어드렸다.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이 구절들에 해석을 하면서, Robert Hawker 는 썼다…

“이 단락의 결론의 부분은 흔치 않게 아름답고 흥미롭다. 예수께서 강한 성격으로 단지 본성의 노력, 본성 위로 올라오는 노력의 완전한 불가능함을 보여주시는 한편,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내어 주시고, 그분의 왕국을 획득하실 것이다. 부자가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좋아하는 선함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의 바리새인의 의로 부풀고 오만한 부자는, 그러나 결코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거대한 낙타도 바늘 귀를 곧 통과할 것이다. 한편 반면에, 그리스도의 거듭난 가족의 모두는, 영 안에 가난하며, 믿음에 부요하고, 왕국의 기업인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본성에 대하여 은혜로운 승리를 거둔 것을 입증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활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디도서 3:5-6), 구원 받고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영광의 충만한 파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23-27 절 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마음 속에 아직 두고 있는 진리들이 있다.

1. 이 세상에서 가장 기만적이고 위험한 것은 부와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이다.
2.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철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

### 3.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관대하며, 너무도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분은 가장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을 벗기고 비우시고 그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바늘 귀를 통하여 그분의 왕국 안으로 데려 가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난잡한 매춘부보다 더 전능한 공홀 밖에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부를 믿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멸하는 사람은 대가 없는 은혜의 능력 밖에 있다. 실로, 만약 구원이 은혜로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다!), 우리를 절망시키게 할 경우나 상황은 없다.

John Newton 이 한번은, “내가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나는 분명 세 가지 것들이 나를 정말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그곳에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곳에 있을 것으로 완전히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늙은 John Newton 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에,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Newton 은 말했다. “나는 늙은이이다. 나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사항은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시다.”



---

## 44 장. 우리 구원자의 놀라운 가르침—마가복음 10:28-34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썩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 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28-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것은 대중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진실로, 우리 주께서 가르치셨던 그 것들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죄속량의 희생과 관련한 그분의 가르침이었고, 생각하기에 놀라운 것들이다.

---

##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가 이 짧은 단락을 읽을 때 우리 주목을 끄는 바로 첫 번째 것은 베드로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응답이 질책의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약속이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썩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8-30 절).

28 절에 있는 베드로의 언급은 정직하고, 진실된 말이었다. 그가 이 말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영광의 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할 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보상하실 것에 대하여 가졌던 분명한 기대에 대하여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마태는 이 말이 한 매우 어리석은 질문 뒤에 했던 것으로 말한다. —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27).

하지만, 모든 말을 하고 마쳤을 때, 만약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이 베드로가 여기서 보인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 부인의 헌신과 성별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공허하고, 헛된 기만이다. —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28 절). 참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며 그리스도를 쫓는다. 참 믿음은 나의 주와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에 나 자신과 내 삶과 나의 모든

---

것을 제한 없이, 완전히 향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서의 단락에서 부자 청년 치리자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구원이 의로운 것들을 믿음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슬퍼하며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므로, 그의 제자들이 더이상 잃을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의 세상적인 질문에 의해 제시된 생각을 은혜롭게 잡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썩박을 겸하여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30 절).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한 그와 같은 큰 격려를 우리 앞에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실한, 그러나 분명치 않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약속을 표시해두고, 자주 읽고, 매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 송이에서 포도주를 찾도록 하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시련과 박해를 감내하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잘 연구하여 그 깊은 샘에서 수시로 마시도록 하자. 그것은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에 대하여 말한다.

---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당신은 이 생에서 백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하였던 동안 내내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걸었던 동안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구원자께서 믿음의 순종이 우리가 궁핍함에 처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백 배로 부요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와 평안과 구속과 화목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그 이상의 위로와 기쁨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여, 나를 증거하라. — 이것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신실하고, 지속되고, 가치 있는 많은 새 친구, 새 관계, 새 동료들을 찾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나,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는,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채우신다 (빌립보서 4:19).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우리 구원자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약속하신다. —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11).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이후에는 영화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화로운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

이다 (고린도후서 5:1-9). 마지막 날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기대를 초월하는 존귀와 기쁨과 영화를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2:9). 여기에서 우리의 가벼운 고통은 영원 안에서 우리 구원자의 더 큰 존귀와 우리의 더 큰 기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17-18). 우리는 죄와 슬픔, 병과 죽음, 사탄과 유혹, 헤어짐과 눈물 흘리는 것이 더이상 없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마음을 잡아라. 시간이 짧다. 우리 슬픔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우리 끝은 확실하다. 눈물 흘리는 것이 밤새도록 지속되겠지만, 기쁨이 아침에 올 것이다!

### 확고한 경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1 절). — 여기 확고한 경고가 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을 더럽히는 자만을 보셨으며, 그들의 혼을 경계하기 위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경고하셨다. 만약 이 경고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필요하였다면, 당신과 내게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는가. 이 말씀에 유의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물을 필요도 없이, 이 경고는 처음 주어졌던 열 두 사도들에게 적용 가능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신뢰 받았고, 마귀였고 곧 지옥에 있게 되었을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다 였다. 그는 그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고 열둘이 보기에도 먼저 된 자였으나, 지금은 나중 된 자이다.

---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실, 그는 단지 청년이었고, 바리새인 청년이었으며,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훈련 중이었으며, 열성적인 종교주의자였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 백성을 증오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를 알았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청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계수되었을 가장 마지막 사람이다.”고 말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젊은 바리새인의 이름은 다소의 사울이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왕궁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전체 역사를 설명한다. 소아시아, 그리스, 북아프리카가 복음의 빛으로 번영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빛이 어둠으로 변해 버렸다. 오늘, 이 땅에, 한 때 어둠이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은혜로운 빛을 밝히셨다. 우리가 다시 철저한 어둠 가운데 빼앗겼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자.

이 경고는 우리 모두의 귀에 경적으로 들려야 할 경고이다. 잠시 동안 잘 달리는 것처럼 보였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지. 그들은 군중 속에서 눈에 띄었다. 그들은 우리 나머지 위로 머리와 어깨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열심이었고, 아주 헌신적이었으며, 지식이 아주 많았고, 매우 자신감 있었고, 매우 확신하였다. 그들은 먼저 된 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나중 된 자이다. 세상의 사랑이 한 사람을 잡았다. 부의 속임이 다른 사람을 잡았다. 나쁜 혼인이 다른 사람을 잡았다. 아침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잡았다. 거짓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꺾어버렸다.

---

우리 인류가 마지막까지 달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자. 잘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인내하여야 한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잘 끝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게 하신다!

### 충실한 보증인

32-34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충성된 보증인임을 본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우리 구원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지와 그분이 거기서 고난 당하여야 하고 우리 위대한 보증인과 대속자와 구원자로서 하셔야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 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 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그곳에서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줄 아노라.” (이사야 50:5-7).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6-18).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으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영광의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만족이 되게 하시려고 갈보리로 올라가셨고, 그로써 그분은 우리 죄들을 없애셨으며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셋째 날에,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들을, 그분의 죄가 되었고 그분께 전가되었던 죄들을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없앴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모두 만족하게 하셨던 그분은 그가 만족이 되게 하였던 분을 위하여 그 백



---

성을 실패 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고 사망에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그분은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지옥을 그토록 기꺼이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해야 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 45 장. 다섯 가지 큰 것들—마가복음 10:35-4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35-45).

---

우리 앞에 매우 슬프고, 슬픈 그림이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막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 당하고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 일단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그분은 셋째 날에 사망에서 사실 것을 약속하셨다.

제자들이 다른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다른 것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르침으로 매우 당혹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야고보와 요한, 주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함께 다른 것을 가졌다. 이 두 형제는 그분의 왕국에서 지극히 높은 존귀하고 위대한 장소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 기록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우리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만약 이 감동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가르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중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높이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죄인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와 용서가 계속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 큰 문제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매우 큰 문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곤란을 당하는 문제를 제시하려 이 제자들을 제시한다. 내가 말하는 문제는 교만, 곧 거룩하지 않고, 구역질 나고, 부끄러우며, 죄로 충만하고, 어리석은 교만이다.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들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35-41 절).

야고보와 요한은 참되게 믿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끔찍하게 무지하였고, 어떤 매우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에 무지하였다. 이 두 형제들은 그분의 왕국 가운데 탁월한 곳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당하고 견디어야 했을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고난 당하고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형제에 대한 우위의 위치를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도들 가운데 둘 사람이 그들 자신을 위한 큰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정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교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교만에 대한 타당한 표현일 뿐이었다. 성경의 이 단락이 드러내고 확인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이다. 이 구절들에서 두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이 사실을 모두 배우자: — 순수한 믿는 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초보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다. 비록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그들 자신이 선택 받은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적 본성이나, 그분의 대속의 희생과 죄 속량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때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였다. 그들은 그 죄들이 주 예수께서 용서하셨던 자들이었고, 그들의 손에 그분께서 왕국의 열쇠를 맡기셨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워야 할 몫, 끔찍한 몫이 있었다.

많은 사람은 사람이 특정한 정도의 교리적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독단적으로 주장한다. 그들이 그런 정죄를 하는 잣대는 언제나 그들 자신의 “지식과 깨달음”이다. 얼마나 오만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다. 구원은 교리와 사실들을 아는데 있지 않다. 구원은 한 위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것을 본다. 그 말은 당신과 나를 포함한다. 우리는 “육체”라 부르는 혐오스럽고, 죄로 충만하고, 가증하고, 껄썩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인 자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혼을 경계해야 하고 교만과 자긍심과 자기 확신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그런 사악한 죄인들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매우 깊이 뿌리를 박고 깊이 배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거의 깨닫지 못한다.

---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죄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런 존귀한 곳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기쁘지 않았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

그것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들 위에 오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변덕스러워서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두 세 번 이름을 언급하지만, 우리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느낌이 상처 받는다! 그런 교만은 끔찍하게 부끄럽다. 그것은 다툼과 분열을 야기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드물지 않다.

실상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다뤄야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자신의 교만한 교만이다. 교만은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파멸적인 것이다. 우리가 모두 끔찍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권력, 탁월함, 신망, 지위, 그리고 재산을 사랑한다. 우리 대신에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주목하려 하고 분을 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다. 교만은 루시퍼의 타락을 야기하였다 (이사야 14:12-14). 교만은 하늘 천사들 가운데 삼분의 일을 지옥으로 보냈다 (유다서 6 절). 교만은 하와를 유혹하였다. 교만은 아담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언제나 교만이다 (시편 10:2). 사람들을 인종과 지위와 부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고, 가르고,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 교만이다! 형제를 나누

---

는 것이 무엇인가? — 교만이다! 가족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 교만이다!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 교만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 어려움들, 상처들, 곤란들은 교만의 결과다. Thomas Hooker가 한번은,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너무도 단단히 붙어 있는 악습이어서 우리 잘못들을 하나씩 벗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떼어내기 가장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으로 성경 안에서 지명된 모든 것 가운데 교만이 제 일이다 (잠언 6:17). 우리를 유혹에 약하게 하고 쉽게 노출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만이다. 죄인들을 주를 구하는 것에서 차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시편 10:4). 기도 하자, 매일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의 교만에서 구출하시도록.

그들이 그가 인내하여야 했던 침례를 견딜 수 있고 그가 마셔야 했던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우리 주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기록된 타락들은 언제나 그들이 가장 강할 바로 그 지점, 그들이 가장 약할 때가 아니라, 가장 강할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읊을 보라. 읊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지만, 나는 더 인내심 없는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참을성 있는 자였다. 하지만, 그의 신중하지 못한 분노가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삼손은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강한 자였다. 하지만, 그는 한 여인에 의해 정복 당했다. 사울은 다윗처럼 매우 충성된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

---

지만, 다윗은 그의 친구 우리야를 살해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내 요점은 이것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할 정도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지, 우리 강함을 온전하게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10)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 마음의 교만 가운데 있는 상상을 어리석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약하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큰 약속

그들의 무지, 교만, 그리고 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9-40 절).

주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우리 주께서 “너희도 역시 박해 받을 것이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 요구될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구절에 포함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자께서 그들이 그분이 마셨던 바로 동일한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그분이 침례 받았던 것과 바로 동일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분명히, 우리 구원자께서는 여기서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 언할 수 없는 진노의 모든 공포,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견디려 하셨던 것은 자원하여 견디시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침례, 물에 잠김에 비유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진노 가운데 완전히 잠기셨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을 침례로 가리키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그분께 강제로 주어졌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침례는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발한 행동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그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손수 행하시는 침례를 받으셨다. 기록된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사야 53:10)고 했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죄 속량의 희생과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겪으셨고 견디셔야 했던 진노를 잔으로 언급하신다. 잔은 자원하여 마시는 것이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야 했을 때 기꺼이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 자원하여, 엄청난 사랑의 한 모금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들이키셨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컵을 마시듯이 기꺼이 받으셨다!

아직 더 있다. 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이 죄로 충만하고, 잘못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로 그분의 침례와 함께 침례 받고 그분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과 내가 그분의 침례로 침례 받고 그분의 잔을 마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보증

---

이시고 대속자이신 그분 안에서 대표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이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하자. —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12-13).

이것은 복음의 선포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려진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침례(물에 잠김) 가운데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대표하여 살아났음을 고백하였다. 우리가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취하며, 상징적으로 그분의 복된 기억 속에서 우리 구원자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40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는 것은 영광의 왕국, 하늘의 왕국,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왕국이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영생,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예비된 왕국이며,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한 것이다. 왕국이 예비된 모든 자는 마침내 모든 그 충만과 영광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운 은사로, 그분의 피와 의의 공로로 그 완전함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 큰 교훈

---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2-44 절).

여기 큰 교훈이 있다. 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친절과 섬김의 삶은 참 위대함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현세와 영적이고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살며, 구하고, 축진하는 자는 진실로 크다. J. C. Ryle 은 기록하였다...

“참 위대함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존재한다, — 좋은 것에 대하여 이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눔에 있다, — 섬김을 받는데 있지 않고, 섬기는데 있다, — 잠잠히 앉아 있고 보살핌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실로 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고 가장 쓸모가 있을 수 있고, “사역자,” 곧 종인 곳을 찾아야 한다. “사역자”라고 번역된 그 말은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번역되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것은 머슴일과 집안 청소, 식탁 준비, 정원관리 등등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가장 인정 받지 않지만, 종종 가장 필요하고,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진실로 칭찬 받을만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나 자신을 모든 자의 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

중으로 나 자신을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진실로 크고 칭찬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 가운데 자원한 중으로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섬긴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35)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진실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요 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더 나은 곳이다.”고 진실되게 언급될 수 있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것은 누구에게서든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할 뿐이다. 누구든 그렇게 낮게 몸을 낮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애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절대로 옳다. 45 절을 보라.

## 큰 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던 분이 자신을 우리가 따르기 위한 큰 분과 예로서 자신을 사용하신다. 우리 구원자의 여기서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분은, “나처럼 되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신다. 기록된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한일서 2:6) 하였다.

---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셨나 (히브리서 10:5-10)? 만약 내가 그분처럼 되려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구해야 한다 (빌립보서 2:1-9).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종으로서 사셨나 (요한복음 13:4-5, 12:17)? 만약 내가 그분의 발걸음을 걸어가려 한다면, 나는 내 삶과 힘을 다른 사람의 필요 (세상적이고,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필요들)를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주여, 매일 매일 내가 살도록 도우소서  
그런 내가 잇는 방법으로  
기도하려 무릎을 꿇을 때조차도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기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도우소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되도록,  
또 제가 당신을 위하여 하려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도록.  
구원자여,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도우소서  
당신을 확대하고 따라 하도록.  
그로써 내가 당신처럼 언제나 살게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도우소서.

## 큰 취득

여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우리 혼의 큰 취득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 있다.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

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 절).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자기 부인의 사랑과 섬김의 귀한 본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큰 죄 속량의 희생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사시고 속량하셨다 (로마서 8:1-4, 33-34; 갈라디아서 3:13).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적용된 그분의 피로 죄의 노예로부터 (로마서 6:18)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운 자유함 안으로, 그분 자신만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분 자신께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디도서 2:14),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속 받은 속량의 대가가 그분의 보혈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에베소서 1:7; 베드로전서 1:18-20; 계시록 5:9).

그 보혈, 곧 속량의 대가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지불되었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과 구원의 계획으로서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지불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르도록 정하셨던 많은 자들 (사도행전 13:48), —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많은 자들 (요한복음 6:37-40), — 주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많은 자들 (요한복음 17:9, 20), — 그분의 영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심 받은 많은 자들 (계시록 19:9), — 그분의 공훈로 구원 받은 많은 자들 (요한복음 1:12-13), — 그분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많은 자들 (에베소서 2:8), 그리고 — 그분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영광의 왕국을 주실 많은 자들 (40 절)로서 하나님의 책 안에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

---

## 46 장. “예수께서 여전히 서 계셨다”—마가복음 10:46-52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겹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 길에서 좃으니라.” (마가복음 10:46-52).

여호수아의 10 장에서 사람의 명령으로, “태양이 여전히 머물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수아 10:14)는 것을 듣는다. 그것 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여기 있다. 여기 태양을 여전히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여기 있다!

---

그분은 예리고에서 나와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셨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공황을 바라는 가련하고, 소경인 거지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외치는 소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여전히 서 계셨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 앞에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그림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시는 길에 멈춘 분이 계시며, 그분의 공황을 구하며 외치는 궁핍한 혼의 소리로 인하여 멈추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케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다. 아무것도 그분을 멈출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분의 일을 선회하게 할 수 없다. 헤롯도, 사탄도, 바리새인들도, 그분의 제자들도, 심지어 그분 자신의 어머니도 우리 구원자를 멈출 수 없고 그분의 길에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외롭고 무기력한 혼, 공황을 외치는 한 소경 거지가 그분께 도움을 바라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외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시는 길에 멈추게 하였다. — 공황을 바라는 궁핍한 죄인의 외침에, “예수께서 여전히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울부짖음을 무시하거나 공황을 구하는 죄인의 믿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는 바로 그 사명으로 사로잡혀 계시다 (요한복음 6:37). 우리 구속자의 땅에서의 역사의 이 한 단편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즐거운 그림인가!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이 위대한 장면을 보도록 돌이키자. 분명히,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될 공과들이 있다.

기대치 않던 믿는 자



---

바디매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믿는 자였다. 주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행사를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은 종종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된다. 주 예수께서 행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므로 그분을 따랐던 큰 무리가 있었다. — 어떤 사람은 떡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하여, —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확신으로, — 어떤 사람은 탐욕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은혜를 위하여 따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거의, 아주 거의 없었다.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소경이 있고, 우리 주의 기적들을 결코 하나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며, 구원자를 오직 듣고 말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증거로 그분을 믿었던 사람이다.

바디매오가 우리에게 관한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그의 아버지인 디매오는 그 이름이 “존귀 혹은 존귀함을 받을만한”이란 뜻이며, 우리 조상 아담처럼, 존귀한 사람이다. 바디매오는 존귀한 사람의 소경 아들이었으며, 빵을 구걸하는 절망적인 가난에 처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사야 35:5; 42:6-7; 49:9; 61:1; 누가복음 4:18). Robert Hawker 가 올바르게 언급하였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 비록 그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포고의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라도. 그리고 예수의 영께서 영적 빛과 깨달음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 속에 외침을 두셨다.”

바디매오는 구원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그가 들었을 때” 구원자 뒤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듣

---

는다. 그는 구속자와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공훈의 경이로운 역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다. — 축복된 소문이다! 아마도 그는 주께서 여리고로 오시는 길에 소경을 어떻게 치료하셨던가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8:35-43). 물을 필요 없이,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들었다. 그는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그분을 “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인정하였다. 그는 공훈에 속한 주의 전능한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다시 그 길을 절대로 지나가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바디매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는 증거의 책, 신학 도서관, 자서전들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 안의 확신과 믿음에 속한 것이 얼마나 없는지 모른다. 심지어 참 믿는 자들 가운데, 단순하고, 확신에 차고, 망설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발견된다. 겸손한 혼은 하나님을 믿고 평강 안에 행하지만, 한편으로 배우고, 박식한 신학자는 의심과 질문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이다. 성령 하나님 말고 누가 이런 것들을 바디매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겠는가? 성령 하나님 말고 아무도 그 마음 속에 외침을, 필요한 공훈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억제할 수 없다.

## 수단의 사용

바디매오는 그가 공훈을 얻을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소망을 소망한

---

다면, 우리는 우리 혼에게 좋은 모든 수단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구원 받을 것이다. 나는 신성한 계시의 그런 축복된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그것들을 선포하기를 기뻐한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든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공황을 외치면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길 가에” 소망 있는 곳을 잡았다. 거기서 그는 퍼지고 있었을 어떤 좋은 소식을 들을 것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 매우 그는 인정 많은 자를 만나고 눈에 띄게 될 것 같았다. 비록 그가 소경이었지만, 그는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필요한 좋은 것을 얻어야 했던 것을 이용하였다.

바디매오는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방할 자선을 얻으려 그에게 주어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은혜의 특정한 방법,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과 우리 혼의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정하셨다.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공황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8:20).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25). 당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3:15).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라. 복음 전파라는 도구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고린도전서

---

1:18-23; 로마서 10:17). 은밀한 기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언약의 공훈을 약속하시지만, 그분은,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에스겔 36:37).

## 낙담 극복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8 절). — 바디매오가 견디고 극복했을 낙담이 어떤 것일지. 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는 사실을 예증한다. 죄인이 그의 혼의 영원한 안녕을 위한 심각한 염려 속으로 빠지자마자 곧, 그리스도와 그의 혼의 대적들이 모든 확신을 말살하고 공훈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유아적 갈망을 부수려 시도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광의 소망으로 마음 속에 형성되기 전 조차,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중 일부는 그들 주변의 어리석은 권고와 사탄의 고소로 인하여 예민하게 시험 받는다.

바디매오의 믿음을 격려했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크게 낙심시켰다. 그들은 그에게 그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공훈을 얻기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소경이며, 너무 무가치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침묵하도록 꾸짖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필요했던 공훈을 그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그가 직면했던 반대는 그가 인정하기 힘들었다.

---

##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49 절). — 하나님의 아들이 궁핍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난하고 궁핍한 혼을 위한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그분이 그를 위하여 했던 모든 것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주 예수께서 은혜롭게 그의 육신의 눈을 한 동안 보이지 않게 하셨고, 그것으로 그분이 그의 혼의 눈을 영원히 열게 되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랑에게 그분의 위대함과 은혜에 대하여 말해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분의 길을 지나셨다. 그분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 그분은 그가 부름 받을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바디매오를 직접 부르셨다. 그분의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이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위한 뜻이었나! 제자들은, “안심하라…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 주 예수께서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영원 가운데 이 가련한 죄인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입술에 부어진 은혜가 이제 그분의 입술에서 선택 받은 죄인의 마음 속으로 부어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구속하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 믿음은 공훈을 얻음

믿음은 언제나 그것이 구하는 것을 얻는다 — 공훈이다! 구원자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을 보라. 그가 일어나서, 그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효험

---

있는 부르심의 달콤한 결과들이다. 가련한 죄인은 그를 부른 동일한 은혜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릴 수 있으며, 눈이 보이지 않고, 사악하고, 궁핍한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저가 곧 보게 되어.” 그 죄인이 그리스도께 오자마자, 그는 보게 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그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바디매오는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그리스도, 길이신 분이 그의 길이 되었다. 따라서 은혜로 부름 받은 자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길에서, 그분의 가르침의 길에서, 그분의 정하신 길에서, 그분의 경배의 길에서, 그분의 본의 길에서 따라간다.

---

## 47 장.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마가복음 11:1-1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으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마가복음 11:1-11).

우리 주의 세상에서의 삶과 사역 안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에 의해 자세히 기록된 단지 몇 가지 일 중 하나

---

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세상의 삶과 사역 가운데 유일한 사건인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큰 공개적인 나타나심의 문제로 만드셨던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여기서 계시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 기록된 몇 가지 사항은 분명한 사실들이다. 성경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 받고, 무오한 말씀임이 분명하다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21). 마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스가랴 9:9의 예언이 성취되려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썩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썩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 나라.”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한편으로 분명하다. 그분은 그 제자들이 정확히 어디서 나귀와 그 새끼를 발견하게 될 것과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가 온 우주의 주권적인 주와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의기양양하게 오셨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영접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왕이시다. 나귀와 나귀새끼와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분께 속하였다. 모두가 그분의 종들이다. 모두가 그분이 시키는 것을 하였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 덕분에 지금도, 과거에도 언제나, 미래에도 언제나 모든 자와 모든 것의 왕이시다.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왕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의 보상으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사람이신 그분께 주어진 왕국과 통치의 소유를 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는 주 예수를 본다 (로마서 14:9; 요한복음 17:2; 빌립보서 2:9-11).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다. 이 단락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왕에 대하여 네 가지 것들을 보여준다.

## 왕의 권세

주 예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과 왕으로서, 모든 것들의 절대적 통치자로서, 아무도 이제까지 타기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가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도록 그분의 제자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권세와 통치의 포괄성을 보여주셨다 (1-6 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담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

---

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처음 여섯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주의 를 합당하게 요구하나, 이제 나의 계획은 당신에게 우리 하나님 이 시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세의 완전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주권적인 권세의 분명하고 명백한 표 출을 본다.

우리 구원자께서 섭리의 모든 행사 위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세 를 소유하셨다. 그분이 원했던 장소에서, 그분이 원했던 시점에 나 귀와 나귀새끼를 두신 분은 그분이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께서 모든 사람들의 뜻에 대하여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소유하셨다. 우리는 나귀와 나귀새끼를 소유하였던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를 알 길 이 없다. 그러나 그가 주를 알았다든지 혹은 주께서 그의 나귀새끼 를 원하셨던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표 시가 없다. 하지만, 그는 주 예수께서 그의 의지를 그렇게 기울게 하셨기 때문에 두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나귀새끼를 기꺼이 보 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은 모든 짐승과 모든 창조 위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소유하셨다. 처음으로 타기 를 시도하는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사

---

람이 이제까지 탔던 가장 얇전한 늪은 나귀처럼 조용히 그분을 태우고 거리를 간다.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자이시고 왕께서 그분이 뜻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소유하셨다. 그분은 구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안심하고 이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을 우리 삶의 현재와 영원의 안녕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왕께서 세상을 통하여 가져갈 필요가 있는 모든 것,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왕께서 친히 쉽게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의 종들은 아무것도 구걸하지 말라! 우리는 난쟁이 왕이나 난쟁이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 영광의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 분을 섬긴다. 당신은 이 위대한 왕의 종들이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록 보내셨던 것을 하도록 그들을 도와 주기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왕의 대사들은 이 왕의 대사들인 것처럼 행한다!

## 왕의 가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겼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7 절). —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왕께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삶의 모든 날을 자원하여 사셨던 큰 가난의 표시가 있다. 주 예수께서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안장을 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다. 그분은 개인 제트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분은 흰 옷과 웃기는 모자

---

를 쓰고 붉은 망토를 걸치고 행운의 구슬을 만지는 연약해 보이는 남자 수행원들과 함께 교황 전용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그분이 전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가난 속에서 이 세상에 사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타고 오셨다. 그분은 빌린 나귀 새끼, 심지어 빌린 망아지가 아니라, 빌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옷 위에 앉아서 마을로 타고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빌린 구유 안에 눕혀졌다. 그분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은 빌린 배로 였다.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때, 그것은 빌린 나귀 새끼 위였다. 그분이 안장을 찾았을 때, 그분에게 빌린 옷이 드러졌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은 빌린 무덤 안에 묻히셨다.

우리 구원자의 인격 안에, 이 땅 위에 사셨던 동안, 인격과 신격, 약함과 권능, 가난과 부요의 경이롭고 비밀스러우며 복된 연합이 있었다. 몇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의 정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분은 자주 굶주리셨다. 병자를 치료하셨던 그분은 자주 지치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으셨던 그분은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사망에서 살아나셨던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얼마나 신성하고, 하나님 같은 권세를 우리 주께서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호위하기 위하여 군중의 뜻을 굽히는 가운데 보이셨는지!

---

하지만, 그분이 그분의 취임식 날에 빌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사람 같은 약함을 그분이 보여 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결점을 느낌으로 감동받은 동정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또한 배워라. 가난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가난으로 이끄는 삶과 태도들인 알코올 중독, 과소비, 사치, 사기, 나태 등의 그런 특징들 안에는 큰 부끄러움이 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존경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존경스럽게 대접 받아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진심을 입증하셨으므로, 우리의 드림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의 진심을 입증하도록 하자 (고린도후서 8:7-9).

## 왕의 행진

보통은, 우리 주 예수께서 격리된 곳을 찾으셨다. 그분은 종종 군중을 피하셨다. 사람들이 그분을 강제로 데려다 왕으로 만들려 했을 때,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피하셨다. 그분은 종종 광야에, 산에, 혹은 사막 같은 곳에 계셨다. 그분은 대중의 눈이나, 사람들의 찬사나, 혹은 사람들의 주목조차도 결코 구하지 않으셨다. 사실, 주 예수께서 대중이 그분 자신께 주목하도록 의도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본 유일한 때가 여기 이때

---

인, 그분이 왕으로서 왕이신 그분께 속한 예루살렘으로 타고 가셨을 때이다.

그 날 얼마나 큰 소동이 그곳에 있었던가. 나는 그 성에 있는 한 집도, 혹은 여관에서 조차도, 그곳에서 그날의 사건이 있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이르기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곳이 있었는지의 의심이 된다. 결코 그 전이나 그 후라도 이 세상의 어떤 도시도 이런 행진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은 여기 기록된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가?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가시다.” (8-11 절).

우리 주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우리 대속자로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잔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심으로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통치하셨다. 그가 그것을 정하셨으므로 모든 눈이 그분 위에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입성을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실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구약 성경이 언급했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영광의 왕으로서 제시하셨다. 이것에 대한 의문은 없다. 그분

---

의 찬양을 찬송했던 자들은 그분의 찬양을 찬송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였다 (시편 24). 그분의 왕국은 다른 어떤 것과 같지 않다. 그분의 왕국은 영적이고, 세속적이지도 물질적이지도 않은 왕국이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심은 참되고 영적인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오는 것이었다.

그가 성전에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이 나사렛 사람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으로 선포하려 오셨다. 15-17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종교 강도들을 쫓아 내셨으며,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만 그분의 집과 왕국, 교회 안에서 왕이고 입법자이다. 그분만이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교훈서이고, 통치서이며, 법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죄 속량의 죽으심의 설명할 수 없는 중요성과 뛰어난 우리를 알고 깨닫도록 의도하시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자신에게 이 모든 주목을 이끄셨다.

그분이 이 때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히 신성한 안배로 인함이었다. 참 유월절 어린 양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이것이 역사상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별도로 하고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전부 무의미하다. 그분의 성육신과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서로를 섬기는 그분의 거룩한 삶을 닦기를 추구하라.

---

그분의 축복의 증보와 제사장 직분을 소중히 하라. 그분의 축복의 재림을 바라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셨고, 세상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택정한 자가 주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 한 가지 전능하고 비밀스러운 역사, 하나님 자신이 왕관을 쓰는 행위는 우리 축복의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것을 더 귀하게 상주시기 위함이고, 더 완전하게 전하기 위함이며, 더 경건하게 생각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 앞에 끊임 없는 경이와 늘 증가하는 사랑 가운데 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다. 우리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탄생이나 그분의 삶을 기억하거나 축하하기 위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주셨다.

## 왕의 찬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10 절).

이것은 시편 118:25-26 에서 거의 직접 인용된 것이다. —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믿음



---

의 기도가 있다. —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 찬양의 원인이 있다. —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여기 은혜의 축도가 있다. —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7-10).

---

## 48 장.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마가복음 11:11-19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마가복음 11:11-19).

---

성경의 이 단락 내에서 성령은 저주 받은 무화과 나무와 유대인들의 부패한 종교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죄인들의 친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11 절). — 마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준 첫 번째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구원자이고 친구라는 것이다.

주 예수는 베다니를 방문하기를 좋아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왕이신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난 후,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성을 떠나 베다니에서 걸어나가셨다. 그 얼마나 복된 마을이었나.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 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주께서 그곳에 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베다니에 택정 받은 가족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특별한 대상이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곳에 살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 예수께서 그 선택 받은 가족과 하룻밤을 종종 보내셨다. 아 복되고, 형언할 수 없이 복되며, 영원히 복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이 있는 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즐기고, 먹고, 안식을 주는 그 가정은 복되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날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책이 우리에게 그 행해진 것과 주의 자녀를 위하여 행해진 것과 그분을 위하여 행해진 것, 그리고 주의 백

---

성에게 대항하여 행해진 것이 그분께 대항하는 것이었음을 가르치는 것을 한 번 더 주지하고자 한다. 열린 문, 방, 의자, 접시, 침대, 주의 성도를 환영 표시가 있는 곳 마다, 하나님의 아들은 축복하기 위하여 임재 하신다.

베다니는 축복 받은 장소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등, 이택정 받은 가족이 그곳에 살았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므로, 이 가족은 베다니의 소금이었다. 베다니는 “양 우리”라는 의미이며, 그러했다. 베다니는 “순종의 집”을 뜻하는데, 그러했다.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인데, 역시 그러했다. — 양떼, 순종, 그리고 고통은 언제나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2 절). —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일깨우게 된다. 17 절에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것을, “나의 집”이라고 부르신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있는 나는 나사렛 예수, 전능한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본성을 떠맡으셨다. 그분은 인성을 그분 자신과 함께 연합 안으로 받으셨다. 우리는, “그가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본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사셨던 동안, 우리 축복의 주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과 동일한, 하지만 죄는 제외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 그분은 흐느끼셨다. 그분은 기뻐하셨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셨다. 그분은 기쁨을 느끼셨다. 그분은 피

---

로하셨고 쉼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갈증을 느끼셨고 마셔야 했다. 그분은 배가 고팠고 드셔야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하는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지지자이신 그분, — 모든 참새를 먹이시고 모든 백합을 옷 입히시는 그분 — 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그분의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신 그분 —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 가는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을 때, 배가 고팠다!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기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은 인성의 모든 약함에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과 동등 되는 것이 강도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그분은 자신을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셨다! 바울이 “측량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그분의 낮추심과 인성의 모든 약함에 낮추심은 그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이신 이 사람은, 그가 죄를 알지 않았지만, 그가 거룩하고, 해가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로부터 분별되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죄가 되셨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21; 8:9).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처럼 사람이고,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피도 흘리고, 죽을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사람, 무한한 공로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그분은 이제 하

---

늘의 지극 높은 영광에 오르셨지만, 이 위대한 구원자는 여전히 사람, 인간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주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은혜의 보좌를 차지하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으로 만진바 된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의 체험들,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고통과 약함과 지침과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은 버려짐과 고립과 배신과 중상의 느낌을 아신다. 그분은 지극히 사랑 받은 자의 병실을 방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은 무덤가와 눈물로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파탄을 일으키고 슬프게 하는 낯선자가 아니다. J. C. Ryle 은 말했다. “분명히, 이 분은 바로 가난하고, 아픔을 느끼고, 신음하는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구원자이고 친구이다.”

“예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친구를 가졌나,  
모든 우리 죄들과 슬픔을 품으셨네!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가시니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 열매 없는 종교

이 구절들 안에서 가르치는 다음 사항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아무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도 구역질 나는 것도 열매 없는 종교처럼 우리 혼에 분명하게 저주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

---

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  
더라.” (13-14 절)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셨을 때,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 무화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는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무들에서 눈에 띄었다. 다  
른 나무들은 그 봉오리를 이제 바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한 그루는 크고, 잎이 무성하게 퍼져 있었으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나를 보라!”고 말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께  
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를 따기 위하여 그 나무로 갔을  
때, 그분은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즉시 그 나  
무 위에 저주를 선포하셨고, 다음 날 아침 올라온 태양으로, 그 뿌  
리로부터 말라 죽었다 (20 절).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사건은 영적 의미로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하신 어떤 비유처럼 우리 혼을 위한 충만한 교훈의 비유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열매 없고, 저주 받고, 메마른 무화과 나  
무는 배교의 유대교를 대표한다.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과 사두개인들 모두 잎이 무성하였다. 그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잎  
을 갖고 있었다. 의식, 신조, 역사, 교리, 겉모양, 전통, 그리고 명성  
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잎에  
주목하기를 거의 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철저히 빈약했다.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 따라서, 그 나라와 그들  
의 종교는 하나님의 저주를 명확하게 받았고 영원히 버려졌다 (마  
태복음 23:28).

---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배교한 교회와 종교 교파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성경과 피와 복된 소망을 믿고 수호한다는 교회들 —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부터 떠나버린 교회들에 대하여 이제 언급하겠다. 만일 내가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말하겠다, —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탈출하라!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소돔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의 장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한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오늘날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Robert Hawker 가 그것에 대해 기록했다…

“열매가 없이 고백의 무성한 잎을 가진 모습으로 속인다면, 종말에 (그들은) 뿌리로부터 마른 채 발견될 것이며, 그 위에 영원히 임하게 될 범해진 율법의 저주가 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버려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위선을 대표한다: 세속적이고, 미지근하고, 위선적인 자칭 기독교이다. 그들이 사는 이름으로 채워진 모든 자들은,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이 거울에 그들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들의 멋지고, 화사하고, 인상적인 잎들, 그들 자체로 너무도 많이 그들에게 인상을 주는 그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그분의 코에 악취를 풍긴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저주 받은 현혹이다! 그들은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거룩함이 없다. 그들은



---

감정에 속한 종교적 흥분과 연출을 즐기겠지만, 그들에게 의도 없고 속죄도 없다. 그들의 교리가 엄격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죽었다. 그들의 종교는 제례 종교 가운데 부유하겠지만, 그러나 위로와 진리 안에서 빈궁하다. 그것이 열매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쓸모 없는 종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산출하지 않는다.

“지옥에 가는 확실한 길은 전혀 어떤 종교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다. 짐승처럼, 기도도 없이, 경건하지 않게,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어떤 쓸모 없는 종교를 택하는 것이다. 거짓 기독교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다 죽을 수 있고 근거 없는 소망에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옥에 가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적인 대상이 아니면 종교는 쓸모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의 종교는 소수의 희미한 관념이고 공허한 표현이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편리할 때 교회에 간다. 나는 정말로 누구에게도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활을 베푸실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

하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떠나서 아무런 긍휼을 보이지지 않는다.” (J. C. Ryle).

우리 각자는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만들자. 침례, 교회 등록, 종교 의식, 교리적 정통성, 그리고 심오한 종교적 감정들은 기독교에 대한 동의어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잎사귀들이고, 잎사귀에 지나지 않다.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을 가렸던 아담의 무화과 잎보다 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눈에서 우리 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을 것은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5).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시라면, 그분은 열매를 맺으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그 영의 열매를 맺으신다 (갈라디아서 5:22-23).

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권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의와 위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느니 사람에게 알려진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유죄 판결을 받고 서는 것이 차라리 낫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당신의 종교가 당신의 혼을 가장 깊숙한 지옥 속으로 가라앉힐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저주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잎의 종교 위에 선포하셨다!

---

## 하나님의 집

이 단락에서 가르치는 세 번째 사항이 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왔던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15-19 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예표이고 전형이었다 (디모데전서 3:15). 성경이 교회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은 믿는 자들이 모인 몸이고, 공예배를 위하여 한 장소에 모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만나시며 (마태복음 18:20),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

어떤 우상적인 미신도 건물이나 물질적인 장소에 연결 짓지 말자. 우리가 만나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다만 그곳에서 모인다. 공회당은 거룩한 성막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

이 전해지는 공간일 뿐이다. 강단은 거룩한 상이 아니다.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섰는 강단일 뿐이다.

교회와 성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관련하여, 성경의 이 단락에서 가르치는 공과는 분명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은 당신과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해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만 통치권을 만들며, 통치권을 행사하고, 통치를 실행한다. 시온에 있는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계명이다. 그분의 계시된 뜻이 우리 생명의 법이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인도 원칙이다.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일은 기도와 찬양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 대한 경배와 복음의 전파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집을 거래와 장사와 유흥의 장소로 만들려 하는 것은 완전히 혐오스런 것이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집, 성전에 올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행동해야 한다 (전도서 5:1-2; 야고보서 1:19-22).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올 때,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에게 대한 경건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보다 덜 엄격하고, 정확하고, 경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정말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 혹은 더 최악은, 늦게 하나님의 집에 급히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부족과 다름 없다! 사람들이 경박한 태도로, 그런 특권과 책임의 엄중함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집으로

---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부족과 다름 없다!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나 야구 경기를 가듯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오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부족과 다름 없다!  
David Pledger 가 바로 보았다...

“심지어 우리 복장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지배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중을 보심을 나는 알며 우리의 옷으로 그분께 인상을 드릴 생각을 분명 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체육 행사와 같지 않다. 우리는 규칙은 없지만,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말하기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나는 구시대에 속해 있고 수수하고 합당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는 것을 선호하다. 우리는 모두가 격의 없기를 바라는 시대에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대해서 격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좀더 나은 옷이 있다면 친구의 장례식에 청바지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에 대한 배려에서 나는 최상으로 입을 것인데,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올 때 존경심을 덜 보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이도록 합당한 의복을 입으므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으로 언제나 옷을 입기를 돕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집 안에서 계속되는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도록 하자. 모독과 무례와 무관심은 그분께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바보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도록 하자. 우리가 교회에 갈

---

준비를 시작할 때, 그곳이 누구의 집이며 우리가 왜 거기 가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공허한 종교 형식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당신의 마음을 함께 가져와라. 마음을 세상에 남겨두지 말라. 당신의 일, 돈, 정치와 세속적 경망을 집에 두어라. Ryle 이 경고하였다. “우리 마음 속에서 사고 팔도록 하는 것을 우리 종교 집회 한 가운데에서 허락하지 않도록 경계하자. 성전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내 쫓으신 주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런 행위를 보실 때 그분은 매우 화 내신다.”

---

## 49 장. “하나님을 믿으라”—마가복음 11:20-26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결코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 \*역주: KJV 의 26 절 번역) (마가복음 11:20-26)

주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저주 받자마자 그 뿌리부터 죽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옆을 지나면서 말라버린 가냘픈 가지와 잎사귀들을 보았던 다음날 아침까지 보지 못했다. 영원히 매인 혼 모두가 경고 받도록 하자. — 그 입의 작대기로 세상을 강타하고 그 말로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하는 분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치실 것이다 (욥 4:9; 이사야 11:4).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

않았기 때문에 푸르고 생명으로 만발할 때 쓸모 없었지만, 그것이 시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일으키는데 그분에 의해 사용되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하여 우리 앞에 여기서 제시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잠언 16:4), 그분이 그분의 택정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로마서 8:28). 여기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려고 쓸모 없는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셨다. 믿음, 하나님 안의 참 믿음은 종교적 위선에 불화한 자들과 참 믿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본질적인 믿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23 절).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공과를 상기시키고 계셨다. — 하나님 안의 믿음은 본질적이다. 베드로는 어제 저주 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오늘 시들었다는 것에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의 참 믿음이 없이 그렇게 멸망할 것임을 여기에서 단언하신다. 그것은 단지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본질적



---

인 것은 한 분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가운데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영광스럽고, 삼일의 영원하고 주권적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의 참 믿음이다.

믿는 자들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고 성경 안에 세 번 기록되어 있다. 믿음은 고립된 행위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경이나, 고백이나, 의식 그 이상이다.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갖는 믿는 자의 마음의 태도이다. 하나님 안의 이 믿음은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그것은 참 기독교의 바로 뿌리이고 본질이다.

처음에는 우리 주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30). 그러나 참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 그것은 모든 때 그리고 모든 영원 동안 그분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과 은혜에 따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공급하시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수시로 히브리서 11 장을 읽고 묵상하여야 한다. 장로들이 좋은 보고를 받았던 것은 믿음으로써 였다.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브리서 11:6).

우리 주께서 24 절에서 하나님 안의 믿음의 큰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격언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산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 격

---

언의 말씀은 종교적 열간이들의 시대에 주의깊고 냉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건강과 부와 번성 장사꾼에 의해 만약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그것을 위해 주를 믿기만 하라고 배우고, 당신의 모든 돈을 자신에게 보냄으로 그를 신뢰함을 보이라고 배운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의심함이 없이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갖거나 완전하게 믿는 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행한다는 생각을 갖는 어떤 것이든 하실 것이라는 포괄적인 약속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은 믿는 자들이 큰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며, 큰 것들을 이루고,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강하고, 용감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경계하여 지켜라.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물을 주며,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으로 믿음을 실행하라.

우리는 참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상상해서는 결코 안된다. 실상은 이 세상의 아무도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최소한의 척도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과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구원의 연합을 증명한다. 아침 이슬의 한 방울의 물은 세상의 모든 강만큼 순수한 물이다. 그것은 양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본성과 특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나는 믿음에 있어서 약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그분께

---

계속하여 울부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특별하게 말한다 (누가복음 17:5).

그 믿음의 약함으로 인하여 버려진 그 가련한 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선포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29).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된 믿음의 척도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로마서 12:3).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곳마다, 그 소유자가 하늘로서 난 혼임과 하나님의 택정한 자임을 증명하며, 영생에 정한바 된 자들만 믿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3:48). Robert Hawker 가 바로 말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행위에 있어서, 성경의 전체 기초로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자의 위격과 역사와 의를 믿는 강하고 생생한 행위를 갖는 것은 축복되는 한편, 주 안에서 강한 자는 물론, 여전히 그리스도 안의 젖먹이인 자가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거기에 기여하는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의 강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참되게 의롭게 된다. **이 사람으로 힘입어** (바울이 말하기를)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약한 믿음이든 혹은 강한 믿음이든지 간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도행전 13:39).”

23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달콤하고 보배롭다. 하나님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

공홀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들의 충성됨을 신뢰하므로, 모든 죄와 모든 난관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들과 죄로부터 일어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난관들을 산에 비유하신다. 그분은 아마도 올리브 산을 가리키셨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죄들의 산들을 하나님의 건망증의 바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던져버리셨던 바다로 던져버린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자마자 곧 그것들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손 안에서 어떤 고난의 산을 잡아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넓은 어깨 위에 그것을 얹어 놓는자마자 곧, 염려의 힘든 무게가 없어진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 (마태복음 17:20; 누가복음 1:37). 모든 것의 전체 무게를 그들의 충성된 언약의 하나님이자 아버지 위에 두고 안식하며,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보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16).

## 기도하는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믿음, 참된 믿음이 진정한 기도를 불러일으킨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무지하게 추정하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채우기 위하여 당신을 기다리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 기도는 영적 문제를 포함하는 영적 실행이다. 기도가 세상적인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세상적인 것들은 주께는 영적인 문제로 반전된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진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으로, 본이되는 기도 가운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분명하게 재차 강조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6:9-13).

내가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아는척 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 장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것들이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임을 나는 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간청함 가운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들이며, 우리 마음의 갈망들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갖게 될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를 원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축을 갈망하며, 그것이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이다. — “나라이 임하옵시며.”
-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원한다.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매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 우리는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이 용서를 갈망한다.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 우리는 유혹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직접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한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들이 당신의 혼과 관련한 것들이 아닌가? 이 문제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이것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렬히 갈망하는 것들이 아닌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24 절).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그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확실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24).

### 용서하는 믿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결코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 (\*역주: KJV 의 26 절 번역)” (25-26 절)

---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그 믿음은, 우리가 죄들에 대한 사함을 얻게되는 그리스도 안의 그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필요성과 사함의 영 사이의 연결 고리는 기도이다. 먼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과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는 영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역사들이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릎 꿇는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공개적이든 혹은 사적이든, 우리 육체적인 위치와 자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런 경의 가운데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경건이나 겸손의 아무런 자부적인 모습을 짓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서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배와 기도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사항은, 은혜와 믿음의 하나의 열매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경배나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사함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형제 사랑이다.

우리 주께서는 물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만약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함을 체험하지도 알지도 않았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고, 열심이고, 성실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기도는 더 한 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긍휼을 찾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구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형제를 부른다면, 형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생각에 정박하고, 분개한 마음을 품고, 서로에 대한 용서를 부인하면 우리는 단지 망상으로 우쭐댈 뿐이다.

이것이 얼마나 준엄한 문제인가. 모두가 노래하고, 전도하고,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한 말을 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용서가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자라면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우리 구원자는 이것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 길게 다루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 속에 그것을 두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잘못을 삼가며,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함은 우리의 가장 높은 특권이며 가장 큰 기쁨이고,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하늘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다. 그러므로, 용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얼마의 기간 속에서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용서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성도



---

들은 하늘에서 어느 누구의 용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용서를 필요로 한다. —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4:32-5:2).

---

## 50 장. 세 가지 영적 사악함—마가복음 11:27-33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27)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과 성전에서 걸으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나님의 집을 이리 저리 걸어 다니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였고 그분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집중하여 들었다.

여기 기록된 사건은 우리 주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 쫓은 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틀 후에 일어났다.

---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군중들 가운데 주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백성을 파멸시키려 걱정하였던 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다.

한번 더, 그들은 그분의 평판을 떨어뜨릴 완전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주 예수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고, 집의 주인으로서 질서를 잡으셨다. 그 모든 것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그분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전통과 관습에 반하므로, 유대인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이들 크게 존경 받은 학술적인 이단자들이 주 예수께 그분의 권위의 근원을 질문하였다.

교회와 교파와 열방과 시대의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영적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단자들일 때, 그들의 소경 인도자들을 눈멀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의 혼의 영원한 위험으로,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 영적 사악함은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한 두드러진 신호로 나타난다.

### 영적 무지의 사악함

당신은 아마도, “베드로여, 어떻게 영적 무지가 사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그의 무지 때문에 비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빛비춤 가운데 분명히 행하였던

---

것을 알 수 있었고 알아야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저야 하며, 정말 그래야 한다. 당신은 내가 금방 언급했던 것의 영향을 이해하는가?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고 멸시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었을 것과 그렇게 하기로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하고, 잘 기초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영원히 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인도하고 계도하는 것은 사람을 책임의 엄청난 무게 아래 처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보내시며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감히 다른 말을 하거나 쓰고, 사역의 일을 다음날로 미뤄 계속하지 못한다.

전도자가 되기를 안달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알도록 확실히 하라. —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을 그 일에 보내셨음을 확실히 하라. —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확실히 하라.—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선포할 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한다. 전도자들, 교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혼들을 지키는 자로서 서 있다. 그것으로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자

---

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 3:17-21; 33:1-16).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마가복음 11:27-33 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종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종종 완전히 무지하다는 사실의 역력한 본으로써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사람들은 날뎡팔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높은 훈련을 받았고, 전문적인 종교 학자들이었으며, 엘리트 중의 엘리트 집단에서 선발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교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장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장로들이었다. 로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종교 세계에 의해서 모든 영적 지식의 바로 근원이고 원천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교리는 역사적 유대인 전통이란 주류의 완전한 무게와 힘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크고, 높이 존경 받으며, 잘 훈련된 종교 지도자들은 돌 상자에서 나온 하나님을 몰랐다!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소경이었다. 그들은 암송하고, 항목을 나누고, 분류된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없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 모두 말해 줄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말해 줄 수 없다! 그들은 한 가운데 그분이 서 계셨을 때 그분을 지명할 수 없었다.

---

모든 참 구원의 영적 지식은 신성한 계시로 온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배우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것도 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적인 인정, 학식, 역사적 인정, 유명한 명성, 종교 질서, 그리고 종교 전통은 모두 의미가 없다. 실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절대적인 방해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셔야 한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계시되면,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끊임 없이 받으며 세 가지 사항을 확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다.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을만큼 깊다.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그것들을 배우기를 결코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전능하고 구원하는 역사들 가운데 죄인 위에 임하실 때에, 그분은 선택 받고 구원 받은 죄인에게 (1.)죄에 대하여, (2.) 의에 대하여, 그리고 (3.)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실 것이다 (요한복음 16:8-11; 로마서 8:1-4; 10:4; 고린도후서 5:21).

-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죄, 그 자신의 죄와 그의 타락하고 부패한 족속의 죄에 대하여 확신한다.

- 
-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인들의 대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인들 위에 성취되고 주어지고 부여된 의에 대하여 확신한다
  -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혹은 정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지 않는 어떤 전도자나 종교 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혼과 당신의 가족의 혼과 당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모든 사람을 관심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를 알기 위하여 그 영들을 시험하라 (요한일서 4:1-3). 영적 무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무지는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이며, 그로써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인도되게 된다. 소경이 소경에 의해 인도될 때,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

### 영적 오만의 사악함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 하나님 섬김을 행하고 있는 척 하며, 감히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성육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도전하며,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교만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었다! 그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께 어떤 사악한 혐의도 씌울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역사들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했던 것들을 행할 그분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 뿐이었다. 그들은 물었다. “무슨 권세로 전도하는가? 누가 당신을 명했는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가? 어떻게 감히 너는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질서를 잡느냐?”

타락한 종교인이 전하기 거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 종교인은 자신 말고는 아무것에도 몸을 바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에 몸을 바치고, — 종교인은 불안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반면, 하나님께서 그를 둔 곳에서 안주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안심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보다 타락한 종교인을 더 오만하고, 불확실하고, 시기하고, 악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교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하는 하나님이 종을 볼 때, 그의 혼 안에서 한 순간이 안식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시기는 오만으로 바뀌며, 오만은 언제나 악의적이 된다 (시편 10:2; 73:6; 119:69, 78, 85; 140:5; 잠언 8:13; 13:10; 28:25).

진리에 분명하게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머리 숙이는 것을 막는 것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영적 오만이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드러난 그 사악함을 갖게 되는 당혹감은 보통 아주 달콤한 자로 보이는 그들을 분노하는 박해자들로 만든다. 그들을 지옥을 끌어 내리는 것은 이런 자들의 영적 오만이였다.



---

모두가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선생의 발 아래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분은 신학 훈련도 받지 않았고 종교적 자격증도 없다. 침례자 요한은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분명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었다. 주 예수께서 부인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고 보여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스스로 입증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부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믿는 자의 침례를 경멸하였고, 믿는 자의 침례가 상징한 사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만 의가 오는 것을 고백하기를 거부하였다 (마태복음 3:15).

### 영적 부정직의 사악함

영적 무지는 언제나 영적 오만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영적 무지와 오만은 언제나 종교적 혹은 영적 부정직을 산출한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스스로의 의지를 정당화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저함 없이 그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들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런 부정직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부정직한

---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하지 않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를 물으셨을 뿐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내게 대답하라.” (29-30 절).

이 사람들은 분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즉시,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모으고,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면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내려 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1-33 절).

사실을 말하기 보다, 그들은 대놓고 분명한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들과 똑같이 행한다.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기 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혼에 사역하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스스로 정당화하려 하며, “나는 믿기를

---

원하지만, 단지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달래려 한다. — 누가 만족과 대속을 이해할 수 없겠는가? 그들은, “나는 정말 믿으려 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 스스로 타락하려 한다면, 누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주를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는 아니다.”고 말한다. 단순한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진짜 사실은 그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빛 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요한복음 3:19), 변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주신 빛으로 기꺼이 나와 살려 한다면, 그들이 이미 가진 지식 위에 기꺼이 행동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곧 알 것이며,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행보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7:17).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향하여 증오로 충만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이고 (요한일서 5:10) 그 스스로 거짓말쟁이 입을 받아들이기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다, 나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신뢰할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충분히 인지한다. 타락하고, 파멸하고, 무기력한 죄인은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불신자는 사람의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고 그의 죄이다 (잠언 1:23-33; 29:1). 요한복음 6:37-45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책망하

---

셨을 때, 그분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동시에 선포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를 직접 분명하게 책망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37-45).

그 놀랍고 교훈적인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도처에서 선포될 필요가 있는 네 가지 위대한 복음 진리를 가르치신다:

1. 아무도 그분께 올 수 없다.

- 
2. 누구도 그분께 올 수 있다.
  3. 그분께 와야 하고 오게 될 자들이 있다.
  4. 그분께 오는 모든 자는 영생을 갖는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9-13).

---

## 51 장.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마가복음 12:1-12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마가복음 12:1-12).

---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비유이다. 우리는 12 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았다.”

유대 국가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때로부터 AD70 년 그들의 멸망의 때까지, 이 열두 구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포도원과 농부 (포도원 재배자)의 상징 하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루시는 이야기, 큰 공훈과 큰 심판 안에서 다루시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훈을 받았고 체험하였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의의 응보와 심판의 바위 위에서 산산이 조각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는 등대로써 서 있도록 하나님 책 안에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 국가적 경고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어떤 해석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거나 내가 쓴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능한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따라서, 내가 쓰는 것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당신이 아주 유의하여 다음의 글을 읽을 것을 촉구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비유에 한 나라로써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있다.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나라이며, 아마도 다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게, 큰 섭리에 따른 공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는 달리 번영을 누려왔다. 우리는 호사와 자유와 안전의 환경 안에서 살아왔다. 우리 나라가 복음과 함께 역사적

---

으로 존재하였던 것보다 더 축복을 받은 나라는 절대 없었다.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통하여 선지자에 선지자를, 세대를 이어서 보내셨다. 이스라엘은 실로 독자적인 특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섭리에 따른 축복은 우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경계하도록 자극하였다. 내게는, 역사를 읽고 나 자신의 짧은 생애의 경험에서 모두 더 크고 현저하게 주께서 우리 위에 그분의 공훈을 부어주시면, 더 노골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등을 돌렸던 것 같다.

실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했으며, 그분의 말씀을 경멸하였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오용하였다 (역대하 36:16).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거리들이 피로 붉게 흐르고, 제멋대로이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자녀들로 피가 흐른다. 이 세대의 자녀와 젊은이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야만인들로 교육 받았다. 이 시대 부모들은 좀더 거치른 야수 같고 그 알을 낳아 세상이라는 모래 속에 파묻고 잊어 버리는 기어 다니는 파충류와도 같다. 자녀를 훈련하고 벌하기를 거부하고, 자녀의 성격을 선하게 형성시키기를 거절하는 부모들은 번식하는 짐승 그 이상도 아니다. 짐승들에게 사과한다!

실로, 오늘날 남녀와 청소년들이 단순히 개처럼 이 사람 저 사람과 번식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일반적인 간통이 결혼과 법과



---

질서에 철저히 무관하게 일어났다. 간음이 가벼운 것으로 비웃음 당하고 있다. 개들이 벼룩을 굶적거리는 것처럼 여자 아이들이 혼외로 아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성애가 묵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실에서 용납되고, 조장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국가들이 그들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렸고, 쾌락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저버렸고, 율법과 계명을 자유의 이름으로 저버렸을 때가 역사를 통하여 있어왔으므로, 인간 생명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값싸게 되었기 때문에 낙태가 치아를 닦는 것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원하는 대로 흡입되어 없어지는 원치 않는 지방처럼 여겨지고 있다. 당신의 아내를 강간하거나 당신을 죽이는 것보다 당신의 개를 죽인 것 때문에 더 오래 징역형을 쉽사리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땅속 속으로 우리를 쓸어버리셨다는 것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아직 파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내게 희망을 준다. 아마도 우리 위대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노 가운데 긍휼을 기억하실 것이다! 아마도 그분은 아직 우리 땅을 위하여 그분이 육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 유대 나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위대한 영적 구원을 예비하신다! 아마도!

## 더 큰 사악함

우리 도시의 노상에서, 우리 학교의 교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일들처럼 끔찍하고, 우리 땅의 사회 구조처럼 나쁜,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함에 있어, 더 나쁜 문제가 있다. 실로 이 더 나쁜 문제는 우리가 매일 다뤄야 하는 다른 문제들의

---

근원이다. 내가 언급한 문제는 이것이다: — 우리 땅의 교회들과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오래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저버렸다. 로마서의 첫 장을 읽는다면,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 하락은 영적 하락, 우상 숭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배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준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린 결과를 거뒀다고 있는 나라인 우리에게 대한 경고이며, 이 배교의 시대 안에 있는 우리들의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역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충성된 복음 전파의 사역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 안주한 특권으로 이 캄캄하고, 캄캄한 시대 안에서 지금 너무도 크게 축복 받은 자들에게 대한 경고이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우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20-21). 이 비유에 일곱 가지 중요한 공과들이 있다.

1.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포도원이다. —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에 갔더니” (1 절). 분명하게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된 이 비유의 적용들이 있다. 그러나 비유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교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르는

---

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지역 집회에 대하여 말씀한다. 모든 참복음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포도원이다.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그것은 주께 속하여 있다. 그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땅 귀퉁이 (어떤 곳)를 떼어 놓으셨다. 그분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분은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다. 그리고 지역 교회,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과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게 하는 그 곳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다.

2.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농부로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빌려주셨다 (1 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특권과 하늘 아래 더 큰 책임은 없다: —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손에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보화를 주셨으며, 그로써 흑암의 세상 안에서 복음의 빛을 내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15-16).
3. **약속된 때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의 농부에게서 열매를 바라시고 당연하게 얻을 것을 기대하신다.** —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2 절). 우리에게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소출은 매우 타당하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6 절).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 경배는 일 주일에 두 세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그분 안의 믿음과 그분의 집 내의 청지기들로서 그분께

---

대한 충성을 포함한다 (고린도전서 4:1-2; 고린도후서 4:1-7).

4. 2-8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다루고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5. 타락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와 종교 의무와 종교 활동과 종교 의식과 종교 역사와 종교 전통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복음을 철저하게 멸시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보좌와 왕국에서 끌어 내리고 그분을 죽이려 할 것이다. —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7, 12 절).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던져 버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포도원을 원한다.

---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의 세상 사역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을 행했고,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 그들은 사람들 위의 권세와 영향력을 주는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를 원했다 (요한복음 11:47-54). 그것이 디오드레베 같은 전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종들을 멸시한 이유이고, 유일한 이유이다 (요한삼서 9; 시편 2:1-12).

6.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를 멸시한다면, 그분은 그 큰 특권을 없애 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을 그것들을 우리 파멸의 바로 그 기초가 되게 하실 것이다. —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9-10 절). 현재 특권들이 미래 특권들이라는 아무런 보장은 없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멸시 받는 축대를 옮기시리라는 것을 경고하신다 (계시록 2:5). 만약 복음 전도가 당신에게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7.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 받지 않는다.** —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0-11 절).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므로 그들 자신 위에 파멸을 쌓지만,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가져가실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

주시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저지되거나 방해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찬양 받으시며 그분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3:3; 11:26, 33-36).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투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별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1-19)

---

## 52 장. “그 외식함을 아시고”—마가복음 12:13-17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가복음 12:13-17)

우리 구원자께서 시편 35:16 에서 선포하셨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본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박혀야 한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죽어야 한다.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살고, 정규 직업을 갖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



---

떻게 세상에 대하여 죽는가요?’ 한 어린 학생이 성경 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죽은 친구를 비판하고, 그를 괴롭히고, 잘못을 찾고, 뜨거운 말로 그를 칭찬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에게 허풍을 떨며 그 학생을 한 친구의 무덤가로 그를 보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물었다. ‘네가 그 친구를 비판했을 때 무슨 말을 하든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가 그를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든가?’ ‘그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귀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 칭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증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의 부는 바보들의 공상일 뿐이며, 이 세상의 명예는 거의 없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극히 높은 부르심이다. 종교 전통과 세상의 허례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일 때 끌리는 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한 때 중요하였던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하여 아는 것의 뛰어난 때문에 잃은 것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Henry Mahan)

아무도 그렇게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행했던 분으로 예로 삼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겉치레와 박해 모두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로 했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

---

다. 우리는 그분이 이 단락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을 다루는 것에서 세상에 대한 구원자의 죽으심의 분명한 예를 본다.

### 거짓말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

내가 이 단락을 읽을 때 나에게 충격을 주는 바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거짓을 말하는 입술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 이 위대한 주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종종, 대적들이 복음을 멸시하지만, 복음의 대적들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 앞에 덧을 노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잡으려 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속자에게 왔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세 가지 위대한 진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사람이시며, 우리 중보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14 절에서 그들은 말한다...

1. “당신은 참되시고.”
2.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3.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 이다.”

요한복음 11 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우리 구속자가 그분의 택정하신 자 대신에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17-21 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면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다” (요한복음 11:50-51).

---

사실상, 죽어가는 강도의 경우에 있어서 (누가복음 23:39-43),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대상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는데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는 것을 안다. 우리는 죄인들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23-25)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 받았다.”고 한다. 그런가? 아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당신에게 상기시키겠다. 나는 그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니면 이전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그의 죽어가는 구원자 옆에 달려 있을 때, 그는 누구도 전에 들었을 것처럼 분명한 복음을 듣고 보았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지는 것을 들었다 (마태복음 27:42). 그는 자기 옆에 달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했던 것을 들었다. — “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태복음 27:43). 그는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가복음 15:31)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빌라도의 증언을 들었다.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누가복음 23:38; 요한복음 19:19). 그리고 그분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풀려났던 죄인 (바라바) 대신에 대속자로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는 보았다.

---

## 연합한 상호 적들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는 다음 사실은 상호 적들인 타락한 사람들, 서로를 철저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반대하는데 연합한 것이 사실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고, 미신적 의식주의자들이며, 독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이었다. 종교는 그들의 생활이었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종교적 일들을 하기 위해 살았다. 헤롯당은 속물일 뿐이었다. 그들은 종교를 위하여 절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구더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존귀(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그분에게 반대하는 공통된 이유로 마치 혈족처럼 연합되었다. 두 종교 집단과 세속적 집단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셨고 인격화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하는 복음을 경멸하였다.

그것이 언제나 그래왔던 방법이다. 그것이 지금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언제나 있을, 말씀이 서는 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의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 거리이다(갈라디아서 5:11; 고린도전서 1:17-24).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 한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들을 경멸한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은 사람의 교만과 자기 결단의 느낌을 상하게 한다. 타락한 사람은 그의 혼의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를 필사적으로 원한

---

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은혜로우실 자들에게 은혜로운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택정에 대한 성경 교훈에 불쾌해 한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자존심에 대한 느낌과 그 자신의 상상 속의 의에 대한 사랑의 기분을 해친다. 그리스도의 제한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효험 있는 구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수원을 빚지셨고, 구원 받을 “기회”를 빚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격노케 한다. 구원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온다는 사실이 사람의 지혜에 대한 사랑을 건드린다. 복음의 분명한 선포에 직면 할 때, 서로 경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에 반대 하는 쪽으로 연합한다.

### 대담한 위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위선의 철면피 같은 뻔뻔함의 두드러진 예들로서 우리 앞에 있다. 아무도 위선자보다 더 대담하고 뻔뻔하고 또 오만한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결코 공개적으로 그 진짜 색깔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위선을 덮으려고 그는 대담하고 뻔뻔하며 외적으로 성실한 척한다. 13 절과 14 절에서 그것을 보는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꾀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

그들이 그분을 죽이기 위한 그분 자신의 교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을 때, 이 교만한 위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표를 찔러서 그분을 고소하기 위한 어떤 것을 말하도록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분을 참되고, 성실하며, 충성되고, 또 정직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이지 않고, 감동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고, 뇌물과 위협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그분을 우쭐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종교인들보다 더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보다 훨씬 그 이상이셨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었고 공개되어 있었으며, 과거나 지금이나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아셨으며 그들을 자신의 밧에 걸리게 하셨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5-17 절).

## 정치 논쟁

민간 정부의 근심과 논쟁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종들이 밧에 걸리게 하는 더 크고 더 효과적인 밧은 없다. 이것을 쓰는 때,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한 가운데 있

---

다. 뜨거운 정치적 논쟁 가운데 들끓는 다른 세상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것이 너무도 슬프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1-5).

우리 주께서는 자신이 정치적 논쟁과 세상적 투쟁의 덫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스러울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가 국가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거나, 정치 선거에서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믿는 자들은 국민들 중 가장 좋은 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선한 국민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와 그 쾌락과 그 보화와 그 생각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는 거의 염려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들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중 누구에게 있어서도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 책임이 있고 생

---

산적인 국민이 되는 것 모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의미이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은 모든 세대 안에서 가장 최선이고, 가장 책임 있고, 믿음 직 하고, 생산적인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경탄함과 믿음

이것을 또한 알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경탄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을 결코 믿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놀란다. 17 절의 마지막 문장은,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고 되어 있다. 동일한 일이 종종 오늘날 벌어진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전도자, 교회, 사람들의 집단의 체제에 인상을 받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전도자들과 교회들과 교리들과 신조들에 유착시키지만, 그리스도께는 아니다. 그들은 한 동안은 놀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려 절대 오지 않는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명을 받고 놀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구원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분이 없이, 당신은 생명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며, 소망이 없다. 왜 멸망하려 하는가? 왜 죽으려 하는가? 그리스도께 와서 영원히 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그분께 오는 것을 도우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당신이 그분께 나온다면, 친히 당신에게 오실 것과 당신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



---

## 53 장. “산 자의 하나님”—마가복음 12:18-27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세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18-27).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덮에 걸리게 하려는 사두개인들의 시도를 본다. 그날 더 일찍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

---

이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잡고자 시도하였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동일한 것을 하려 한다.

사두개인들은 가장 작았지만, 그러나 유대 종파들 가운데 훨씬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었다. 그들은 유대주의의 특권계급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과 성전을 통제하였다. 비록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일반적으로 존경 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상상하며, 부활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 종파였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나, 그들의 종교는 불충의 종교였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한 그들의 불신이었고 그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흑독한 대적들이며, 오늘날 어떤 종교 교파 중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과도 같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분의 의로운 주장과 주권적 권세를 행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고, 그들의 종교적 질서를 엮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의 하나님으로서 경배 받으셔야 함을 주장하시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모든 종교 집단들과 함께 그분에 대항하는 세력에 가세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어떻게 강력한 교리와 의식적 차이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즉시 하나님의 아들에 반대하는 것에 연합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그들은 실재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믿었다.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회들, 켈로테회들, 그리고 서기관들 모두가, 구원이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의지, 행위, 그리고 가치에

---

좌우되고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상숭배적이고 이교도적인 관념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 주 예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증스러운 대적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랑스런 형제들처럼 연합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불신자들의 폭력과 속임수가 넘치는 중상모략자들, 기독교의 휘장을 입은 아르메니아 주의자들과 행위 장사꾼에 대하여 예상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전체 종교 세계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 입장에서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을 고려해보면, 네 가지 사항이 큰 중요한 문제들로 돌출된다.

## 종교 부정

첫째,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부정의 확연한 예로써 우리 앞에 서 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불신자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확신이 아닌, 편리함의 문제이다. 철저한 경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종교는 대부분은 이들 사두개인들하고 같다.

---

이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비웃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자유 사상가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런 종교적 생각을 믿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너무 박식하며, 너무 개화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주 예수께 제시했던 질문은 그들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세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18-23 절).

사두개인들의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는 척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쓰기를”이라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척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께, 만약 일곱 형제들이 동일한 여인에게 결혼한다면,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라고 질문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순수한 염려를 갖고 있는 척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질문을 마치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그들이 정말로 대답을 알기를 관심했던 것처럼 했다. 어떤 통계학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보다 복권에 맞는 것이 훨씬 더 기회가

---

클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관심하는 유일한 것은 주께서 대답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일들을 주목하고 그것으로부터 현대 종교 불신자들이 우리를 덮으로 거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배우도록 현명해야 할 것이다. 트집 잡는 종교 불신자들이 우리와 논쟁하기를 바랄 때, 단지 그들을 무시하라. 그들에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만약 당신이 뱀에게 혀를 날름거리는 싸움 속에 말려들면, 당신은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리의 어렵고 난해한 점들로 압박을 주려 한다. 그들은 언제나 부정직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경멸받아 마땅하다.

우리 축복된 구원자께서 사람들의 분노조차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쁘다 (시편 76:10). 그분의 계획인 그것으로, 부활의 교훈을 세우시고 부활 안에서 모든 세상적 관계가 풀릴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안위를 위한 기회를 은혜롭게 잡으셨다. 부활의 몸 안에서, 불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죽을 육신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 혹은 죽을 목숨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서로 간의 애정을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22-23).

## 영적 무지

둘째, 우리 구원자께서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영적 어둠과 무지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4 절). 그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도 몰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알지 못했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성경의 내용에 알았다는 것에 대해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성경의 많은 단락들을 외워서 인용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과 사건들의 역사적 순서에 대해서 매우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의미와 뜻을 절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이해는 세속적인 논리와 종교적 전통에 대한 이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은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책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성경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24:27, 32, 44-45; 요한복음 5:39; 베드로전서 1:23-25). 영적 지식은 단순한 교리 지식, 신조 지식, 논리적 지식,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지식이 아니다. 영적 지식은 한 위격에 대한 계시된 지식이며, 그 위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부활은 교리 이상이다. 그것은 한 위격이다 (요한복음 11:25) 당신은 교리를 알지 않고 위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위격을 알지 않고 교서도 교리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부활이며 당신의 생명이다. 그분은 구속 안에서 표상적으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다 (에베소서 2:4-6).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장래의 우리 부활이고 우리 생명이다 (골로새서 3:4).

---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은혜의 복음은 교리와 역사적 사실들 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복음은 위격이다 (요한복음 14:6). 물을 필요 없이, 위격은 계시된 교리적 진리의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계시되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은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므로 온다 (요한복음 17:3). 구원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의 하나님, 나의 보증, 나의 대속자,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 하나님의 권능

영적 무지, 교리적 오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단은 우리 구원자에 의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무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세 가지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이 세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뜻하는 것들이다.

1.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철저한 무지로부터 일어나고 그것에 기인할 것이다.
2.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전능,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그분의 절대적이고, 전능한 능력에 대한 무지로부터 일어나고 그것에 기인할 것이다.
3. 영적 무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지로부터 일어나고 그것에 기인할 것이다.

---

사두개 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 모든 이단, 모든 영적 무지는 이런 것들에 기인할 것이다.

모든 거짓 종교, 모든 자유 의지, 행위 종교는 택정과 예정, 구속과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 있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에 속한 전능, 그리고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로 성취된 구속에 속한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의 주권과 계획을 부인한다. 은혜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느끼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하다.

### **부활 생명.**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5 절). --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과 부정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도처에서 그것을 선포한다 (출애굽기 3:6; 욥기 19:25-26; 시편 16:9-10; 49:15; 73:24; 호세아 6:1-2; 다니엘 12:2; 요한복음 5:29; 고린도전서 15:35-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리고 부활의 사실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 위에 새겨져 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쟁이 이다. 그는 그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서 거짓말 하고 있다.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



---

니라.” 부활 가운데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특질과 약함과 염려와 필요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여윌과 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의 불완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열납에 대한 변함없고, 충만한 지식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완전한 보증의 끊임없는 확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구속자와 함께 완전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언제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합당하고 만족한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 그분을 경배함! — 그분을 찬양함! —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축하함! — 그분의 뜻을 행함! 우리는 거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저 위의 천상의 영들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를 응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출애굽기 3 장에서 불타는 가시나무떨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모세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 쥘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6-27 절).

---

자신을 영원하고, 스스로 계시는 “나는 이다”고 선포하시면서 (출애굽기 3:14; 요한복음 8:58), 가시나무떨기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였다 (사도행전 7:30). 그분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은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이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로마서 14:9).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대표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대신에 한 언약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았다. 그들이 눈물의 이 속세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들에게 주기로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 11:13-16).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가시나무떨기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를 위한 그분의 언약의 약속과 계약은 그분의 백성과 몸과 혼의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의 파멸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몸의 부활에 좌우되며,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킨다. 그분의 피로 구속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대표하여 사망에서 일어났으며, 새로 태어남 가운데 첫 번째 부활에 참

---

여하게 되었다 (계시록 20:6).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로마서 8:21-23;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 54 장. “집은 가까우나, 길을 잃었다!”—마가복음 12:28-34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이가 없다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28-34)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주 예수께 왔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특정한 결정을 하고 주께 왔다 (13 절). 그러나 그가 사두개인들과 구원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완전히 선의로 한 것임을

---

깨달았다. 그는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았으며, 그것이 계획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질문

이 서기관은 주 예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의의 여지 없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 질문에 대하여 자주 논쟁하였다. 종교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쑥에 대하여 다투며 (디모데후서 2:14) 교리의 난해한 점들을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많이 아는 것으로 상상한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이 인정과 칭송을 위한 그들의 내적 욕망의 외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서 1:29). 독선적인 종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오직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하여” (이사야 58:4)만 그들의 종교를 실행한다.

경계하라. 영적인 것은 절대로 종교적 언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논쟁하기를 모두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세속적이 죄로 충만하다. 논쟁은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적 교만을 보여주는 논쟁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불멸의 혼의 선을 위함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도서 3:9)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증언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마가복음 5:19)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 주님의 대답

---

이 사람의 동기처럼 악하므로, 그가 그 질문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29-31 절에 있는 주 예수께서 주신 무한히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 다시 우리는 선을 위하여 악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다 (시편 76:10). 그분은 심지어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도적인 계획들을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분 자신의 찬양을 위해 사용하신다. —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사기 14:14).

이 서기관은 주께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그는 아마도 어떤 외적 의식이나, 어떤 매우 대가를 치르는 의무에 대하여 지키는 것에 대한 약간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하였던 것 같다. 대신에, 주 예수께서 삼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를 잡으셨으며 그것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고 합당한 것이었다.

먼저, 구원자께서 이 서기관 앞에 그분의 신성한 위격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삼일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지고를 제시하신다. —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29 절). 29 절과 30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서기관이 매우 잘 알고 있었을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며 (신명기 6:4-5),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임을 강조하신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것이며,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 그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

이 단순한 문장은 폭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주, 여호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분 여호와시다 (요한일서 5:7). 둘째, 그분은 특별하고 구별된 방법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만물 위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나는 왜 마가가 “율법”이라는 말을 그의 이 복음 예화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30 절에서, 신명기 6:5 를 인용하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여호와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선포하신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요한일서 3:23 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안다.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가지 계획만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만 우리를 가두고,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로서 그분을 믿도록 계획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19-25).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주어지고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6).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동역자들을 완전히 사랑하기를 요구한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 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

---

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성실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모든 성품 안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로마서 8:7),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든 성품 가운데 하늘로서 난 모든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모든 속량 받은 죄인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세우고 성취한다 (로마서 3:31; 8:1-4). 하나님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신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온전함을 드린다 (레위기 22:21). 우리 대표자, 언약의 보증인과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모든 의와 무한한 중보와 효험의 의를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면서, 사람의 충만한 날을 사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휘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 혼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범해진 공의를 만족케 하시면서, 우리 죄들의 징벌 아래 죽으



---

셨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그분이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아주 실재적이고 진실되게 그분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이 순종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였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었다. 따라서 그분은 “주 우리 의”라 불리셨으며 우리는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린다 (예레미야 23:6; 33:16). John Kent 의 말 가운데...

“예수와 선택 받은 자손 사이에  
주권적 은혜의 매임이 존재하니,  
지옥은, 그 끔찍한 행렬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도, 헛되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네  
찬양하라! 신성한 연합, 굳건하고 강하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달콤한 찬송인가,  
땅의 벌레 같은 자들이 언제나  
성육신 절대자와 하나이리!  
무덤 속 한 분, 그가 사셨을 때 한 분,  
그의 대적들에 승리하셨을 때 한 분,  
하늘 가운데 보좌를 취하셨을 때 한 분,  
천사들이 모든 지옥의 패배를 찬양하네.  
이 신성한 매임이 그들의 두려움을 금하니,  
그분의 어떠한 심과 소유 모두 그들의 것임이라;  
그분, 그들의 머리와 함께, 서거나 넘어지니,  
그들의 생명, 그들의 보증, 그들의 모든 것이라.”

아득히 저편인가, 들어 왔나 아니면 가까운가

---

1859년 10월 26일, “The Royal Charter”라고 부르는 웨일스 선박이 지구의 도처에 있는 변덕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면서 전 세계를 항행하였다. 배가 Queenstown, Ireland에 정박했을 때 곧, 한 선원이 그의 아내에게 몇 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의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그녀의 흥분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수 개월 동안 보지 못했고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기쁨과 기대로, 그녀는 급히 저녁을 준비하였고, 식탁을 준비했으며,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그녀는 흥분해서 문을 오가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한 전령이 문 앞에 나타났으며 그는 그녀에게 배가 그 모항에 접근하였을 때, Wales 해안가에 있는 Moelfre 만에서 충돌하여 산산조각 났으며, 그녀의 남편은 익사하였다고 전했다!

그녀의 목사인 William Taylor가 일어난 일을 듣고 급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슬퍼할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달려갔다. 그는 후에 말했다. “그 비통함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나의 손을 짝 움켜쥔 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녀의 목사의 손을 쥐었을 때, 이것이 그녀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다 — “집이 그리도 가까운데,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집이 그리도 가까운데,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집이 그리도 가까운데,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우나 그 안에 있지 않음을, 집 가까이지만 길을 잃었다고 하신 것이다. 그분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셨다.

---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이가 없다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vv. 32-34).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아주 가까이 가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은데,” 긍휼의 문턱에서 멸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서기관에게 하신 구원자의 말씀이 적용되는 많은 사람이 있다. —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서기관은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다. 그의 지식은 우리 주께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이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잃었다. 그는 가까이 있었지만, 왕국 안에 없었다. 경계하라.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코 진리이신 그 분을 모를 수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하나님의 왕국은 모두가 자원하여, 충성된 복종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있는 은혜로운 왕국이다. 그것은 영적 왕국이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의 영의 권세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

---

으로 통치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족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죄인들이다 (27 절; 에베소서 2:1; 계시록 20:6).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되었다 (로마서 16:25-26).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다 (에베소서 1:4-6; 요한일서 1:9).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명 안으로 인도 받고, 통치 받으며, 지배 받고, 명령 받는다 (로마서 8:9, 14).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역사로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13).

대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혼에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 잔혹한 짐승처럼, 그들은 오직 인생의 시간을 위해 살고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나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구원자께서 그보다 앞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과 사두개인들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에게 그분은 무엇을 보셨는가? 왜 그분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하셨는가? 보도록 하자.

---

주 예수께서 진실성과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그분 앞에서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서기관은 종교주의자와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었다. 그는 위선이 없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하나님의 뛰어난 것에 대한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의 삶을 정하도록 노력하였다. 바울이 언급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로마서 10:1-4).

이 사람은 율법의 영적 본성에 대한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내적 원칙과 관련하여 단순히 외적 행위와 관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며, 의식적이 아니고 영적임을 보았다. 그는 경배를 단지 의식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로마 가톨릭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음의 체험 위에 머리의 지식을 두고 있는 교리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외적 도덕성을 사랑과 친절 위에 두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많이 보았다.

주 예수께서 이 서기관 안에서 가르칠만한 영을 보셨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여기 기꺼이 배우려 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받고 인정된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종교와 그분의 생각들을 기꺼이 받으려 하였다.

이 사람은 아주 소망이 풍성한 상태에 있어 보였다. 그는 율법의 단일성과 광범위함과 영적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음을 알았다. 그만큼 알고

---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이 서기관과 같은가? 당신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종교의 등잔을 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만족하지 말라. 그들은 종교의 등잔과 함께 소멸하였다. 당신은 은혜의 기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젊은 부자 치리자처럼, 이 서기관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부족하였지만, 풍성히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부족하였다. 그는 왕국 안에 있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었다. 그런 위치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죽음이 가까우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다면, 영원한 저주가 영원히 당신의 분깃이 될 것이다. 접경지는 위험한 곳이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마침내 영원히 문이 닫히고 말 것이다 (누가복음 13:23-30).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망 없는 배교로 되돌아 가든가 (히브리서 10:25-31; 베드로후서 2:1-2, 20-22; 요한일서 2:19),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사소한 것과 굳어버린 복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접경지는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집은 너무도 가까운데, 길을 잃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왕국으로 들어 올 길을 열어 놓으셨다 (히브리서 10:19-23) —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16).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0:9). 우리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

---

어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채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들어가게 도우신다.

---

## 55 장. 성전 가르침—마가복음 12:35-44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들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2:35-44).

우리 주께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며 앉아 계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확실하



---

고 절박한 심판이 유대인에게 임할 것임에 대하여 매우 분명한 말씀으로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대적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일 것임을 보이셨다 (1-12 절). 그분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극히 화가 나서 그곳에서 그분을 죽이고자 원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주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셨으므로, 이 사람들은 머리를 모아 그분이 어떤 틀린 말을 하도록 계략에 빠뜨리려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께 나와서,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서기관이 유도하는 질문들, 교묘한 질문들, 덕육을 위한 것이 아닌, 다툼과 분열을 위하여 계획된 질문을 갖고 나섰다 (13-34 절).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그 서기관은 (28-34 절) 분명히 우리 주의 가르치심에 감동받았고 인상을 받았다. 그의 약속된 질문을 지니고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듣고 깨닫기를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셨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 장면으로부터 그 앞에 성전에서 성경의 의도에 대하여, 위선과 자기 의의 사악함과 철저한 모순과 참된 믿음의 단순함과 헌신과 축복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성경에 대한 질문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

---

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 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35-37 절).

여기에는 앞선 구절들에서 구원자의 종교적 비판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던 것들과 매우 다른 질문이 있다. 종교주의자들의 질문들은 다툼을 낳는다. 여기 사람들의 혼을 연합하는 한 질문이 있다. 종교적으로 잘난 척 하는 자들의 질문들은 언제나 천박하고 사소한 문제들이다. 여기 치명적으로 중대한 질문이 있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제기하신 질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의미와 뜻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의 이름을 입은 자들 사이의 모든 토론들이, 모든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대화들이, 모든 전도와 종교적 가르침이 시시한 것들에 대하여 덜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혼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주신 구원에 관하여 염려하는 것들이다. 이 질문을 보고 주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신약은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이다. 우리 구원자에 의해 인용된 여기 있는 단락은 시편 110:1 이다. 이것은 구세주 시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과거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으로 충만한 시편이다. 그 시편의 처음 네 구절을 보라.

---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 절). — 그것은 갈보리에서 그가 성취하실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찬양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다 (히브리서 1:1-3; 10:10-14).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2 절). —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 위에 완전한 권능을 가지셔야 하고 가지실 것임과 그가 그분의 모든 언약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선포한다 (요한복음 17:2).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3 절). — 그 말씀으로,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효험과 그분의 은혜에 속한 운행의 엄격한 공의와 거룩을 주장한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4 절). —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자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는 계시는 유일한 제사장이며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제사장이시다!

여기서 우리 주의 분명한 의도는 다윗과 모든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은 한 가지 주제가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책의 단 하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5:39; 누가복음 24:27, 44-47; 사도행전 10:43). 우

---

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모든 예표, 모든 예언, 모든 약속 그리고 모든 율법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려 의도되었다.

우리는 결코 구약 성경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것은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주로부터 두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구약 성경은 감추어진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계시된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화로 여기고, 연구하고, 믿고, 깨닫기를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이고, 중심이며, 원동력이다. 이것이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39).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스도와 관련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어떤 교리든 그 교리는 이단이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어떤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은 독선적인 율법 주의가 된다.

35 절과 36 을 보라. 여기 최상의 단순함으로 선언된 다섯 가지 심오한 사실들이 있다.

- 
1. 하나님의 책 안데 기록된 그것은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36 절).
  2.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 왕, 우리 구속자 그리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분은 다윗의 “한”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영원히 그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며, 솔로몬이 그의 유일한 예표였던 그 아이다.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깨달았다 (35 절).
  3.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비록 그가 사람이지만, 그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적 주이시다! — 다윗의 아들이 인자가 또한 다윗의 주이시다!
  4. 메시아,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보내심 받았던 그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의 전능자의 우편에서, 모든 육체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행사하시며, 그분의 선택 받고 구속 받은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윗의 보좌,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5. 그분은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그분의 발판이 될 때까지 통치 하셔야 한다!

37 절을 읽을 때,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고 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누군가에 의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열려지고, 읽혀지고,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뻐할지는 분명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오

---

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의 위격에 대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참신하겠는가!

### 독선적임에 대한 경고

38-40 절을 읽고 이것을 배워라. 이 모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독선과 위선과 종교의 겉치레보다 더 하나님께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은 없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독선과 위선과 종교의 겉치레가 과거나 지금이나 종교: 보수와 진보, 정통과 이단, 성경 대가들과 성경 조롱자들의 모든 행보에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됨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과 서기관들, 헤롯당원들과 광신자들의 공통된 죄이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경계하라”라는 말은 우리 주께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분이 그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최고로 중요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한 다섯 단락이 있다. 다섯 단락 모두에서 경고가 종교인들에 대한 것,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다.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15).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마태복음 10:16-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6-12).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1).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15).

---

마가복음 12:38-40 에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말로나 행동으로, 사람들의 칭송 (승인)을 구하며, 거룩의 겉치레를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의하도록 분명하게 우리를 경고하신다. 그분이 언급하신 것들은 사람들을 감동하도록 설계된 것들이다. 수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간증의 이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과 갈채를 끌어내려 실재로 계획되었다. 그것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을 끌도록 하는 방법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 차별적인 종교적 지위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고무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겉치레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당(장터)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우리는 탁월한 위치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든 혹 가족들이나 다른 믿는 자들과 개인적으로 모이는 가운데에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종교의 겉치레를 하는 거만한 위선자들이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1-18). 우리 구원



---

자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부의 집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그것을 표시할 수 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명예 선호와 금전 선호에 의해서 동기 받고, 지배 받게 된다. 가식과 위선과 독선과 종교의 세속적 걸치레에 당신의 육신이 끌려가는 것을 경계하라.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의해 인정 받고 진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쫓는 것을 경계하라. 만일 따라간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선과 가식과 종교적 걸치레를 피할 은혜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참 경건의 예

41-44 절을 모두 읽고 참 기독교, 참 경건에 대하여 무언가 배우도록 하라.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그리스도의 세상의 삶 가운데 있는 사건들, 이 구절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가지 보다 덜 논의되는 그분의 가르침들은 거의 없다. 우리 주께서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던 많은 사람”을 보셨다.

질문의 여지 없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럴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적게 준다.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에 어떤 것을 조금 줄 때, 그들은 많은 조건들과 이유들이 있다!

---

그분이 궤에 돈을 넣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 우리 주께서 지목하여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이 가난한 여인의 연보는 그 자체로 작고, 하찮고,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 멸시 받을 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높은 가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부자가 준 모든 것은 그들의 풍족함에서 드러졌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모두를 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저축하고 남은 것, 초과 분이고 과잉인 것일 뿐이었다. — 그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오직 그들이 가졌던 것의 일부였다. 그녀는 모두 드렸다. — 그들은 그들의 부에서 드렸다. 그녀는 그녀의 빈곤에서 드렸다. — 그들은 많이 남은 것을 드렸고 있다. 그녀는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 그녀의 매일 생계 전부를 드렸다. — 그들은 의무감에서 드렸다. 그녀는 원했기 때문에 드렸다. —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드렸다. 그녀는 주를 사랑하여서 드렸다. — 그들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려고 드렸다. 그녀는 주의 영광에 드렸다. — 그들은 그들이 필요치 않은 것을 드렸다. 그녀는 그녀가 매우 필요했던 것을 드렸다. — 그들은 남은 잔돈을 드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드렸다! John Gill 은 이렇게 썼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그녀의 생활지 모두를 넣었다. 그녀의 전 생계비, 그녀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것으로 그날 그녀의 먹을 것을 사야 했던 것이

---

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모두 드러버렸고, 목전의 공급에 대한 섭리를 신뢰하였다.”

나는 “두 렵돈”을 드리는 거짓 겸손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렵돈”을 이 축복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연보 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실로,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두 렵돈이 있다. 혼과 몸이다. 이것들은 둘 다 주의 소유다. 아! 이 두 가지 모두 드리는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라보신다. 예수께서 그 행위를 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모두 받으신다…그리고 가난한 과부처럼, 주의 연보 궤는 나의 모든 삶으로 채워질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분 자신의 소유인 것을 나는 드린다.” (Robert Hawker)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드리도록, 그가 이 여인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부요하고, 드리기를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리고, 단호히 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 것에 비례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대히 드리자. 아,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 56 장. 어떤 가난한 과부의 공과—마가복음 12:41-44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나,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사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마가복음 12:41-44).

왜 매일 일하러 가는가? 일하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의 전문직들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사회에 산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경영간부들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며,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는 개들처럼 허리를 숙이고 굽적인다. 얼마나 불쌍한가!

받을만한 사람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은 모두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때문에, 멸시하며 사람을 보아서도 지나친 찬사로 다른 사람을 절대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정직한 노동은 명예로운 노동이다. 나는 시급으로 최소의 임금을

---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주당 백만 불을 벌든지 관심 없다. 만약 당신의 노동이 정직한 노동이며, 명예로운 노동이다.

## 일에 대한 동기

내 질문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염두에 두기를 원한다: — 그 일을 왜 하는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하며, 오직 세 가지 사항, 믿는 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동기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심오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이들 세 가지 동기들 가운데 부를 얻으려 한다든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든지, 혹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소망한다. 당신은 일에 대한 성경적 동기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 그것들이 있다.

1.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31; 에베소서 6:5-6; 골로새서 3:22-24). — 우리가 매일 직장에 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구하자.
2. 우리 가족의 필요 (디모테전서 5:8). —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모든 남자의 책임이다. 그 부양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상에 이른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 모든 남자는 그 자신의 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책임이 있다.

---

3. 드림의 특권 (에베소서 4:28). —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주신 일,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족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매일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로 고귀하고 성경적인 원칙은 매일의 일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최고의 우선 순위와 동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드림에 대한 최고의 존귀와 특권을 누리도록 일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베퓌의 일을, 열린 손, 열린 마음, 관대하게 베푸는 것을 최고의 순위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종류의 베퓌에 대한 아주 많은 큰 예들이 있다 (사무엘하 24:24; 마가복음 14:3-9; 고린도후서 8 장, 9 장; 빌립보서 4:15-19). 진행하기 전에 그 단락을 주의 깊게 읽기를 촉구한다.

마가복음 12:41-44 에 기술된,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와 그것에 대한 구속자의 심판보다 더 보통 간과되었던 그리스도의 세상 삶 가운데 몇 안 되는 사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주목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던 많은 자”를 보셨다. 의문의 여지 없이,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내어야 한다. 그것은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 보통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가장 적게 낸다. 그리고 그들이 약간 어떤 것을 어딘가에 줄 때, 그들은 많은 조건들과 이유가 있다!

---

그리고, 우리 주께서 지목하였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 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에서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계시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롭고 효험있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목격자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 이 단락 안에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우리 주께서 누구에게로부터 부자의 재산이나 이 여인의 가난에 대하여 들으셨다는 암시가 없다. 하지만, 전지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각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다. 그는 각자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내는지, 왜 그것을 내며 그들의 생활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셨다.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던 분 스스로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겠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sup>7</sup>

---

<sup>7</sup> 그리스도의 신성의 사실은 그분의 역사의 확실한 효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다. 만약 그분이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5-8).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 인자는 그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째.” 그분은 단순히 그들이 낸다는 그 사실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내는 가를 보셨다. 그분은 그들이 넣는 것과 왜 그것을 넣는지를 관찰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늘 자각하여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것 너머를 보시고 왜 그것을 하는지 관찰하신다. 모든 것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서 벌거벗었고 열려 있다. 그분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가를 측량하신다.

---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실패하실 수 있거나 성취하도록 애쓰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

## 드리는자들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던지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1-42절).

가난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에서 매우 부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 전통과 의식과 활동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부유한,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할 수 없고 영원히 부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이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많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라. 삶의 부와 화려함과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칭송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아니다. 가난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슬픔은 하나님의 소외의 표시가 아니다 (시편 73).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약속도 없고, 은혜도 없으며, 공훈도 없고, 소망도 없다!

## 연보

구약 성경의 성전 경배 가운데, 율법에 따른 십일조에 더하여,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던 자들은 그들의 자원한 연보 (자유의지 공물)을 가져와서 공물 상자, 여기서 연보 궤라고 부르는 것에 넣었다. 이 공물은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지명된 제사장들에게 이 용되었고, 성전의 예배와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그것으로 제사장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록 하나님의 경배가 종교 의식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락했지만, 주님의

---

세상에서의 사역의 날 동안,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연보 궤에 약간은 돈을 넣는 것이 관습이었다. 우리가 듣기로는 부유한 많은 자들이 많이 넣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에게 우리가 주목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으로 단 두 렵돈만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렵돈은 그녀가 연보 궤에 넣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43-44 절).

이런 행동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이야기가 감동의 지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예상을 벗어난 열심으로 인한 핑계치 못할 행동이었다고 단언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불필요하고 쓸모 없는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정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녀의 연보는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녀의 두 렵돈은 물질적으로 사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쓸모 없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녀의 장래 필요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혜나 신중함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녀가 한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애들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연보에 제자들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셨다.

---

비록 그녀가 두 랩돈만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그녀의 연보를 크고 선한 것으로 언급하신다. 큰 희생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주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녀의 능력에서 최상에 이르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연보였다.

이 가난한 여인의 연보는 그 자체로는 작고, 하찮고, 심지어 사람들 보기에는 멸시받을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지극히 가치가 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자들이 낸 모든 것은 그들의 풍족함에서 드러졌다. 그것은 단지 넘치는 것이고, 초과분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고 난 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난 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저축하고 난 후 남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 가운데 한 부분, 단지 한 부분만을 드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들은 그들의 부로부터 드렸다. 그녀는 그녀의 가난함으로부터 드렸다. 그들은 드리고 많이 남았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그녀의 매일의 생계 수단 모두를 드렸다. John Gill 이 말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심지어 그녀의 생계비 모두를 넣었다. 그녀의 전 생계 수단,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날을 위해 그녀가 먹을 것을 사야 했던 것을 드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 없었지만, 모두 드렸으며, 당면한 공급을 위한 섭리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의무감에서 드렸다. 그녀는 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드렸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드렸다. 그녀는 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드렸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얻으려 드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

영광에 드렸다. 그들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드렸다. 그녀는 매우 필요했던 것을 드렸다. 그들은 남은 잔돈을 드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드렸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두 렵돈”을 드리는 걸치레 겸손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 축복된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까지 우리 “두 렵돈”을 드리지 않았다.

## 공과

우리는 고린도후서 9:7에 있는 이 이야기의 공과를 본다. —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가난한 과부가 본이 되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드림은 율법이 아닌 사랑에서 일어난다. 믿는 자들은 법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의 강제로 인함이 아니라 감사의 힘으로 드린다. 믿는 자들은 세상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 왜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듯 드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7).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한다. 믿는 자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실제로 더 축복된 것임을 깨닫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드림에 관하여 신약 성경 내에 가르침이 풍성하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모두가 이 주제로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언제 드려야

---

하는지, 혹은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약 성경 내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 없다. 십일조와 그와 같은 모든 체계들이 모두 신약 성경에는 이질적인 것들이다. 경배의 다른 모든 행위들처럼, 드림은 은혜에 속한 행동이다. 그것은 자유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 신약 성경 안에 제시된 몇 가지 분명하고 간단한 지침들이 있다.

1. 그리스도인의 드림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에 기인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8:8-9). 사랑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것은 자체로 율법이다. 그것은 모든 동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관대한 것이다.
2. 우리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8:12). 만약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자유하고 기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열납을 받는다. 주께서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연보의 양에 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뒤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
3.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비례하여 복음의 일에 드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6:2).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라 관대하게 드리도록 기대된다.
4.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드려야 한다 (“각 사람” 고린도전서 16:2; “각각” 고린도후서 9:7). 남녀, 부자와 가난한 자, 늙은이와 젊은이 —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공급을 위하여 드리기를 기대된다.
5. 우리의 드림에 있어서 자유하여야 하고 동시에 희생적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9:5-6).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고 사용하기

---

위한 것을 떼어서 주께 그것을 드릴 때까지는 정말로 어떤 것도 드린 것이 아니다.

6. 우리 연보는 반드시 자원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9:7).
7. 우리는 주께 드리듯 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6:1-5).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을 소망으로 드린다.
8. 이런 종류의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빌립보서 4:18; 히브리서 13:16).

이것이 드림의 문제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다. 첫째,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라. 주께서 당신을 번성케 한 만큼 단호히 드려라. 비밀스럽게 주께 드려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관대히 드려라. 규칙적으로 드려라. 그리고 주께 이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2). 속량 받은 죄인 각자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필요는 그 백성의 자유한 관대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주의 연보 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Robert Hawker 가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실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두 랩돈이 있다: 혼과 몸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주의 소유이다. 아,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시며,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에 모두 받으시는 은혜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6:19-20).”

---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사도행전 20:35). 정말 그렇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은혜 가운데 또한 풍성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 57 장. “재난의 시작”—마가복음 13:1-8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1-8).

우리의 일간지들은 끔찍하고, 비통하고, 슬픈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질병, 병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홍수, 태풍,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지구를 파괴한다. 이런 것들에 더하여 강도, 강간, 살인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선하시고 그분이 전적인 주권 안에서 우주를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며, 아들이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와 형제 자매를 살해하며, 학생이 그들의 급우를 죽이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온전하게 선하시고, 또 그분은 모든 때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전적인 통제를 하시는 분임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 —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이다. 그분은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든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역사이다. 그분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7)

이 비탄스럽고 비통한 세상은 죄로 충만한 세상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하며 벌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비탄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도하는 모든 고통과 비통과 고난과 비탄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고난과 비통과 비탄은,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혹하든지 간에,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엄격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그 크고 끔찍한 날의 전조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지옥에서

---

당신의 혼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할 모든 자에게 가혹하게 쏟아질 무한하고, 형언할 수 없으며, 영원한 진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단지 경고하기 위한 진노의 전조들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크게 서둘러 지옥에 가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읽은 것에 주목하라. 바울은,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11)고 말했다. 만약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전능한 공화로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즐거이 당신을 설득하실 것을 기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고, 대가 없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곧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아 죄인아,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오라,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이어진 그 샘으로 뛰어들어라.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혼을 씻어라. 영생을 붙잡아라. 자신을 은혜의 보좌에 던져버리고 공화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원히 살라! 기록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아, 그분의 권능의 날에 당신이 자진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마가복음 13 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이다.

성전의 파괴

---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4 절).

마가복음의 이 13 장은 심판으로 가득하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불과 40년 후인, AD70년에 이루어진 유대 교회 국가와 그리고 유대 나라의 민간 정부의 파괴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이 창세기 49:10에 주어진 예언에 정확히 따른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은 나가서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났을 얼마나 확고한 생각인가.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께서 떠나실 때, 그 땅에 화 있을진저, 그 집과 가족에게 화 있을진저, 그곳은 주의 은혜로운 임재가 없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자마자 곧 다음 이야기는 그곳의 파괴이다 (창세기 19:22-24).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즉각적인 파멸에서 구원 받은 것에 대하여, 나라와 성, 가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씨로부터 얼마나 많은 빛을 졌는지 누가 말할 것인가.”

---

내게 분명한 것은 이 단락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분의 적들 위에 원수를 갚으시며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오시게 될 그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나 시, 혹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 대략의 때조차 아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신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므로, 그분의 오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 큰 날에 대한 기대 속에 산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만약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알았다면, 그분이 오실 때를 알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일상의 책임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대 가운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며,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임박한 말씀이 아니지만, 단지 예언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그 단락들을 읽는다면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그 일들이 언제 있을지 그 말씀의 충만에 대한 표적이 무엇일지에 대한 제

---

자들의 질문에 거의 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장 전체를 읽는다면, 우리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셨고, 예언적인 일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현재의 위험과 책임들에 대하여 그들과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시는 이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이 장의 시작 구절에서 분명하게 본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은 건축물의 웅장한 조각들과 유대 종교의 중심과 영광을 바라 보았으며, 크게 교만하여 말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문장과 우리 주의 그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성령께서 의도하시는가?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주께서 그분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에 오실 것과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여기서 선포하셨다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을 우리가 배우길 의도하신다.

내게 분명하게 보이는 바로 첫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 단순히 모든 경건과 종교와 경배와 의식의 형식이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는 혐오스런 것이다.

유대인의 종교는 풍부한 전통과 풍부한 겉모습과 풍부한 체면과 풍부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배를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각 사람에게 인상을 주었던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것으로부터의 능력은 부인하였다. 그들은 살았던 이름은 있었으나, 그

---

들은 죽었다.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1-5).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서 1:16).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종교의 모든 모양은 하나님께는 혐오스런 것이다. 우리 혼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므로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엄격히 명령 받아야 한다 (계시록 18:4).

다음으로, 우리가 모두 지나치게 외적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옥수수 밭보다 민들레 들판에 훨씬 더 많이 흥분하는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는 웅장하고 장식이 화려한 건물, 색유리, 대리석 바닥, 종교 조각상과 성상들에 너무 많이 감동한다. 우리 감성을 더 쉽게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과 혼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우리를 매혹시킨다.

---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분의 영광의 계시, 그분의 영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은 보기 드문 중요성에 속한 것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이 좋다. 만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 종교는 공허하고, 공허함보다 더 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 종교는 쓸모 없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파멸하실 것이다.

교회의 참된 영광이 건물과 신조와 역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믿음이라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에서 배우도록 하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준비된 건물에 대하여 무관심한 어리석은 극단에 치닫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40). 만약 더이상 좋게 할 수 없다면, 회중이 농가 창고에서 혹은 나무 밑에서 모이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아름답고 풍부하게 장식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쓰러져가는 판잣집인 것에 만족하는 것은 혐오스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경배 드리기를 위하여 모이는 건물은 우리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세워졌고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 건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관리하고 여겨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에 대하여 관심하는 만큼 하나님의 집의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 세상의 속임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5-6 절).

---

이 엄숙한 경고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자주 반복된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왔었던 사람들 역사 전체를 통하여 많이 있었다. 그런 신성모독 때마다 얼마간의 바보들이 그들을 따르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많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우리 주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교묘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기서 경고하고 계신다. 그분의 경고는 그로 인하여 세상의 열방들이 속았던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다는 그 강한 망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8-12).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속고, 착각하고, 저주 받는다. 진보주의 자들과 이단들과 로마 가톨릭의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이다. 사람들의 혼이 속고 저주 받게 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관대하고 친절하고 은혜롭기를 원하지만, 멸하지



---

않는 혼들이 속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동안 관대와 친절과 은혜는 내가 침묵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올챙이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와 그분 만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은 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약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 받는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속게 된다.

성격의 그리스도는 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으로, 스스로 인간 육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분은 택정한, 언약의 백성의 보은이시다 (히브리서 7:22).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한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효험 있게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던 대속자이다 (이사야 53:10;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1:7; 히브리서 9:12).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마태복음 1:21). 그분은 우주적인 통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권자이다 (요한복음 17:2).

우리 모든 충만의 구원자로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모든 충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사야는 선포한다.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의 혼을 속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우리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동일하게 분명하다. —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갈라디아서 1:9). —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12). —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니라.” (요한이서 1:10-11).

###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

“나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7-8 절)

이제, 아직 그리스도가 없이 이 글을 읽는 누구든지 가리켜 말하겠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그분의 심판의 표시와 당신에 대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표시로 당신에게 말씀하셨는가! 몇 번이고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진노의 분명하고, 명백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몇 번이고 그분은 우리 혼을 지옥의 불로 없애 버리셨다. 당신의 죄가 어떤 불행과 어떤 고통과 어떤 비통과 어떤 파멸을 당신 위에 가져왔는지!

하지만, 당신은 귀머거리의 귀를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으로 향하게 하라! 당신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당신의 죄의식의 고통을 잠잠케 하려 애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들으려

---

하지 않고 있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얼마나 기도하는지!

당신에게 다시 경고하는데, 당신이 보는 고난과 당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기록하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약속하셨던 그 인자에 의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된다면, 당신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가운데 발견된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머리도, 어떤 혀도 당신의 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받아야 할 재난의 공포를 묘사할 수 없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11-15).

당신 앞에 생명과 사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제시하겠다. 왜 죽게 되는 것인가? 생명이 그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 때, 왜 사망을 택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그분은 구원하실 수

---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실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그분은 구원하셨다. 오소서, 아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죽음 당한 죄인 위에 호흡을 뿜으소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소서.

---

## 58 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마가복음 13:9-1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9-13).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시험과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 하시면서, 그분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여야 하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예측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에 대하여 모두 우리에게 여기서 상기시키시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정복당한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자. 우리는 많은 환란을 뚫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

## 확실한 고난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세상 고난을 끝낼 것이라는 몽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따르게 하는 확실한 많은 고난들이 있다. 기록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욥기 5:7)고 하였다. 고난, 비통, 고뇌, 그리고 고통은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신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종족의 공통된 운명이고 뭍이다. 죄가 있는 곳에 비통함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의 가시와 엉덩퀴들이다.

하지만,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고 드러나 있어야 하는 특정한 고난들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운명이고 뭍이다. 믿는 자의 삶은 큰 비통과 큰 기쁨으로 얼룩진 역사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룬 모든 예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분명히, 아무도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13:9-13에서 이것을 강조하심에는 의심할 수 없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빌립보서 1:29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사는 한,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의 신성하게 약속된 비참함과 그분의 신성하게 약속된 공활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흑암의 밤과 광명의 날을, 우리 시험과 우리 승리를, 우리 타락과 우리 회복을, 우리 비통함과 우리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다.

---

우리의 많은 문제와 고난의 실상에 대한 의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비록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하지만, 그 근원에 놀란다. 우리 주께서는 또한 우리 고통의 근원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타락한 종교인들로부터의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 (9, 11, 13 절).

결코 “통치자들과 왕들”로부터 도움이나 호의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삶의 길,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경배 드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는 지속적인 곤혹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사람들의 호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복음은 계속하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정죄를 드러낸다. 한때 그랬듯이 정치인들과 국가 공무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언젠가 도울 것이라고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역사 모두를 오해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 받고, 투옥되고, 맞고, 불태워졌던 많은 사람이 있다.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천명된 고난의 또 다른 근원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근원이며, 그것은 거의 언제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에 충성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족으로부터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 —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2 절).

---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당신이 가장 헌신한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 남편 혹은 아내가 당신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적으로 대할 때, 놀라지 말라.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인 자들이 또한 우리를 대항하는 대적이라 해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 가인은 언제나 아벨을 핍박할 것이다. 에서는 늘 야곱을 멸시할 것이다. 뱀의 씨가 언제나 여자의 씨를 핍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는 “대가를 예상해야” 한다. 우리가 큰 자유의 시대 안에 살고 있음을 안다. 육체적인 핍박은 적어도 자유 사회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공포가 아니다. 그러나 핍박은 하나님의 아들 안의 참 믿음과 충성심에 여전히 확실하게 있다. 당신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계 가운데 고난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경멸, 비방, 비웃음, 조롱, 고립, 비열한 적개심을 그들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도 당한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갈라디아서 5:11)은 그치지 않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고린도전서 2:14)는 여전히 사실이다. “육으로 난” 자들은 여전히 “그 영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로부터 나온 이 말쑥을 절대 잊거나 의심하지 말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선포만큼 실재이다. —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누가복음 21:17).



---

이것들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설 명할 수 없는 육체적 질환, 비탄, 사별과 잃어 버림, 그리고 가정 불화들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큰 고난의 다른 근원이 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우리 고난의 가장 큰 근원은 이 세 번째 근원이다. —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육체와 그 영 사이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우리 혼 안의 끊이지 않는 전쟁을 가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로마서 7:14-23; 갈라디아서 5:16-17).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하도록 질문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예시하도록 하자.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라. 이것들은 나를 크게 괴롭히는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이 당신도 역시 괴롭힐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 하늘 영광의 기대 가운데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자가 당신처럼 속안의 정욕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을 찾아 볼 수 있는가? — 당신처럼 그런 어려운 때 기도할 수 있는가? — 당신처럼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거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주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들임을 아는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만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속하여 감사 드려야 할 큰 이유를 갖고 있다 (고린도전서 15:10). 우리의 끊임 없고, 모든 효험

---

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론자이신 그분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드리자 (요한일서 2:1-2).

## 하나님의 약속

우리 축복의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는 많은 문제와 시험들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동케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고 부요한 영역의 약속을 주신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두 가지 달콤한 활력소들이 있다.

첫째, 최우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0 절을 보라. 이 고난의 목록 바로 한 가운데에 우리 구원자께서 언약의 이 복된 말씀을 끼워 넣으셨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분은 이런 것들이 그분의 택정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모두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나의 왕국의 충만과 나의 이름의 영광을 가져오게 할 방법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속한 약속된 방법은 복음의 전도이다 (로마서 1:16-17; 10:17; 고린도전서 1:18-23). 따라서 복음은 모든 열방들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마귀들, 왕국들, 제국들과 열방들이 그들이 뜻한 것을 하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방해 받을 수 없도록 하라. 그 먼지의 열룩들은, 비록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항하여 격노로 넘실거리고 불타지만, 하늘의 천

---

사들처럼 그분의 택정한 자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확실하며 그분에 의해 확실하게 사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매일 수도 없다 9 이사야 55:11; 디모데후서 2:9).

둘째, 우리 주 예수께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특별한 도움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1 절).

많은 사람이 여기서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며 강단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태도는 철저히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수고하며,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연구를 근면히 행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 충성된 사람들은 결코 강단에 준비되지 않은 채 올라서지 않는다!

11 절에 있는 우리 주의 약속은 전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핍박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 주는 여기에서 그분의 사도들의 핍박 전에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 핍작자들에게 대답할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전혀 그들에게 답변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3; 이사야 43: 1-5; 고린도후서 12:9; 로마서 16:20).

**약속된 구원**

---

환란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실, 복음을 버리지 않을 자들, 어떤 이유에서도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을 자들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베푸신다. —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 절).

인내가 개인적인 책무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자. 우리는 우리 길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소멸된 자들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데마, 디오드레베, 유다 그리고 룯의 아내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빛나는 등대처럼 성경의 지면 위에서 있다. 우리 손을 쟁기에 얹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경주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우리 십자가를 단호히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인내는 절대적 확실성의 문제이다. 우리 이름들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영존하는 구원에 예정되었다. 우리 보증,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신 소유를 얻으셨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 영광의 서약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인침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으로 지켜진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약속이 있다. — “그들은 결코 멸망치 아니할 터이다!” (요한복음 10:28). 사실상, 하나님의 책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으며 (로마서 8:30) 또 우리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축복의 대속자와 함께 살았으며 높은 곳의 왕의 우편에 자리하였음을 선포한다 (에베소서 2:6).

---

마지막까지 견디는 모든 자는 은혜의 풍성한 추수를 수확할 것이다. —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눈물 속에 씨를 심을 것이나, 기쁨으로 수확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환란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순간의 것일 뿐인 우리 가벼운 고통은 훨씬 더 초과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증오하고, 복음을 멸시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1-8; 21:1-5).

---

## 59 장. “멸망의 가증한 것”—마가복음 13:14-23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찢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14-23).

이 단락에서 우리 주께서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인 영적 대 흑암, 기만, 고난의 때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동시에 그 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절대 보증되는 안전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성경의 이 구절들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

---

음에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을 새기시기를 바란다. 본문 안에서 계  
시된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하도록 하자.

## 큰 기만의 시간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찢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할찌어다.” (14 절).

마가복음의 13 장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끔찍한 영  
적 어둠과 착각과 기만의 때와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휩  
쓸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의문의 여지 없이, 14-18 절에서  
주어진 그 경고들은 AD 70 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  
판을 특정 지어 가리키고 있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Titus 를 한  
때 거룩한 그 성에 보내셨을 때, 그곳은 마귀의 가증한 집이 되어  
버렸으며, 돼지의 피가 가장 거룩한 곳 안에서 드러졌을 때, 성전  
이 무너졌을 때, 국가 정부의 왕이 유대를 떠났을 때, 그 나라에 임  
한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분명하였다. 유대인들은 땅의 사망으로 흠어졌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확실하게 다니엘의 예언에 우리가 주목하도  
록 하신다 (다니엘 9:20-27). 그 예언에서, 비록 다니엘이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그는 또한 "너는 크게 은총을 입  
은 자라."고 한 가브리엘의 말로 확신 받았다. 다니엘은 공황을 보  
여주시고 사함을 행사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성과 선택 받은 백성을  
향한 공황을 기억하실 것을 기도해 오고 있었다.

---

24-17 절에서 다니엘은 이상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 모두에 대하여 확신을 받았다. 엄격한 공의 안에서 주 하나님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실제 나라와 예루살렘의 실제 성을 파괴하실 것을 선포하셨다. 동시에, 그분의 택정한 자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과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임을 그분의 선지자에게 확신시키셨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쥘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

홍수에 εμπ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 붙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겠느니라.”  
(Daniel 9:20-27)

70 주간과 그 기간을 망라하는 시간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나는 그것에는 아주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 약속된 것들에 흥미를 갖고 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항의 분명하고 예언적 선포가 주어져 있다. 구속과 진노, 해방과 저주, 긍휼과 공의이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역사의 심오한 선포이며, 그것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 버리셨다. 사실상, 여기서 여덟 가지 약속된 것이 있다. 그것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찬양에 따른 것이며 효험 있게 성취되었다.

1. 26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잘려지고, 살육 당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된다. —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εμπ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

2. 27 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산 자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난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에게 은혜의 영존하는 언약을 확증하실 것임을 듣는다. —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겠느니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피로하신 언약을 확증하셨다 (히브리서 13:20). 그분이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 구원자로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귀한 구속자께서 옛 언약의 제물과 봉헌을 영원히 그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1-22). 비록 이것이 가장 공개적이고 두드러진 방법으로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였을 때 돼지의 피를 제단에 부음으로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쳐졌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된 때에 언약을 확증하셨다 — “한 이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셨던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때 안에, 시간의 충만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메시야께서 많은 자와 언약을 확증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셨다. 만약 24 절을 다시 읽는다면, 우리에게 확증된 것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확증된 것들을 볼 것이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언약의 보증과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심에까지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백성의 범 죄를 끝내셨다. 범죄는 율법을 범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범한 것들을 지워버리셨다.
  4. 그분은 죄들,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들을 끝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5.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불법에 대한 화목”을 이루셨다. 불법은 실패와 편견과 표적을 잃음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가 망쳐버렸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바로잡으셨다!
  6. 따라서, 죽으심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사람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셨던 모든 자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
  7. 따라서, 그분은 구약 성서 예언의 이상을 인치셨다 (히브리서 1:1-3). 그분은 구약 성경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8. 그분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위대한 구속자는 왕 중의 왕과 주 중의 주로서 기쁨의 기쁨으로 부으셨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말했던 축복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또한 다니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신다. 다니엘서 9 장을 다 보면 (26-27 절),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머리 숙이고 신뢰할 것을 거부하는 자들 위에 임할 하나님

---

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구절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가증한 것의 확산”은, 그것으로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멸망하게 하셨으며, 그로써 그분이 그분의 진노의 홍수 가운데 그 성과 성소와 나라를 파괴하셨던 것인데, 우연이 아니었으며,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확실하게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행위만큼 끔찍하였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도덕한 시대 위에 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멸망의 가증한 것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000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오직 이 세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였다. 로마서의 첫 번째 장을 읽어 보면,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 여문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대이다. 17 절의 경고가 오늘날 배교와 자유의지와 행위 종교 시대보다 더 어울리는 것 아래 있는 시대, 세대,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없다. —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가복음 13:17).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몰시켰던 Titus 와 로마 군대로부터 그들의 생명이 두려워 도망하였던 것처럼, 당신과 나는 아르메니우스 주의와 자유의지와 행위 종교의 가증한 것에서 도망갈 만큼 지혜로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의 저주를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4; 고린도후서 6:14-18). 아무것도,

---

어떤 집도, 어떤 재산도, 어떤 옷도, 심지어 가족도 당신을 바벨론에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찢서),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14-19).

여기에 언급된 위험, 고난, 고통은 육체적인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이런 위난은 혼의 위난이다. 그것은 모두 영적인 것들이다!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19-23).

---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8-12).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넘쳐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죄인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향하게 하는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구속하지 못하는 구속자! — 구원할 수 없는 구원자! — 통치할 수 없는 왕! —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제사장!). 그들은 표적과 기사들을 가진 사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흉내내고 사칭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지막 두 가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많은 적든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말의 첫 번째 점에 상당한 시간을 일부러 들이려 하였다. 내 말의 두 번째 점은...

## 큰 책임의 문제

우리 주의 명령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안녕과 영적인 안녕을 예비하고 보호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단과 좋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혼과 당신의 가족의 혼과 당신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을

---

관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의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주셨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은, 한편으로 여전히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경멸을 보여준다. 그들의 믿음은 광신적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다. 그들은 미친듯이 날뛰지만, 믿지 않는다!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단지 입에 발린 말일 뿐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헤즈기아는, “여호와와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말했으며, 그는 또한 성벽을 쌓아 올렸고 검과 방패를 만들었다 (역대하 32:5, 8). 바울은 배 위의 아무도 그의 배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확신하게 하는 하늘로부터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만약 그들의 화물을 모두 던져버리고 배에 머물지 않는다면 멸절될 것임을 알았다 (사도행전 27:31).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면, 복음의 음성 아래로 당신 자신을 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젖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롭게 약속된 수단을 사용하라! 당신의 가족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복음의 소리 아래 두어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경배에 젖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롭게 약속된 수단을 사용하라!

## 큰 칭찬의 이유

여기 우리 주께서 직접 큰 칭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위하여 주신 이유가 있다. — 택정이다! —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0 절) — “거짓 그

---

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22 절).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택정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받으며 구원 받을 자인 “택정하신 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택정하신 자” 가운데 계수된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유의지와 행위종교라 불리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속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택정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4).



---

## 60 장. 주께서 오신다!—마가복음 13:24-31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24-31).

역자학자들은 초대 성도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로 서로 인사하곤 했고 그리고 “주께서 오십니다”고 말하며 헤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꾸준히 격려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성취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광의 확실성을 서로에게 일깨웠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의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 가운데 그분의 모든 택정하신 자를 하늘 영광으로 변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시키셨다. 그것이 마가복음

---

13:24-31의 주제이다. 물을 필요 없이,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를 파멸하기 위하여 심판 가운데 우리 주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것에 한정될 수도 없고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구원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 단락을 읽을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우리 마음을 언제나 휘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축복된 기대 안에 있는 믿음의 발끝 위에서 언제나 살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 그리스도의 오심의 영광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4-26 절).

히브리서 9장에서 (24-28 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시려 한번 나타나셨던 것을 듣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성취하시려 했던 것을 효험 있게 수행하셨다. 우리 큰 옹호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중보 하시면서 이제 나타나신다 (요한일서 2:1-2).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께서 약속된 때에,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큰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

여기 마가복음 13 장에서 그분의 재림을 우리 주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비밀스러운 일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시,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강립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으라).” (데살로니가후서 1:7-10).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7).

우리 주께서 해가 어둡으로 변하고, 달이 빛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말은 크고, 우주적인 격동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의 기상 파괴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

여기서 사용된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것과 상당히 같은 말이다. —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

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10).

## 사건의 순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은 우주의 큰 화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재림에 있어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 일초라도 그것들을 변론하려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있어서 그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조심스럽게 비교하면서 이 순서를 만들었다. 사건의 순서가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체 일이 성취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다.
- 그분은 땅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그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들려 올라갈 것이다.
- 그분은 현재의 창조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대적들을 파괴하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땅에 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 이런 것들이 있을 후 —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치욕 가운데, 아기로, 가난한 여인에게 낳았으며,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고, 주목 받지 않았고, 존경 받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채 첫 번째 오셨다.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그분을 둘러싼 하늘 군대 전체와 함께,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의해 보이고, 알아보고, 알게 되고, 인정 받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 번째 오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 당하고,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품으시고, 저주가 되시고, 멸시 받으시며, 거절 당하시고, 불의하게 정죄 받고 죽임 당하려 처음 오셨다. 그분은 통치자로서 우주의 전능한 군주로서,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모든 반역을 끝내며,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소유권을 취하며,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대적들을 파멸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 의해 영원히 칭송 받기 위하여 두 번째 오고 계신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묵상할 만큼 지혜로워야 될 것이다. 이 사실들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위안으로 충만하다. 우리 위대한 왕,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여기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곧 십자가를 왕관으로 바꾸게 될 것이

---

다. 우리는 영존하는 존귀와 기쁨과 환희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사실들은 끔찍하게 할 것이다. 실로, 누구든 감히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들의 혼이 끔찍하게 될 것으로 안다.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하는 그리스도께서 곧 그들을 거룩한 심판대 앞에 부르실 것이다. 그 하나님-사람, 그의 복음을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은 분이 곧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 날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만큼 그대로 주의 손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무엇이 지옥인가?

###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모으심

27 절에서 우리 주께서 일의 첫 번째 순서와 그분의 위대한 재림의 최우선 계획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모으심일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배운다. —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분의 왕국 안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를 모으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로 보내졌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종말에 선택 받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피조 된 그 하늘의 영들이 땅에서 그들을 골라내어 그들, 그들 전부, 심지어 그들의 살과 뼈까지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모으기 위하여 보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사로

---

를 천사가 데리고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 하늘의 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서 모으는 것은 주의 당의 심판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주께서 그분의 오심의 불 같이 밝은 빛으로 세상을 없애 버리실 때, 우리의 안전은 보살피 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가 해를 받지 않게 될 때까지 땅을 멸하는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롯이 소알로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소돔에 불과 유향은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땅에서 취하실 때까지 땅에 있는 그분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으시는 큰 날이 오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는 우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최소한의 두려움이나 공포심 없이 그 큰 날을 기대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얼마나 놀라운 모임이 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가족의 은혜로운 모임, 의로운 모임, 사랑의 모임, 그리고 영원한 모임이 될 것이다!

###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 (28-30 절).

---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질책하셨는데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6:3). 그들은 왕위가 유다를 지나가 버릴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가 성취되었던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눈이 머는 것을 경계하라. 그것은 영적 무감각과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 기인한 무분별이었다.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는 깊고, 비밀스러우며, 숨겨진 것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언급된 것,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 언급된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가깝다.

다니엘이 언급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아르메니우스,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계시(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이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세상의 열방을 속이기 위한 사단의 풀려 남이다 (계시록 20:1-8).

무화과나무 비유의 공과는 바로 이것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를 결코 추측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때를 계산하려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어둠과 사악함과 배역과 우상숭배가 증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모든 믿는 자가 믿음의 발끝으로 걸으려 한다.

높아지는 불충, 가톨릭과 이슬람과 유대교와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늘어가면서, 이 배교의 시대의 전세계적인 의지 숭배, 무법 상태, 무정부 상태, 권위의 모욕, 성 문란의 용인 (간음, 간통, 동성애), 그리고 악한 선과 선한 악의 보편적인 요구는, 빛나는 등



---

대와 우리 귀의 나팔들이 되어야 한다. — “이것이 종말이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종말이 가깝다. 주께서 오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 수록,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 구속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옷을 희고 흠이 없게 세상과 구별해야 한다 (계시록 16:15). 아마게돈이 여기 있다. 큰 음녀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 주께서 오신다!

###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31 절에서 우리 주께서 회의론과 불신을 향하는 우리의 경향을 예상하신 것 같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여 경고하신다.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신뢰성을 주도록 스스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예언의 어떤 말씀도 일어날 수 없다거나, 단순히 본성에 모순되거나, 체험이나, 우리 판단에 모순되기 때문이 아닌 것 같다고 감히 절대 상상하지 말자.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상상하는 오만한 바보들 가운데서 결코 발견되지 않게 하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3-4),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조롱 꾸들과 우리 자신이 타협하는 것을 절대로 보게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계신다. — 기뻐하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찢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 61 장. 아무도 모르나니—마가복음 13:31-37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31-37).

곧 당신과 나는 심판 가운데 삼중의 성령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할 것이다. 곧 우리는 우리를 이 변화하고, 일시적인 시간과 감각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 속으로 데리고 갈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곧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아모스처럼, 나는 당신에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촉구한다 (아모스 4:12). 바울이 그가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그는, “내가 이제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

---

곧 우리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언제인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13 장에서 그분의 강론을 결론지으시며 계속적이고, 긴급한 절박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의 깊을 것을 요청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모든 구속 받은 혼은 언제나 그의 주의 돌아오심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하지만, Robert Hawker 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찾으며, 바라고, 앞당기는 실제 상태에 두고…이것이 얼마나 복된 특권이며, 주 예수께 그분의 오실 때 그렇게 발견 되기를 빌라 (베드로후서 3:12).”

## 약속

우리 구원자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창조와 그분의 현재의 창조와 연결된 모든 것들, 저주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 죄로 영향을 받고 오염된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다.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은 곧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로 타버릴 것이다 (마가복음 13:24-25; 베드로후서 3:10-14; 고린도후서 4:18).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산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구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모두 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쁨은 영원하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안에서의 우리 상태는 이 시간에 속한

---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우리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그의 의로 옷 입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리스도로 신뢰한다면,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당신은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로서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은 영원히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정결치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정결치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반역자라면, 당신은 영원히 반역자가 될 것이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뵈러 나갈 때 저주 받고 정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증오 받을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죄인의 대속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이다.

“피로 충만한 샘이 있으니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솟아나네;  
    또 죄인들이 그 핏물 아래 잠겼으니  
그들의 모든 죄의 얼룩들이 없어지네.  
    죽어가는 강도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그의 날의 그 샘이라;

---

또 거기서 나는, 것처럼 불결했으나,  
나의 모든 죄들이 씻겨졌네.  
믿음으로 그 흐름을 본 후에  
그리스도의 피 흐르는 상처가 공급하네,  
구속의 사랑이 나의 주제가 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그러할 것이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절대적이며, 확실하며, 바뀔 수 없다. 그 선포는 하나님의 기록된 감동의 말씀, 성경에 적용되며, 성경에 계시된 계명과 교훈과 은혜와 약속과 심판에 적용된다 (이사야 40:8; 46:9-11; 55:11; 시편 119:89). 전지하고, 거룩하며, 완전하고, 전능하며, 변함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네와 아니요가 아니라, 언제나 예이고 아멘이다.

## 문제

32 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선포를 하신다. —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문제가 있다: — 만약 성경이 그분의 어떠하심과 삼일성의 교훈이 요구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역설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에서 동등하며, 아버지와 그 영과 하나라면, 만약 그분이 그분 앞에서 어둠이 빛이 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아시며 전지한 하나님이지

---

라면, — 어떻게 그분이 그분의 재림의 날과 시에 대하여 무지하실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때 간단하면서 분명하다. 사실상, 상상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바 — 하나님이고 사람 — 이시며,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던 것처럼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처럼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자로서 우리 구원자는 전능하거나 전재하셨던 것보다 더이상 전지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배고프셨을 때, 배고프셨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분이 갈증을 느끼셨을 때, 갈증을 느끼셨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사복음서에서 그분은 때때로 그분 자신을 인자로서 언급하며 (여기에서처럼),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언급하시는 것은 그분은 충만이 둘 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무도 그분께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11)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자로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요한복음 11:34)고 물으셨다.

동일한 일이 마가복음 13:32 에서도 사실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그분의 재림의 정확한 시점을 아셨고 언제나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인자로서,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모두 알지 않으셨다. 우리 구속자이신 그분은 한 분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이 분명하다.

---

## 아무도 없다

예언 광신의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여기서의 말씀은 강조되고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의 말씀은 명약관화 하다 (사도행전 1:4-11).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거나, 혹은 심지어 아무런 암시도 받은 것이 없다. 그 사건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때는 모른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원자 자신의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의 역력한 증거를 받았다. — 만약 완전하고, 거룩한 인자 그리스도 예수, 다른 누구와도 달리 하나님의 책을 알았던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면, 만약 그가 그분의 나타나심의 날과 시를 계산할 수 없다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오실 때를 모른다. 우리는 너무도 이 사실을 뻔히 모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임을 발견한다.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고 말했다 (사무엘상 20:3).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고 모두 말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이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다. —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순간과 방법을 정하셨다. 우리 수가 올라갈 때,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 가지자마자, 우리는 심판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

시간의 종말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나는 안다. 총체적인 부활에 이어서, 총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28-29;; 계시록 20:11-15).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끝내자마자 곧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임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5:10-11; 히브리서 9:27). — “네가 요단의 창일한 주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12:5).

## 비유

34-35 절에서 우리 주께서 예화를 제시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종들로서 우리 현재의 위치와 책임을 설명하신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비유에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집이다. 그분만이 그분의 집의 주인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이 교회, 그분의 집을 그분의 종들의 보살핌과 권위와 지배 아래 두셨다. 그분의 종들은 그분에 의해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집을 통치할 가치를 두셨다 (사도행전 20:28; 히브리서 13:7; 베드로전서 5:1-3;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주 예수께서 특정한 일을 행하도록 그분 자신의 소유 각자에게 지명하셨다. — “각각 그분의 사무를 맡기셨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

집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갑자기, 경고 없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집의 선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집 안에서 행하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축복된 기대 가운데 살자.

## 문지기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소유 각각에 문지기를 지명하셨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3, 35-37 절).

우리 자신의 혼을 언제나 주의하라. 그리스도께 새롭게 하는 성별로 당신 자신을 언제나 깨어 있게 하라.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이 내 직분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옛날 옛적의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언가 하고 있어라. 그것으로 마귀가 바쁜 당신을 언제나 보게 될 것이다.” John Calvin의 건강이 그를 약하게 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좀더 쉬고 덜 일하여 건강을 보존하도록 촉구하였을 때, 그는 대답했다 — “당신은 나의 주께서 계으른 나를 보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직무 가운데 잠든 채 발견되지 않고, 깨어 있고,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로 발견되도록 하자.

---

---

## 62 장. 신뢰의 하나님과 따를 본—마가복음 14:1-9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1-9)

이 장에서 마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받으셨던 것들을 기술하려 시작한다. 이 지점까지,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선지자이신 우리 구원

---

자에 대하여 말해 왔다. 이제, 그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영광의 주를 묘사하기 시작한다. 마가는 우리 주의 기적들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이제, 그는 그분의 대속자의 희생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 우리 구원자 하나님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과 사람들의 신들 사이의 엄격한 대조를 제시한다 (이사야 45, 46, 47). 사람들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며, 이 종교 시대의 신들은 하루살이가 천사를 닮은 것보다 더 성경의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 종교의 신들은 일을하기를 원하고, 일을하기를 갈망하며, 일을하기를 시도하지만, 마귀의 행위들과 사람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제외한 어떤 것이든하기를 원하시며, 하기를 갈망하시고, 하기를 애쓰신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길이 있으시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며, 절대적으로 신뢰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4 장의 처음 두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능한 권능의 아주 분명한 예를 본다. 그분은 모든 것 위의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복되신 분으로 그분의 길이 있으시다. 여기서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설계를 실망케 하시고, 예정 하심 가운데 그분 자신의 은혜에 속한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의지와 결정들을 지배하시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본다.

---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우리 주의 대적들은 그분의 죽으심이 공개적인 현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되풀이 해서, 그들은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고, 그분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 하였으며,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분을 죽이려 하였다.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라. —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분의 지혜롭고 숭배할 만한 섭리 가운데, 그분은 간단히 그들의 획책을 뒤엎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의를 물리치셨고 그분 자신의 계획을 행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들리셔야 하며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셔야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죄인들의 공의와 의롭게 하는 자 모두 되시는 것은 그분의 귀한 아들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없었다. 그분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사람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자께서 “성경대로” 죽으셔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갈보리에서 그분의 죄 속량의 죽으심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49 절) 라고 종종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

다른 말로 해서, 주 예수께서 은 삼십으로 그분 자신이 가까운 친구에 의해 배신 당해야 하며, 유대인들의 주장에 이방인들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며, 그분의 몸의 뼈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지만 그분의 심장은 찢려야 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 가운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치욕 가운데 조롱 당하고, 맞고, 침뱉고, 벗겨져야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누가 그분의 옷을 취할 지를 두고 제비뽑기를 해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분의 뜻은 확고히 서 있었다. 그분의 계획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압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분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끝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의 수립과 건축을 위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도구였다. 그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들은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여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우리 주를 죽임으로써 침묵하도록 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분의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사용하셨다.

## 주권과 책무

---

성경 안에서 계시된 이 두 가지 사항을 깨달으라: (1.)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적 통제 가운데 계시다 (시편 76:10); 그리고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모든 무의미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마태복음 12:36).

비록 우리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실 필요가 있었지만, 또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에 정하셨던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보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힘 가운데 더이상 관여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22-23; 4:27-28), 행위 그 자체와 그것이 행해지는데 내포된 적의는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이 장의 시작 구절들은 타락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 주면서 이 사실에 대한 끔찍한 표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확고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였던 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였던 반면, 하나님의 아들을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잡으려 하였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 전체 우주에 대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통제 가운데 계신 분을,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언제나 그 뜻이 행사되며, 그 계획이 확고히 서며,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않으면, 모두 철저하게 의미가 없다!

여기 우리 믿음의 근거와 우리 위로의 기초가 있다. 우리는 비탄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이리 저리 튕겨지며,



---

많은 것들로 인하여 혼돈스럽고 당혹스럽게 된다.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식하도록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모든 것이 우리 선을 위하여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의해 질서 잡혀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전능한 팔로 안배되어 있다.

저 멀리 갈보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헛되이 상상하는 그런 의지 경배자들을 비웃어라! 우리는 종종 전도자들과 다른 자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이 의지를 방해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말한다. 이 단락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죽음에 처해진 것이 이 사람들의 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신론 자를 위하여 정해진 때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뜻하였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원했던 때, 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혹은 그들이 원했던 곳에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정확히 그들의 마음의 적의대로 그분의 아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분의 백성의 구속 가운데 은혜에 속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로 충만한 적의를 사용하셨다 (사도행전 13:28-30).

당신이 신뢰하는 신이 당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땅과 지옥의 결합된 모든 힘으로 조종되고, 방해받고, 혹은 심지어 영향을 받는다면, 당신이 신뢰하는 신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며, 당신은 우상숭배자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경꾼이나 심지어 경쟁자조차도 아니다.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구원은 그분을 아는

---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 안에서 계시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 따라야 할 본

3-9 절에서 우리는 따라야 할 본을 제시 받았다. 여기에, 마가는 신성한 감동으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주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것은 사복음서 이야기에 기록된 사건이다 (마태복음 26, 마가복음 14, 누가복음 7, 요한복음 12). 성경끼리 비교할 때, 이 여인이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이고, 그녀가 주 예수께서 그로부터 일곱 귀신을 내 쫓으셨던 막달라 마리아로서 종종 언급되었던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마리아는 예외적인 여자였다. 겸손하며 주체넘지 않으며, 아주 작다고 그녀는 말했다. 사실상, 내가 정할 수 있는 한, 마리아가 했던 말로 성경 안에 기록된 유일한 한 문장이 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32 에서 보인다. 하지만, 마리아가 큰 지혜와 헌신과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를 우리에게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본으로서 네 곳은 다른 경우에서 제시하고 있다.

1.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으면서 주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본다 (누가복음 10:39).
2. 주의 발 아래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녀를 본다 (요한복음 11:32). 부서지는 마음의 여인은 위로 받기

---

위하여 그녀의 남편의 품에 달려들었을 것처럼, 마리아는 주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녀가 가장 슬플 때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았다.

3. 부활의 이른 아침에 주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 있던 마리아를 본다 (마태복음 28:1-9). 그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자였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 여인은 부활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4. 여기 마가복음 14 장에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고 주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붓는 마리아를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본다. (마가복음 14:3-9).

이 귀한 여인에 대한 이 그림은 아마도 사복음서에서 가장 교훈적일 것이다. 우리 주께서 직접,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포하신다. 참으로, 이 여인은 따라야 할 뛰어난 본으로 우리 앞에 있다.

이 선한 일, 마리아가 행했던 일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서도 가장 당연하게 기대될 것이다. 당신과 나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녀가 행했던 이 일은 오직 그녀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즉각적인 응답일 뿐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당연한 섬김이었다 (로마서 12:1-2).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받았다.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계시하셨고 그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

그분은 그녀를 선택하셨으며 은혜롭게 그녀가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셨다.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를 사로 잡았던 마귀는 그녀에게서 쫓겨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보좌를 그녀의 마음 속에 세우셨다. 그녀의 죄들은 많았지만 모두 용서 받았다. 주께서 은혜롭게 그녀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마리아만 주 예수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알았고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과 함께 마리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며 그녀의 주께 기쁨 붓기 위하여 시몬의 집에 왔다.

### 그들이 수군거렸다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적인 열심이 그것을 보았던 자들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vv. 3-5).

마리아는 그녀가 들었던 비판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어떤 겸손하지만,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주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녀의 선행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교회 출납관인 유다에 의해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 (요한복음 12:4-6). 모든

---

제자들이 유다의 사악한 주장을 따랐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마리아의 낭비였음에 분개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6:8).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면, 당신이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려 한다면, 단지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단지 압도적인 감사의 깊은 느낌에서라면, 세상이나,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심지어 참 믿는 자들로부터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라. 사실인즉, 가장 열심히, 자기 희생의 헌신으로 주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종종 그들의 본을 훔내 내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은 반쪽짜리 마음의 종교를 드러내고 정죄한다. 그 행위는 마음이 차갑고 무관심한 자들의 분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 대한 진짜 성별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비판 받고 정죄 받았지만, 주 예수께서 마리아와 그녀의 행위 모두를 인정하셨으며, 높이 평가하셨으며, 천거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

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vv. 6-9).

주 예수께서 마리아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므로,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른 누구에게라도 말했을 것에 분명하였던 것 같다. 그녀는 그것을 단지 그분을 위하여 했다. 그들은 정말 상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주께 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의 유익과 그분의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어떤 것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인정, 그들의 불인정들은 내게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윗이 그의 이복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사무엘상 17:29)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한복음 2:5; 갈라디아서 1:16).

## 좋은 일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보여 주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이 여인은 우리 앞에 따라야 할 귀한 본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우리 주께서 그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행해야 할 본으로서 제시하신다. 여기 이 사랑스런 여인이 행했던 것에 대하여 그로써 그녀의 일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실로 좋은 일임을 보여주는 일곱 가지 사항이 있다.

- 
1.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만을 위하여 행해진 일이었다. —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받아들여 졌으며, 소비되었다. 그녀는 그분을 소중히 하였다. 이 향유는 그분 외에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고, 그녀의 행동의 결과에 개의치 않았으며, 그녀가 잃을 것이나 얻을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2.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였다. — 이것이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누가복음 7:36-52). 이 여인이 행하게 동기를 주었던 한 가지 사항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다 (요한일서 4:19; 고린도후서 5:14). 우리 마음과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지배 받으며, 그것은 잘 통치 받는다.
  3. 이것은 상당한 대가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 마가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향유가 거의 일 년치 임금 (300 데나리온 - 마태복음 20:9-13 과 비교)의 가치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 이 큰 희생은 사려깊고, 일부러 준비한 결과였다. — 이것은 언젠가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이 풍성하고 값비싼 향유를 적당한 기회에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해두고 있었다 (요한복음 12:2).
  5. 이 여인의 희생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능한 한 그녀 자신에게 거의 주목하지 않게 꺼냈다. 그녀는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과 하려고 계획하

---

있던 것, 하고 있던 것, 혹은 했던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6. 이것은 그녀의 주의 희생에 대하여 믿는 마음의 응답이었다. — 이 여인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을 성취하셔야 하는 그 때를 분명하게 깨달은 주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 그녀는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 부었지만, 그분의 부활에 대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사야 53:10-12). 향유로 바르는 최우선의 목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이 사건에서 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주어지게 될 존귀의 축복된 미리 맛봄을 본다. 그 크고 영광스러운 날에 그리스도께 행해진 어떤 존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웅변가의 연설, 투사의 주먹,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의 행위, 운동 선수의 우승컵, 사람들에게 의해 낳은 시와 문학과 예술, 그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일, 그리스도 안에서 물 한 컵을 주는 것조차도 이름이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처럼 우리 구속자와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고린도전서 6:19-20; 10:31; 로마서 12:1-2; 고린도전서 15:58).



---

## 63 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좋은 일—마가복음 14:3-9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3-9)

이 구절들 안에서 마가는, 신성한 영감으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주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것은 사복음서 모두 안에 기록된 사건이다 (마태복음 26, 마가복음 14, 누가복음 7, 요한복음 12). 유다와 주의 제자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사악한 행위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을, 왜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녀와 그녀

---

의 일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만을 보기 원한다. 이것은 이 사랑스러운 여인과 그녀가 했던 것에 대한 주의 설명이었다. —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6, 8, 9 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공과들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기를 구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 성취된 성경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 절).

주 예수께 행해진 이 행위는 유례없는 존경과 존귀의 행위였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큰 겸손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하게, 그것은 아가서에 대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다 (1:12) —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모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설 때마다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로운 감송유(나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풍요하고 향기로운 감송유를 담은 신성한 상자와 같다. 이 사랑스런 여인이 그녀의 감송유 상자를 깨어 열었던 것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여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

---

식의 달콤한 향기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질 때 하나님의 집 안에 퍼진다.

속량 받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적으로, 그분 안의 믿음으로, 그분이 아주 풍성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를 드리면서 기름 붓도록 하자. 당신의 주권적인 왕이신 그분께 충성의 입맞춤으로 기름 부어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신 그분께 회개의 입맞춤으로 기름 부어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이신 그분께 애정의 입맞춤으로 기름 부어라.

### 용서 받은 죄인

이 일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를 읽을 때, 누가가 마가는 생략할 것으로 감동 받았던 몇 가지 자세한 것들 적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데 도움을 준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 7:36-39)

이 여인이 다음 장에서 언급되었으며, 그에게서 주께서 일곱 귀신을 내 쫓으셨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비록 가장 보수적이고 진보적

---

인 신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이 여인에 의해 기름부음 받은 우리 주의 네 가지 이야기 모두 동일한 사건이며, 동일한 여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그 장면을 그려보도록 해보라.

여기 한때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한 악명높은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 주 예수께서 그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히셨으며, 그분이 그녀의 대속자로서 곧 죽으실 것이며 다시 사실 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 그녀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서 있다.

그녀가 그분 뒤에 그분의 발 곁에 섰을 때, 그녀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누구였는지를 기억했다. 그녀는 그분이 누구시며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그분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아팠다. 그녀는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여인의 머리는 그녀의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11:15). 그녀는 구원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영광을 풀었으며, 그분의 발을 그녀의 영광이었던 것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의 발에 입맞추었으며, 끊임 없이 입맞추었다. 구원자께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라 하셨다 (누가복음 7:45). 그리고 그녀는 그분께 기름 부었다. 그녀는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향유가 그분의 수염을 타고, 그분의 몸을 타고, 그분의 발까지 내려갔다.

---

## 단순한 믿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 절).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에 하나님을 택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다. 사람의 말에 입각한 그런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선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사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단지 믿었고, 뉘우치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 붓기 위하여 왔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느낌인가? 당신의 체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요한일서 5:7-12).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나는 Martin Luther 와 전적으로 동의한다…

“느낌이 오고 느낌이 간다,  
그리고 느낌이 속인다.  
나의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른 것은 믿을 가치가 전무하네!”

다윗과 함께, 나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19:81, 114, 49, 130:5). 우리의 느낌은 소망의 근거

---

가 아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 안에 있다. 만약 내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는다면, 나는 어떤 본문이나,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 원천이고 근거로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받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았던 것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9). —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16). 우리가 우리 소망의 근거로서 “만군이 여호와와가 말하노니”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좋은 느낌은 속일 것이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책에 기초하여, 일어나며, 근거하여야 한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하나님의 책은 믿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주려 특별하게 기록되었다 (요한일서 5:1-3).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의 위격과 역사이다 (로마서 8:34-35;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위에 건축하는 기초이다. —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1).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다” (데살로니가전서 1:3). —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애가 3:24). —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 언약의 보증, 우리 축복의 죄속량의 구속자, 우리 의, 우리 변호자 그리고 하늘의 대체사장 안에 있다. —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

---

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책안에 계시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선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느껴지는 것임을 보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언급한다 (로마서 12:12). 우리는 로마서 5:5 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는 말씀을 본다.

### 보이는 섬김

마리아는 주 예수를 존귀히 여기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분이 그녀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셨으며, 그녀가 얼마나 그분께 빛을 졌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깨닫기 원했다. 그러나 얼마나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여자였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함이 그녀가 전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목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현대적이고 수다스럽고 추악하게 오만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녀의 합당한 처소에 의해 거절되기 보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였다. 그녀는 그녀의 주를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다. 그

---

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였다. 우리 주께서 8 절에서 그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라. — “저가 힘을 다하여 했느니라.”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행하는 사람은 복되다! 마리아는 그녀가 행할 기회를 잡은 것을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주신 능력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행해져야 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녀가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것을 결코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10).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마리아가 주 예수를 위하여 했던 이 큰 일, 그녀의 일을 좋은 일로 만드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몇 가지 것들을 보여 주겠다.



- 
1.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녀가 할 것을 했다. — 그 모든 향유, 그 모든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값비싼 나드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의미가 있었다!
  2.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였다. — 사랑은 결코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어떤 손실, 그 손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이것은 상당한 희생과 자기부인이 요구되는 일이다. — 삼백 데나리온은 일 년치 임금이었다 (마태복음 20:9-13).
  4. 비록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다 할 지라도, 이 희생과 기름부음은 사려깊고, 의도적인 준비가 요구되었다. —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마리아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이 값진 향유를 특별히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2:7).
  5. 마리아는 그녀에게 어떤 주목도 요구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 — Spurgeon 은, “사랑의 조용한 행동은 예수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고 있다. 당신 앞에서 나팔 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가버리실 것이다.”
  6. 이것은 마리아의 구원자이고, 주이시고, 구속자이신 분의 희생에 대한 그녀의 마음의 응답이었다. — 그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었으며 (요한복음 3:14-16) 그녀의 혼의 속량의 대가는 그분의 생명의 보배로운 피였음을 깨달았다!
  7. 이 큰 희생은 믿음의 행위였다. — 그녀는 주 예수께서 그녀의 대속자로서 죽으려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 나실 것을 믿었다. 따라서, 그녀는 그분의 부활의 기대로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부었다 (이사야 53:10-12).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값진 나드의 작은 상자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쁘고 자원하는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그녀는 구원자에게 그 모든 것을 부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면,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한다 (로마서 12:1-2). 많이 용서 받은 자들은 많이 사랑한다.

### 유혜 없는 명성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9 절).

마리아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그녀의 향유는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수고는 헛되게 소비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받았다.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사무엘상 2:30).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

## 64 장. “마련되고 예비된”—마가복음 14:10-16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마가복음 14:10-16).

마가복음 14 장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앞섰던 그 확고한 저녁에 이르렀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 기록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이 되시기를 구하고, 이 구절들에 있는 공과들을 우리 마음에 전능하신 은혜의 손으로 새기시기를 그분께 구하며, 크게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오랜 영원 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주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적이고 죄 속량의 죽음을 정하셨

---

다. 하나님은 그 확실한 성취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죽음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들을 위하여 속죄가 되시고, 그분의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죄들을 없애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공의와 의롭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참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신다. 만족은 오직 그분의 귀한 아들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록된 것처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4-5).

주 예수께서 완전한 의 가운데 33년 동안 우리 대표자로서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행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삶 가운데 순종 만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다.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우리 빛은 반드시 갚아야 했다. 우리 죄들은 신성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벌 받아야 했다. 따라서, “기약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6).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왔다. 따라서,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거룩한 경배의 이 계명을 위한 준비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감동의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공과들은 무엇인가?

**거짓 믿음**

---

첫째, 유다가 우리 앞에 거짓 믿음의 두드러진 예로서 보이고 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다 같은 자들이 많으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다.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0-11 절).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하며, 많은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종교 가운데 행하며, 그 믿음은 단지 거짓 믿음이고 사탄의 착각이다. 가룟 유다보다 이 사실의 더 크고, 더 두드러진 예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J. C. Ryle 이 바로 보았다. “만약 이제까지 한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였던 자가 있었고, 천국에 갈만큼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유다였다.” — 유다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서 사도가 될 것으로 선택 받았다. 그는 삼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가까운 동행자였다. 그는 주 예수의 땅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전능한 역사들과 기적들에 대한 목격자였다. 유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삼 년 동안 함께한 동역자였다. 그는 주 예수의 입으로 복음을 개인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정통하였던 것만큼 교리적으로 정통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유다는 다른 모든 사도들에 의해 높이 여겨졌으며, 매우 높이 여겨져서 그는 교회 출납관이 되었으며, 아주 높이 여겨져서 주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

26:21)이라고 말씀하실 때 조차도,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다는 변절자였으며, 늘 마귀의 자녀였다. 그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의 입맞춤으로 배신하였다!

만약 마가의 이야기를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 13:27 에서 들은 것과 비교한다면, 마리아의 구원자의 머리에 그녀의 향유를 붓는 그녀의 행동이 유다 안에 그의 비열한 행위를 행하도록 그를 움직였던 그 동기가 된 격분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 그분의 선택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배역의 악의를 일으키는지 (사도행전 7:54). 유다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주께서 마리아의 좋은 행동에 대하여 천거하신 후에 즉시 갔을 것이다. 기억하라, 대체사장들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 중이었다 (1 절). 일단 유다가 그의 가증한 거래를 대체사장들과 하였고, 그의 악마 같은 계획을 덮으려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저녁 식사에 그들과 함께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는 한 때 구원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타락하였는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는 영원히 구원 받는다 (전도서 3:14). 그분은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영생을 주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28).

유다는 밀 가운데 심겨진 가라지였으며, 주의 양 떼 가운데 염소였고, 양의 옷을 입은 늑대였다. 그는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

구원의 옷은 입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받았으나, 그리스도는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교는 갖고 있었으나, 구속은 없었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였으나, 유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돈을 사랑함”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다. 탐심이 그의 파멸이었다. 발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게하시를 문둥병자로 만들었던 동일한 야비한 탐심이 유다를 철저한 배교와 지옥으로 보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는 도적이라”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12:6). 유다는 디모데전서 6:10 에 하나의 뚜렷한 사실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부족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라. 큰 지식, 큰 은사, 큰 체험, 큰 특권, 외적으로 거룩한 생활, 교회 등록, 기도 가운데 능력, 전도와 간증 들은,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모두 쓸모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고, 의롭게 되어야 하며, 변화 받아야 한다.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15). 탐심은 암처럼 먹는 죄이다. 그것은 모든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마음을 모질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에 탐닉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게 될 사악함에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유다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다는 죄인, 아담의 타락한 자녀였으며, 그의 의지로 사단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듯하였다. 누가 타락의 심각함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체험하였던 모든 자는 그분의 보배롭고, 대가 없으며, 특징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요한복음 13:18; 고린도전서 4:7).

##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둘째, 우리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많은 표시의 또 다른 것을 우리 앞에 갖고 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2-16 절).

그분의 땅 위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다. 성경은 도처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단언한다. 사실상,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다. 우리 구원자시고 구속자이신 그분은 또한 우



---

리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오직 한 분이 죄를 없애 버릴 수 있다.

흔히, 이 사람,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가능한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신성의 속성을 보이셨으며, 그로써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손으로 만지는 것, 혹은 그 마음의 뜻으로써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가 몇 개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너무나 완전하게 아무도 더 먹기를 원하지 않았고 열두 바구니의 남은 조각을 남게 할 수 있었겠는가? 모든 것을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분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분을 위한 큰 방이 있는 어떤 특정한 집으로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알았을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시는 분이다!

## 예배의 준비

셋째, 우리 앞에 하나님의 경배가 예비와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의 예가 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다. 거기에서 성밖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방을 준비하여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이었다.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부의 과시 같은 어떤 것도 회피하였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르렀을 때, 어떤 평범한 장소도 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예비되고, 잘 준

---

비된 장소를 마을에서 찾도록 미리 제자들을 보내셨다. 옛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련되고 예비된”이란 말은 그 방은 아름답게 꾸며지고 양탄자가 깔렸다는 의미라고 제시하였다. 일단 제자들이 이 큰 다락 방, 아름답게 꾸며지고 양탄자가 깔린 방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은 명령을 받았다 —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15 절). Robert Hawker 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였다고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는 그들이 이 절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샀을 것으로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율법이 명한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먹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오기 전에, 그것을 잡으려고 성전 뜰로 가지고 와야 했고, 거기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면서 제단에서 기름을 태웠다. 그리고 내가 또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 전체를 구운 것과 쓴 풀과, 빵과 포도주가 모두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저녁에 열두 제자들과 와서 앉기 전에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2 장 전체를 보라. 신명기 16:1-8.”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통탄스럽게도 무시되는 어떤 것의 생생한 그림이 있다. — 경배를 위해 준비하라! 얼마나 공예배의 진지함을 사소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에 대하여 사소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많이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져야 했으므로, 만약 **하나님을 경배하려 한다면, 그분이 예배를 세우신 곳에 와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

---

니,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분을 진리 가운데 경배해야 함을 안다.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배를 세우신 곳에서 그분의 말씀의 사역이 없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세속적임과 불손과 경망을 몹시 싫어 하신다. 우리는 **예비함 없이 그분께 경배드릴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서 5:1-2; 야고보서 1:19-21). 우리가 공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올 때, 그분의 거룩한 존재의 모든 탁월과 미와 영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의 존경심을 드림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 경배 드리기를 준비하고 오도록 하자.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몸을 준비하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찌면 약간의 주말의 즐기는 것을 자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피곤하거나 졸린 채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는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마음의 준비함 없이 하나님의 집에 서둘러 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같지 않다. 그렇지는 않지만 더 자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잠들 때까지 쉬지 못하여 지쳐서 오만 가지로 인하여 방황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더 나은 것을 받으셔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공예배의 좌석에 신속히 와야 한다.** 사람들은 예배에 늦는 것으로 인하여 수 천의 변명을 하지만, 이 동일한 사람들은 정시에 매일 일하러 가며, 그들의 자녀를 옷 입히고, 먹이고 정시에 학교에 보내며, 의사를 만나는 약속에 정시에 간다. 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늦게 오는가? - 그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크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경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정확하게 오도록 안배 할 것이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이나, 어떤 고위직 인사와의 약속에 늦겠는가? 그런 약속에 지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당혹스러울 것이며 당신의 고위직 초청자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감히 우리가 하늘의 왕을 덜 존경스럽게 여길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경배 드리러 와야 한다.** 우리는 영 안에서 경배 드리기 위하여 주께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찬송으로 노래해야 한다. 우리는 경배 가운데 회중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들이 그 영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한 자를 위하여, 그가 능력 안에서 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로써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배 드리고, 순종할 수 있다.

---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한다. 우리가 올 때 우리는 경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세상의 염려를 우리 생각에서 버리고 겸손과 경이와 정중과 존경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야 한다. 어떤 종류의 방해나 산만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찬송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기원되고 있는 동안, 들락 날락 하며, 잡담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장난치게 하거나, 우는 아기로 하나님의 경배가 방해 받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 말라기 1 장을 읽고 이것을 깨달으라: —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찌꺼기로 경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시간, 우리 정중, 우리 소유 중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 만약 우리가 덜 가지고 오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 기대할 필요가 없다.

###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

넷째,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자. 그 사실은 고린도전서 5:7 에 선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아름답게 예시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그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요행이나, 운 좋은 시점의 문제, 혹은 예측 불허의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행한 것처럼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 가운데 예정하셨으며 섭리 가운데 그것을 안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참 유월절이며,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단지 예표요, 그림이요, 예언이었던 분임을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 되었다. 실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경배의 모든 율법과 의식과 제물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며, 경배의 길과 방법과 혹은 근거로써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폐지되었다.

유월절은, 포로 상태가 시작되기 오래 전에 미리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만들어진, 포로 상태와 어둠과 가혹으로부터 구원의 기억이었다. 유월절은 무고한 어린 양의 생명의 피와 가혹한 죽음으로 인한 특별하고 각별한 구속의 암시였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에 적용된 피 뿌림의 암시였다.

출애굽기 12:23 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는 말씀을 본다. 내가 참고하는 대부분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파괴자가 고센 땅을 지나갔었기 때문에,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그 집을 그냥 지나쳤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넘으시고”라는 말은 다른 의미이다. 그것은 “뛰다, 혹은 뛰어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피가 집에 발라졌을 때, 주 하나님 그분 자신,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파괴자로부터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집의 문을 뛰어 넘으셨다!

---

놀라운 그림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을 붙잡도록 하라. —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문을 넘어가셨으며 당신과 파괴자 사이에 서 계신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몸소 먹은 자들을 제외하고, 유월절 밤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을 몸소 신뢰하는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53-58).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임 당했던 모든 자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발려진 피가 있었고, 어린 양의 살을 직접 먹었으며, 하나님의 전능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팔을 뻗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의 매우 분명하고 정확한 그림이다. 그것은 삼중의 구속이다. — 하나님의 계획에 의

---

한 구속, — 하나님의 사심에 의한 구속, 그리고 —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구속이다.



---

## 65 장.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공과—마가복음 14:17-25

“저물때, 그 열 둘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 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하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17-25).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의 제자들과 드신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마가의 감동 받은 이야기를 본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마지막 식사가 어떠했을까 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어떤 엄숙함과 어떤 근심과 어떤

---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지! 어떤 사랑이, 어떤 은혜가, 어떤 동정이 구원자께서 하신 때 번의 말씀마다 와 행동에서 흘러내렸을지! 어떤 마귀의 위선이, 어떤 차가운 냉담함이, 어떤 영적 냉담함이 배신자를 사로잡고 있었을지! 성경의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존경을 요구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부분에서 계시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 직면한 질문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탁에 함께 앉았을 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을 배반할 것임을 알리셨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물었다. “내니이까?” (17-20 절).

“저물때, 그 열 둘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 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모든 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들은 후, “주여, 내니이까?...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이다 (마태복음 26:21-25).

유다는 복음서들을 통하여 집사로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경고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유다는 그 마음이 위선적이었던 만큼 냉담하였고, 죄로 충만할 만큼 냉혹하였고, 비열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종교가 그에게 그의 사악함에 대한 은폐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의 불모의

---

뻔뻔함이 그를 이전의 그보다 더 배가된 지옥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지옥의 사람이 그를 지켜보았던 모든 자에게 매우 경건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기로 그가 동의한 후 조차, 그는 성실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유다는 그가 진실한 믿는 자, 구원자에게 진실로 헌신하는 자였음을 모든 제자들에게 확신시켰다. 아무도 그에 대하여 약간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유다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마 유다 조차도 자신이 순수하다고 확신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사람, 지옥의 자녀, 파멸의 아들이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마태복음 26:25).

배신자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다. 그는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기로 약속한 대제사장들과 만나고 금방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 중 하나인체 하고, 하나님의 참경배자인 척하며 식탁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리하였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다. 위선이 어떤 마음의 완고함을 낳게 되는지!

마태는 우리에게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내니이까?”라고 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유다는 그분을 “주(Lord)”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랍비여, 내니이까?”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랍비(Master)”라고 불렀다. “랍비(Master)”라는 말은 더 존경스러운 호칭인 “주(Lord)”가 전달해 주지 않는 친밀감과 애정을 내포하는 호칭이다. 단순히 성실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한편,

---

유다가 “주”보다 “랍비”라는 말을 택했던 것은 그가 팔기로 작정 하였던 분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행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정직하게 시험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시험과 확신의 문제들이 다뤄져야 할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교만한 확신도 아니고 아주 무서운 두려움도 아님을 안다. 확신은 하나님과 세속적인 친밀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노예근성의 공포심도 아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이른바 “한 번 구원 받으면 언제나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세속적 보증과 “내가 택정하신 자 가운데 하나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면,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라는 맹목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숙명론 사이 어딘가에 자리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 방면 위에서 양다리를 걸친다. 한 쪽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덜 절망한다. 그러나 다른 편에는 수도 없는 경고가 있고, 덜 뻔뻔스럽다. 한 편에서 우리는 은혜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변함 없는 은혜로 확신을 받는다. 다른 한 편에서 우리는 배교에 배교를 보며, 우리가 구원받으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견디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야 하고 우리의 부름과 택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5; 베드로후서 1:2-11).

### 해결된 논쟁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하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

---

면 제게 좋을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1 절; 마태복음 26:24; 누가복음 22:22). — 질문이 종종 있다. “유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성경은 주 예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을 분명하게 예언하였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는 그가 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그런 논리가 우리 보잘것 없는 머리에 알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전적으로 틀렸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주권적이시고 그분이 뜻하신 것을 언제나 그대로 하신다 (이사야 14:26-27; 46:9-10; 에베소서 1:11); (2.)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결코 방해 받지 않는 한편, 오직 하나님이 계획은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마귀에게 억지로 쫓아버리고, 강제로 몰아내고, 부추기며, 피어내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13-18). 질책과 심판은 공의와 신성한 응보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제시된다. 구원, 은혜,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사로써 제시된다 (로마서 6:2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말씀에 따라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1-3). 그분은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 전체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그림에 따라 죽으셨다. 그리고 구속 가운데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방

---

법들 가운데 하나는 유다의 의도적인 주 예수에 대한 배반이었다 (사도행전 2:23).

## 구속의 그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2-24 절).

주 예수께서 떡과 잔을 신성하게 하는 의미로,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의 본질을 바꾸면서 축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혹은 음식을 축복하는 방법으로 떡과 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와 동일하게 축복하셨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주 예수에 의해서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그분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영적 공과를 전달하려고 일부러 의도되었다. 평강과 용서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 몸을 드림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온다.

무교병은 우리 구속자의 거룩한 인성, 그분의 몸을 대표하며, 우리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예비되었다 (히브리서 10:1-5). 그것은 죄가 없는 육신이었으며, 그 안에는 우리 주의 순종으로 세워진 의가 있었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육신이다.

---

포도주 잔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였다 (히브리서 9:22). 그것은 새 언약의 피이며, 그로써 은혜의 언약의 모든 축복들이 죄인들에게 흘러가는 피이다 (히브리서 9:11-16; 13: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하게 가치 있고, 효험 있으며, 죄 속량의 보배로운 피이다. 언약의 모든 축복들이 그분의 피 안에 제시되었고 인침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이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자를 위하여 흘러졌음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 피는 지옥 가운데 영원히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흘러지지 않았다. 그 피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 그분이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로 실질적으로 구속 받은 자들을 위하여 흘러졌다. Joseph Irons 이 200년 전에 이 주제로 펜을 들었던 말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착각을 서술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일반적인 착각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 그러나 결국 누구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히 불확실한 채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시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단순히 한 구원자였던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하여, 그분의 직무의 특징 (선지자, 제사장, 왕, 메시아, 구속자, 중보자, 언약의 머리, 보증, 주), 그리고 결과적인 언약의 약속들은 그분의 모든 교회의 구원을 절대적인 확실성의 문제로 만든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를 직접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림이다 (요한복음 6:51-58). 하나님의 아

---

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는 영원히 산다. 기록된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 지켜야 할 계명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25 절).

유월절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뤄진 주의 만찬의 설립은, Robert Hawker 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것을 세움, 안에서 하나의 파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추측하게 되어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신성한 감동으로 쓰면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주의 만찬의 축복된 계명을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11:23-29).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성찬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위에 부어진 은혜를 축복하는 성찬식이다. Justin Martyr 는, “주의 만찬은 모든 감사의 표시를 망라하는 음식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마다, 각각의 믿는 자는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의 몸을 분별하고,”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성육신 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깨



---

달아야 한다.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구하며” (유다서 21), 겸손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도록 하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 구원자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

## 66 장. 큰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자—마가복음 14:26-31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찌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 14:26-31).

John Newton 이 나이 들었을 때 한번은, “나는 이제 늙은이고. 그렸던 것조차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두 가지 큰 일을 기억한다. 내가 큰 죄인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고 말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동의 여섯 구절들에서 큰 죄인들의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직접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로서의 위대함이 이 세 가지 것들 안에 여기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가 구원한 백성, 그가 고난 당했던 심판, 그리고 그의 사랑의 인내.

**그가 구원한 백성**

---

우리 복된 구원자는 정확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아셨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내 죄는 종종 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분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나를 언제 택하실지, 나를 구원하기 오래 전에 내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변덕스러운 죄인일지 아셨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가 계속하여 필요할 것을 아셨다. 당신이 이상하게 여길 경우를 대비하여, 당신에 대하여서도 그분은 똑같이 아신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예시된 이것을 본다.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약함과 죄들과 결함들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교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상했다. 그들 중 아무도 정말로 그들이 그런 악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30 절).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가련한 제자들이 될지 우리 구원자께서 아신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들, 나아가 그분의 사도들로 선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제자들이 될지를 그분이 아신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게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록 우리가 결코 그분을 택하지 않을 것과 반대로 그분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비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

---

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잘 해보아야 혼합된 사랑일 것임을 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제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악행을 할 것인지 미리 아셨지만, 그분의 친밀한 친구와 동행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관대하고, 은혜롭고, 자애로운 구원자와 함께, 당신과 나는 서로에게 관대하고, 자애롭고, 은혜로워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약함이 있고 많은 부패가 있다해서 그가 은혜가 없다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절대 결론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죄로 충만하고, 타락하였고 타락하는 피조물들이다. 우리 유일한 소망은 은혜이다. 우리 유일한 구원은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측은히 여겨야 한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4:32-5:1). —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은 그분이 구원하신 백성 안에서 보여져야 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6-31).

## 그가 고난 받았던 형벌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 복된 구원자의 위대함이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고난 받았던 형벌에서 나타난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7 절). 그 말씀은 하심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스가랴 13:7 을 인용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셨으며, 나무 위에서 그 자신의 육신 안에 우리 죄들을 품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무한한 모든 충만을 자원하여 고난 받으셨다. 이 구절을 한 행, 한 행 보자.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목자이다. 이것은 우리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양의 목자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받았고, 지명되었으며, 부름받았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사람을 “나의 목

---

자”라 부르신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양 떼의 죄를 그 위에 두신 한 분이다. 그리고 그는 양 떼에 대하여 책임과 책무가 있는 한 분이다.

그 말씀, “칼아, 깨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폭력적인 죽음과 신성한 공의의 번쩍이는 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그 칼은 그분을 향하여 뽑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뽑은 것이다. 그 칼은, 전능한 진노에 대한 여호와와 분노의 손에 뽑혔으며, 임마누엘의 심장 속에 영원히 꽂힐 때까지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

공의의 칼이 여기서 “깨어라”고 부름 받는데, 그것이 잠들어 있고, 아주 오랫동안 잠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에 의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만족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원히 복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언약을 하시며, 앞장서서 우리 보증이 되신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있었다. 언약이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맞아 넘어지고 우리 대속자로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처음 주어진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 우리 구속자이신 그분은 사람이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 대속자이고 구원인 분은 여호와와 짝이 되어야 한다 — 성육신 하나님!

“목자를 치라!” —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공의의 검에게 그분의 아들을 쳐서 죽이도록 하셨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

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망에 넘겨졌으며 죽임 당했다.

다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양이 흠어지려니와”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적용하셨던 것은 스가랴의 예언의 일부이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런, 양의 떼가 흠어지리라 하였느니라…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31, 56).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흠어지려니와” — 나는 그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무도 감사하다. 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다른 것,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말씀하신다! —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 “작은 자들”은 흠어진 양 떼들이고, 방황하고, 흠어진 양 떼이고, 그리스도를 버렸던 그분의 제자들이다. 하지만, 스가랴에 있는 본문은 분명하게 그 양 떼만을 언급한 것 이상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모든 주의 양 떼의 확실한 구원을 말한다. 스가랴의 예언은 목자가 대신하여 갈보리에서 맞았던 그 모든 양 떼가 구원 받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흠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

---

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지 이는 멸절하고 삼분지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스가랴 13:7-9).

은혜로운 걱정하심에 따라 남은 자 (여기서 세상의 삼분의 일이라 불리는 것),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와 공의의 손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말씀하신다.

### 그분의 사랑의 인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인내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을 본다. 시간의 모든 세대와 우리 반역과 사악함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인내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그분의 잘못되고,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백성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운 그분의 인내에 대하여 명료하게 일깨우고자 한다.

이 안에 우리 혼을 위하여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주 예수께서 그들의 잘못과 실패와 죄들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아신다. —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4). 아내를 취하여, 영원히 그녀를 데리고, 후에 그녀에게서



---

어떤 잘못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결코 버릴 꿈도 꾸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 택하셨다.

그렇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셨다! 그분은 긍휼이 충만하고 동정심이 많은 대제사장이다. 불법과 범죄와 죄를 지나가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잠언 25:2).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것으로든, 혹은 어느 때고 우리를 버리시게 될 수 없다!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고 하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변함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 큰 강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강도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종종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28 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다.

그분은 더이상 분명하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모두 그들의 머리를 지나쳐 버린 것 같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씀을 그 마음 속에 두지 않았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씀을

---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이 배신 당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분을 버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거의 절망에 빠졌다. 그분이 사망에서 사셨을 때, 또 확실한 증인들에 의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그 말을 속히 믿지 않았다.

오직 영원 가운데 우리는 우리 불신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강도짓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불신은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을 도적질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평강과 기쁨과 만족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서 훔쳐간다. 광야에 있는 하갈의 우물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눈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창세기 21:19).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염려와 어떤 눈물과 어떤 불안과 어떤 슬픔을 피할 수 있는지!

## 큰 죄인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찌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29-31 절).

우리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인들인가! 우리 모두 속에 손상되어야 하는 엄청난 정도의 교만이 있고, 파괴되어야 할 커다란 부분의 자기 확신이 있으며, 죽임 당해야 할 소름끼칠 정도의 양의 독선이 있다.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없었

---

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 논쟁하였다. 그가 주를 저버릴 것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크게 마음 상했고 모욕을 받았다.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오만함 속에 혼자만 있지 않았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동일한 강한 생각 속에 있었다. —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진실을 진했다. 그는 진실로 그의 주와 함께 기꺼이 죽으려 하였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신 속에 아직 있는 큰 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드러나야 했고 처리되어야 했다. 단 열두 시간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저버렸다. 그들의 담대하고 교만한 주장들은 잊혀졌다. 그들의 충정의 약속들은 쏠려 나갔다. 그들의 상상 속의 힘은 무기력해졌다. 그들의 큰 믿음이 쇠퇴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조차, 우리는 선하심과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배적인 손길을 본다. 베드로가 여중 앞에서 떨지 않고 여기서 그의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오순절에 했던 것처럼 매우 담대하게 전도하거나 혹은 사도행전 4 장에서 했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결코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 우리 형제들이 주 예수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계시된 것처럼 그분의 타락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분의 절대적인 불변 가운데 계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충성을 결코 알 수 없었다.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고, 의롭게 되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

그런 큰 죄인들이어서,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탁월한 성도들이 뛰어들지 않을 죄는 없다.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솔로몬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조언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26).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2-13).

구원이 행위가 없이 은혜로만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드려야 할 얼마나 큰 이유인가!

---

## 67 장. 겿세마네—마가복음 14:32-42

“저희가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대로 이 때가 자기에 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4:32-42).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분이 좋아하는 기도처인 겿세마네 동산으로 온다. “겿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 짜는

---

틀”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어둡고, 어두운 밤에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하여 얼마나 합당한 장소였는가. 여기서, 영광의 주께서 혼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무겁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실 것을 예상하면서 그분의 혼을 부서지게 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분의 육신의 땀구멍이 피땀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단락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에 대응되는 것을 철저한 무지와 무능력에 대한 큰 느낌이 없이 결코 읽지 않는다. 어떻게 죄로 충만한 육신의 죽을 사람이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셨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주 불가능하다. 이 단락의 의미를 어떤 정도에서든 설명하려 하는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불충분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이 부분은 가장 지혜로운 충성되고 거룩한 자라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그들이 처한 것처럼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분명한 그런 것들에 당신의 주목을 향하게 할 것이다.

## 비통한 이유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 말쑹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대로 이 때가 자기에 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

---

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시오” (32-36 절).

무엇이 이 큰 무게와 비통함의 이유였던가? 우리 주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그분을 그다지도 크게 혼란스럽게 하였나? 분명히, 그것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아니었다.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셨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에 대한 예상이었다. 바로 그분의 혼을 부서지게 했던 무겁고도 무거운 짐은 죄와 죄의식의 엄청난 짐, 이제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죄와 죄의식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큰 비통함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예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J. C. Ryle 은 이렇게 썼다. “그것은 그 때 그분에게 특별하게 지워진 우리의 죄와 범죄의 형언 할 수 없는 무게의 느낌이였다.” 죄를 알지 않았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하였다!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듯이 지를 보시는 유일한 분께서 죄가 되려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죄가 되시려 하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려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서 죄가 되고 버려지려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히 놀라셨으며,” 그분께 오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들의 광경에, 그분 위에 질게 물려오는 진노의 검은 폭풍이 불 때, 그를 향해 휘둘렀던 공의 칼

---

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치는 복수의 번개처럼 그에게 향했던 그분 자신의 의로운 율법의 저주에 크게 섬뚱하셨고 놀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원자께서 “심히 슬퍼하기” 시작하셨다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자의 그 마음과 혼을 으스러뜨렸던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시려 한 바로 그것이었다. —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견디셔야 했던 그 예상된 일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이신 분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대신에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확대하셨으며,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들의 완전하고 영존하는 용서를 사셨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 가실 수 있게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믿는 자의 의와 의롭게 하는 분이 되셨다. 기록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잠언 16:6; 로마서 3:19-28; 에베소서 1:7)라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했고 완전히 만족시켰으므로,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 앞에서 고소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로마서 8:1-4, 31-39). 모든 믿는 자들이 언제나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이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당신에게 정죄의 가능성은 없다. 어떤 죄도 당신의 혐의로 둘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

겻세마네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 죄와 죄의식에 대한 엄청난 짐이었고 (이사야 53:4-6), 고우리를 영원히 지옥에서 부서지게 할 죄와 죄의식의 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 위에 결코 씌워질 수 없는 짐이다!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물 같으며, 경멸스러운 것인가! 어떤 것도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죄의 넘치는 사악함을 보여줄 것이 없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서 죄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진노와 가차없는 공의의 모든 불꽃을 퍼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저버리셨고, 인정 사정 없이 그분을 죽이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신다면, 그분은 영원히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하실 것이다!

### 구원자의 기도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 회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자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4-36 절).

---

그분의 큰 고민과 비탄과 비통한 때에, 우리 주께서 기도 가운데 계신 것을 발견한다. 그분이 우리 앞에 놀라운 예를 주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돌이켜야 할 첫 번째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냇두리의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실 것이다. 그분 우리 고난을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해결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혼을 위하여 좋은 일이다. 그곳에서,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그분의 은혜의 모든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13).

그러나 겿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견디셔야 했던 혼에 대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씀하실 때, 결코 무의미한 호기심을 즐기지 말자. 아직,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견디셨던 혼의 이 고통은 사복음서 이야기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와 마가는 모두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께서 세 번 동일한 말로 이 기도를 토해내셨다. 누가는 그분의 피땀과 그분께 수종을 들려 온 천사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더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

---

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39-42).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41-44).

한편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의 기도에 대하여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그분의 기도의 의미에 대한 귀뜸을 우리에게 준다. 요한복음 12 장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겟세마네에서 배신 당하기 몇새 전에 비슷한 위치와 체험 가운데 계신 것을 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 복음 12:23-33).

여기에서 우리는 혼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구원자를 본다. 그분의 고통은 그분의 갈보리에서 죽음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변함없이 고정하셨다. 그분은 분명히 마음 속에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두고 계시는 한편,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하여 묻고 계시지 않았다. 유다에 의해 배신 당하고, 체포되고,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시려고, 그분은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10:1-10).

---

만약 주 예수께서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우리 대신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곳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무엇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셨나?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지옥의 맹공격 아래 계셨다. 사탄은 구속 안에 있는 그분의 아버지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를 막으려고 그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탄은 여자의 씨가 그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구원자께서, 죄가 되실 것이라는 예상으로 당혹스러웠지만, 혼의 고통스러운 이 상태에서 그가 그의 일을 마치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 그분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하셨다. 히브리서 5:7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분의 치욕에 있어서 다른 사건은 없다.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한 분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하나님 이시며 사람이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별개의의본성, 신성과 인성은 복음서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분의 유혹과 고난과 죽으심을 다루는 그 단락 안에서 분명하다. 여기 겻세마네에서 우리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고통의 큰 시험에서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종과 단념은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단념하는 것이다.

---

우리 주께서 구출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시간”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던 시간이 아니라, 동산에서 있던 시간이었다. 그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잔”은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아니었다. 그 잔을 여호와와 종은 명확한 계획과 결심으로 받으셨다. 그를 지나치기를 원했던 잔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동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 그리스도의 본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운 본을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셨는지. —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6 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1-24).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신앙심과 신성함이다. 그들이 그들의 상상 속의 신앙심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허풍을 떨고 자랑하게 하라. 모든 것에 있어

---

서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굽히는 것이 신앙심이다: — 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으며 받아들이는 것, —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갈망하는 것, — 하나님이 뜻하신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 만일 그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통을 바라는 것, — 도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진흙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저항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신앙심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프게 우리를 가져가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예정하심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뜻과 섭리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뜻에 순종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라. 구약이 엘리처럼,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상 3:18) 고 말하기를 가르치시기 원한다. 성경 안에서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함 가운데 행보하라.

## 무서운 무관심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7-40 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장 최선인 자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죄로 충만한 피조물인가! 우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나태한 무관심 속에서 이 사실의 고통스런 예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예시가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자고 있으며, 우리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무시하며, 우리가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매우 속히 놓아버린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난 모든 자가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반대이고 다투는 본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본다 (로마서 7:14-23; 갈라디아서 5:17; 시편 73). 영은 준비되고 자원하고, 실로 그렇지만, 육신은 죄로 충만하고 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적대적인 대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군인들로서, 그 안에 적대적인 배신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전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육신에 대항하여 매일 전쟁을 한다. 우리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

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4-24).

## 자고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4:41-42).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굳건한 결심에 대하여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이 말씀, “그만이다.”는 마가에 의해서만 연관되어 있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 구속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그가 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말씀 “그만이다”는 완전히 깊은 빛에 대한 생각을 가져온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잠자는 제자들을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로와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다 이루어졌다. 일이 완료되었다. 나의 순종의 일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 “때가 왔도다.” 그분의 죽으심의 약속된 시, 구속의 약속된 시각이 왔다. — “일어나라, 함께 가자.”

---

축복의 구원자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도록 주신 일을 끝내야 한다. 나는 너희 대신 죽기 위하여 저 곳으로 가야 한다.”

아무것도 우리 구원자께서 갈보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던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 죽으심이 성취하시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무것도 그분을 갈보리에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셨던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분 안에서 언제나 우리 안식을 찾고 취하자 (마태복음 11:28-30).

---

## 68 장. 배신—마가복음 14:43-52

“말씀하실 때에, 곧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체 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체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43-52).

겻세마네의 고통은 끝났다. 우리 주께서 그곳에서 어둠의 왕의 공격으로부터 받았던 유혹들은 끝났다. 42 절에서 주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들이 자던 것을 깨우시며 부르셨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서두르셨으며, 배신자와 그를 따르는 한 무리의 군병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거룩한 열

---

심으로 앞으로 가셨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일의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자원한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결코 실패하지 말자 (시편 40:6-8; 요한복음 10:16-18).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분은 이전에 유다에게 식탁에서, 네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식탁에 있던 누구도 예수께서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하여 알지 않았다 (요한복음 13:27-28).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급하심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것이 야기하게 될 비통함을 아셨음에도, 하지만, 그분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하여, 치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렇다.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의 때와 시를 부르셨다. 그리고 배신자가 무리를 떠나자마자 곧, 예수께서 그가 이제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3:31-32 를 보라).

나는 그 두 가지 큰 지점의 모습을, 주 예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가운데, 결코 잊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 한 가지는: 그분의 위격의 무한하신 신성, 한 분 안의 하나님과 사 람이다. 다른 것은 주의 자유 의지의 제물이다. 배신자를 만나기 위하여 동산에서 나오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광경의 그분을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동산에서 우리 구원자의 체포를 다루는 성경의 이 단락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 위에 그 공과를 새기시기를 간구하자. 여러분의 주목을 이 구절들에 있는 다섯 가지 사항으로 향하게 하겠다.

## 하나님의 대적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특정 짓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주의 대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분의 대적들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곳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 주의 대적들은 우리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43 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별되는 주목하라.

-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
- 로마 군병들 —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큰 무리.”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우리 주의 대적과 우리 대적들은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과 우리가 그것을 전하므로 우리를 대적하려는 세상을 예상한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존재하는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임을 선포하면,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예상한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마태복음 5:10-12).

---

우리는 또한 종교주의자들로부터의 반대와 박해를 예상하여야 한다. 이 세상의 타락한 종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 그들의 대체 사장들, 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사기 당하고, 속고, 거짓을 듣고, 선동 당하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무지하므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가장 끊임없는 박해자들이다. 역사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증오하는 종교인들에 의해 (여기서처럼) 선동 당할 때만 믿는 자들의 박해자가 되며, 그들 자신이 보기에 너무도 선해서 은혜와 죄속량의 대속물과 전가된 의를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다. 아무도 타락한 종교인들처럼 은혜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배교 시대의 자칭 교회들보다 오늘날 더 궁핍하고 더 적대적인 사역장이 이 세상에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대적들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 세상 가운데에서도 찾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종종 주의 대적들과 우리 대적들은 양의 털을 쓴 늑대들로서, “열 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와 같고, 그 친구들의 집에서도 발견된다 (시편 41:9; 55:12-13).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신 것은, 그분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들은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은 자들, 신앙 고백으로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인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들은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하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신의 충격과 고통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24-26).

## 하나님의 왕국

---

둘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든, 교육자들이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든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을 깨닫기를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주님 자신의 제자들은 이것에 관하여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그 때 붙잡지 못했다.

이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마치 그들이 칼과 몽치로 거칠고, 살인적인 혁명가를 사냥하듯이, 주에 대항하여 나타났다. 그들이 했을 때,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뽑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요한은 그 담대하고, 열성적이지만, 실수를 저지른 제자를 베드로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치유하심으로 싸움을 중단시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적이고, 정치적이며, 시온주의 왕국일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끈질기게 집착한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임을 주장하였던 이 사람이 칼로 그의 왕국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들은 피에 의한 충돌을 준비한 채 왔다.

우리 주께서 후에 빌라도에게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직도 배울 필요가 있고, 자주 가르쳐야 할 공과이다 (요한복음 18:36).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육체의 손으로 건축되고, 조성되고, 늘어날 수 없다. 진리의 근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이거나, 법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4). 기록되기를, “이는 힘으로

---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하였다.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는 생존을 위하여 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검으로써 선 것이 아니라, 칼을 무릅쓰고 서 있다. 거짓 종교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속세의 방법에 좌우되고 그것으로 생존한다. 프로그램, 교황 출현, 오락, 빵 팔기, 속임수, 술수, 의식, 예식 등이다. 성공적이기 위하여 무엇이든 택하는 것은 다 행해진다!

미국에 있는 목사들과 지역 교회들과 종파와 조직들 (진보와 보수 모두)은 공통적으로 정치 토론에 참여한다. 그 노력이 얼마나 크고 충실하다 할 지라도, 정치 사회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보호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 우리 뭇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세상적 관념과 교리에 대항한 영적 전투이다. 그런 것들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의해서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효험 있는 역사들에 의해 서 있다 (히브리서 4:12). 주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나라를 개역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뭇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일은 죄인들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오직 복음 전도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 일



---

을 위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관대한 드림으로 공급 받는다.

## 하나님의 말씀

겻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우리 구원자께 일어났던 모든 일, 신앙심 없고 타락한 사람들의 손에 고난 당했던 모든 일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성경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하고, 무오하며, 말씀의 감동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으로써 위치하고 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48-49).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도행전 13:26-29).

그분의 대적들의 격분과 유다의 배반, 배반의 대가 (은 30 세겔!), 그 친구들의 저버림, 우리 주의 범죄자처럼 다뤄짐, 범죄자들과 함

---

께 헤아려짐, 그분의 손과 발의 못 박힘, 그분의 옷의 찢겨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예견되었다. 시편 22 편과 이사야 53 장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였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19-21).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고 정해졌으며, 그분의 말씀 안에 기록되었으며, 우리 혼이 속량을 위하여 그분이 직접 일어나게 하셨다. 주를 잡기 위하여 유다가 함께 데려온 무장한 사람들,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헤롯, 빌라도는 오직 하나님의 수단, 그것으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위한 그분의 주권에 속한 무의식적인 도구였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시편 17:13-14).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기 우리 혼을 위한 안식, 우리의 아픈 머리를 위한 부드럽고, 부드러운 베개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우리 전능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선하심으로 통치 받는다! 이 세상의 뜻은 언제나 우리 갈망에 반대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생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모든 손아귀에 풍성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형제들의 모순된 행위는 종종 우리를 다치게 하며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 자신의 죄와 모순된 행위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정확히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최선인 것만을 하신다.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분의 계획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예정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시편 2 편을 읽고 기뻐하라.

부활 아침에, 모든 것이 명백히 된 때, 우리 주께서 가장 고통스런 때와 환경 가운데 있을 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지혜와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보여 주실 것이다.

## 하나님의 백성

다시 또 다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과 실패, 변덕과 타락, 죄와 결점들을 상기시킨다. — “제자들

---

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나라.” (50 절). 노아의 술 취함, 아브라함의 두려움, 롯의 선택, 다윗의 간통과 살인, 베드로의 타락, 그리고 동산에서 주의 모든 제자들에 의한 우리 주의 버림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다. 그것들은 모든 육신은 풀이며 구원은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의 유일한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켜진다면, 우리는 은혜로만 지켜지고 보존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떤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믿음은 두려움에 길을 내주었다. 그들의 환경으로 압도되어서, 그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 육신은 마치 그들과 같고, 약하며, 어떤 죄이든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하여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잘못하고, 타락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측은이 여기시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결점에 대하여 느끼심으로 만지시는 분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찬양 드려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친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한 사람의 충성된 친구가 있으니, 그의 측은지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

## 하나님의 복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1-52 절).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듣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한 밤 중에 그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모든 야단법석 때문에 깨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보기 위하여 단순히 흩이불만을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군중을 따라가며, 보려고 했을 때, 군병들이 그를 잡았다. 피에 굶주린 군중은 매우 사나워서 예수의 추종자라고 의심되는 자는 누구라도 잡아서 죽일 태세였다. 무심코 뛰어들었다가 위험을 깨달았으므로, 이 청년은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겉보기에도 하찮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책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알며, 우리가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될 것임을 안다 (로마서 15:4).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나는 이 청년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묘사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죄인의 초상으로서 여기 우리 앞에 보여진 것 같다. 속량의 날과 문둥병자의 공식적인 깨끗하게 함에 일어났던 것의 섭리에 따른 예표인 것처럼 보인다 (레위기 16:22; 14:7).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한 새는 죽임 당했고 다른 새는 죽은 새의 피에 담궜다가 놓아졌다. 속량의 날에 한 염소는 죽임 당하고, 다른 염소는 풀려났다.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고, 그가 동산에서 잡히고 이 청년은 자유롭게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풀려났음을 배운다.

나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그 비유가 사실임을 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지옥 그 자체가 나를 그 손아귀 안에 잡고 있다. 그러나 나의 대속자를 잡았을 때, 나는 자유롭게 도망갔다. 율법은 나를 벌거벗겼다.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맞대놓고 자기의 더러운 나의 누더기를 버려두고, 그리스도께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네.

단지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네.

무기력하게, 은혜를 바라며 당신을 바라보고,

벌거벗은 채, 당신께 옷을 바라네!”

---

## 69 장.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가니”—마가복음 14:53-65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

---

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  
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마가복음 14:53-65).

솔로몬은 그가 해 아래에서 보았던 한 가지 악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  
도서 10:5-6). 우리 앞에 마가복음 14:53-65 안에 있는 장면을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여기 “그 안에는 지혜  
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  
인” 앞에서 일반 범죄자로 심문을 받으신다. 성경의 이 구절들 안  
에서 성령은 마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 우리의 위로  
와 덕육을 위하여 역사의 놀라운 한 조각을 기록하게 감동을 주셨  
다.

여기에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드러내면서 완전한 일치 가운데 모였  
다. 그 나라의 신뢰받고 곧은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아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 여기서 보잘  
것 없고, 불쌍하며, 죄로 충만한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만드신 바  
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그분 자신인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느 날 그들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을 심판하며 법정에 앉아 있었다!

성경의 이 단락에서, 이 감동받고, 역사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  
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비록 그분은 부자였으나,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로써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부자가 되게 되었다.

### 베드로의 큰 어리석음

큰 타락들은 언제나 더 작은 모순이 앞선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들임을 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 위에 순간의 반영보다 더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사랑 받고, 은혜로 택함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으며, 그분의 영에 의해 부름 받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으며 그분의 은혜의 권능으로 지켜진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이 몸 안에 산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하여 경계하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 받는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거절하면서, 큰 관심을 갖고 우리 혼을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것들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행동한다. 베드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거절하면서, 우리 얼마나 어리석게 종종 행동하는지에 대한 빛비춤의 예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

---

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  
(54 절).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소유할 것을 바랬으며, 그가 낱알처럼 쪼질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셨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가 그분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지 않았다.

동산에서 주 예수를 버리고 난 직후에, 베드로는 더 큰 유혹 속으로 곧두박질 쳤다. 그는 안팎으로 아무런 위험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끔찍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부터 베드로를 지켰을 많은 경고와 수 없는 빨간 깃발들이 있었다. —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 뒤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 베드로의 경솔과 교만은, 한번은 주께서 드러내셨는데, 그를 실망시켰을 것이다. — 두려운 가운데 동산에서 주 예수로부터 도망가고, 혼란스러운 때 그분을 저버렸던 것이 그의 약함을 깨닫게 만들었을 것이다. — 그러나 지금, 그의 구원자를 부인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멀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주의 악의적인 대적들 무리 가운데 앉아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을 쪼고 있는 것을 본다!

만약 그가 세상 일들을 따라서 그의 정용 위에 기초하여 남쪽까지 평원에 물을 준 우물의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롯은 소돔에서 삶을 결코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확신컨대, 롯 형제는 지옥에 있을 그의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을 생각하였고, 낭비해버린 기회들로 충만한 병으로 소모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떼에 대한 고난이 그는 아브라함에서 그를 갈

---

라 놓았을 그 날들을 후회하였음이 분명하다! —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을 때, 편한 장소 안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결코 점령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충성된 종, 우리 야를 결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 베드로는 만약 그가 멀리 대제사장의 궁전 속으로 주를 따라가지 않았고, 주의 대적들과 앉아서, 불을 쬐지 않았다면, 그가 그랬던 것처럼 주를 부인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분별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순과 무분별로 유혹에 넘어진다.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언제나 구원하시도록 언제나 기도하자.

“내 아들이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궤흘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며, 네 발의 행할 접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20-27).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유다서 2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충만함과 타락과 약함에 대하여 언제나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언제나 유혹을 거절하라. 언제

---

나 죄에 대항하여 분투하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신앙 없음에 아니라고 말하라. 당신 자신에게 매우 꼼꼼하게 혹은 매우 엄격한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우리가 하찮은 모순에 지고, 육신에 탐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치욕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큰 치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언할 수 없는 큰 부끄러움과 치욕을 기꺼이 견디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 마가는 임마누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합 앞에서 견디셨던 우리 구원자의 체포, 그에 대하여 만들어진 거짓 고소, 그분의 얼굴 위에 뺨어진 사람들의 불쾌한 침, 우리 주께서 견디셨던 격렬한 매질, 잔혹한 구타, 도도하게 맹렬한 따귀, 비웃는 야유와 조롱 등을 기록한다. 이런 일들은 쉽게 견디지 못할 것들이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결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께서 기꺼이 우리 부끄러움을 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야기했던 죄를 취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고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사야 53:4-7; 고린도후서 8:9; 빌립보서 2:5-11; 히브리서 2:10).

Robert Hawker 는, “매 순간 환경은 우리가 섬세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아마도 주 예수의 위격에 제시된 최소한의 모욕이 아니라, 비밀스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분이 체포되자 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러지기 전에 검증을 위하여 제사장

---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레위기 17:5).

## 우리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구속자께서 성전을 허물려 한다는 계획과 가이사에게 감사를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고소당하셨다. 이런 것들과 다른 많은 혐의가 제시되었지만, 아무런 증인을 찾을 수 없었거나, 심지어 합할 수도 없었고, 그것들을 입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분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신랄하게 물었고, 주 예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신격을 주장하시므로,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이신 그분은 그리스도,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다. 대제사장이 우리 주께 이런 확고한 질문을 하였다. —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에게 즉시, 한치의 틀림 없는 대답을 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2 절).

우리 주께서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아는 척하는 반역자를 다루고 계셨다. 그분께서 이 큰 종교 지도자에게 대답하셨을 때, 그의 상상 속의 탁월함을 만족시켜주시지 않았고 그의 지위에 대하여 최소의 존경도 보이지 않으셨다. 직접 갖고 계신 넘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분은 그분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시지 않

---

왔다. 그분은 이 죄인이 즉각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면서, 단지 그분이 누구셨고 누구 신지에 대한 사실만을 천명하셨다.

우리 주의 선포를 조심스럽게 보고, 그것을 분명하게 들어라. 그분은 이 가야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다. “내로라!” 그것은 사소한 선포가 아니다! 주 예수께서 그가 원하신 어떤 말이든 사용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간단히, “그렇다,” 혹은 “그가 나이다.,” 혹은 “성경은 나임을 증거한다.”고 하실 수 있었다. 대신에, 그분은 그가 그분께 고개 숙여야 하거나, 그분의 처형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반역자에게 대답하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셨다! 이 인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내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으로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다음 문장의 의미이다.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주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네가 나의 말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 네 앞에서 있는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서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시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가야바는 그분을 처형하려고 하였다. 그분이 구속의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은 영광으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위에 있는 그분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으로 감동받으신 영광가운데 계신 한 사람, 스스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신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은 우

---

리를 위하여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너는 네 위에 임한 심판 가운데 있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 속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고 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엄정한 경고인가! 앞으로 임할 심판이 있다. 어느 날 곧, 당신과 나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 사람이 큰 범죄

사람의 믿지 않음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죽으심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려 궁리된 끄적하고, 지옥 같은 속임수라는 분명한 선포이다. 가야바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포에 직면한다. 우리는 그분의 선포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에 멸망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모든 자로부터 한 가지 결정을 요구한다. —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분께 조만간에 머리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머리 숙여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진노에 대해 그분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반역자가,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그의 믿지 않음은 무지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처하기에 마땅하였던 사기꾼이었으며, 성

---

경은 사람들의 혼에게는 지옥 같은 속임수다.” 그것이 가야바가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불신자가 말하는 것이다.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보다 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영원히 침을 뱉지 않게 될 것이며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다 (요한일서 5:10-12; 잠언 1:23-33).



---

## 70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마가복음 14:66-72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 썸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 때,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거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어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까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66-72).

우리 앞의 구절들은 아프지만, 그러나 매우 교훈적인 베드로의 주 예수에 대한 끔찍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사복음서 이야기 모두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들의 친구인 베드로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혹은 방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 사람들에게 대하여 기록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감동의 도구들로서 그들의 역사들을 기록하였다. 이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

이야기는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네 번 주셨던 분인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 위에 이 공과를 새기시기를 바란다.

그 춥고 혹독한 밤에 일어났던 그 장면과 사건을 그려보도록 해보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것을 직접 “이 세상의 심판 (비극)”이라고 부르셨다. 제자들은 모세 율법 체계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와 복음 시대의 첫 번째 친교의 예배를 이제 막 지켰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분명하고 임박한 배반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밤을 보냈다. 그 신성한 저녁에,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4, 15, 16 장에 기록된 놀라운 설교를 전하셨다. 우리 주께서,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기도를 제시하셨던 것은 이 밤, 좀더 이른 저녁이었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폭도들처럼, 군병들이 영광의 주를 체포하려 그분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가롯 유다에 의해 이끌려 동산에 왔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 예수를 부인하였고, 그분을 다시 부인하였으며, 선원 같은 욕을 하면서 세 번 그분을 부인하였다.

왜 이 기록이 신약 성경 안에 네 번이나 기록되었는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특별한 주목을 주시려 의도하셨다. 이 슬픈 이야기가 모든 사복음서 저자들에게 의해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된 이유는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

- 
1. 베드로의 주 예수에 대한 부인은 우리 온유한 마음의 구원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크게 증가시켰다.
  2. 성령은 우리 구원자의 구원의 능력의 위대함과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장엄함과 그분의 충성됨의 변함 없음을 가장 강조하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려 하셨다.
  3. 신성한 위로자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같은 유혹들에 대상이 될 것임을 아셨다.
  4.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이런 사중의 기록은 사람들의 가장 최선의 덧없음과 관련하여 우리를 위한 놀랄만하고 교훈적인 공과와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놀랍게 일깨우려 의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선한 사람에 대하여 조차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들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잘못들과 타락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한다. 그것은 성령의 계획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는 아주 좋아 봐야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베드로는, 가톨릭 신도들이 가장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절대 보증할 수 있는 주교가 아니다. 사실상, 교황이 베드로와 공통된 유일한 한 가지에 대한 것은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역시 약하다. 만약 너희 자신에게 맡겨진다면, 너희도 역시 타락할 것이다. 네 자신을 결코

---

신뢰하지 말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라. 네 자신의 큰 경험이나 네 믿음에 따른 상상 속의 힘과 확고함에 의존하지 말라. 사탄은 너를 알곡처럼 썬 수 있도록 너를 소유하려 갈망해 왔다. 그리스도만 너를 붙들 수 있다. 그리스도만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 같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존귀를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혼을 각자가 열심히 지켜야 하며 주의 지키시는 은혜를 기도로 충만하게 구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살고 싶다. 나는 나의 설교와 집필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확대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당신이 동일한 것을 원함을 안다.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의 이름에 흠집을 낸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몸서리치며, 나의 혼이 떨린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안다: —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를 직접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당신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당신을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 **베드로의 타락의 상황**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그런 통탄할 악한 짓을 범하게 되었는가? 성경의 이 부분은 피로 구속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며,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영으로 성별되었던 한 타락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충성된 거물들 가운데 충성된 거물이었다. 그보다 앞서서든, 그 이후이든 아무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

---

고 설 자가 없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였으며, 확신에 가득 찬 자였고, 전도에 있어서 담대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열심에 있어서 확고부동하였다.

이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조차 탁월했으며,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였고, 본보기 중의 본보기 였다. 그러나 이 사람, 것처럼 위대한 자가 단지 사람이었다. 당신과 나처럼, 그 마음이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하였고, 그 육신이 연약하였던 사람이었다. 그 킁킁한 밤에 대체사장의 법정 안에서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사악하게 끔찍한 모습 가운데, 인간 역사에 있어서 어떤 악하고 비열한 행위 가운데 부서졌다.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모독스럽게도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타락의 상황을 살펴볼 때, 당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감경 할 수 있는 참작할 만한 상황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로, 감동의 복음 기록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의 죄를 가중하고 있다. 베드로의 타락은 그가 주 예수께서 가장 높이 좋아하고 가장 높이 존경을 받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였다. — 우리 특권이 더 크고 우리 존귀가 더 높을수록, 우리 책임은 더 커지고 우리 범죄는 더 끔찍해진다.

주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계셨던 동안 직접 알게 하셨던 바로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 받은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한복음 1:40-42). 베드로는 주의 가장 친근한

---

친구들 가운데 핵심이었다. 그는 초대 교회를 위한 주 대변인이었던 것 같다.

베드로의 타락은 그의 큰 위협에 대하여 분명하고 충성되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슬프다 (누가복음 22:31-34).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말로 정확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다. 그분은 심지어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 주셨다. 베드로는 그가 직면하게 될 위협에 대하여 들었다. 사탄은 그를 소유하기를 원했다. 그의 믿음은 맹렬히 공격 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계하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협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빛을 거절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무시하였다.

베드로의 죄는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자신 있게 선포했던 후 곧바로 닥쳐왔던 사실로 심각해졌다 (마태복음 26:31-35; 누가복음 22:33).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교만하고 자신 있게 자랑한 후 단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그분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주를 멀리서 따라갔다.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불을 쬐면서 앉아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단계적으로 주 예수를 부인하였다. 처음에, 그는 여종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였고, 명백하지 않다면 함축된 의미로, 구원자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마태복음 16:18 과

---

요한복음 6:69 를 비교해 보라). 마침내, 그가 주의 거룩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신성 모독적인 말을 택하였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님의 성도들의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큰 타락은 더 작은 모순된 행위들이 앞선다.

만일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신다면, 큰 성도를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베드로의 시험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고 말하는 약한 젊은 여자의 말 뿐이었다.

여기 베드로의 죄를 매우 크게 심화시키는 또 다른 것이 있다: — 이 모든 것은 그의 여호와이며 주께서 그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는 그 시간에, 그분의 치욕을 받으시는 그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바로 앞에서 모든 말을 들으시며 서 계셨다!

베드로의 타락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 너무나 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무나 유일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베드로는 자기 자시에 대한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자신 있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 당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에게 대한 아무런 확실한 힘이 없었던 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혼에 대한 경계를 무시하였다 (잠언 4:23). 나는 어머니 하와처럼, 베드로가 구원자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한다.

---

## 베드로의 회복의 방법들

베드로는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지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그는 주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소유 중 하나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시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 떼 가운데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 없다. 베드로는 넘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 그를 일으키셨다. 의인은 하루에 일곱 번이나 넘어지지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잠언 24:16). 어떻게 주 예수께서 그분의 타락한 종을 회복하셨나? 나는 주께서 그분이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네 가지 사항을 본다.

첫째, 그분은 섭리의 역사를 사용하셨다. — “답이 울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 이르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당나귀가 선지자들처럼 쉽사리 말하게 하실 수 있고 수탉이 정시에 울도록 하실 수 있다.

둘째, 그분은 은혜의 역사를 사용하셨다. —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61). 그것이 어떤 바라 봄이었을지!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셨다. 베드로는 주께 돌아서지 않았다. 그분은 베드로를 화가 나서 반감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라 보셨다! 그렇게 보심은 온화로움과 동정과 충성심의 눈길이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그분의 타락한 아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내가 무궁한 사랑



---

으로 너를 사랑하였도다. (예레미야 31:3)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16) —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0:28) —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 하는 자니. (이사야 43:25) —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사야 43:1) — 내게 있어 너의 의가 보인다. — 내가 너의 힘이니라. — 나 여호와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6)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라기 3:7)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셋째, 그분은 말씀의 역사를 사용하셨다. —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72 절). 약속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효과적으로 베드로를 회개로 옮겼다.

넷째, 베드로는 우리 축복의 변호자, 주 예수, 심지어 그의 타락 이전에 말씀하셨던 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32)라고 말씀하셨던 분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큰 대제사장과 중재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넘어지기 전에 조차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보존하고 은혜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 동일한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변호자이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중재해 오셨다 (요한일서 2:1-2).

---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며 내 혼을 기쁨으로 넘치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화로움과 긍휼로 충만하시다. 그분의 미쁘심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분의 동정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미쁘시고, 확실하게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만일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서 진실로 신뢰한다면, 아무 것도 당신을 그분에게서 나눌 수 없고, 당신의 죄들조차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4:8). 아무 것도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나눌 수 없다. 아무 것도 그분의 부드러운 보살피심과 구원의 능력에서 우리를 나눌 수 없다 (로마서 8:35-39).

### **베드로의 회복의 징후들**

베드로를 위하여 그에게 행해진 주의 역사는 효과적이었다. 그것들은 의도된 계획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맹렬히 부인하였던 바로 그 구원자에 의해 은혜롭게 회복되었다.

그의 시험과 타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탄이 그의 거친 체질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겨 외에는 잃은 것이 없었다. 베드로는 이 일에서 나와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심지어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에 속한 계획에 따라 있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임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그 지옥의 악령은 전능한 자의 내키지 않고, 무의식적인 종복이다 (이사야 14:12-27). 지옥의 용은 빛의 천사들 만큼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

게 선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로마서 8:28).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자 마자 즉시, 베드로는 그 장소에서 나갔다 (누가복음 22:62). 일단 불이 그의 혼 안에서 회복되었으므로, 그는 더이상 주의 대적들이 피웠던 그 불의 온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그의 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섰던 자들을 버렸다.

그가 대제사장의 집을 떠나서, 베드로는 통곡하였다 (72 절; 누가복음 22:62). 급격한 눈물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는 스스로 설 수 없었다. 그의 그 마음은 자신 속에서 무너져버렸다. 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서진 그 사람은 복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서진 마음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이다!” (시편 51:17). 당신은 회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가?

### 오늘날 우리를 위한 공과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타락과 회복으로 무슨 공과를 배우는가? 분명히, 이 일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되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체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약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변덕스럽고, 죄로 충만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악행은 없다 (고린도전서 10:12; 4:7).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형

---

제들에 대하여 가차없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은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라는 것의 강조된 선포이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으며, 파괴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이 얼마나 축복된 안도를 갖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결코 우리를 우리 구원자로부터 갈라 놓을 수 없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의 미쁘심이 얼마나 큰가! — “주는 일향 미쁘시니!” (디모데후서 2:13) —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24) —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3).

“그는 결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도 그분을 아주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유다서 1:21).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언제나 십자가에 살아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께 끈질기게 매달려라.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그분께 돌이키라. 그분이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이 행한 잘못을 잊으실 것이다!

---

## 71 장. 바라바:대속의 그림—마가복음 15:1-15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1-15).

---

마가복음 15 장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임 당함을 묘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1.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희생이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난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범죄들로 인하여 생명의 땅에서 잘려지지 않으셨다. 영광의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께 입혀진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의 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불법들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사야 53:4-6, 8; 다니엘 9:26;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3:18).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고, 본질이며, 의도이다. — 율법은 대속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시내 산에서 주어졌다. 구약 성경의 모든 희생과 의식 절차와 의식 집행과 의례들, — 모든 제사장, 제사장 의복, 그리고 제사장 기능, — 대적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 성막과 성전의 모든 제사, — 모든 시편, 모든 선지자, 모든 역사적 이야기, — 만나, 반석, 놋뱀, 불과 구름 기둥, 구약 성경과 신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전능한 대속자를 보이기 위하여 성령

---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4:27, 44-45; 베드로전서 1:23-25; 요한복음 20:30-31).

3.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 모두에 대한 계시이다 (고린도전서 4:4-6; 갈라디아서 6:14).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죄 속량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은 우리 혼의 생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만족될 수 없었으며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들 가운데 모두 멸망하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마음과 혼을 너무도 은혜롭게 넘쳐흐르게 하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축복의 구원자와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큰 희생에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 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사도의 말을 갖게 하시기를 바란다.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예언의 성취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 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1 절). — 왜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 예수를 빌라도, 유대아의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왔는가? 왜 그들은 그들이 직접 그분에게 돌을 던져 죽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그렇게 할 법적, 국가적 권위가 없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

때가 그들에 임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창세기 49:10 에 있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또한 스스로 그들의 행위 가운데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구속자께서, 유대인 율법이 요구 했을 것에 따라 (신명기 21:22-23) 단순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치욕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분의 몸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찢려야 하며 그 뼈가 하나도 부러져서는 안되었다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9:36; 출애굽기 12:46; 민수기 9:12; 고린도전서 5:7). 비록 그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 대한 그들의 분냄 가운데에서 조차도, 성경의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스스로 성취시키고 있었다 (사도행전 4:27-28; 13:28-29).

사악한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들은 다만 영원 전부터 그분의 손과 계획 안에 있던 것을 할 뿐이며, 그것들은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었다. 사탄이 울부짖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할 때, 비웃는 자들이 비웃을 때, 속이는 자들이 속일 때, 그들은 단지 성경 안에 오래 전에 기록된 것을 행할 뿐이다 (베드로후서 2:3). 사람은 반역과 믿지 않음의 어리석음 가운데, 그리고 사탄 자신과, 심지어 지옥의 마귀들 조차도 모두 우리에게 대한 은혜로운 계획으로 섬기기 위한 전능하신 자,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종복일 뿐이다.



---

“예수를 결박하여” — 만약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면, 그분은 결박되셔야 한다. 이삭과 율법의 제물들은 결박되어 제단 위에 놓여졌던 것처럼 (창세기 22:9; 레위기 4:70),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시려 하셨을 때, 범죄자로서 결박되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은 나무에 결박되었다.

## 인내의 본

하나님의 아들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많은 부도덕한 것들로 거짓되게 고소 당했다. 그분께 대한 최고의 혐의는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분의 고소 당했을 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머리 숙이면서 그분이 인내와 인성의 어떤 본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는가.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2-5 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고난을 보내실 때 그분께 대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리기보다 더 무례하고 우리 믿음에 더 모순된 것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거짓 고소와 불법을 인내를 갖고 품을 때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특징을 결코 본으로 삼지 않는다 (이사야 53:7; 히브리서 12:1-3; 베드로전서 2:20-24; 시편 39:1).

## 권력의 악용

---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 절). —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주 예수를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10 절). 그는 그분을 놓아주기 위한 어떤 약한 시도를 하였으며 자신의 양심을 달랬다. 그러나 전형적인 정치인들과 정치적 피지정자들의 치욕적인 행위 가운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과 죄 없는 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희생해야 했다 할 지라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더 많은 분노와 더 큰 혐오감을 우리 대통령과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에게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다룬다. 나는 우리가 세상의 나머지보다 더 높은 길을 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그것을 언급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약간의 도덕적 청렴성이 없으면 동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모든 유혹에 큰 악행을 주게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1-2).

## 타락의 초상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1-14 절).

이와 같은 일반적인 타협과 보편적인 종교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은 범죄의 모든 가능한 점을 제거하려 하고 있고, 모든 죄와 비난을 없애 버리고,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그들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혐오스럽든 간에, 신앙이 깊지 않다면, 최소한의 변명을 할 수 있다. 신학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기 위하여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의한 그런 모든 재정리하는 것은 사실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기 사실이 있다: —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 (이교도 이방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자들이었던 반면,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고 외치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놀란다. 그들은 분명하게 제시된 증거들에 대항하여 행동하였다. 그들의 무분별한 요구에서 열 한 시간을 뒤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혼, 그들의 자녀의 혼, 그들의 자녀의 자녀의 혼을 영원히 파멸하는 과정에 머물렀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악명 높은 살인자의 석방을 의미할 때조차도,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고수했다. 그들은 도덕적 압력이나 온전한 이성에 의해서는 방향을 바꾸거나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결정을 바꾸도록 설득될 수 없었다. 눈 덮은 더 이상 눈이 머는 것이 아니다! 우둔함은 결코 더 이상 어

---

리석지 않았다! 광기는 더 이상 미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기만적이고 몹시 사악하다. 세속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이다. 어떤 사람도 신성한 중재를 떠나서, 어떤 선한 것을 행하거나, 심지어 선하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타락한 종교 반역자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자.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지 말자. 사악함을 선택하지 말고 의를 멸시하지 말자.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욕의 광기를 충족시키는 것을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 대속의 그림 (6-15 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앞서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

---

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6-15 절).

여기 우리가 복음에 관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있는가. 바라바, 죄인은 자유롭게 풀려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대신에 죽었다. 위대한 대속자가 그의 자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큰 죄인이 풀려났다. 바라바는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것은, 바로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종합될 수 있다 — 대속 (로마서 3:21-26; 5:6-8; 8:1-4, 32-34; 고린도후서 5:20-21).

---

## 72 장.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가복음 15:15-39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지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절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

---

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찌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욕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15-39).

만약 주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사람이나 천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발람의 당나귀를 통하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무한한 주권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는 감동 받은 어떤 선자처럼 분명하고 강력하게 복음 진리를 선포하식 위하여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복음에 무지한 채 남아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음성이 된다. 이 사실에 대한 수 많은 예들이 하나님의 책 안에서 주어진다 (요한복음 11:47-52; 민수기

---

23:19-21; 사무엘상 26:25).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자신이 말했던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예를 몇 가지 제시한다. 반복하여, 두 강도 사이에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린 자가 “왕”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과거나 지금도 왕이신 것을 선포하므로,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서 주를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39 절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말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하신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Scott Richardson 목사가 한번은, “전도자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려 하는 무명인이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1 절). 격분하고, 피에 목마르고, 조롱하는 군중 가운데 우리는 가증스럽게 야단법석을 떠는데 합세한 날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증스럽게 혐오하는 투로 말을 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분명하게 복음의 명백한 진리를 말했다. —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보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분의 율법과 공의에 대한 만족을 떼어놓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 그분은 누구나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를 구원하시려 선택하셨으므로, 그분은 그분의 율법과 공의를 존귀하게 할 방법이 아니고선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다 (욥기 33:23-24; 로마서 3:23-26). 만약 의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3:21).

마가복음 15:15-39은 우리 앞에 우주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실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이다.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이 우리 앞에 있다. 여기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장엄하게 제시된다.

여기 묘사된 고난들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바라보기에 깜짝 놀랍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끔찍하고 비통함을 견디는 어떤 사람을 보아야 한다면, 우리 마음은 아프고, 깊이 동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나는 이 감동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경 실색하고, 놀라고, 놀라움에 빠져버렸다.

---

여기 더 아연 실색하게 하는 것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셔야 했던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기꺼이 자원하여 견디셨던 것들이다. 심지어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조차도, 그것이 일어났던 것은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함이였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 죄들을 자신 위에 입으셨다. 그분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그분은 자원하여 십자가에서의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대상이 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진노의 잔을, 사랑에 속한 무서운 한 모금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마셔버리셨다.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서 3:18).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10).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16).

우리 주 예수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받았던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정죄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까지 단계별로 우리 구속자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우리 대속자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셨을 때 견디셔야 했던 모든 것에 깊은 의미와 영적 교훈과 큰 위로가 있다.

---

우리가 이런 것들에 내주하므로, 단 한 순간이라도 우리 죄들과 우리 혼의 구원이 그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가 견디셨던 것은 우리 지옥이었다! 그가 죽었던 것은 우리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은 여기서 우리 죄들에 대한 속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 위대한 보증이며 대속자이신 분의 성취를 보여주신다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4; 3:18).

### 정죄 받은 그리스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 절). —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형에 처해진 것을 본다. 그 앞에 어느 날 곧 전 세상이 심판 가운데 서야 할 그 한 분이 여기 계시다.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을 소환하게 될 큰 재판장이 여기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며, 사악한 사람의 손에 의해 처형당하기 위하여 데려가게 된다.

왜라고 물겠는가? 그것은 그가 우리를 심판과 파멸의 함정과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선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다. 주 예수께서 죄가 되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으며, 그 백성을 대신하여 사망에 처해지셨으므로, 믿는 죄인들이 결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흠이 없고, 책망 받지 않을 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모든 무리를 제시하시게 될 것이다 (로마서 4:8; 8:1, 33-34).

---

## 무자비한 조롱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찌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6-20 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체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찌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29-32 절).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조롱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으며, 모욕을 당하였고, 모든 세상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그분에게 자색 옷을 입혔으며,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희롱하며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만세! 왕이여!”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치고, 침을 뱉었고, 그분을 희롱하였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데려갈 때, 그분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다. 헤롯과 “거룩한” 사람들, 뚜쟁이들, 그리고 제사장들, 술고래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나무에 못 박고 그분이

---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옥의 술잔치에 모였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조차도 사악함 가운데 가담함으로 그들의 고통에서 안도함을 찾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멸시당하게 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게 되셨다.

왜라고 질문하겠는가? 정말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인 우리, 진실로 역겹고 멸시 받을만한 우리는 그분의 피의 공로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었고, 그로써 우리가 완전한 거룩 가운데 죄의 한 점이나 결함의 주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광의 관을 쓰게 되었다. 그분이 사람들의 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게 되었다. 그분이 치욕 가운데 침몰하므로 우리가 승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 벌거벗겨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4 절). —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졌으며, 그분의 대적들 모두에게 공개적인 치욕에 노출되셨다.

왜라고 묻겠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없는 자들이 그분의 완전한 의로 옷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벌거벗었고 치욕스럽고, 죄로 더럽혀진 모두가 은혜의 혼례 옷을 입고 부끄럼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나란히 앉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의 흰 옷, 구원의 옷, 정결하고 흰 옷을 우리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영원히 입게 된다는 것이다.

---

## 죄인들과 함께 계수됨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었으니, 이르기를 또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함이더라.” (27-28 절). —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범죄자와 죄인으로 취급되셨다.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입에 아무런 간사함이 없었던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왜라고 물겠는가? 왜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었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죄가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그가 유죄 선포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를 받게 되었다!

## 하나님의 버림 받음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4 절) —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 버림받으셨다. 이것을 붙잡도록 하라. 우리 보증,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께서 그분의 순종의 정점에 계셨을 때, 그가 행하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최고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으므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 포기되었고 버림받으셨다.

왜라고 물겠는가? 그것은 그가 죄가 되셨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수 없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

---

으셨는가?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13:5)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

## 저주가 됨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2-26 절).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으며, 갈보리의 나무 위에 저주 받은 것으로서 못박히고 달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심은 가장 비열한 중죄인들 만을 위하여 운명 지워진 것이었다. 이 치욕적으로 무섭고, 창피하고, 사악한 형태의 처형은 십자가 위에 달린 자의 철저한 경멸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저주 받은 것으로 취급 받았다.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 받은 죽음을 죽었다.

왜라고 물겠는가? 그것은 저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서게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14).

## 자원한 희생

---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7 절). —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는 대가 없이, 자원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영을 버리셨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1, 15-18).

왜라고 물겠는가?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9-10)).

### 갈라진 장막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8 절). — 그분의 피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정의 장막을 열어 벗기셨다. 공의가 만족되었을 때, 죄가 없어졌을 때,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갈라 놓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



---

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을 때, 나눔의 상징은 찢어졌다.

왜냐고 물겠는가? 그것은 구속 받은 죄인들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며, 사랑 받는 자 안에서 열납된다 (히브리서 10:12-19).

### 우리 보증의 치욕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기록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이 모든 고통과 치욕과 굴욕을 견디셨다는 사실의 광경을 결코 놓치지 말자.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그분 위에 내려 놓으셨을 때, 우리 구원자의 영광이 치욕으로 바뀌었다 (시편 4:2; 호세아 4:7). 그분이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를 품도록 되셨을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비난과 어떤 치욕과 어떤 잔혹함을 견디셨는가!

요한은 빌라도가 구원자를 두 번이나, 한 번은 이 앞에서 (요한복음 19:1)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질을 했다. 비록 누구든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형제로 천이 여감을 받게 할까 하였고” (신명기 25:3; 고린도후서 11:24), 야만적인 잔혹성으로 매를 우리 구원자에게 내렸다. 그리스도 우리 형제는 천하게 되었고 상상을 넘어서서 천하게 보이도록 되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스스로를 천하게 하였지만, 그분의 매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 받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분께 창피를 주기 위하여 그의 군대 전체를 함께 불러서 병사들의 손에 우리 구원자를 넘겨 주었다. 그들은 그분께 자색

---

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씌웠으며, 그분께 침을 뱉었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쳤고, 그 앞에서 조롱하며 무릎 꿇게 하였으며, 조롱 섞인 왕위의 가짜 옷을 벗겼다. 그분 자신의 옷이 벗겨진다면, 그는 이제 조롱거리 옷조차도 벗겨졌다. 무엇이 군중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보다 더 치욕적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욕을 견디고 있었다. 그 동산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들도록 자신을 벌거벗게 만들었던 것처럼, 만약 그가 저주를 없애 버리실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욕스럽게 되셔야 했다.

가시관은 조롱에 잔혹함을 더하였다. 가시나무는 그분의 머리가 죄인들의 보증으로 상처 입게 될 가짜 왕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시편 68:21). 저주의 가시나무는 (창세기 3:18)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던 그분의 이마를 찔렀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몰랐지만, 우리 축복의 구속자를 괴롭히는 이 자들이, 그들의 잔혹한 조롱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모욕과 야만적 잔혹성 외에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증언인,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은 죄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었다.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은 저주를 견뎌야 하는 것에서 구원 받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화염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었다!

---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빛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와 죽으심의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 그분의 정죄로,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다. 그가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분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받았다. 그분의 치욕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 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

## 73 장. 무엇이 그를 확신시켰는가?—마가복음 15:33-39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33-39).

무엇이 그 전쟁에 단련된 군인, 아마도 차가운 마음의 냉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살했을 사람을 확신시켰으며, 그가 그 어둡고 어두운 날 처형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 로마 백부장에게 확신시켰을까? 그가 사람의 사악함에 대하여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었던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당하셨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일어났던 일곱 가지 두드러진 기적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던 것들을 보여주겠다. 갈보리의 일곱 가지 기적들이 있다. 그 중 여섯 가지는, 일곱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백부장에 의해 목격되었고 주의 깊게 관찰되었다. 그것들은 자신의 피로 뒤덮였던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 대낮의 흑암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33 절).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 우리에게 이 대낮에 놀랄 만한 어둠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런 정오의 어둠은 아모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유대 국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시로서 예견되었다(아모스 8:9).

여전히,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기적적인 일들을 둘러대려고 하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이것이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주의 제자들 편에서 과장된 것이었고, 단지 영적 공과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일식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황소들 중 아무도 날 수 없을 것이다.

그 보고는 신성한 감동으로 주어졌으며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주어졌다. 그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때였고, 그것은 언제나 보름달 중에 열렸다. 2세기 중에 Tertullian은 이런 대낮에 특이한 한 밤중 같은 어둠이 고대 로마 기록 안에서 이교도 천체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보고 되었고 기록되었다. John Gill은 마태복음

---

27:45 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우스 (Dionysius the Areopagite)는 건너편 땅 이집트에서 이 큰 어둠을 목격하였던 사람으로, “신성한 존재가 고난을 받거나 그 고난들로 고통을 받고 있던가, 아니면 세상의 틀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질문의 여지 없이, 어둠이 이 세 시간, 정오부터 오후 세 시까지 세상을 삼켰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 의도되었다. 가장 표면 위에 분명한 단 몇 가지 것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분명히, 이 어둠의 세 시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가장 확신 시키기에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 주려 의도되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우리 대속자로서 버려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죄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빛을 꺼버리셨다.

그날 땅을 덮었던 그 어둠은 타락한 사람 위에 임한 신성한 심판의 어둠과 눈멀의 상징이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져가실 때, 사람들은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위에 눈멀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종교적 형식주의와 종교 서적과 종교 관습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에까지 빛이 없다.

그리고 이 어둠은 그가 우리 대신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뎠을 때 우리 구원자의 혼을 감싸는 어둠의 상징이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이 이 어둠의 세 시간의 마지막, 오후 세 시였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살육 당했을 때인 바로 그 때 유대

---

인들은 그들의 매일의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때 일어났다. 이 모두가 바로 그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맹렬한 공의의 어둠 속에 휩싸여 있었던 그리고, 의의 태양의 극명한 예표였다.

### 찢어진 휘장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8 절). 마태와 마가는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이 특정된 시점에 닳아버린 것이 아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 여셨다!

그것은 단지 무거운 장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껍고, 두꺼운 휘장이었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40 규빗 (60 ft.)의 길이였다! 대체사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두껍고도 두꺼운 휘장 뒤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속량일에만 들어갔으며, 그때라 할지라도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시은좌에 피를 뿌렸고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하여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속량을 드렸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성전에 있었던 빈 손의 제사장에게 엄습했을 충격과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사백 년 이상 동안 유대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숙여왔다. 표상적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중심이었던 다섯 가지 사항이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1.) 언약궤, (2.) 시은좌, (3.) 우림과 둠뭉 — 빛과 완전, (4.) 제단 위의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5.) 쉼기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의 큰 영광이신 분 안에서 그 성취를 본다. 휘장이 찢어졌

---

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빈 손의 제사장의 드러난 위선은 그 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언약궤도 없고 시은좌도 없이 충격을 주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 휘장이 찢어짐은 모세 경륜 전체의 완전한 성취와 폐지를 가능한 사장 생생한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율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 모든 예표들, 그 모든 요구들, 그 모든 계획이 우리 대속자에 의해 성취되었다. —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율법과 제사장 직분과 제단과 제물을 다시 세우려 시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이며 찢어진 휘장을 기우려는 시도이다! 그런 악행은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

그 휘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것은 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드러졌고 열납 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9:7-12).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가지고 그분 자신의 피를 갖고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휘장은 찢어졌다. 하나님-사람의 보혈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12-22).

### 흔들린 땅.

마태는 우리에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땅이 흔들렸다고 말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51). 이 지진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



---

노, 그리고 심판의 상징이었다 (아모스 8:7-8; 시편 18:7). 그리고 그것은 유대주의의 흔들림과 제거의 전형이었다 (히브리서 12:26-27).

## 터진 바위

다음으로, 마태복음 27:51 에서 “바위가 터지고”라는 것을 본다. 이런 바위의 터짐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끔찍한 격분을 내포한다. 사실상,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기 위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 (나훔 1:5-6). 하나님의 불쾌함의 모든 상징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 이것들은 유대 나라 위에 임할 심판과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상징들이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지진과 토네이도와 홍수와 해일과 또 태풍을 보내실 때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진노의 격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바위의 터짐은 또 어떤 은혜로운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전도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서, 그분의 보혈, 죄 속량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의 죄인들을 부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며, 육신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 침례자 요한이 한번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9)라고 말했다.

비록 그분의 택정한 자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지만 (스가랴 7:12), 주 하나님은 구원자의 피로 단단한 마음을 은혜롭게 부수

---

시고 이방 들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높이신다 (사도행전 2:37-42).

## 열려진 무덤들

마태복음 27:52 에서 우리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는 말씀을 본다.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것은 사망과 무덤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증거였다. 죽음으로써, 사망을 통하여 그분은 그 능력을 가졌던 자를 파멸하셨고, 그리고 사망 그 자체를 멸하셨다. 그분은 사망의 역병과 무덤의 파괴가 되셨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그분의 손에 쥐셨다.”

## 부활

무덤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 주의 부활 후에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적 같은 부활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51-53)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들은 것이 없고, 나 역시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 몸 안에서 그들의 무덤에서 나왔으며,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이것은 또한, 구약 성경 안에서 예견되었다. 이사야 26:19 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

---

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고 기록되었다.

이들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량 덕분이며, 속량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하나님의 선포였다 (로마서 4:25).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은 우리 부활의 확약으로서 서 있다.

### 공홀의 기적

나는 백부장이 성도들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하나 이상의 기적이 있으며, 그것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자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누가복음 23:39-43에 묘사된 공홀의 그 기적을 목격하였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고, 대가 없으며, 견줄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그림이다! 아무런 죄도 정할 수 없는 정죄 받은 범죄자가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반역자, 성도로 변화된 강

---

도, 그리고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 죽어가는 구원자의 유일한 만족에 이른 자가 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그림이다 (에베소서 2:8-9).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0-31).

내가 이 한 가지를 확신하노니,  
그리고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놀라운 백부장의 외침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도다!”

---

## 74 장. 그가 왜 버려지셨나?—마가복음 15:3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34)

그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위대한 보증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연구하면 할 수록,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 수록, 단순한 속세인이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나는 더욱 확신한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의 고통 받은 혼에서 나온 이 몇 마디, 무겁고, 무거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설서와 신학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고통의 말씀은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세력들을 대항하셨으며 우리 대속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진노를 견디셨을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버림 받으셨으며, 그로써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보혈과 완전한 의의 공로로 하나님께 영원히 열납되게 되었다.

마음이 부서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외침은 첫 번째로 시편 22:1 에서 발견된다. 그 예언의 시편은 관심을 갖고 자주 읽고 연구되어야 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

---

야 한다. 시편 22 편에 기록된 모든 것은, 만약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죄를 품으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에 의해 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예언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신성한 감동으로 쓰여졌다. C. H. Spurgeon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앞에 흑암과 십자가의 영광 모두에 대한 서술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임할 영광이 있다. 아 가까이 임할 은혜와 이 큰 광경을 보라! 성경 안에서 어떤 곳에 거룩한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신발을 벗고, 경건하게 읽어야 한다.”

### 철저하게 버림받음

순종의 정점에서, 그의 가장 큰 비통의 때에, 그의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으신 후에, 우리 모든 영광의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 받으셨는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거부하셨다. —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1-2).

나는 그 말씀을 매우 놀라면서 읽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기 위

---

하여 여기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불멸의 혼의 모든 소망을 이 사실에 매달리겠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으며 나의 대속자로서 죽음에 처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한 번의 위대한 죄 속량의 희생으로, 나의 죄들을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그분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몸에 우리 죄들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셨다!

## 이유

하지만, 시편 22:3 을 읽을 때,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 자신의 혼의 고통의 외침을 대답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 받으셨는가?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악함을 보시는 것보다 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자는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으셨다. —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13).

여기서 우리 구원자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가실 때 그분 자신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였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신다. 그분은 너무도 정결하고, 너무도 거룩하며, 너무도 의롭고, 너무도 공의로우시므로, 죄 있는 한 분이 그분

---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일 때조차도, 그가 유죄가 될 아무런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34:7)!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소홀히 하기보단, 우리의 보증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했다.

## 죄가 됨

우리 구원자는 그분 자신의 죄가 없으셨다. 출생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였으므로 그는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1:35). 그분의 생을 통하여 그분은 “죄를 알지 않았고” (고린도후서 5:21), “죄를 행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전서 2:22), “그분 안에 죄가 없으시다” (요한일서 3:5). 그러나 갈보리에서 거룩한 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며” (요한복음 1:14), 대신하여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되셨으며 하나님 이시기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음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하셨다. 나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죽을 수 있으나 결코 죽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사도행전 20:28). 나는 어떻게 무한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신으로 거하실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골로새서 2:9). 그리고 죄를 모르셨으나, 하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가 되실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하셨다.



---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뛰어 넘는 비밀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예배와 함께 머리를 숙이게 되는 신성한 계시에 속한 사실들이다.

“나는 그 임재 가운데 놀라 서 있네  
나사렛 예수의 임재  
또 얼마나 그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에 놀라니,  
죄인이고, 저주 받았고, 불결한 자.  
아,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나의 노래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  
아,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위한 내 구원자의 사랑이라!  
나를 위하여 동산에서 있었으니  
그분이 기도했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  
그는 자신의 슬픔으로 눈물 흘리지 않았고  
다만 내 슬픔을 위하여 땀이 흐르네.  
그가 나의 죄들과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으니,  
그가 그것들을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네.  
그가 갈보리로 그 짐을 지셨고  
또 고난 받으셨고, 홀로 죽음 당하셨네.”

### “나의 죄악”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 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11-12). — 이

---

구절들을 해설하면서, John Trapp 은 이렇게 썼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지워졌다면, 그는 전가로 인하여 죄인들 중 가장 큰 자인데 (고린도후서 5:20; 이사야 53:6), 우리 죄들 (여기서 그가 자신의 것이라 부른 것)로 인하여 그가 고난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동산에서 그의 쓰라린 고통은 끔찍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은, 그가 그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들을 짊어지셨으므로, 그가 먼저 자기 자신에 의해 구속 받았으며, 그리고 난후 우리가 구속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혼의 고통 소리를 듣도록 허락되었다. 여기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 죄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선포 가운데 보다 특정한 말씀이다. 여기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그분의 것이라 부르셨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 때문이다.

### 말씀하시는 그 한 분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그 한 분은 아무 의심 없이 우리 구원자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0 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므로 그가 끔찍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과 (시편 69:15)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아셨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도 너무 커서 7 절에서 육신을 받으실 준비가 되었고, 두루마기 책 안에 —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7; 시편 40:8) — 라고 기록된 옛 기록에 따라, 그분의 선택하

---

신 자의 구원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11 절과 12 절에서 그분의 깊은 고통에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2:27-28 에서 보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이다. —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 이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슬픔과 비탄으로 들어갔는가? 여기 그 대답이 있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실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대속자로서 받으셨던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결코 고난 받으실 수 없었다. 공의는 결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언 17:15; 출애굽기 23:7).

## 그분께 경배함

시편 40:12 에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경배하라. —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 싸고.” 그분은 사방에 재앙으로 둘러 쌓였다. 셀수 없는 비통함이 우리 위대한 대속자와 죄를 지신 분을 둘러 싸

---

다. Spurgeon 은, “우리 죄들은 무수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의 비통함도 그랬다.”고 하였다. 모든 그분의 백성의 쌓인 모  
든 죄들은, 모든 때,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 죄를 알지도 않았고 죄를 행하지도 않  
았던 분이 죄가 되셨다!

그분은,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라고  
외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들이 그분 위에 놓여졌  
고,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  
여 죄가 되셨다.” 다시 Spurgeon 의 말을 인용하겠다. “구원자께  
죄가 전가된 것은 사실이었고 인자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열  
굴을 바라보는 것을 금하게 하였던 견딜 수 없이 부서지게 하는 고  
통과 고뇌로 그분을 굴복하게 하는 공포가 나타났다.

만약 죄인들의 친구가 자신을 낮추어서 그 자신 위에 우리 죄들을  
모두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죄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무엇을 하였겠는가? 아, 축복된 성경이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아, 완전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어  
린 양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죄가 지옥에서 그것을 영원히  
예리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큰 떨림의 공포  
를 견디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깊이여!

### 부서진 마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 어두운 갯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죄가 되실 줄을 예상하셨음에  
도, 우리 구원자의 거룩한 혼이 그분 안에서 떨어졌으며, 그분의 거  
룩한 마음이 깨졌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분이

---

굽히지 않는 공의와 상상을 초월한 가차없는 진노에 대한 고통을 예견하면서, 우리 사랑의 구원자의 혼은 속으로 너무도 부서졌으므로 그분은 슬픔에 잠겨 놀랐고, 엄청난 무게로 피땀을 흘리게 되었다. 그분의 기력은 쇠하였으며, 그분의 영은 침몰하였다. 그분은 비통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들을 짊어지시며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6, 14-15 에서 보는 것 같이 그분은 외치셨다. —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찢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겿세마네에서 그분이 피땀을 흘리게 하였던 것은 단순히 우리 죄들에게 지워진 빛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예상이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 그분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시면서 그분의 아버지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시편 22:1-3).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말씀일 수 없다고 한다. 실로, 몇 사람은 그들의 어리석은 오만함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고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감히 무시하려 하는데, 히브리서 10 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 구원자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

“이런 일들은, 하여간 거룩하신 예수께 합당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으나, 그분이 언급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이며 결과적으로 그분의 혼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이 우리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 비통함을 지고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울부짖음이 우리 죄들에 대한 제물로서 드러졌을 바로 그 시간에 있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

시편 69 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분이 우리 축복의 구원자 이시라는 데는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시편의 말씀은 그분께 돌려진다 (시편 69:4—요한복음 15:34; 시편 69:9—요한복음 2:17, 로마서 15:3; 시편 69:21—마태복음 27:34, 48, 마가복음 15:36, 누가복음 23:36, 요한복음 19:28-29; 시편 69:22-23—로마서 11:9-10; 시편 69:25—사도행전 1:16, 20). 이 시편의 시작 구절들은 분명히 우리 구속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1-4).

5 절은 약간의 정직함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인할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던 분의 외침을 들어보라. —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집 셈”이다. “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각주에서 번역된 것처럼 “유죄임”이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것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집처럼 우리 고집을 가지시고 그분의 유죄처럼 우리 유죄를 가지셨다.

첫째 아담은 그의 고집과 유죄를 숨겼다. 마지막 아담은 우리 것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신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여기, 십자가 위에 들려 나의 백성을 위한 문도 없이, 그들의 대속자로서,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내 죄들이 드러나 보이기를 갈망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 받으니, — 나의 죄들, 나의 백성의 죄들이 모두 이제 영원히 나의 피로 더러운 것이 씻겨졌다.”

이 얼마나 겸손한가! 여기 계시된 것이 어떤 은혜인가! 얼마나 견줄 수 없는 사랑인가!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치욕을 그분 자신계로 가져가셨다! 죄를 알지 않았던 분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은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렇게 외치셔야 했다! —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탄원

---

하지만, 그분의 혼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였고 탄원하였다. —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시편 69:6).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복음의 약속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로마서 10:11),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 하리라.” (베드로전서 2:6) 이다.

그리고, 우리 죄 속량의 구원자께서 다시 마치 우리에게 우리 죄들이 단순히 그분께 부쳐진 것인듯, 우리 죄들을, 우리 치욕들을 그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단순히 우리 죄들이 그분의 것인듯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신의 혼을 제물로 만드셨을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 “내가 주를 위하여 뉘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주께서 나의 뉘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뉘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69:7, 19-20).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신이 지금 막 읽은 것을 깨닫는가? 우리 보증이시고, 당신의 모든 죄의식과 죄를 지시고, 당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받으시며, 우리 죄 짐 진 분인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는가? — 당신을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 당신의 대속자이고, 당신의 보증과 당신의 구원자로서 그분을 바라보는가? 당신은 그분을



---

그와 같이 신뢰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혼이 당신을 위한 그분의 큰 사랑으로 몹시 기뻐해야 한다. 그분을 양망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에 대한 그분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들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그런 실질적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셨다! —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시편 69:5).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 편의 시편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분은 우리의 우매함을 그분의 우매함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그분의 죄로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의 사악함을 그분의 사악함으로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 유죄를 그분의 유죄로 만드셨다!

이것은 우리 거룩한 구원자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확대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도 무한히 위대하여 그분은 우리 죄들을 바로 그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동일한 경이롭고, 놀라운 공훈과 사랑과 은혜로,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바로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다.

그렇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이다. 나이든 야곱과 함께, 그가 레바논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박해자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한다.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창세기 30:33). 욥과 함께 우리는, “내가 내 의를 굳게

---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기 27:6). 왜? 그리스도께서 주 우리 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구속과 의로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로마서 8:1-4, 33-39). 곧,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28).

## 죄와 대속

죄가 얼마나 무한하게 사악한 것임이 분명한지!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에게서 발견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마다, 그분은 자비함이 없이 그것을 벌하실 것이다.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심판의 날까지 어둠의 사슬 속에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 (베드로후서 2:4; 유다서 6).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주의 임재로부터 쫓겨났다 (창세기 3 장).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대의 사악함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진노의 홍수 속에 전 세상을 파멸하셨다 (창세기 6 장). 사악한 두 쌍둥이 성, 소돔과 고모라 위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 돌을 퍼부으셨다 (창세기 19 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유일한 아들, 매우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죄를 보셨을 때, 그분을 버리셨다! 경계하라! —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시면, 당신을 지옥에서 영원히, 자비함이 없이 멸하실 것이다!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께 피하라!

---

우리 보증으로서 아버지께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였는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이나 복음의 요구를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맞추셨고 만족시키셨다.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의 순종의 절정에서 행해졌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에 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구원은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죽으심 모두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분의 행하심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로마서 5:19).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들을 위하여 속량을 이루셨다 (로마서 5:11).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조차도, 우리 보증은 순종함에 남아 계셨다. 이 외침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보았기 때문이나, 그것이 사실임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Robert Murray M'Cheyne).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보증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외침은 전형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 여기 견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면서, 단 한 방울의 공혹함도 없이, 하늘로부터 한 번의 미소도 없이, 혹은 그분의 혼을 위한 한 번의 위로도 없이, 그리스도는 그분을 버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견디셨던 지옥의 깊이가 얼마나 무한한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면 지옥이 무엇

---

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버림 받으셨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버림 받으셨다. 공의는 만족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죄들이 그분께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셨고 그분 위에 그분의 진노의 모든 충만함을 퍼부으셨다 (예레미야애가 1:12). 하나님은 그분께 우리 죄들이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온전한 의를 입히시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시며, 그분이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

왜 그분은 버림 받으셨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변함 없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도록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속자이며, 우리의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버림 받으셨다!

---

## 75 장. 구원자의 장례—마가복음 15:39-47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  
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  
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  
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  
가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  
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  
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  
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  
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  
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5:39-47).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  
건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사람의 죄  
속량의 희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이 한 사건에 달렸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의

---

죽으심에 대하여 말한 것이 그렇다면, 그러면 죄인들을 위한 희망이 있다. 만약 이 일들이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소망은 없다.

이 사실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죽음의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에 의한 논쟁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의 때의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무수히 많았던 비웃는 사람들은 그분이 결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둘러대려 시도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가셨고, 모두가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했을 것이다. 얼마나 우매한지! 우리 앞에 있는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증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실을 확증하도록 지혜롭게 안배하셨음을 본다. 로마 백부장과 구원자를 따랐던 여인들과 그분의 시신을 장사했던 제자들의 연합된 증언은 그 문제를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게 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 속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조롱 섞인 재판과 십자가형의 시련을 거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에 까지 순종하게 되심으로 그분 자신의 주권적 뜻에 대한 승리 행위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그분을 보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자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죽으셨고, 땅에 장사되셨다.

## 놀란 백부장

---

이 단락에서 명백히 나타난 첫 번째 사항은 로마 백부장의 놀람이다. —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39 절).

이 백부장은 군병들의 부대의 우두머리였던 로마 병사였으며, 그 임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편의도 주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를 지키던” 그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에 대한 그들의 가증할만한 조롱을 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으로 그분을 굴욕스럽게 하였고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빌라도 앞에서 행해졌던 조롱 섞인 재판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분을 치고 고문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나무에 못박았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당당한 행위를 목격하였다. 그들은 모두 어둠의 세 시간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지진과 무덤이 열리는 것을 듣고 느꼈다. 그들은 모두 주의 일곱 마디,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시면서 했던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하였다. 마태는 우리에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7:54).

백부장은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빌라도와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확증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배치되었다.

---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44-45 절).

주 예수께서 정말 죽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불러갔을 때, 나는 거의 그의 떨리는 보고를 들을 수 있다. — “저는 그가 큰 소리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 ‘다 이루었도다!’ —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았던 것을 그분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내 부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물이 피와 섞여서 그의 옆구리에서 솟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보고를 마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다”고 말씀한다!

이 백부장은 또한 우리에게 참회 하여야 할 참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여준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10). 이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선고는 단순히 법적 선고였다. 그는 그의 행위에 대한 회개와 비통함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비통이



---

었으며, 그것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의 사망 가운데 끝난다.

법적 공포,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자각이 아니다. 참 회개는, 참 회오는 죄의식과 공포의 느낌 그 이상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비통함이다. 그것은 당신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같은 편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옥에 가기 합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많이 있다. — 참 회개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은 죄 사함, 의의 성취, 심판의 완성에 대한 복된 신념이다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6:8-11). 이 회오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 충성된 여인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40, 41, 47 절).

심판과 사망에까지 그의 주와 함께 기꺼이 갈 것이라고 자랑하였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나? 모두 똑같은 말을 하였던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그 장면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요한을 제외한 그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전부 가버렸다. 그러나 이 충성된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충성되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를 따라 갔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을

---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은 그 혐오스러운 날의 모든 공포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고, 부활의 그 아침에 거기서 보았다. John Trapp 은 말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방해 받지 않았다. 죄로 인한 비통함 조차도, 만약 우리가 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면, 죄로 충만한 비통함이고, 그 때문에 비통해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거대한 자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는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충성된 여인들의 이 무리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한다. 이 두 가지 사항 안에서 그것들은 믿음의 고귀한 예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1. 그들은 주를 따랐다. — 그분의 은혜와 권능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분의 큰 용서를 체험하였기에, 이 여인들은 구원자를 따랐다. 그것이 믿음이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믿음은 많이 용서 받은 자들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따른다.
2.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중들었다. — 이 귀한 여인들은 우리 시대의 여권신장론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 여인들은 숙녀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알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주의 교회와 왕국 안에서 교사나 설교자가 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엄격히 금지

---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었다 (누가복음 8:3).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상을 위하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다. 기쁜 사람은 그런 아내와 어머니를 찾아볼 수 있는 남편과 가족이다. 여인들이 주께 하듯 그들의 일을 알고 그것을 충성되게 하는 교회가 기쁜 교회다. 엘리사벳, 마르다, 마리아, 도르가, 루디아, 그리고 뵈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택정한 여인들로서 우리 앞에 모두 보여지며, 그들 안에 그분의 백성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

### 비밀 제자

그리고 지금 전야가 왔을 때, 예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또한 기다렸던 아리마대의 요셉, 존경 받는 공회원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갔으며,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사망하였는가에 놀랐으며, 백부장을 불러서, 그분이 사망한지 오래 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서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요셉에게 시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서 세마포로 감쌌으며, 그분을 바위에 깎아 만든 묘 안에 그분을 높였고, 묘의 문에 돌을 굴러 놓았다 (42-46 절).

나는 성령께서 신성한 역사의 기록 안에 아리마대의 이름과 일을 기록한 것을 매우 감사한다. 우리는 사실상 그가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유대 종교 공회, Sanhedrim(-in)의 회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

---

에 주 예수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요셉은 비밀한 제자였지만, 실로 참 제자였던 자이다 (요한복음 19:38).

지금까지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후로 하나님의 책 안에는 그에 대하여 그 외에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시각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하여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이 언급될 수 있고 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세 가지 사항을 여기서 보여 주기를 원한다.

1.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다른 제자들 중 아무도 요셉이 했던 것을 하려 주변에 없었다. 아마도 그 외에 아무도 요셉처럼 준비되어 빌라도의 이목을 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그로 인하여 성경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이사야 53:9),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그 자신의 새 무덤에 장례 하기 위하여 한 부자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의 위험 가운데 있지 않음을 배우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방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2. 주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소유하셨다.

---

비밀스런 제자들이 언제나 의심되는 제자들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열왕기상 19:18).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칠천 명을 이스라엘에 갖고 계시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주님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많은 숨겨진 자들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들을 갖고 계시다.

많은 말들이 이 사람의 실패와 약함에 대하여 언급될 것이지만, 요셉의 믿음은 모든 방면에서 가장 괄목할 만 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약할 때 강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자가 공포에 떨었을 때 담대하였다.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을 때 그분을 존귀하게 하였고 그분을 고백하였다. 요셉은 그분의 시신이 차디찬 시신이었고 그분 자신의 피와 다른 사람들의 침으로 뒤덮였을 때,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으며 자신을 그분과 함께 분별하였다.

### 3. 요셉은 세마포로 주의 시신을 감쌌다.

이 세마포는 우리 구원자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흠 없는 의,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입혀진 의의 상징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계시록 19:8).

### 존귀한 무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46 절). — 주 예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셨다. 하지만, 그분은 성경이

---

미리 말씀한 것과 똑같이 부자와 함께 그분의 무덤을 만드셨다. 그분은 모든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다. 그러나 그분의 시신이 무덤 속에 누여 졌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겨질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 무덤 위에 특별한 존귀를 두신다.

그 사실은 우리가 모두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조만간 죽게 될 것이다. 누군가 우리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우리를 차가운 땅 속에 묻으며, 우리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기억하라, 이곳이 우리 주께서 한때 누우셨던 곳이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분이 사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았다.

결과적으로, 사망은 공포가 아니다. 무덤은 찌르는 아픔이 없다. 우리가 침례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땅의 벌레들이 우리 육신을 먹을지라도, 하지만, 부활 때에,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속자를 보게 될 확신이 있다.

---

## 76 장. “안식일이 지나매”—마가복음 16:1-8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1-8)

“주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없는 험오스런 상태에서 세상을 끌어내셨고,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날에 그분의 백성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끌어내셨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10).” 그것이 John Trapp 이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 대한 그의 해설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풍성한 복음 진리

---

들과 실질적인 영적 공과의 폭발이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일곱 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쓰시기를 바란다.

## 1. 안식일이 지났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장에서 읽게 되는 첫 번째 사항이다. — “안식일이 지나매” (1 절). 물을 필요 없이, 이것은 구약, 유대인 안식일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이제 일요일 아침, 주의 첫 번째 날의 여명이 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특정한 날에 사망에서 살아나시게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이제 지나갔고 은혜의 날이 밝았다는 것을 선포한다!

마태복음 28:1 을 보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구절이다. 우리의 흠정역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는 것을 본다. 더 나은 번역은 아마도, “안식의 끝에, 안식을 향한 미명이 시작되면서, 마리아가 왔다.” 사실,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은, “안식일 전날에, 미명 때, 안식의 첫 날을 향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왔으며, 다른 마리아도 무덤을 보러 왔다.” 이것이 마태복음 28:1 의 의미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을 때, 율법의 옛 안식일은 끝났고 은혜의 새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셨다. —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로마서 10:4) —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라디아서 3:13). — 그리스도



---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로마서 7:4). 언어로는 더 분명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런 가장 아름다움 그림 중 하나가 여기 마가복음 16:1에서 발견 된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지났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더이상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격히 금하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16-17).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복된 안식일을 지키므로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면 율법의 멍에 아래 수고할 수 없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쉬게 된다. 그 두 가지를 절대로 동시에 할 수 없다.

안식일은 지났는데, “안식일의 주” (마가복음 2:28)께서 그분의 일에서 쉬셨다 (히브리서 4:10).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는 율법의 법적 안식일로 상징되고 예표되었던 그 안식을 믿음으로 지킨다 (마태복음 11:28-30; 예레미야 6:16).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일이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2절). —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처럼, 보다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역주: 영문 KJV의 경우 마가복음 1장 2절은 ‘the first day of the week’으로 번역되어 있고, 마태복음 28:1은 ‘the first day of the sabbath’로 되어 있음). 세상의 첫째 날이 “첫째

---

날”(창세기 1:5)라고 번역되었으므로, 우리 주의 부활의 날은 “안식 후 첫 날”이라고 불린다. 그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날, “의의 태양”이 그분의 날개를 치유하고 떠오른 날(말라기 4:2)은 은혜의 새 창조의 시작, 영화롭게 됨의 시작, 그리고 주의 택정한 자를 위한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었다.

## 2. 우리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사랑 같은 권능은 모든 세상 안에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겁 많고, 작은 여인을 그 자녀를 지키려 거대하고 무장한 사람과 싸우도록 만들 것이다. 남편의 사랑은 그의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게 할 것이다. 현자가 말했듯이,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아가 8:6-7).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편의 그의 아내를 위한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제시하신다. 그 사랑은 심지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초월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께 존귀를 드리고 그분의 시신을 보살피기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아침 일찍 가는 세 여인의 작은 무리를 본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1-2 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하라. 이 여인들은 아침의 이른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일반 범죄자로 공개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 나라 전체에 의해 멸시 받고 거절되었으며, 특별하게

---

지명된 병사들의 감시 아래 그 시신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봉인하였던 사람의 무덤에 왔다.

무엇이 이 여인들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주었는가? 이 귀한 여인들은 주의 용서하시는 긍휼을 맛 보았다. 그들은 그분께 큰 감사의 느낌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께 사랑의 큰 빛, 그들이 결코 갚지 못할 빛을 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주를 믿었으며, 그분을 믿었기에 그분을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그들 자신의 삶에 해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그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무덤에 왔다.

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강한 사랑을 거의 볼 수 없는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삶에 기꺼이 해를 입기를 자청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강한 사랑으로 감동 받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거의 만날 수 없는가? —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위험을 기꺼이 직면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분노하는 폭풍과 포효하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는가?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답변 밖에 없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빛과 책무를 막고 끄떡하게 낮게 느끼게 보인다. — 죄에 대한 낮은 느낌이 언제나 은혜에 대해 낮은 느낌을 낳을 것이다. — 빛에 대한 낮은 느낌이 언제나 책무에 대한 낮은 느낌을 낳을 것이다. — 용서에 대한 낮은 느낌이 언제나 사랑에 대한 낮은 느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누가복음 7:47).

---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존귀를 돌리도록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5:14). 구속 받은 죄인들이 그들의 구원자와 서로에게 스스로 헌신하도록 감동케 하는 것은 혼 안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체험한 은혜가 실행되도록 감사를 일으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충성되게 한다. 믿음은 사람들을 충성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이 살도록 한다.

### 3. 우리 두려움의 대부분은 쓸데 없는 두려움이다.

일요일의 이른 아침에 무덤에 걸어갔을 때, 이 여인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과 관련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두려움은 쓸데 없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결코 직면하지 않았던 고난을 기대하였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3-4 절).

우리가 이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과 얼마나 같은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어날 줄로 두려워하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모두 내일의 문제들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불신은 철저히 근거가 없음이 입증된다. 우리 주는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6:25-34).

---

우리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실제로 일어났을 어떤 것을 염려하면서 마루를 천천히 걸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주의 임재와 공급과 보호에 대해 언제나 자신을 갖자.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 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거인은 단지 어둠의 그림자일 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  
그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라.  
마음이 쇠할 때 고난의 날을 통하여,  
네 길이 위험에 직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공급하리니,  
너의 필요가 거절되지 않을 것이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지친 자여, 그의 가슴에 기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리라.

#### 4.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친구들이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5-6 절).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남자의 형체를 한 천사를 보았고, 그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천사는 속히 그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는 하찮게 보였다. 결국, 주께서 더이상 천사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히브리서 1:1-3). 천사들은 더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

나 우리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날, 갑자기 그들의 모두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이 장엄하고 거룩한 존재들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땅의 사망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천사들은 알곡을 모아 창고에 모으고 잡초를 태우기 위하여 쟁을 것이다. 천사들이 택한 자들은 하늘로, 영광으로, 존귀로, 그리고 불멸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남겨둔 자들은 치용과 영원한 멸시 속에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한 마리 한 마리 모으실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 (누가복음 15 장). 천사들은 구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 집회들을 방문한다 (에베소서 3:10).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섬기려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다 (히브리서 1:14).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며 동역자들이다 (히브리서 12:22-24).

우리가 이 인간 상태로 사는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친구들일지 우리는 결코 모를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 날 때, 우리는 천사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우리 혼들에 대한 친구들로서 그들에게 안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축복의 영들에 속하여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다.

**5. 하나님의 공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영광의 대속자의 희생적인 죄 속량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만족 되었다.**

---

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라. —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6 절).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구원하시는 여호와이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며, 당신과 나처럼 똑같이 진짜 사람이다. 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들을 지시고,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모든 진노로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임 당하셨다.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들을 짊어지신 그 한 분이 이제 사망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함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고,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셨으며,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에 품으신 죄를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영원히 효험 있게 없애셨다! 율법의 손으로 무덤을 봉인하기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굴러졌던 돌이 하나님의 손으로 굴러 치워졌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하신다. “나는 노함이 없나니” (이사야 27:4).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히신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분께 대가 없이, 심지어 담대하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또 함께 열납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갖고 오게 하신다 (히브리서 10:18-22).

---

## 6.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다.

7 절을 보라. 여기에 불변한 은혜, 흠 없는 긍휼, 무한하고 불멸한 사랑이 있다. —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 그분을 버렸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그분이 그들보다 앞서 가실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한 마디로, 그들은 모두 용서 받았고,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고, 그분이 그들의 빛을 갚았으며, 그분이 그들의 죄를 없애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단절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 관점은 바로 여기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히 불법과 범죄와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못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창피한 불신인가! 우리는 “그분은 인애를 기뻐하신다”(미가 7:18-20)는 것을 잇는다. 그분의 용서는 대가 없고, 충만하며, 영원하다.

## 7.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분은 충성되고 진실하다 - 신뢰 받으실 하나님!

7 절을 다시 읽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



---

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충성이고 참”이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분은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 하나님의 자녀보다 먼저, 당신의 생의 모든 날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큰 슬픔 속으로 빠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에 가기 전에 가셨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썼다…

“주 예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사셨을 때 중시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리셨던 한편, 그분의 사랑의 확신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위로하도록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은, 그로써 그분이 사망에서 다시 사셨으며 (로마서 1:4), 그분의 변화된 상태가 그분의 사랑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예수시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제시다. 아!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위하여!”

---

## 77 장.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마가복음 16:9-14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 16:9-14).

수 년 전, 나는 한 노파, 믿는 여인이고, 그 나이로 인하여 그녀가 쇠하기 시작했고, 특히 기억력이 많이 손상을 입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 한 번은, 그녀가 성경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은 오직 한 귀하고, 짧은 부분이 그녀에게 남았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곧, 그 중 일부도 그녀의 기억에서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 본분 중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

종종 조용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 “나의 의뢰한 자를.” 그녀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기 위하여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단 한 마디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를…그를…그를.” 그녀는 성경 전체를 잊었지만, 한 마디만 기억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한 마디 안에 성경 전체를 가졌다. — “그를.” 하나님의 책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여야 한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분” 위에 두시기를 바란다.

마가의 복음서의 이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활을 증명하거나, 부활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 여기서 성령의 의도만은 아님이다. 이것들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알도록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단락에서 나에게 충격을 주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서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많은 방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사실로 성경에 계시된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만약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틀림 없는 육체의 부활이 입증될 수 없다면,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

먼지로 부숴져야 한다. —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구속이 없고, 속량이 없다. —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구속이 없고, 사함이 없다. —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구속이 없고, 구원이 없다. —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구속이 없으며,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들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 여섯 구절 안에서 성령은 부활하신 주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신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 나타나심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세 가지만을 언급한다.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셋째로 열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공훈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망에서의 부활을 완전히 성취되었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만드셨다. 이 사실은 이미 주장하였던 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복음 안에 계시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서든지 넘어지기 때문에 큰 공훈의 문제이다. 부활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구속의 인침, 우리가 칭의를 받음, 그분의 아들의 찬양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 공표로 우리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없애는 최고의 증거였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큰 중요함을 둔다 (로마서 1:1-4; 4:25; 8:34; 에베소서 2:4-6; 히브리서 13:20-21; 베드로전서 1:3).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한 많은 수의 증인들은 실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마가복음 16:9 와 요한복음 20:16-18 — 마태복음 28:5-10 — 누가복음 24:34 와 고린도전서 15:5 — 누가복음 24:31; 요한

---

복음 20:6 — 요한복음 21:1 — 고린도전서 15:6 — 고린도전서 15:7 — 마태복음 28:16-17 — 마가복음 16:14-15 — 누가복음 24:44 와 사도행전 1:4 — 사도행전 1:3-8 — 누가복음 24:50 과 사도행전 1:9-12 — 사도행전 9:5 와 고린도전서 15: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다시 사셨으며 그분이 위하여 죽으셨던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주적인 왕국의 보좌 위에 영광 가운데 통치하신다. —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9).

### 자격 없는 용서

이 단락에서 나에게 충격을 준 두 번째 것은 우리 주의 죄에 대한 용서는 자격 없는 용서라는 사실이다. 분명히 이것은 그것을 체험 하였던 모든 죄인의 마음 속에 증거가 된다. 성경 안에 기록된 은혜와 용서에 대한 그분의 많은 은혜로운 표현 안에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더 좋은 그림이 “그 안에서 일곱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를 주께서 다루시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림보다 없다.

주 예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사랑하는 요한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가복음 16:9).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에 주목할만한 사실로써, 충만한 교훈으로써 기록되어 있어 보인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을 예로써 보여 주신다. — 구원은 절대적이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은

---

혜에 속한 문제이다. 구원은 그 전체에 있어서 대가 없는 은혜의 문제이고, 결코 우리에게 의해 제약되고 좌우되지 않고, 결코 우리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서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처녀와 구원 받은 매춘부들 사이에, 구원 받은 학자들과 구원 받은 술주정이 사이에, 구원 받은 바리새인들과 구원 받은 매춘부들 사이에, 혹은 구원 받은 왕자와 구원 받은 빈곤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마지막 된 자가 처음이고 처음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들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였다. 우리는 모두 모든 은혜를 받았다. —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 가운데 모든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0-31 에서 읽는 것처럼, —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무엘상 2:30). 마리아는 그분의 부활을 예상하면서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주께 기름을 부었다. 마리아는 그분이 사셨을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을 존귀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

십자가에 있던 마지막 사람이었고 무덤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살아나신 주를 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우리 주께서 명백히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잘 구원하셨다. 그분은 큰 죄인들에서 큰 성도들을 만드신다. 한 때 일곱 귀신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분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우시고, 그것은 그분의 영의 모든 충만이다. 한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을, 그분은 가까이 데려 오신다.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였던 자들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타락한 인성의 오물 더미에 거지처럼 앉아 있었던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 들어 올리시고 왕들 가운데 그들을 앉히신다. 그리고 우리 죄들과 불법을 그분은 더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8:1-4; 고린도후서 5:17).

## 비길 데 없는 친구

이 단락에서 내게 충격을 주는 세 번째 사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길 데 없는 친구라는 사실이다. 실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분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시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믿지 않고, 냉담한 제자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 사건인가.

마가는 세 번 주의 제자들의 불신을 묘사한다 (그 자신을 포함하여!) 주께서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역시 믿지 않았다. 마침

---

내, 그분은 열한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나무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운 거절할 수 없는 행위임을 아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도서 3:14).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잘못을 행하는 자녀들을 그들의 잘못된 길로부터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책망하고 야단치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구원은 더이상 회개 후의 우리에게 그 이전보다 더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며” (베드로전서 1:5),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렇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종종 성령은 우리에게 사례와 교훈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자신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체험이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 안에 많은 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강한 자 안에 큰 연약함이 있다. 가장 곧은 자 안에 큰 부패가 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믿는 자 안에 큰 불신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우리가 깨닫도록 하셨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되며,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인내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10).

악에서 선을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제자들의 가장 끔찍하고 강한 의심과 불신은 그들이 한 때 확신 받았



---

던 그들의 증거에 대한 진실함에 대한 가치 그 자체이다 (시편 76:10).

---

## 78 장. 위대한 위임—마가복음 16:15-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15-18).

이 말씀은 그분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의 마지막 말씀으로써, 당신과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으로써,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써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특권과 책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은 사도들만의 특권과 책임이 아니거나, 복음 전도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이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종들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의 시대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 큰 특권이고 책임이다.

### 위대한 위임

---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 절). —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의 중요성과 포괄성과 깊이를 충분히 강조하여 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주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위임”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에게서 주신 우리 위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하다!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위임”이라고 불린다. 모든 세상이 복음이 없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땅의 사방에 있는 아담의 아들 딸들은 동일하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소망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한 채, 타락하고, 길을 잃었다. 문명화되든 문명화되지 않든지, 아프리카, 중국, 혹은 영국, 멕시코, 캘리포니아, 아니면 켄터키에 있든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모두 진노와 정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위임”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다. 우리는 자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위임이 아니다. 우리의 위임은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인한 구원의 충만한 영광스러운 물결을 영원히 속박된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이사야 49:1-6).

---

우리가 전하도록 보냄 받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며, 전체 복음이다. 그분은 그 안에서 또 그로 인하여 구속과 은혜의 모든 축복들이 그분의 택정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한 분이다 (민수기 6:22-26; 사도행전 20:27; 고린도후서 2:2; 13:14).

복음 전파는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운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의 창조의 화려함 가운데 모두에게 계시되었다. 그분의 율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쓰여졌다. 하지만, 로마서 1장과 2장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한다. 모든 사람이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양심이 요구하는 것에 부합할 능력이 없다. 본성과 창조의 빛은 결코 어느 누구든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정하셨다. 복음이 없이 아무도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 성령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이기 때문에 (로마서 1:15-17), 복음의 전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18).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다 (고린도전서 1:21; 에베소서 1:13; 데살로니가후서 2:13-14). —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

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18).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인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도구이다 (베드로전서  
1:23-2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 절) —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다. 주의 구속 받은 자는 그분의 은혜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일이다.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로 사신 바 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믿음의 은  
사를 보장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복음 전파 없이는 구원  
받게되지 않을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택정한 자들  
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천사들  
이나, 개구리들이나, 바위들을 보내실 수 있으며, 혹은 모든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선택 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심으로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정하셨다! 그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그분이 부여  
주셨는가!

자는 종종 내가 Dick Clark 와 Ed McMaan 의 일을 기꺼이 갖게  
되기를 생각했다. 나는 내 수중에 어떤 돈도 없다. 하지만, 나는 다  
른 사람의 집에 천만 불짜리 수표를 갖고 갔던 사람임을 확신하고  
싶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갖고 싶은 큰 일일 것이다.

---

그러나 당신과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더 좋은 일을 갖고 있다. 우리는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백성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3:8-11).

주의 구속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 구속자에 대하여 또 그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하여 도처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하도록 하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일에 가차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위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모두 하도록 하자.

### 일반적인 부르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 절). —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영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산출한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하지만, 그 효험 있는 부르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복음 전파가

---

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구속 받은 죄인들을 택정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해지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Richard Sibbes가 한번은, “모든 선한 것들은 전도로 온다.”고 하였는데, 그는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가져간다. —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죄인이든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이다 (히브리서 11:1-6).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한 가지 필요한 것이다. —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크게 중대한 문제이다. —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의 물 속에서 씻음 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았다! 수 많은 사람들이 매 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

---

예수 그리스도께 결코 경배를 드리지 않았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서 먹지만, 그들은 결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다. 우리 혼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는 것은 교리적 정통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10-13).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영원히 포로 된 죄인들 앞에, 그분만을 그들의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머리 숙이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영원한 진노에 대한 경고를 제시한다. —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얼마나 두려운 생각인가!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참되고 충성되며, 사람들의 혼에 참되고 충성되었을 자들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고 벌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 그분의 귀한 아들의 공로로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

분은 당신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신명기 32:29).

## 복음의 고백

16 절을 다시 보고 그 침례, 믿는 자의 복음의 고백,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고백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배워라. —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침례는 누구도 구원하지 않는다. 침례는 죄를 씻어 없애지 않는다. 침례는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침례는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 침례는 우리 혼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께 순종은 나란히 간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없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복음의 이 복된 계명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을 필요가 있는 일곱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 침례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따른다. 그것은 믿음을 앞설 수 없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침례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믿지 않는 의식주의자를 두 배

---

나 더 이전보다 더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유아 침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손상케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며 성장할 때,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충성되게 가르침 받기 보다는, 믿음 없는 소망을 그들에게 준다.

둘째 — 믿는 자의 침례는 그리스도 우리 주께 순종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답변이다.

셋째 — 침례는 믿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복음의 그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된 그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공개 확인이다. 믿는 자의 침례는 세상과 그 종교로부터 구분되는 선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향한 위임의 서약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에 대한 우리 소망의 고백이다.

### 은혜로운 확증

17 절과 18 절에 주어진 크고, 은혜로우며, 격려하는 약속들을 보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큰 장애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견디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무서우며,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어떠한지, 우리가 수고를 포기하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 없는 확증이 될 우리의 수고와 능력에 참여할 신성하고, 초자연적이며, 전능한 능력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신다.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은사의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표적의 세대, 방언, 기적들이 사도 시대와 성경의 완성으로 끝났던 것을 강조되어 천명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의 형성 시대인 사도 시대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늘날 이런 사도적인 은사를 받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성경의 기록 안에서 그분의 감동 받은 대변인들로서 입증되는 은사들이었다 (히브리서 1:1-2; 2:3-4).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더이상 꿈과 이상, 표적, 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방언을 말하거나 혹은 나의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누구에게든 확신시키려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완전한 것이 왔으므로 (하나님의 책이다!), 부분적이었던 것은 없어졌다. 기적들이 일상의 사건들이라면, 그것들이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지 물리적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영적 영향은 사도 시대에 행해졌던 물리적 기적들보다 오히려 더 기쁘고 복되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

복음을 전하러 모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와 끊임 없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확증하  
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다.

우리 믿음이 너무도 약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  
씀을 확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큰 연민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에 낮추심은 큰 긍휼이다. 그분의 시각은 언  
제나 우리 위에 있다. 그분의 팔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뻗어 있  
다. 그분의 권능은 명백히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다 (이사야  
59:19).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다음에 주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 들었던 사람들”을 보라. 믿음의  
권속은 기적, 그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계시된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는 신성한 기적의  
집이다. 그분의 백성은, 주의 은혜로운 능력으로 일곱 귀신을 쫓아  
내신 자들에게 나온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는 사  
람이다. 한 때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였던 입이 지금은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다! 그분의 백성은 매일 이 세상의 뱀을 들어 올리고  
사악한 자의 죽음의 혼합 음료를 마시도록 강요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뱀에 물리고 경건치 않은 자의 독으로 다치지 않는  
다!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의 마비로 병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사람이며, 나사로처럼 사망에서 살아나게 되  
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며, 그로  
써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죄의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고 무능력

---

한 사람이고,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한 자들 위에 안수하며,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이 위대한 위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믿는 자 각자는 그것을 자신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각 복음주의 교회는 이것이 비록 그 한 집회에게만 특정하여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교회에 주어진 큰 위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 79 장. “그 후에”—마가복음 16:19-20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19-20)

이 두 구절에 있는 각각의 단어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읽어야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것들로 인치실 것을 기도하라.

### 마가의 결론

“...후에” — 그것은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마가는 여기서 그의 복음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그 결론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결론이다.”고 말한다. 결론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는 이야기를 마칠 것인가? 계속 읽어보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 마가가 어떻게 주,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지 주목하라.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치욕의 이름, “예수”를 입으셨다. 그러나 여기서 마가는 “주”라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존경의 호칭 그 이상이다. 그것은 존경의 호칭으로서, 그 호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

도를 “한” 주가 아니라 “그 주”로서, 많은 주들 가운데 한 분의 주가 아니라, “그 주”로 규정짓는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주의 자격에 대하여 계속 서술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 존경심을 갖고 언제나 말하도록 하자.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거나, 그분께 존귀를 가져다 줄 의도가 없이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다루는 것이다. —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마가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말할 때 가리킨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 안에서 그에 의한 영원한 말씀이다 는 것을 안다. 그분이 없이,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해 알게 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추구는 흑암의 공허 속에서 더듬거리는 장님 같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나님-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안에서 계시되실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1-3, 14, 16-18; 고린도후서 4:6; 히브리서 1:1-3).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는 분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만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의해 언급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여기서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것을 특정하여 말하고 있다. 그분은 모든 세상으

---

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분의 교회에 하신 주의 위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그분 자신의 동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들로 그들을 확증하고 그들의 수고에 성공을 주기 위한 주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이 그분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한다 (사도행전 1:2-3).

###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내 혼에 얼마나 완전하게 두근거리는 것인지.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던 분, 나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주신 분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영광 가운데 인자께서 계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환영 받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아마도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영광 가운데 인자가 계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리우셨다.” 그분은 그곳에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로서, “주 우리 의”로서, 우리의 죄속량 제물과 대속자로서,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변호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선주자로서 들리우셨다 (누가복음 24:51; 사도행전



---

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며, 사탄과 마귀들이 그분에 의해 사로잡혔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께 왕관을 씌우셨다.

“그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최고의 위엄과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요한복음 17:2; 로마서 8:31-34; 히브리서 10:11-14; 시편 24:1-10).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비탄과 고통 속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마음과 혼을 위한 축복의 음료이다. —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권능과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이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이다.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이 고난과 염려와 애통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종종 버려진다. 죄와 사망에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타락한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낡아 빠진다. 우리 앞에 사망과 심판과 영원의 기대가 있다. 여기 우리 위로가 있다: — 우리는 우리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그분에게 기대어 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던진다. 우리는 그분의 전능한 품 안에 스러진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다. 우리는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

넘어지지만, 그분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그분은 생명이다!

J.C. Ryle 은, “이런 생각은 실로 복되다! 우리 구원자는, 비록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최고의 친구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처를 향하여 떠난다 (요한복음 14:12). 선주자께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 두루 전파하였다

일단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갔다. —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15). 그들은 전파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 (유일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일(유일한 일)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았던 것을 전파했다: — 복음.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Robert Hawker 가 말한 것처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전체 복음을 포함한다.” “전파하다,” “전파했다” 그리고 “전파하는”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37 회 사용되었다. 매번, 전해진 주제는 예수와 부활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전도도 그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운데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도처에서 전했다. 그것이 우리 수고의 영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 능력의 최선에 이르도록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책무이다.

### 주의 역사

---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 — 그것을 상상해 보라! 그들이 했던 동역 가운데 있는 놀라운 동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동역자 그 이상이다. 우리는 도구들이다. 그분은 일꾼이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팽이 이고 호스이며, 그것으로 그분은 그분의 정원을 가꾸신다. 그분은 그분의 포도원에서 알맞게 보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로마서 12:3; 고린도전서 3:5-9).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끝내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주의 일이다. 그분은 그가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분의 도구를 써서 그가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며, “그로써 어떤 유체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광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일꾼이므로” 그보다 더 존귀해 질 수 없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어떻게 반복해서 보여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읽으면, 역사의 지면 위에 장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9) — 진리의 말씀은 헛되이 전파되지 않는다. 사탄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과 이교도들, 정치인들과 성직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땅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

세대에서 세대로 번성하였다. 하나님은 크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자라게 하도록, 그분의 작은 포도나무가 나게 하였고, 마르고 사막 같은 광야에 씨를 심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취된 이 말씀을 보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아, 내가 묻겠는데, 그분이 행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확증을 보지 않는가?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2:3)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 한 가운데에서, 마치 사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성취되었다.

나는 사십 년이 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 그 모든 날 가운데, 나는 결코 그분이 열지 않으셨던 문을 두드린 적이 없으며, 그분이 내 앞에 갈라 놓지 않으셨던 분노의 바다에 오지 않았고, 그분이 죽이지 않은 대적들을 만난 적이 없으며, 또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셨던 필요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쓰여진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게 허비된 수고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일의 결과를 결코 볼 수 없을 수 있다.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가슴은 끔찍한 교만으로 터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신 그 날에, 우리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빵을 물에 던지고 기다리도록 하자. 많은 날이 지난 후, 그것은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6:6; 이사야 55:11; 고린도전서 15:58).

---

마가의 복음 안에 깨달아야 할 한 가지 말이 더 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 — “아멘.” 그 의미는 “그대로 될 지어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마가는 “아멘”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향하여 말한다. 나도 역시 하겠다. —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향하여. 나도 역시 하겠다. — “아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도 역시 하겠다. —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향하여. 나도 역시 하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아멘”이라고 말한다.

아멘.

---